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 직역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번역본은 공개용으로 변형과 변경이 없는 상태 그대로 복사,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무단인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번역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수정, 보완하였으며, 여러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지난 번역본보다 이 번역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 번역본의 번역문을 볼 수도 있고, 번역본 파일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신약성경 원문 직역'으로 검색하면 제 블로그 '헬라어 원문성경 번역소'에 올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일러두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9.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민교회

박규한 목사

일 러 두 기

충분한 원어 실력을 갖추고 직접 원문을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원문의 형태를 최대한 반영한 직역 위주의 번역본과 그리고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린 의역 위주의 번역본을 함께 보는 것도 유용한 한 방안일 수 있다.

가끔 직역과 의역을 놓고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옳은지에 대하여 논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마치 병과 접시를 두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평가하는 것처럼 기준과 관점에 따라 다르다. 취사선택의 관점에서는 비교우위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사용의 관점으로는 상호보완의 유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언어 사이에는 언어 체계의 차이, 언어 표현양식의 차이, 언어 문화의 차이, 언어 사고방식의 차이, 언어 성격의 차이 등의 다양한 차이로 인하여 넓고도 깊은 간격이 존재한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의 번역본보다 서로 다른 성격의 여러 번역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이 간격을 좁히는데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직역과 의역을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 보기보다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함께 잘 활용할 때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헬라어 원문의 형태를 최대한 반영한 직역 번역본을 의도했으며,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삼아 번역했다.

1. 원문의 형태를 최대한 반영하여 직역에 가장 치우친 쪽으로 번역하려고 했다.

이렇게 원문의 형태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역에 가장 치우친 쪽으로 번역하면서 그 번역문이 많은 경우에 한국어 어법에 맞지 않으며 어색하고 이상하며 투박하고 모호하게 되는 것도 감수했다.

2. 원문의 법과 시상과 능동, 수동과 단수, 복수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려고 했다.

☞ 기존 한국어 번역 성경들은 원문의 시상의 차이를 소홀히 취급하여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미완료과거형이든, 현재완료형이든, 과거완료형이든 간에 거의 과거형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원문에서 시상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번역 성경을 통해서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

(1) 원문의 직설법 현재형의 형태는 번역문에서 현재형이나 현재진행형으로, 미래형의 형태는 미래형으로, 과거형의 형태는 과거형으로, 미완료과거형의 형태는 과거진행형으로 번역하되, 원문에서 사용된 형태대로 번역했다. 예를 들어 원문에서 현재형의 형태(‘말한다’)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므로 일반적으로 그 원문의 현재형을 번역문에서 과거형(‘말했다’)으로 번역할지라도 본 번역본에서는 원문의 형태 그대로 현재형(‘말한다’)으로 번역했다는 것이다.

☞ 헬라어 시상은 시간(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보다는 단순한 진술이나, 진행 또는 반복의 의미가 더 중심적이다. 그래서 헬라어 시상은 직설법에서는 그런대로 시간의 의미를 지니지만, 직설법을 제외한 다른 법들에서는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단순한 진술과 진행이나 반복의 의미가 가장 주된 의미이다.

그러므로 현재진행형이나 과거진행형으로 번역된 문장을 읽을 때 그 안에 계속이나 반복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더 본문의 의미를 풍성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직설법뿐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다.

(2) 직설법을 제외한 다른 법(가정법, 희구법, 명령법, 부정사, 분사)에서는 원문의 현재형 형태를 번역문에서 진행형인 ‘~하고 있다’의 형태로, 원문의 과거형 형태를 단순서술인 ‘~한다’의 형태로 번역했다. 이렇게 원문의 현재형 형태를 진행형으로 번역할 때, 때로는 번역어 단어 자체에 진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형으로 번역한 문장이 어색해지기도 하지만 원문의 시상 형태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원칙대로 번역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헬라어에서는 진행형이 단순히 진행의 의미뿐만 아니라 반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번역한 문장을 통하여 그 반복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3) 헬라어 시상을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완료시상에 대한 것이다. 헬라어의 완료시상은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동작은 이미 끝난 상태이고, 그 동작의 결과가 그 시점에 주어지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즉 어떤 동작이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났고, 그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면 현재 완료이다. 또한 과거 이전에 시작한 동작이 과거 이전에 끝났고, 그 동작의 결과가 과거의 그 시점에 이르고 있으면 과거 완료이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완료시상을 나타내는 형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완료 시상을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완료시상을 ‘~아(어) 있었다.’의 형태와 ‘~아(어) 버리다.’(보조동사 사용)의 형태, ‘~고서(연결어미 사용) 있다.’의 형태 등을 사용하여 번역하거나 또는 아예 과거형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렇게 완료시상을 과거시상과 동일하게 번역하는 것은 완료시상 고유의 특징을 파악할 수 없게 하여 그 완료시상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 없게 하므로 본문의 의미파악에 상당한 제한을 주게 된다.

☞ 헬라어에서 완료시상과 과거시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창문이 열린 것을 과거시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창문이 열렸다는 것만 단순히 진술할 뿐이지, 창문이 열린 다음에 열려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인지 또는 다시 닫힌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을 완료시상으로 표현할 때는 창문이 열렸다는 것 뿐 아니라, 그 창문이 열린 다음에 그 상태에 변동 없이 그대로 열린 채로 있다는 것까지 포함하여 진술하는 것이다. 즉 과거시상은 단순히 창문이 열렸다는 것만 표현하므로 열린 이후의 정보를 주지 않지만, 완료시상은 열린 이후의 결과적 상태까지도 포함하여 진술하므로 열린 이후에 열려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정보까지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은 현재 진행이든 미완료과거로 표현되는 과거 진행이든 간에 진행시상과도 다른데, 동일한 상황을 진행시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창문이 열리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반복해서 열리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완료시상은 열린 것은 이미 열린 것으로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에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완료시상을 단순 과거로 번역하게 되면 이런 완료시상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게 되므로 원문에서 완료시상으로 표현한 것은 그것이 완료시상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번역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번역본에서는 원문의 완료시상을 나타내기 위한 고육지책의 한 방편으로 현재 완료형은 ‘~한 채 있다’의 형태로, 과거 완료형은 ‘~한 채 있었다’의 형태로 일관되게 번역했

다. 예를 들면 λυω(뤼오)의 직설법 현재 완료 능동 1인칭 단수인 λελυκα(렐루카)를 대부분 ‘내가 풀어 버린다.’, 또는 아예 과거형인 ‘내가 풀었다.’로 번역하지만, 이것을 본 번역본에서는 ‘내가 풀어놓은 채 있다.’의 형태로 일관되게 번역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런 ‘~한 채 있다’의 형태가 원문의 완료시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이 형태가 어느 정도는 완료시상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도 하고, 아쉬운 대로 그것이 원문에서 완료시상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보이려는 것이다.

(4) 한국어는 능동태 위주의 언어로서 능동태 문장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을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수동태 문장을 그대로 수동태 문장으로 번역하기보다 많은 경우에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어 번역하는 것이 한국어 어법에 맞는 바른 번역일 것이다. 그럼에도 본 번역본에서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원문의 수동태 문장은 원문대로 수동태 문장으로 번역했다.

(5) 한국어 어법은 수를 표현할 때 집합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 등은 주로 단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물’을 표현할 때 한국어 어법에서는 그냥 ‘물’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하지 ‘물들’이라는 복수형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헬라어 어법은 ‘물’이라는 단수형과 ‘물들’이라는 복수형을 따로 사용하고, ‘하늘’도 ‘하늘’과 ‘하늘들’을 따로 사용한다. 다른 집합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을 표현할 때도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다. 일반 번역의 관점에서 이런 경우에 한국어 어법에 맞게 단수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겠지만, 본 번역본에서는 원문 그대로 단수형은 단수형으로, 복수형은 복수형으로 번역했다(쌍수에 대한 논의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배제한다).

(6) 한국어는 많은 경우에 주어를 생략한다. 따라서 번역문에서도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지만, 본 번역본에서는 대부분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냈다.

3. 원문의 각 단어의 뜻은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번역 성경들과는 다른 번역어를 적지 않게 채용하게 되었다.

☞ 현재 고전헬라어이든, 70인 역본이든, 신약 원문이든 간에 헬라어 단어에 대한 한국어 단어의 사전학적인 연구는 그다지 깊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헬라어-

한국어 사전 등은 헬라어-독일어 사전을 번역한 헬라어-영어 사전 등에서 재번역하여 낸 것이다. 이렇게 헬라어 원문 단어의 의미를 직접 한국어 단어로 대응하여 담아낸 것이 아니라 독일어를 거친 영어 단어의 의미를 거쳐서 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과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앞으로 헬라어 원문 단어에 대한 직접적인 한국어 단어의 사전학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해 가야 할 과제이다.

각 단어의 번역어를 채용하면서 그 원문 단어가 그 문장에서 기본 뜻과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않는 한, 각 단어에 동일한 번역어를 사용하여 번역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특히 직역에서) 번역어를 채용할 때에 두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원문의 동일한 단어를 번역문에서 의미가 비슷한 여러 서로 다른 번역어들로 번역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 번역문을 읽는 사람들은 그 번역어들이 원문에서는 동일한 단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또한 원문에서도 서로 다른 단어들이 사용된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둘째로 의미가 비슷한 원문의 서로 다른 단어들을 번역문에서 동일한 번역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위와 정반대의 현상을 겪게 되는데, 번역문에서 사용된 동일한 번역어를 대하면서 번역문을 읽는 사람들이 원문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기존 번역 성경들에는 이 두 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뿐 아니라, 이 두 가지 상황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서 번역어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가볍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번역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동일한 원문 단어에 동일한 번역어를 사용하고, 비록 의미는 비슷할지라도 원문의 서로 다른 단어를 번역문에서도 가능하다면 서로 다른 번역어로 번역하는 것은 원문의 형태를 최대한 반영하는 직역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이런 고려사항이 번역의 과정에서 100%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점은 번역의 한계이며, 그나마 동일한 단어가 여러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 그런 단어들은 예외로 할 수밖에 없다.

본 번역본에서는 각 원문 단어에 동일한 번역어를 사용하여 번역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번역문장에서는 사용된 번역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번역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번역문장에 더 어울리는 경우도 많지만, 동일한 번역어를 사용한다는 일관성 원칙에 따라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의미가 비슷하여 동일한 번역어를 사용해도 상관없는 서로 다른 원문 단어일 경우에도 한국어의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형태와 의미는 비슷할지라도 다른 번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 기존 개역 성경에서 사용된 익숙한 단어를 의미가 비슷함에도 굳이 다른 번역어로 바꾼 데에는 이런 여러 사항들이 고려되고 검토된 이유가 있다.

전치사도 그 기본 뜻에 맞춰 일관적인 형태로 번역하려고 했으며, 그 번역 형태가 해당 번역문에서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번역문장에 맞는 적절한 형태로 번역했다.

4. 이름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나 어떤 특정한 명사들은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의 주격을 취하여 그 철자가 가진 음가대로 음역을 했고, 그 부분은 다른 글꼴로 표기했다. 그런데 이렇게 음역했다고 해서 그 음역한 것의 음가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대략적인 표기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φ’는 영어의 ‘f’ 발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어에는 그에 상응하는 음가의 철자가 없으므로 ‘프’로 표기했고, ‘θ’(π)를 받침으로 할 때는 ‘ㄷ’로 표기했다(‘θ’의 음가를 ‘ㅍ’로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입장에 따랐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헬라어 원문 단어 중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하면서 그 음역과 표기가 원래의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다른 것도 있으나, 그렇더라도 원래의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음역하지 않고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했다.

5. 번역문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번역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번역문을 각주에서 제시했다.

6. 원문에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에 해당하는 ‘καί’(카이)와 ‘δε’(데)가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번역문에서 아주 걸림이 되는 경우에는 이 ‘καί’(카이)와 ‘δε’(데)의 번역을 생략했다.

7. 원문에는 각각의 명사 거의 대부분에 정관사가 붙으며, 형용사와 분사와 부정사에도 일정 역할을 하는 정관사가 등장한다. 그 의미를 살려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정관사는 번역을 생략했다.

8. 원문에는 없지만 번역문에서 문장의 구성상 어떤 단어나 구를 첨가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첨가된 부분을 본문보다 작은 크기로 나타냈다.

9. 현재 한국어에는 2인칭 존칭어가 애매하다. 그래서 ‘당신’이란 용어가 비록 비칭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당신’을 2인칭 존칭어로 사용했다.

10. 장애인이나 환우를 일컫는 번역어를 취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낮잡아 부르는 용어를 그대로 번역어로 사용했다. 이렇게 한 것은 배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요즘은 이 용어에서 낮잡는 의미가 상당히 희미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또한 원문에서 사용된 용어의 느낌을 반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11. 장, 절과 문단의 구분은 기존 전통을 따랐다.

12. 단어에 대한 설명 각주는 각각의 장마다 붙이되, 그 단어가 등장하는 장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에만 붙였다.

☞ 원문 그대로를 모두 번역문에 담아내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각각의 언어에는 그 언어 나름의 고유하게 발달한 표현법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을 다른 언어로 담아내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한국어의 복잡한 경어 체계를 다른 언어로 그대로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중에 ‘드시게나.’ 같은 표현을 그대로 번역해 낼 길은 없어 보인다. 또한 에스키모인의 언어에서는 ‘눈(snow)’을 표현하는 단어가 20개 이상 되는 반면에 아프리카인의 언어에서는 ‘눈(snow)’을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에스키모인의 20개 이상이나 되는 ‘눈(snow)’의 표현을 아프

리카인의 언어로 그대로 번역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번역을 함에 있어서 최선은 원문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최상의 번역문을 생산하고 다듬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들이는 것이다. 흔히 한국어 성경에 대하여 아무런 결점이나 개선 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번역한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있기 마련이다. 한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와 과정에는 미숙한 부분과 미개척된 영역이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성경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원문에 더 가깝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과 원문에 충실한 더 좋은 품질의 번역문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 처음부터 본 번역본의 성격을 최대한 직역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정했기에 그 원칙과 목적에 맞추어 최대한 직역에 충실한 번역을 하려고 했으며, 번역 과정에서 번역문을 다듬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는 것을 많이 자제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번역문장이 다듬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역문장으로 되돌리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아마 본 번역본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때 본 번역본의 목적이 원문의 형태를 최대한 반영하는 철저한 직역에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KATA MAΘΘAIION

말따이오스에 의하여¹⁾

1 다윗의 자손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예수스²⁾ 크리스토스의³⁾ 기원의 기록물. 2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이사악은 야곱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야곱은 유다스와⁴⁾ 그의 형제들을 태어나게 했다, 3 그런데 유다스는 따말 밖으로 파레스와 자라를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파레스는 헤스롬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헤스롬은 아람을 태어나게 했다, 4 그런데 아람은 아미나답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아미나답은 나앗손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나앗손은 살몬을 태어나게 했다, 5 그런데 살몬은 라캅 밖으로 보에스를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보에스는 룬 밖으로 요벳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요벳은 옛사이를 태어나게 했다, 6 그런데 옛사이는 다윗 왕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스의 여자 밖으로 솔로몬을⁵⁾ 태어나게 했다, 7 그런데 솔로몬은 흐로보암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흐로보암은 아비아를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아비아는 아삿을⁶⁾ 태어나게 했다, 8 그런데 아삿은⁷⁾ 요사팔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요사팔은 요람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요람은 오지아스를 태어나게 했다, 9 그런데 오지아스는 요아뎀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요아뎀은 아카즈를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아카즈는 헤제키아스를 태어나게 했다, 10 그런데 헤제키아스는 마낏세스를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마낏세스는⁸⁾ 아모스를⁹⁾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아모스는¹⁰⁾ 요시아스를 태어나게 했다, 11 그런데 요시아스는 예코니아스와 그의 형제들을 바빌론의¹¹⁾ 이주 때에 태어나게 했다. 12 그런데 바빌론의 이주 후에 예코니아스는 살라띠엘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살라띠엘은 조로바벨을 태어나게 했다, 13 그런데 조로바벨은 아비울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

- 1) ① '말따이오스에 의한 복음' ② '말따이오스에 의한 거룩한 복음' ③ '말따이오스에 의한 복음의 하나님과 함께 한 시작' ④ '말따이오스에 의한 것에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 2)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 3)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 4)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 5) 히브리어 '셀로모'(평화스러운)의 헬라어 음역이다.
- 6) '아사' 또는 '아비울'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 7) 위 각주와 같다.
- 8) '마낏세'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 9) '아뎀'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 10) 위 각주와 같다.
- 11) 히브리어로는 '바벨'이며, 바빌론어 '바빌루' 또는 '바빌리'의 헬라어 음역으로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다.

데 아비욘은 엘리아킴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엘리아킴은 아졸을 태어나게 했다, 14 그런데 아졸은 사독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사독은 아킴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아킴은 엘리욘을 태어나게 했다, 15 그런데 엘리욘은 엘레아잘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엘레아잘은 말탄을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말탄은 야콥을 태어나게 했다, 16 그런데 야콥은 마리아의¹²⁾ 남편 요셉을 태어나게 했고, 그녀 밖으로 크리스토스로 말해지고 있는 예수스께서 태어나시게 되었다.¹³⁾

17 그러므로 모든 세대들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십사 세대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의 이주까지 십사 세대들, 그리고 바벨론의 이주부터 크리스토스까지 십사 세대들이다.

18 그런데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기원은¹⁴⁾ 이와 같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후에, 혹시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 밖으로 임신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19 그런데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이이며 그녀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고 있을 때, 몰래 그녀를 풀어보내려고 의도했다. 20 그런데 그가 이일들을 속생각한 후에 보라! 주님의 사자(使者)가 꿈에 의하여 그에게 나타났다. 말하고 있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너는 너의 아내 마리아를 옆에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서 그분이 태어나시게 되었던 일은 성령 밖으로이기 때문이다. 21 그런데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스로 부를 것이다.¹⁵⁾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2 그런데 ¹⁶⁾대언자가¹⁷⁾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해졌던 일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일 전부가 있게 된 채 있다.

23 “보라! 처녀가 임신할 것이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엠마누엘로¹⁸⁾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로 번역되고 있는 것인. 24 그런데 요셉이 잠으로부터 일어난 후 주님의 사자(使者)가 그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행했으며 그의 아내를 옆에 취했다. 25

12) 원문은 ‘μαριας’(마리아스)로 소유격 형태인데, 그 주격을 ‘마리아’나 ‘마리아’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타낼 때 모두(마 13:55,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여러 곳, 행 1:14) 그 주격이 ‘마리아’으로 나오는 것을 근거로 ‘마리아’으로 했다.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얌’(개역을 비롯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얌’으로 번역)을 ‘마리아’으로 기록하고 있다.

13) ① ‘그런데 야콥이 처녀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을 태어나게 했는데, 마리아가 크리스토스로 말해지고 있는 예수스를 태어나게 했다.’ ② ‘그런데 야콥이 요셉을 태어나게 했는데, 처녀 마리아와 정혼했던, 그녀가 크리스토스로 말해지고 있는 예수스를 태어나게 했다.’ ③ ‘그런데 야콥이 처녀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을 태어나게 했는데, 그녀가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낳았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4) ‘탄생은’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5) 헬라어에서 미래형은 명령의 의미가 있다.

16) ‘에사리아스’(히브리어 ‘에샤야’의 헬라어 음역-이사야)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7)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18) 히브리어 ‘임마누엘’의 헬라어 음역이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¹⁹⁾ 낳을 때까지 그는 그녀를 알지 않았다.²⁰⁾ 그리고 그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스로 불렀다.

2 그런데 헤로데스 왕의 날들 안에 유다리아의²¹⁾ 베들레엠²²⁾ 안에서 예수스께서²³⁾ 태어나시게 되신 후에, 보라! 천문역학자들이²⁴⁾ 동방으로부터 히에로솔뤼마²⁵⁾ 안으로 당도했다. 2 말하고 있기를, “유다이오스들의 왕으로 낳아지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별을 동방 안에서 보았으며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헤로데스 왕이 들은 후 동요되었으며 그와 함께 모든 히에로솔뤼마도 동요되었다, 4 그리고 그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은 후 크리스토스가²⁶⁾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는지를 그들에게서 캐묻고 있었다. 5 그런데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유다리아의 베들레엠 안에서. 왜냐하면 대언자들²⁷⁾ 통하여 이와 같이 기록된 채 있기 때문입니다.”

6 “그리고 너 베들레엠이여, 유다의²⁸⁾ 땅이여,
너는 유다의 집권자들 안에서 결코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네게서 다스리고 있는 이가 나올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돌볼 것이기 때문이다.”

7 그때에 헤로데스가 몰래 천문역학자들을 부른 후 별이 나타나고 있는 기간을 그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내었다, 8 그리고 그가 그들을 베들레엠 안으로 보낸 후 말했다. “너희는 간 후에 아이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라. 그런데 찾아낸 뒤에는, 나에게 알려주고 있어야, 나도 간 후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기 위함이다.” 9 그런데 그들이 왕의 말을 들은 후 갔으며 보라! 그별이, 그들이 동방 안에서 보았던 것인, 그들을 앞서 가고 있었다, 간 후 아이가 있었던 곳 위에 세워질 때까지. 10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본 후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 11 그리고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²⁹⁾ 함께 있는 아이

19) ‘말아들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0) “알다”는 ‘성관계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식 표현이다.

21)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22) 히브리어 ‘베트레헴’의 헬라어 음역이며, ‘베트’(집)와 ‘레헴’(빵)의 결합으로 ‘빵집’이라는 뜻이다.

23)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4) 원문은 ‘μαγος’(마고스)로 페르시아의 사제 계급 중의 하나이거나, 마술사, 마법사, 박수, 강신술사, 점성술사, 천문역학자 등을 의미한다.

25)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26)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27)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28)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29) 원문은 ‘μαριας’(마리아스)로 소유격 형태인데, 그 주격을 ‘마리아’나 ‘마리아姆’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타낼 때 모두(마 13:55,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여러 곳, 행 1:14) 그 주격이 ‘마리아姆’으로 나오는 것을 근거로 ‘마리아姆’으로 했다.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암’(개역을 비롯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으로 번역)을 ‘마리아姆’으로 기록하고 있다.

를 보았다, 그리고 그분에게 엎드린 후 경배했으며 그들의 저장물들을 연 후 그분에게 예물을 가져왔다, 금과 유향과 몰약을. 12 그리고 헤로데스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지 말라고 꿈에 의하여 하명 받은 후, 다른 길을 통하여 그들의 지역 안으로 그들이 물러갔다.

13 그런데 그들이 물러간 후에 보라! 주님의 사자(使者)가 꿈에 의하여 요셉에게 나타난다. 말하고 있기를, “너는 일어난 후 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옆에 취하라 그리고 아이 쿼토스³⁰⁾ 안으로 피하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너는 거기에 있어라. 왜냐하면 헤로데스가 그분을 멸망시키려고 아이를 찾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14 그런데 그가 일어난 후 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밤에 옆에 취했으며 아이 쿼토스 안으로 물러갔다, 15 그리고 그분이³¹⁾ 헤로데스의 최후까지 거기에 있었다. 대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해졌던 일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아이 쿼토스 밖으로 나의 아들을 불렀다.”

16 그때에 헤로데스가 천문역학자들로 말미암아 조롱당했다는 것을 본 후 몹시 분노했다, 그리고 베들레헴 안과 그것의 모든 지방들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두 살배기부터 그 아래로 그가 사람을 파송한 후 해치웠다, 천문역학자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냈던 기간에 의하여. 17 그때에 대언자 예레미아스가³²⁾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말해졌던 일이 성취되었다.

18 “소리가 라마³³⁾ 안에서 들렸다,

많은 ³⁴⁾울부짖음과 통곡이.

라켈이 그녀의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있을 때,

그리고 그녀는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이 없기 때문이다.”

19 그런데 헤로데스가 최후를 맞은 후에 보라! 주님의 사자(使者)가 아이 쿼토스 안에서 꿈에 의하여 요셉에게 나타난다. 20 말하고 있기를, “너는 일어난 후 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옆에 취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 안으로 가고 있어라. 왜냐하면 아이의 목숨을 찾고 있는 이들이 죽은 채 있기 때문이다.” 21 그런데 그가 일어난 후 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옆에 취했으며 이스라엘의 땅 안으로 들어갔다. 22 그런데 알켈라오스가 그의 아버지 헤로데스 대신에 유다리아의 왕이 되고 있는 것을 들은 후 그는 거기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꿈에 의하여 하명 받은 후 갈릴리아의³⁵⁾ 지방들 안으로 물러갔다, 23 그리고 나자렐으로 말해지고 있는 성읍 안으로 그가 간 후 거주했다. 그분이 나조라이오스로³⁶⁾ 불릴 것이라고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해졌던 일이 성취되기 위함이다.

30) 이집트(애굽)을 가리키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미츨라임’이다.

31) 독법에 따라 ‘그가’(요셉)로도 볼 수 있다.

32) 히브리어 ‘이르메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33) 히브리어 ‘라마’(높은 곳)의 헬라어 음역이다.

34) 이 앞에 ‘애곡과’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5)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36) 나자렐 출신, 혹은 나자렐 사람.

3 그런데 저 날들 안에 세례자 요안네스가³⁷⁾ 유다이아³⁸⁾ 광야 안에서 선포하고 있으면서 당도한다. 2 그리고³⁹⁾ 말하고 있기를, “너희는 회심하고 있어라.⁴⁰⁾ 왜냐하면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이 온 채 있기 때문이다.” 3 왜냐하면 이이가 대언자⁴¹⁾ 예사이 아스가⁴²⁾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말해졌던 이이기 때문이다.

“광야 안에서 외치고 있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다져진 길들을 곧은 것들로 만들고 있어라.’”

4 그런데 요안네스 자신은 낙타의 털들로부터 그의 의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허리 둘레에 가죽 허리띠를 띠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음식은 메뚜기들과 야생 꿀이었다. 5 그때에 히에로솔뤼마와⁴³⁾ 모든 유다이아와 율다네스의⁴⁴⁾ 모든 주변지역이 그를 향하여 나오고 있었다, 6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로 말미암아 율다네스 강물 안에서 세례 받고 있었다. 7 그런데 파리사이오스들과⁴⁵⁾ 살두카이오스들의⁴⁶⁾ 많은 이들이 그의 세례에 오고 있는 것을 그가 본 후 그들에게 말했다. “독사들의 자식들아, 하고 있으려고 하는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느냐? 8 그러므로 너희는 회심의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라. 9 그리고 너희는 너희자신들 안에서 말하고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아브라암을 조상으로 갖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돌들 밖으로 아브라암에게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10 그런데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를 향하여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만들지 않고 있는 모든 나무는 쳐내어지며 불 속으로 던져진다. 11 한편 나는 너희에게 물 속에서 회심 안으로 세례를 준다, 또 한편 나의 뒤에 오시고 있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이신데, 나는 신발들을 짚어지기에다 충분하지 않다. 그분은 성령과 불 안에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그분의 손 안에 있는 키가 그분의 타작마당을 아주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분의 밀을 창고 안으로 모을 것이다, 그런데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13 그때에 예수스께서⁴⁷⁾ 갈릴라이아로부터⁴⁸⁾ 율다네스에 요안네스를 향하여 그로 말

37) 히브리어 ‘요하난’과 ‘예호하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38)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39) “그리고”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0) ‘μετανοεω’(메타노에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다’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의 ‘회심(回心)하다’로 번역했다.

41)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42) 히브리어 ‘예샤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43)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44) 히브리어 ‘야르덴’의 헬라어 음역으로 ‘요단강’이다.

45)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46) 히브리어 ‘차돔’(70인역 ‘사돔’)의 헬라어 번역으로 추정한다.

47)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48)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미암아 세례 받으시려고 당도하신다. 14 그런데 요안네스가 그분을 가로막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으려는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저를 향하여 오십니까?” 15 그런데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은 내버려두라, 왜냐하면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가 그분을 내버려둔다. 16 그런데 예수스께서 세례 받으신 후 곧 물로부터 올라오셨다. 그리고 보라! 하늘들이 그분에게⁴⁹⁾ 열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마치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있는 것과 그분 위에 오고 있는 것을 그분이 보셨다. 17 그리고 보라! 소리가 하늘들 밖으로 말하고 있기를, “이이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이 안에서 내가 좋게 생각했다.”

4 그때에 예수스께서⁵⁰⁾ 마귀로 말미암아 시험당하시려고 영으로 말미암아 광야 안으로 이끌려 올라가시게 되었다. 2 그리고 그분이 사십 낮들과 사십 밤들을 금식하신 후에, 마침내 주리셨다. 3 그리고 시험하고 있는 자가 나아온 후 그분에게 말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은 말하십시오.” 4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기록된 채 있다.

‘사람이 오직 빵으로 인하여만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모든 입말씀으로⁵¹⁾
인하여 살 것이다.’”

5 그때에 마귀가 거룩한 성 안으로 그분을 옆에 취하며 성전의 작은 날개 위에 그분을 세웠으며 6 그분에게 말한다. “만약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당신자신을 아래로 던지십시오. 왜냐하면 기록된 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사자(使者)들에게 너에 대하여 명하실 것이며
그들은 손들 위로 너를 들어올릴 것이다,
네가 너의 발을 돌을 향하여 부딪칠까 함이다.’”

7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또다시 기록된 채 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괜히 시험하지 말 것이다.’”

8 또다시 마귀가 몹시 높은 산 안으로 그분을 옆에 취하며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에게 보여주며 9 그분에게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만약 장차 당신이 나에게 엎드린 후 경배할 것이면.” 10 그때에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⁵²⁾떠나고 있어라, 사타나스야.⁵³⁾ 왜냐하면 기록된 채 있기 때문이

49) “그분에게”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50)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51)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52) ‘내 뒤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53) 히브리어 ‘사탄’(대항자, 대적자)의 헬라어 음역이다.

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며 오직 그분만 섬길 것이다.’”

11 그때에 마귀가 그분을 내버려둔다. 그리고 보라! 천사들이 나아왔으며 그분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12 그런데 요안네스가⁵⁴⁾ 넘겨졌다는 것을 그분이 들으신 후 갈릴리아⁵⁵⁾ 안으로 물러가셨다. 13 그리고 그분이 나자렐을 남겨두신 후 자불론과⁵⁶⁾ 네프탈림의⁵⁷⁾ 지방들 안에 있는 해변 카팔나움⁵⁸⁾ 안으로 가신 후 거주하셨다. 14 대언자⁵⁹⁾ 에사리아스가⁶⁰⁾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말해졌던 일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15 “자불론의 땅과 네프탈림의 땅이여,

바다의 길, 올다네스의⁶¹⁾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아여,

16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죽음의 지역과 그늘 안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그들에게 떠올랐다.”

17 그때부터 예수스께서 선포하시고 있으며 말씀하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너희는 회심하고 있어라.⁶²⁾ 왜냐하면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이 온 채 있기 때문이다.”

18 그런데 그분이 갈릴리아의 바다 옆을 걸어나다니시고 있을 때 두 형제들이, 페트로스로 말해지고 있는 시몬과⁶³⁾ 그의 형제인 안드레아스가 바다 안으로 덮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이다. 19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뒤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들로 만들 것이다.” 20 그런데 그들이 곧 그물들을 내버려둔 후 그분을 따라갔다. 21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서 앞으로 가신 후 다른 두 형제들이, 제베다이오스의⁶⁴⁾ 아들 야코보스와⁶⁵⁾ 그의 형제 요안네스가 배 안에서 그들의 아버지 제베다이오스와 함께 그들의 그물들을 준비하여 갖추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부르셨다. 22 그런데 그들이 곧 배와 그들의 아버지를 내버려둔 후 그분을 따라갔다.

54) 히브리어 ‘요하난’과 ‘에호하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55)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56) 히브리어 ‘제불론’의 헬라어 음역이다.

57) 히브리어 ‘낚탈리’의 헬라어 음역이다.

58) ‘위로의 마을’

59)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60) 히브리어 ‘에샤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61) 히브리어 ‘야르덴’의 헬라어 음역으로 ‘요단강’이다.

62) ‘μετανοεω’(메타노에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다’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의 ‘회심(回心)하다’로 번역했다.

63) 히브리어 ‘שמון’(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64) 히브리어 ‘제바드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65)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23 그리고 그분이 그들의 회당들 안에서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백성 안에서 모든 질병과 모든 쇠약함을 치료하시고 있으면서 온 갈릴라이아 안에서 두루 이끄시고 있었다. 24 그리고 그분의 소문이 온 쉬리아⁶⁶⁾ 안으로 떠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나쁘게 갖고 있는 이들과 고통들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이들과 귀신들려 있는 이들과 간질병 걸려 있는 이들과 중풍병자들 모든 이들을 그분에게 데려왔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치료하셨다. 25 그리고 갈릴라이아와 데카폴리스와⁶⁷⁾ 히에로솔뤼마들과⁶⁸⁾ 유다리아와⁶⁹⁾ 율다네스의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따라갔다.

5 그런데 그분이 군중들을 보신 후 산 안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앉으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왔다. 2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입을 여신 후 그들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3 “영에게 가난한 이들은 복되다.

하늘들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4 ⁷⁰⁾애통하고 있는 이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온유한 이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⁷¹⁾

6 의에 주리고 있으며 목마르고 있는 이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 긍휼을 베푸는 이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8 마음에게 깨끗한 이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9 평화를 이루는 이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10 의 때문에 박해당한 채 있는 이들은 복되다.

하늘들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11 나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비난할 때에는 그리고 박해할 때에는 그리고 너희에게 반대하여 거짓말하고 있으면서⁷²⁾ 모든 악한 것을 말할 때에는 너희는 복된 이들이다. 12 너

66) 히브리어 ‘아람’의 헬라어 번역으로 현대의 ‘시리아’이다.

67) ‘데카폴리스’는 10을 뜻하는 ‘δεκα’(데카)와 성읍, 도시를 뜻하는 ‘πολις’(폴리스)의 합성어로 10성읍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뜻한다.

68)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며, 복수형이 사용되었다.

69)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70) ‘지금’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71) 4절과 5절의 순서를 반대로 바꿔서 기록한 사본들도 있다.

72) “거짓말하고 있으면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희는 기뻐하고 있어라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고 있어라, 너희의 대가가 하늘들 안에서 많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 이전 대언자들을⁷³⁾ 이와 같이 박해했기 때문이다.”

13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약 장차 소금이 맛을 잃게 될 것이면, 그것이 무엇 안에서 소금 맛을 내게 될 것이냐? 그것은 바깥에 던져진 후 사람들로 말미암아 짓밟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아무 것 안으로도 할 능력이 없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놓여 있는 성읍이 감춰질 수 없다. 15 그들이 등불에 불붙이며 그것을 말(斗) 아래에 두지 않고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둔다, 그리고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빛을 낸다.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하라, 너희의 좋은 일들을 그들이 보게 하기 위함이며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17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허물러 왔다고 너희는 예상하지 마라. 나는 허물려고 오지 않았고 오히려 성취하려고 왔다. 18 왜냐하면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지나가게 될 때까지, 하나의 점 또는 하나의 획도 율법으로부터 결코 지나가게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들이 되었으면 할 때까지. 19 그러므로 만약 장차 이 가장 작은 계명들의 하나를 허물 것이면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면, 그는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가장 작은이로 불릴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장차 행할 것이면 그리고 가르칠 것이면, 이는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큰이로 불릴 것이다. 20 왜냐하면 만약 장차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들보다⁷⁴⁾ 더 많이 넘치지 않을 것이면, 너희가 하늘들의 왕국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21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말해졌던 것을 들었다.

‘너는 살인하지 말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장차 살인할 것이면, 그는 심판에 해당될 것이다.’ 22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그의 형제에게 ⁷⁵⁾화내고 있는 모든 이가 심판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만약 장차 그의 형제에게 말할 것이면, ‘라카⁷⁶⁾’, 그는 공회에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장차 말할 것이면, ‘모레⁷⁷⁾’, 그는 불의 게엔나⁷⁸⁾ 안으로 해당될 것이다. 23 그러므로 만약 장차 내가 제물을 제단 위에 가져오고 있을 것이면 그리고 거기에서 너의 형제가 너에게 반대하여 어떤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할 것이면, 24 너는 거기 제단 앞에 너의 제물을 내버려두라 그리고 떠나고 있어라 먼저 너의 형제와 화해되어져라, 그리고 그때에

73)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74)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75) ‘공연히’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76) 아람어의 욱설인 ‘텅 빈 머리, 멍텅구리’를 뜻하는 ‘레카’의 헬라어 음역.

77) ‘어리석은 놈’이라는 뜻의 욱설.

78) ‘γεεννα’(게엔나)는 히브리어 ‘게 힌놈’(애곡의 골짜기)에서 유래했으며, 예루살렘 남동부로 뻗어 있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를 의미한다. 예레미야(7:32, 19:6)는 이 골짜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선포한다. 신약에서 ‘γεεννα’(게엔나)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하여 불타는 곳으로 최종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곳으로 나타난다.

온 후 너의 제물을 가져오고 있어라. 25 너는 너의 고소자와 빨리 타협하고 있으면서 있어라, 네가 그와 함께 길 안에 있을 동안에, 혹시 그 고소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며 재판관이 보조자에게 그리고 네가 감옥 안으로 던져질까 함이다. 26 아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코드란테스를⁷⁹⁾ 갚아줄 때까지는.”

27 “너희는 말해졌던 것을 들었다.

‘너는 간음하지 말 것이다.’

28 그런데 그녀를 갈망하는 것을 향하여 여인을 보고 있는 모든 이는 그의 마음 안에서 이미 그녀와 간음했다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29 그런데 만약 지금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넘어뜨리고 있다면, 너는 그것을 빼내라 그리고 너로부터 던져라. 왜냐하면 너의 지체들의 하나가 멸망하며 너의 온 몸이 게엔나 안으로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30 그리고 만약 지금 너의 오른쪽 손이 너를 넘어뜨리고 있다면, 너는 그것을 쳐내라 그리고 너로부터 던져라. 왜냐하면 너의 지체들의 하나가 멸망하며 너의 온 몸이 게엔나 안으로 떠나가게 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31 그런데 말해졌다. 만약 장차 그의 아내를 풀어보낼 것이면, 그는 그녀에게 이혼증서를 주어라. 32 그런데 음행의 사건 이외에 그의 아내를 풀어보내고 있는 모든 이는 그녀가 간음당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리고 만약 장차 풀어보내진 채 있는 여인과 결혼할 것이면,⁸⁰⁾ 그도 간음하고 있다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33 “또다시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말해졌던 것을 들었다. ‘너는 거짓맹세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맹세들을 주님께 갚을 것이다.’ 34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늘 안에서도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며, 35 땅 안에서도 아니다, 그것이 그분의 발들의 발판이기 때문이며, 히에로솔뤼마⁸¹⁾ 안으로도 아니다, 그것이 큰 왕의 성읍이기 때문이며, 36 너의 머리 안에서도 너는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를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37 그런데 너희의 말은 ‘맞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이어라. 그런데 이것들보다 넘치는 것은 악한 것⁸²⁾ 밖으로이다.”

38 “너희는 말해졌던 것을 들었다.

‘눈 대신에 눈을, 그리고 이빨 대신에 이빨을.’

39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악한 것으로⁸³⁾ 맞서지 말라고 말한다. 오히려 너의⁸⁴⁾ 오른쪽

79) 일 ‘코드란테스’는 로마의 동전으로 2‘뉘튼’에 해당하며(막 12:42), 1/4‘앗사리온’에 해당하기도 한다. 현재 가치로 대략 1,000원 정도의 금액이다.

80) “그리고 만약 장차 풀어보내진 채 있는 여인과 결혼할 것이면” 대신에 ‘그리고 풀어보내진 채 있는 여인과 결혼한 후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81)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82) 또는 ‘악한 자’

83) 원문은 ‘τῷ πονηρῷ’(토 포네로)이다. ‘πονηρός’(포네로스)는 ‘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수식하는 명사 없이 독자적으로 나올 때는 독립적 용법으로 쓰여서 ‘악한 남성’, ‘악한 여성’, ‘악한 것’이다. ‘τῷ πονηρῷ’(토 포네로)를 ‘남성, 단수, 여격’으로 보면 ‘악한 자(남성)에게’이지만 ‘중성, 단수, 여격’으로 보면 ‘악한 것’이며, 여격은 수단이나 방편으로 쓰이므로 ‘악한 것으로써’도 된다. 문맥상 ‘악한 자에게’보다는 ‘악한 것으로써’가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뺨 안으로 너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어느 누구, 그이에게 너는 다른 쪽도 돌려라. 40 그리고 너의 안쪽 옷을 취하기 위하여 소송하려고 너에게 원하고 있는 이, 그에게 너는 겹옷도⁸⁵⁾ 내버려두라. 41 그리고 일 밀리온을⁸⁶⁾ 가라고 너를 징용할 어느 누구, 그이와 함께 너는 이 밀리온을 떠나고 있어야. 42 너에게 구하고 있는 이에게 너는 주어라, 그리고 너로부터 빌리기 원하고 있는 이를 거절하지 마라.”

43 “너희는 말해졌던 것을 들었다.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할 것이며

너의 원수를 미워할 것이다.’ 44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있어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⁸⁷⁾ 기도하고 있어야, 45 너희가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기 위함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해를 악한 이들과 선한 이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이들과 불의한 이들 위에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46 만약 장차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할 것이라면, 너희가 무슨 대가를 갖고 있느냐? 세금징수자들도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⁸⁸⁾ 47 그리고 만약 장차 너희가 오직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인사할 것이라면, 너희는 무엇을 더 넘치게 행하고 있는 것이냐? 이방인들도⁸⁹⁾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⁹⁰⁾ 48 그러므로 하늘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한 분이신 것처럼 너희는 완전한 이들로 있을 것이다.”

6 “그런데⁹¹⁾ 너희는 너희의 의를⁹²⁾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지켜보이는 것을 향하여 행하지 않고 있도록 유의하고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너희가 대가를 갖지 못한다. 2 그러므로 내가 공흠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너는 너의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마치 가면연기자들이⁹³⁾ 회당들 안과 거리들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지기 위하여.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받아가지고 있다. 3 그런데 내가 공흠을 행하고 있을 때 너의 오른손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너의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4 너의 공흠이 은밀한 가운데 있기 위함이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⁹⁴⁾너에게 ⁹⁵⁾갚아

84) “너의”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85) ‘겹옷’은 ‘ἵματιον’(히마티온)으로 외투처럼 가장 바깥에 입는 옷을 의미하며, ‘안쪽 옷’은 ‘χιτων’(키톤)으로 현재의 티셔츠나 남방처럼 간편하게 입는 옷을 의미한다.

86) 로마의 거리단위로 8‘스타디온’(1‘스타디온’은 약 192미터)으로 일천 걸음에 해당한다.

87)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대신에 ‘너희를 저주하고 있는 이들을 축복하고 있어야, 너희를 미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잘 행하고 있어야, 너희를 악의적으로 대하고 있는 이들과 박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의 긴 본문이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88)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89) ‘세금징수자들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90)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91) “그런데”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92) ‘공흠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93) 원문은 ‘υποκριτης’(히포크리데스)로 주로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지칭하며, 관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로 보기도 한다.

94) ‘친히’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주실 것이다.”

5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는, 너희는 가면연기자들처럼 되지 말 것이다, 그들은 회당들 안과 넓은 길들의 모퉁이들 안에서 선 채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받아가지고 있다⁹⁶). 6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너는 너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문을 잠근 후 은밀한 가운데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있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⁹⁷)갚아주실 것이다. 7 그런데 너희는 기도하고 있으면서 마치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많은 말 안에서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8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아지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필요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9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어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시옵소서.

10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늘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11 하루 필요한⁹⁸) 저희의 빵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12 그리고 저희의 빚들을⁹⁹) 저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저희의 빚진 자들에게¹⁰⁰) 용서했던¹⁰¹) 것처럼.

13 그리고 저희를 시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옵고,

오히려 저희를 악한 자로부터¹⁰²)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옵나이다. 아멘.)¹⁰³)’

14 왜냐하면 만약 장차 너희가 그들의 잘못들을 사람들에게 용서할 것이면, 하늘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그런데 만약 장차 너희가 ¹⁰⁴)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

95) ‘나타나는 것 안에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96) ‘있기 때문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97) ‘나타나는 것 안에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98) 또는 ‘다음날을 위한’

99) 원문은 ‘οφειλημα’(오페일레마)로 ‘οφειλω’(오페일로) ‘빚지다’의 명사형으로써 원래 뜻은 ‘빚’인데, 여기서 그 실제적인 의미는 ‘죄’이다.

100) 원문은 ‘οφειλετης’(오페일레테스)로 ‘οφειλω’(오페일로) ‘빚지다’에서 유래했으며 원래 뜻은 ‘빚진 자’인데, 여기서 그 실제적인 의미는 ‘죄지은 자’이다.

101) 현재형 ‘용서하고 있는’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02) 또는 ‘악한 것으로부터’.

103) 괄호부분이 없는 고대 사본들이 있다. 이 문장은 ‘οτι’(호티)절인데, 이 ‘οτι’(호티)를 원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으나, 결과로 보면 ‘그러므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아멘.’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104) “그들의 잘못들을”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이다.”

16 “그런데 너희가 금식하고 있을 때에는, 너희는 가면연기자들처럼 침울한 기색을 하는 이들이 되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그들의 얼굴들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받아가지고 있다. 17 그런데 너는 금식하고 있으면서 너의 머리에 기름 바르라 그리고 너의 얼굴을 씻어라, 18 금식하고 있으면서 네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은밀한 가운데 계신 너의 아버지께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있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105)갚아주실 것이다.”

19 “너희는 너희에게 저장물들을 땅 위에 저장하지 말고 있어라, 썩과 먹는 것이 망가뜨리고 있는 곳이며 도둑들이 뚫고 도둑질하고 있는 곳. 20 그런데 너희는 너희에게 저장물들을 하늘 안에 저장하고 있어라, 썩도 먹는 것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있으며 도둑들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고 있지도 못하는 곳. 21 왜냐하면 너의 저장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므로 만약 장차 너의 눈이 멀쩡할 것이면, 너의 온 몸은 밝을 것이다. 23 그런데 만약 장차 너의 눈이 나쁠 것이면, 너의 온 몸은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고 있다면, 그 어둠은 얼마만큼 이겠는가! 24 아무도 두 주인들에게 종이 되고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혹시 그가 한쪽을 미워할 것이고 또 한쪽을 사랑할 것이며, 혹시 그가 한쪽을 꼭 붙잡을 것이고 또 한쪽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종이 되고 재물에게도 106) 종이 되고 있을 수 없다. 25 이것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목숨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를 또는 무엇을 마실지를 107) 염려하지 말고 있어라, 너희의 몸에게도 너희가 무엇을 입을지를 염려하지 말고 있어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108) 26 씨 뿌리지도 않으며 추수하지도 않으며 창고 안으로 모으지도 않는, 그러나 하늘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는 하늘의 새들 안으로 너희는 살펴보아라.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욱 귀하지 않느냐? 109) 27 그런데 너희 중에서 누가 염려하고 있으면서 그의 키에 110) 일 페퀴스를 111) 더할 수 있느냐? 28 그리고 너희는 의복에 대하여 무엇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너희는 깊이 배우라. 그것들은 수고하지도 않으며 실을 뽑아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29 그런데 솔로몬이 112) 그의 모든 영광 안에서 이것들 중의 하나처럼도 자기를 위하여 두르지 못했다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30 그런데 만약 지금 오늘 있으며 다음날 아궁이 안으로

105) ‘나타나는 것 안에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06) 원문은 ‘μαμωνας’(마모나스)로 아람어 ‘맘몬’에서 유래한 헬라어 음역이다.

107) “또는 무엇을 마실지를”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08)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09)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10) 또는 ‘나이, 수명’

111)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히브리어 ‘암마’의 헬라어 번역이며, 기존 한국어 성경에서 ‘규빗’으로 번역되었다.

112) 히브리어 ‘셀로모’(평화스러운)의 헬라어 음역이다.

던져지고 있는 들의 풀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둘러입히시고 있다면, 너희를 더욱 많은 것으로 둘러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작은이들아? 31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말하고 있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또는 무엇을 두를까?’ 32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이 애써 찾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하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33 그런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¹¹³⁾ 왕국과 그분의 의를¹¹⁴⁾ 찾고 있어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34 그러므로 너희는 다음날 안으로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음날이 그자신을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의 나뭇은 그날에게 충분하다.”

7 “너희는 심판하지 말고 있어라, 너희가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왜냐하면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 안에서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재는 그 자 안에서 그것이 너희에게 재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왜 너는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잔가지를 보며, 너의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알아채지 못하느냐? 4 또는 내가 너의 형제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너의 눈 밖으로 잔가지를 내보내도록 너는 내버려두라’, 그러나 보라! 너의 눈 속에 통나무가 있다. 5 가면연기자야,¹¹⁵⁾ 너는 먼저 너의 눈 밖으로 통나무를 내보내라, 그리고 그때에 잔가지를 너의 형제의 눈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내가 분명하게 볼 것이다.”

6 “너희는 거룩한 것을 들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혹시 그것들이 그것들의 발들 안에서 그것들을 짓밟을 것이며 돌이켜서 너희를 파괴할까 함이다.”

7 “너희는 구하고 있어라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는 찾고 있어라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너희는 두드리고 있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8 왜냐하면 구하고 있는 모든 이가 취하기 때문이며 찾고 있는 모든 이가 찾아내기 때문이며 두드리고 있는 모든 이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9 혹시 너희 중에서 어느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빵을 구할 이인, 그가 그에게 돌을 건네줄 것이냐? 10 혹시 그가 물고기도 구할 것인데, 그가 그에게 뱀을 건네줄 것이냐? 11 그러므로 만약 지금 너희가 악한 이들로 있으면서도 너희의 자녀들에게 선한 선물들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얼마만큼 더욱 선한 것들을 주실 것인가! 12 그러므로 만약 장차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고 있기를 너희가 원하고 있을 것이면 그 모든 것들만큼을, 이와 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며 대언자들이기¹¹⁶⁾ 때문이다.”

113) “하나님의”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14) ‘하늘들의 왕국과 그것의 의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15) 원문은 ‘υποκριτης’(히포크리데스)로 주로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지칭하며, 관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로 보기도 한다.

116)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13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멸망 안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문은 넓으며 길은 널찍하며 그것을 통하여 들어가고 있는 이들은 많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14 생명 안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문은 좁으며 길은 옥여싸인 채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고 있는 이들은 얼마나 적은 이들인가!¹¹⁷⁾”

15 “너희는 거짓대언자들로부터 유의하고 있어라, 그들은 양들의 의복들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온다, 그런데 그들은 안에서부터는 탈취하는 늑대들이다. 16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로부터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아무래도 그들이 가시나무들로부터 포도들을 또는 엉겅퀴들로부터 무화과들을 거두지는 못하지 않느냐?¹¹⁸⁾ 17 이와 같이 모든 선한 나무가 좋은 열매들을 만든다, 그리고 부패한 나무가 악한 열매들을 만든다. 18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들을 만들고 있을 수도 없으며 부패한 나무가 좋은 열매들을 만들고 있을 수도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만들지 않고 있는 모든 나무는 쳐내어지며 불 속으로 던져진다. 20 그러면 더욱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로부터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21 나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이가, ‘주님 주님’, 하늘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하늘들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이가 들어갈 것이다. 22 많은 이들이 저 날 안에서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저희가 당신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았습니까?¹¹⁹⁾ 저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23 그러나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했다고 선언할 것이다. ‘불법을 일삼고 있는 이들 너희는 나로부터 물러가고 있어라.’ 24 그러므로 나의 이 말들을 듣고 있으며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어느 누구나 모두는, 그이는 슬기로운 남자와 같아질 것인데¹²⁰⁾, 어느 누가 그의 집을 바위 위에 세웠다. 25 그리고 비가 내렸으며 강물들이 왔으며 바람들이 불었으며 그것들이 저 집에 얹드렸다, 그러나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위 위에 기초된 채 있었기 때문이다. 26 그리고 나의 이 말들을 듣고 있으나 그것들을 행하지 않고 있는 모든 이는 어리석은 남자와 같아질 것인데, 어느 누가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세웠다. 27 그리고 비가 내렸으며 강물들이 왔으며 바람들이 불었으며 그것들이 저 집에 부딪쳤다, 그리고 그것이 떨어졌으며 그것의 떨어짐이 크게 되었다.”

28 그리고 예수스께서¹²¹⁾ 이 말씀들을 끝마치셨을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군중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충격 받고 있었다. 29 왜냐하면 그분이 권세를 가지시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계셨기 때문이다.

117) “얼마나 적은 이들인가!” 대신에 ‘적은 이들이기 때문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18) ‘μητι’(메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19)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20) “그이는 슬기로운 남자와 같아질 것인데” 대신에 ‘나는 그이를 슬기로운 남자로 비교할 것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21)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8 그런데 그분이 산으로부터 내려오신 후에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따라왔다. 2 그리고 보라! 어떤 문둥병자가 나아온 후 그분에게 경배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주님, 만약 장차 당신이 원하시고 있을 것이면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그분이 손을 내미신 후 그를 만지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해져라.” 그리고 곧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4 그리고 예수스께서¹²²⁾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어라, 오히려 떠나고 있어라 너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모우세스가¹²³⁾ 지시했던 제물을 가져가라, 그들에게 증거 안으로.”

5 그런데 그분이 카팔나움¹²⁴⁾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어떤 백부장이 그분에게 요청하고 있으면서 나아왔다. 6 그리고 말하고 있기를, “주님, 저의 종이 중풍으로 집 안에서 누운 채 있습니다, 심하게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7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간 후 그를 치료할 것이다.” 8 그러나 백부장이 대답한 후 말하고 있었다. “주님,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기에 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말씀으로 오직 말씀하기만 하십시오, 저의 종이 낮게 될 것입니다. 9 왜냐하면 저도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 아래에 군인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라’, 그가 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너는 오고 있어라, 그가 옵니다’, 그리고 저의 종에게, ‘너는 이것을 행하라’, 그가 행합니다.” 10 그런데 예수스께서 들으신 후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셨으며 따라오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에게서도¹²⁵⁾ 이렇게 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11 그런데 많은 이들이 동쪽들과 서쪽들로부터 다다를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하늘들의 왕국 안에 앉혀지게 될 것인데, 12 왕국의 아들들은 더 바깥쪽 어둠 안으로 내쫓겨질 것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¹²⁶⁾ 거기에 울부짖음과 이빨들의 값이 있을 것이다.” 13 그리고 예수스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떠나고 있어라, 네가 믿었던 것처럼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져라.” 그리고 그의 종이 저 시간 안에 낮게 되었다.

14 그리고 예수스께서 페트로스의 집 안으로 가신 후 그의 장모가 누운 채 있으며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셨다. 15 그리고 그분이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 그리고 열병이 그녀를 내버려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났으며 그분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16 그런데 해질 녘이 된 후에 그들이 귀신들려 있는 많은 이들을 그분에게 데려왔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영들을 내쫓으셨으며 나쁘게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셨다, 17 대언자¹²⁷⁾

122) 히브리어 ‘에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23) 히브리어 ‘모세’의 헬라어 음역이다.

124) ‘위로의 마을’

125) “아무에게서도”가 없는 사본들도 있다.

126)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가 원문에는 11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12절로 돌렸다.

127)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에사리아스가¹²⁸⁾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말해졌던 일이 성취되기 위함이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병약함을 취하셨으며
질병들을 짊어지셨다.”

18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분 둘레의 군중을¹²⁹⁾ 보신 후 건너편 안으로 떠나가자고 명령 하셨다. 19 그리고 한 서기관이 나아온 후 그분에게 말했다. “선생님, 만약 장차 당신이 떠나가시고 있을 곳에 제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20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여우들도 굴들을 갖고 있으며 하늘의 새들도 장막들을 갖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울일 곳을 갖고 있지 않다.” 21 그런데 그분의¹³⁰⁾ 제자들 중의 한 이가 그분에게 말했다. “주님, 먼저 떠나가도록 그리고 저의 아버지를 매장하도록 당신은 저에게 허락해주시시오.” 22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그리고 죽은 이들이 그자신들의 죽은 이들을 매장하도록 내버려두라.”

23 그리고 그분이 배 안으로 타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갔다. 24 그리고 보라! 큰 지진이 바다 안에서 있게 되었다, 따라서 배가 파도들로 말미암아 덮이고 있다, 그런데 그분은 주무시고 있었다. 25 그리고 그들이¹³¹⁾ 나아온 후 그분을 일으켰다. 말하고 있기를, “주님, 당신은 ¹³²⁾구원해주시시오, 우리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26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믿음작은이들아?” 그때에 그분이 일어나신 후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리고 큰 잔잔함이 있게 되었다. 27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 말하고 있기를, “바람들도 바다도 그분에게 순종하다니 이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28 그리고 그분이 건너편 안으로 가다레노스들의¹³³⁾ 지역 안으로 가신 후에 귀신들려 있는 이들 두 명이 무덤들 밖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그분을 맞이했다, 몹시 사나운 이들이고, 따라서 어느 누구도 저 길을 통하여 지나갈 능력이 없다. 29 그리고 보라! 그들이 소리쳤다. 말하고 있기를, “무엇이 저희와 당신께 있습니까,¹³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시점 전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30 그런데 그들로부터 멀리서 많은 돼지들의 떼가 길러지고 있으면서 있었다. 31 그런데 귀신들이 그분에게 요청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만약 지금 당신이 저희들을 내쫓으시고 있다면, 당신은 저희들을 돼지들의 떼 안으로 파송하십시오.” 32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떠나고 있어라.” 그런데 그들이 나온 후 돼지들 안으로 떠나갔다. 그리고 보라! 모든 떼가 벼랑 아래 바다 속으로 돌진했으며 물들 속에서 죽었다. 33 그런데 기르고 있는 이들이 피했다, 그리고 성읍 안으로 떠나간 후 모든 일들과 귀신들려 있는 이들의 일

128) 히브리어 ‘에사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129) ‘많은 군중들을’ 또는 ‘많은 군중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30) “그분의”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31) ‘제자들이’ 또는 ‘그분의 제자들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32) ‘저희를’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33) ‘게라세노스들의’ 또는 ‘겔게세노스들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마가복음 5장 1절과 누가복음 8장 26절과 비교하라.

134) 실제적인 의미는 ‘저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이다.

들을 알려주었다. 34 그리고 보라! 모든 성읍이 마중 안으로 예수스께 나왔으며 그분을 본 후 그들의 지방들로부터 옮겨가실 것을 요청했다.

9 그리고 그분이 배 안으로 타신 후 건너가셨으며 자기 자신의 성읍 안으로 가셨다. 2 그리고 보라! 한 중풍병자가 간이침대에 누운 채 있는 것을 그들이 그분에게 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스께서¹³⁵⁾ 그들의 믿음을 보신 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용기를 내고 있어라, 아들이, 너의 죄들이 용서된다.” 3 그리고 보라! 서기관들 중의 어떤 이들이 그자신들 속에서 말했다. ‘이이가 신성모독한다.’ 4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들의 속생각들을 보신 후¹³⁶⁾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마음들 속에서 악한 것들을 속생각하느냐? 5 왜냐하면 무엇이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이나, ‘너의 죄들이 용서된다’ 말하는 것, 또는 ‘너는 일어나고 있어라 그리고 걸어나고 있어라’ 말하는 것 중에서? 6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죄들을 용서하고 있으려고 땅 위에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때에 그분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일어난 후 너의 간이침대를 들어올려라 그리고 너의 집 안으로 떠나고 있어라.” 7 그리고 그가 일어난 후 그의 집 안으로 떠나갔다. 8 그런데 군중들은 본 후 두려워했으며¹³⁷⁾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9 그리고 예수스께서 거기에서 지나가시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세금징수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말타이오스라고 말해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그리고 그가 일어난 후 그분을 따라갔다. 10 그리고 그분이 집 안에 앉아 계실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보라! 많은 세금징수자들과 죄인들이 온 후 예수스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11 그리고 파리사이오스들이¹³⁸⁾ 본 후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너희의 선생님은 세금징수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12 그런데 그분이 들으신 후 말씀하셨다. “건강하게 있는 이들이 의사의 필요를 갖지 않고 오히려 나쁘게 갖고 있는 이들이 갖는다. 13 그런데 너희는 간 후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공활을 원하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들을 부르려고 오지 않았고 오히려 죄인들을 부르려고 왔기 때문이다.”

14 그때에 요안네스의¹³⁹⁾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온다. 말하고 있기를, “무엇 때문에 우리와 파리사이오스들은 많은 것들을¹⁴⁰⁾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15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만큼 혼인

135)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36) ‘아시고 있으면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37)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으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38) 아랍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139) 히브리어 ‘요한난’과 ‘예호한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140) “많은 것들을”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집의 아들들이 애통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¹⁴¹⁾ 그런데 신랑이 그들로부터 뺏길 날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16 그런데 아무도 세탁 가공하지 않은 옷감 조각을 오래된 겂옷 위에 덧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의 채운 것이 겂옷으로부터 들어올리며 찢김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17 그들이 젊은¹⁴²⁾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부대들 안으로 넣지도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가죽부대들은 파괴당하며 포도주는 쏟아지며 가죽부대들은 멸망당한다. 오히려 그들은 젊은 포도주를 새로운 가죽부대들 안으로 넣는다, 그리고 양쪽 모두 보존된다.”

18 그분이 이것들을 그들에게 발언하시고 있을 때, 보라! 통치자 한 명이 온 후 그분에게 경배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저의 딸이 지금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신이 오신 후 그녀 위에 당신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녀가 살 것입니다.” 19 그리고 예수스께서 일어나신 후 그를 따라가셨다 그의 제자들도. 20 그리고 보라! 어떤 여인이 십이 년을 하혈하고 있을 때 나아온 후 뒤에서 그분의 겂옷의 술을 만졌다. 21 왜냐하면 그녀가 그녀자신 속에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장차 내가 그분의 겂옷의 술을 오직 만지기만 할 것이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22 그런데 예수스께서 돌이키신 후 그리고 그녀를 보신 후 말씀하셨다. “너는 용기를 내고 있어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채 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저 시간부터 구원받았다. 23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 통치자의 집 안으로 가신 후 그리고 피리연주자들과 군중이 소란스러운 것을 보신 후 24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었다. “너희는 물러가고 있어라, 왜냐하면 소녀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비웃고 있었다. 25 그런데 군중이 내보내졌을 때 그분이 들어가신 후 그녀의 손을 붙잡으셨다, 그리고 소녀가 일어났다. 26 그리고 이 소식이 저 온 땅 안으로 나갔다.

27 그리고 예수스께서 거기에서 지나가시고 있을 때 두 소경들이 그분을¹⁴³⁾ 따라왔다. 소리치고 있으면서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여.” 28 그런데 그분이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 소경들이 그분에게 나아왔다,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일을 행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그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29 그때에 그분이 그들의 눈들을 만지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너희의 믿음에 의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30 그리고 그들의 눈들이 열려졌다.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게 너희는 주의하고 있어라.” 31 그런데 그들이 나간 후 저 온 땅 안에 그분을 널리 소문냈다.

32 그런데 그들이 나가고 있을 때에 보라! 귀신 들려 있는 병어리 사람을 그들이 그분에게 데려왔다. 33 그리고 귀신이 내쫓겨진 후에 그 병어리가 발언했다. 그리고 군중들이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 말하고 있기를,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전혀 나타나

141)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42) 실제적인 의미는 ‘한창 발효 중에 있는’이다.

143) “그분을”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지 않았었다.” 34 그런데 파리사이오스들은 말하고 있었다. “그는 귀신들의 통치자 안에서 귀신들을 내쫓고 있다.”¹⁴⁴⁾

35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들의 회당들 안에서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쇠약함을 치료하시고 있으면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에 두루 이끄시고 있었다. 36 그런데 그분이 군중들을 보신 후 그들에 대하여 애타게 되셨다, 마치 목자를 갖고 있지 않는 양들같이 그들이 괴롭혀진 채 있었으며 던져놓인 채 있었기 때문이다. 37 그때에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한편 추수할 것은 많은데, 또 한편 일꾼들은 적다. 38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인에게 그의 추수 안으로 일꾼들을 내보내주시기를 간구하라.”

10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열두 제자들을 부르신 후 더러운 영들의¹⁴⁵⁾ 권세를 주셨고 따라서 그것들을 내쫓고 있으며 모든 질병과 모든 쇠약함을 치료하고 있게 하신다.

2 그런데 그 열두 사도들의 이름들은 이것들이다. 첫째로 페트로스로 말해지고 있는 시몬과¹⁴⁶⁾ 그의 형제 안드레아스, 그리고 제베다이오스의¹⁴⁷⁾ 아들 야코보스와¹⁴⁸⁾ 그의 형제 요안네스,¹⁴⁹⁾ 3 필립포스와 발돌로마이오스¹⁵⁰⁾, 또마스와 세금징수자 말타이오스, 알파이오스의 아들 야코보스와 딸다이오스, 4 카나나이오스¹⁵¹⁾ 시몬과 그분을 넘기기도 했던 이스카리오테스 유다스.¹⁵²⁾ 5 예수스께서¹⁵³⁾ 그들에게 분부하신 후 이 열둘을 파송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 안으로 떠나가지 마라 그리고 사마리테스들의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6 그런데 너희는 이스라엘 집의 멸망시킨 채 있는 양들을 향하여 가고 있어라. 7 그런데 너희는 가고 있으면서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이 온 채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선포하고 있어라. 8 너희는 병들어 있는 이들을 치료하고 있어라, 죽은 이들을 일으키고 있어라,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있어라, 귀신들을 내쫓고 있어라. 값없이 취하라, 값없이 주어라. 9 너희의 허리띠들 안으로 금화도 은화도 동화도, 10 길 안으로 여행용자루도 두 옷들과 신발들과 지팡이도 너희는 소유하지 마라.¹⁵⁴⁾ 왜냐하면 일꾼은 그의 음식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11 그런데 만약 장차 너희가 성

144) 34절이 없는 사본들도 있다.

145) 헬라어에서 소유격의 용법 중 부사적 용법으로 ‘더러운 영들에 대하여’를 의미한다. 어떤 사본들에는 ‘더러운 영들에 대항하여’로 나온다.

146) 히브리어 ‘شمעון’(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147) 히브리어 ‘제바드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148)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149) 히브리어 ‘요한안’과 ‘예호한안’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150) 아람어 ‘바르탈메’(탈메의 아들)의 헬라어 음역이다.

151) 아람어 ‘칸안’에서 유래했으며, ‘열심당’이라는 뜻이다.

152)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153)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54) “너희는 소유하지 마라.”가 원문에는 9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10절로 돌렸다.

읍이나 마을 안으로 들어갈 것이면, 그것 안에서 누가 합당한지 너희는 조사하라. 그리고 나올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12 그런데 너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그것에게 인사하라. 13 그리고 한편 만약 장차 그 집이 합당할 것이면, 너희의 평화가 그것 위에 오게 하라. 또 한편 만약 장차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것이면, 너희의 평화가 너희를 향하여 돌이켜지게 하라. 14 그리고 만약 장차 그것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을 것이면 그리고 너희의 말들을 듣지도 않을 것이면, 저 집이나 성읍 바깥에 나오고 있으면서 너희는 너희의 발들의 먼지를 털어내라. 15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더 견디는 것이 심판의 날 안에 저 성읍에게보다 소도마들과¹⁵⁵⁾ 고몰라들의¹⁵⁶⁾ 땅에게 있을 것이다.”

16 “보라! 늑대들 가운데 있는 양들처럼 나는 너희를 파송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들처럼 슬기로운 이들과 비둘기들처럼 순결한 이들이 되고 있어라. 17 그런데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유의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 안으로 넘길 것이며 그들의 회당들 안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18 그리고 총독들에게도 왕들에게도 너희는 나 때문에 증언 안으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끌릴 것이다. 19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넘길 때에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발언할지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 시간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발언할지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0 왜냐하면 너희가 발언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아버지의 영이 너희 속에서 발언하시는 이이기 때문이다. 21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 안으로 넘길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그들을 죽일 것이다. 22 그리고 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미움당하고 있는 이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끝 안으로 견디었던 이이는 구원받을 것이다. 23 그런데 그들이 이 성읍 안에서 너희를 박해하고 있을 때에는, 너희는 딴 곳 안으로 피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결코 끝마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4 “제자가 선생 이상으로 종이 그의 주인 이상으로 있지 못한다. 25 그의 선생처럼 되는 것으로 제자에게 충분하며 종이 그의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약 그들이 집 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¹⁵⁷⁾ 일컬었다면, 그의 가족들을 얼마만큼 더욱 일컫겠는가! 26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벗겨 드러내지지 않을 것이 덮인 채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알려지지 않을 것이 감춰진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27 내가 너희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빛 안에서 말하라, 그리고 너희가 귀 안으로 듣고 있는 것을 너희는 옥상들 위에서 선포하라. 28 그리고 몸을 살해하고 있지만, 영혼을 살해할 수 없는 이들로부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그런데 영혼도 몸도 게엔나¹⁵⁸⁾ 안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너희는 더욱 두려워하고 있어라. 29 두 참새

155) 히브리어 ‘세돔’의 헬라어 음역. 복수형.

156) 히브리어 ‘아모라’의 헬라어 음역. 복수형.

157) ‘베에제불’ 또는 ‘베엘제불’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베엘제불’은 히브리어 ‘제불’이나 ‘제벨’ (똥)과 ‘바알’의 합성 형태로 ‘똥의 신’으로 보기도 하며, ‘베엘제불’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파리 신)에서 나온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경멸조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들이 일 앓사리온에¹⁵⁹) 팔리지 않느냐?¹⁶⁰)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하나도 너희의 아버지 아니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0 그런데 너희의 머리의 모든 머리카락들도 세어진 채 있으면서 있다. 31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 32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할 어느 누구나 모두를, 나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들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33 그런데 어느 누가 만약 장차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할 것이면, 나도 하늘들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34 “내가 땅에 평화를 던지러 왔다고 너희는 예상하지 마라. 나는 평화를 던지려고 오지 않았고 오히려 칼을 던지려고 왔다. 35 왜냐하면

‘사람을 그의 아버지에 반대하여 그리고 딸을 그녀의 어머니에 반대하여
그리고 며느리를 그녀의 시어머니에 반대하여’

들로 갈라지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다, 36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사람의 원수들이다.’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는 이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는 이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38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취하지 않으며 나의 뒤로 따라오고 있는 이, 그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39 그의 목숨을 찾아내었던 이는 그것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 때문에 그의 목숨을 멸망시켰던 이는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40 “너희를 영접하고 있는 이가 나를 영접한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고 있는 이가 나를 파송하신 분을 영접한다. 41 대언자의¹⁶¹) 이름 안으로 대언자를 영접하고 있는 이는 대언자의 대가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의 이름 안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있는 이는 의인의 대가를 취할 것이다. 42 그리고 만약 장차 이 작은이들 중의 한 명에게 제자의 이름 안으로 오직 차가운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할 것이면,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는 그의 대가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11 그리고 예수스께서¹⁶²) 그분의 열두 제자들에게 지시하시고 있는 것을 끝마치셨을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들의 성읍들 안에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있으며 선포하시고 있으려고 거기에서 옮겨가셨다.

158) ‘γεεννα’(게엔나)는 히브리어 ‘게 힌놈’(애곡의 골짜기)에서 유래했으며, 예루살렘 남동부로 뻗어 있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를 의미한다. 예레미야(7:32, 19:6)는 이 골짜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선포한다. 신약에서 ‘γεεννα’(게엔나)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하여 불타는 곳으로 최종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곳으로 나타난다.

159) 로마의 동전 화폐 중 하나이며, 일 앓사리온은 일 데나리온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160)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61)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162)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 그런데 요안네스가¹⁶³⁾ 크리스토스의¹⁶⁴⁾ 일들을 감방 안에서 들은 후에 제자들을 보낸 후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¹⁶⁵⁾ 3 그분에게 말했다. “당신이 오실 분이십니까? 또는 우리가 탄 이를 고대합니까?” 4 그리고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간 후 너희가 들으며 보는 것들을 요안네스에게 알려주어라.

5 ‘소경들이 쳐다보고 있으며 앓은뱅이들이 걸어나고 있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있으며 병어리들이 듣고 있으며,
죽은 이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난한 이들이 복음으로 전하여 듣고 있다.’

6 그리고 만약 장차 내 안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면 그는 복된 이이다.” 7 그런데 이들이 가고 있을 때 예수스께서 군중들에게 요안네스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지켜보려고 광야 안으로 나갔느냐? 바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갈대냐?¹⁶⁶⁾ 8 오히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것들 안에 둘러입힌 채 있는 사람이냐?¹⁶⁷⁾ 보라! 부드러운 것들을 지니고 있는 이들은 왕들의 집들 안에 있다. 9 오히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¹⁶⁸⁾냐?¹⁶⁹⁾ 맞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대언자보다 더 넘치는 이이다. 10 이이가 기록된 채 있는 것에 관한 이이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使者)를 너의 얼굴 앞에 파송한다,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갖출 것인 이인.’

11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들의 태어나게 하는 이들 중에서 세례자 요안네스보다 더 큰이는 일어난 채 있지 않다. 그런데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가장 작은이도 그보다 더 큰이이다. 12 그런데 세례자 요안네스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들의 왕국은 스스로를 위하여 힘을 쓰고 있으며¹⁷⁰⁾ 힘을 쓰는 이들이 그것을 탈취한다.¹⁷¹⁾ 13 왜냐하면 모든 대언자들과 율법은 요안네스까지 대언했기 때문이다. 14 그리고 만약 지금 너희가 영접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가 오고 있으려고 하고 있는 엘리야스¹⁷²⁾이다. 15 ¹⁷³⁾귀들을 갖고 있는 이는 듣고 있어라. 16 그런데 나는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고 할 것인가? 그것은 장터들 안에 앉아 있으면서 탄 아이들을 불러내고 있는 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17 말하고 있기를,

163) 히브리어 ‘요한난’과 ‘에호한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164)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165) “제자들을 보낸 후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대신에 ‘그의 제자들 중에서 두 명을 보낸 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66) 사본에 따라서는 ‘왜 너희는 광야 안으로 나갔느냐? 바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나?’도 될 수 있다.

167) 사본에 따라서는 ‘오히려 왜 너희는 나갔느냐? 부드러운 것들 안에서 두른 채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함이나?’도 될 수 있다.

168)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169) 사본에 따라서는 ‘오히려 왜 너희는 나갔느냐? 대언자를 보기 위함이나?’도 될 수 있다.

170) ‘힘을 쓰고 있으며’의 실제적인 의미는 ‘밀려들어오고 있으며’이다.

171) ‘~하늘들의 왕국은 폭력당하고 있으며 폭력자들이 그것을 탈취한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

172) 히브리어 ‘엘리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173) ‘듣고 있으려는’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 불었으나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174)애곡했으나 너희는 가슴 치지 않았다.’

18 왜냐하면 요안네스는 먹지도 않고 있으면서 마시지도 않고 있으면서 왔고, 그들은 말하기 때문이다. ‘그는 귀신을 갖고 있다.’ 19 사람의 아들은 먹고 있으면서 그리고 마시고 있으면서 왔다,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보라! 먹보이며 술꾼인 사람이고, 세금징수자들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의 일들로부터¹⁷⁵⁾ 의롭게 되었다.”

20 그때에 그분의 가장 많은 권능들이 있게 되었던 것들 안에 있는 성읍들을 그분이 비난하시고 있기 시작하셨다, 그것들이 회심하지¹⁷⁶⁾ 않았기 때문이다. 21 “너에게 화로다, 코라진아, 너에게 화가 있도다, 베뜨사이다야.¹⁷⁷⁾ 만약 너희 안에서 있게 되었던 권능들이 튀로스¹⁷⁸⁾와 시돈¹⁷⁹⁾ 안에서 있게 되었다면, 그것들은 벌써 굶은 베옷과 재 안에서 회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덧붙여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심판의 날 안에서 더 견디는 것이 너희에게보다 튀로스와 시돈에게 있을 것이다. 23 그리고 너, 카팔나움아,¹⁸⁰⁾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은 아니지 않느냐?¹⁸¹⁾ 너는 음부까지 내려갈 것이다.¹⁸²⁾ 만약 네 안에서 있게 되었던 권능들이 소도마들¹⁸³⁾ 안에서 있게 되었다면, 그것들은 오늘까지 머물렀을 것이기 때문이다. 24 덧붙여서 심판의 날 안에서 더 견디는 것이 너희에게보다 소모마들의 땅에게 있을 것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25 저 시점 안에서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님이여, 당신께서 이것들을 지혜로운 이들과 이해력 있는 이들로부터 감추셨으며 그것들을 어린애들에게 벗겨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이와 같이 당신 앞에서 좋은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7 모든 것들이 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무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며, 아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만약 장차 그에게 아들이 벗겨 드러내려고 의도하지 않을 것이라면 누구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¹⁸⁴⁾ 28 수고하고 있으며 짐 진 채 있

174) ‘너희에게’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75) ‘자녀들로부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76) ‘μετανοεω’(메타노에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다’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의 ‘회심(回心)하다’로 번역했다.

177) 아람어 ‘베트차이다’의 헬라어 음역으로 ‘물고기의 집’이다.

178) 히브리어 ‘초르’(돌, 반석)의 헬라어 번역이다.

179) 히브리어 ‘치돈’(사냥하다)의 헬라어 음역이다.

180) ‘위로의 마을’

181)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은 아니지 않느냐?” 대신에 ‘하늘까지 높여졌던 것이여,’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82) ‘끌어내려질 것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또한 앞 문장과 연결된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음부까지 내려갈 것이다.” 대신에 ‘하늘까지 높여졌던 너는 음부까지 끌어내려질 것이다.’로 번역할 수도 있는 사본들도 있다.

183) 히브리어 ‘세돔’의 헬라어 음역. 복수형.

184) 27절을 기도문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단순한 진술로 볼 것인지는 독법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한 내용의 누가복음 10장 22절을 참고하라. 또한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무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며, 아들이 아니라면 ~ 누구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면 아무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며, 아버지가 아니라면 ~ 누구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로

는 모든 이들 너희는 나를 향하여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할 것이다. 29 너희는 너희 위에 나의 명을 들어올려라 그리고 나로부터 배워라, 나는 마음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영혼들에게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30 왜냐하면 나의 명에는 인자하며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12 저 시점 안에서 예수스께서¹⁸⁵⁾ 안식일들에 밀밭들을 통하여 가셨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주렸으며 이삭을 뜯고 있기를 그리고 먹고 있기를 시작했다. 2 그런데 파리사이오스들이¹⁸⁶⁾ 본 후 그분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안에서 행하고 있기는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행합니다.” 3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이들이 주렸을 때에 무엇을 행했는지 너희가 읽었지 않느냐?¹⁸⁷⁾ 4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진설하는 것의 빵들을 그들이 먹었느냐¹⁸⁸⁾? 오직 제사장들에게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에게나 그와 함께 한 이들에게도 먹기에 합법적이지 않는 일이었다. 5 또는 안식일들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모독하고도 무죄하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 안에서 읽었지 않느냐?¹⁸⁹⁾ 6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성전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다고 말한다. 7 그런데 만약 너희가 무엇인지 알은 채 있었다면,

‘나는 공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무죄한 이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8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9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서 옮겨가신 후 그들의 회당 안으로 가셨다. 10 그리고 보라!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질문했다. 말하고 있기를, “안식일들에 치료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그들이 그분을 고발하기 위함이다. 11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군가 너희 중에서 양 하나를 가질 어느 사람이 있을 것이며 만약 장차 이것이 안식일들에 구덩이 안으로 빠질 것이면, 그가 그것을 붙잡으며 일으키지 않을 것이냐?¹⁹⁰⁾ 12 그렇다면 사람은 양보다 얼마만큼 귀한가! 따라서 안식일들에 잘 행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이다.” 13 그때에 그분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가 내밀었으며 다른 쪽처럼 건강한 것으로 회복되었다. 14 그런데 파리사이오스들이 나간 후 그분에 반대하여 그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상의했다. 15 그런데 예수스께서 아신 후 거기에서 물러가셨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¹⁹¹⁾ 그분을 따라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85)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86)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187)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88) “그들이 먹었느냐” 대신에 ‘그가 먹었느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89)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90)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갔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 모든 이들을 치료하셨으며 16 그들이 그분을 나타내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그들에게 훈계하셨다. 17 대언자¹⁹²⁾ 에사리아스가¹⁹³⁾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말해졌던 일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18 “보라! 내가 택했던 나의 종,

그이 안으로 나의 영혼이 좋게 생각했던 나의 사랑하는 이.

내가 나의 영을 그이 위에 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알려줄 것이다.

19 그는 분쟁하지도 않을 것이며 소리 지르지도 않을 것이며,

누구도 넓은 길들 안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도 못할 것이다.

20 그는 부서진 채 있는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며

연기 나고 있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승리 안으로 심판을 내던질 때까지.

21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소망할 것이다.”

22 그때에 귀신들려 있는 소경 병어리가 그분에게 데려와졌다, 그리고 그분이 그를 치료하셨다, 따라서 병어리가 발언하며 본다. 23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정신 나가고 있었으며 말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이가 그 다원의 자손은 아니지 않는가?”¹⁹⁴⁾ 24 그런데 파리아시오스들이 들은 후 말했다. “귀신들의 통치자 베엘제불¹⁹⁵⁾ 안에서가 아니라면 이이는 귀신들을 내쫓지 못한다.” 25 그런데 ¹⁹⁶⁾그들의 속생각들을 아시고 있으면서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왕국은 그자신에 반대하여 분리된 후 황폐해지며 모든 성읍이나 집은 그자신에 반대하여 분리된 후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26 그리고 만약 지금 사타나스가¹⁹⁷⁾ 사타나스를 내쫓고 있다면, 그는 그자신에 대하여 분리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냐? 27 그리고 만약 지금 내가 베엘제불 안에서 귀신들을 내쫓고 있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무엇 안에서 내쫓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28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귀신들을 내쫓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위에 임했다. 29 또는 어떤 이가 어떻게 능력 있는 이의 집 안으로 들어가며 그의 물건들을 탈취할 수 있느냐, 만약 장차 먼저 그 능력 있는 이를 묶지 않을 것이면? 그리고 그때에 그가 그의 집을 제대로 강탈할 것이다. 30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이는 나에게 반대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고 있는 이는 흘

191) “군중들이”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92)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193) 히브리어 ‘에샤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194) ‘μητι’(메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95) ‘베에제불’ 또는 ‘베엘제붐’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베엘제불’은 히브리어 ‘제불’이나 ‘제벨’(똥)과 ‘바알’의 합성 형태로 ‘똥의 신’으로 보기도 하며, ‘베엘제붐’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파리 신)에서 나온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경멸조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196) “예수스께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97) 히브리어 ‘사탄’(대항자, 대적자)의 헬라어 음역이다.

트린다. 31 이것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것이다, 그런데 영의 모독은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 32 그리고 만약 장차 사람의 아들에 반대하여 말을 말할 것이면, 그것은 그에게 용서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장차 성령에 반대하여 말할 것이면, 그것은 이 시대 안에서도 오고 있으려고 하는 시대 안에서도 그에게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 33 너희는 나무도 좋게 그리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만들어라, 또는 나무도 부패하게 그리고 그것의 열매도 부패하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 밖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34 독사들의 자식들아, 악한 자들인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발언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마음의 넘침 밖으로 입이 발언하기 때문이다. 35 선한 사람은 선한 저장물 밖으로 선한 것들을 내보낸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저장물 밖으로 악한 것들을 내보낸다. 36 그런데 사람들이 발언할 모든 쓸모없는 입말을¹⁹⁸⁾ 그의 말에 대하여 심판의 날 안에서 그들이 갚아줄 것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37 왜냐하면 너의 말들 밖으로 네가 의롭게 될 것이며, 너의 말들 밖으로 네가 정죄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38 그때에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 중에서 어떤 이들이 그분에게 대답했다. 말하고 있기를, “선생님,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39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애써 찾는다, 그러나 대언자 요나스의¹⁹⁹⁾ 표적이 아니라면 표적이 그것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40 왜냐하면 마치

‘요나스가 큰 물고기 배 안에서 세 낮들과 세 밤들을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땅의 마음 안에서 세 낮들과 세 밤들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1 니뉴이테스²⁰⁰⁾ 남자들이 심판 안에서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설 것이며 그것을 유죄 선고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스의 선포 안으로 회심했기²⁰¹⁾ 때문이다, 그리고 보라! 요나스보다 더 큰이가 여기에 있다. 42 남쪽의 여왕이 심판 안에서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날 것이며 그것을 유죄 선고할 것이다, 그녀가 솔로몬의²⁰²⁾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끄트머리들 밖으로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에 있다. 43 그런데 더러운 영이 사람으로부터 나갔을 때에는, 그것이 안식을 찾고 있으면서 물 없는 곳들을 통하여 통과하여 가고 있으면서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44 그때에 그것이 말한다. ‘내가 나왔던 나의 집 안으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간 후 그것이 비어 있으면서 청소된 채 있는 것과 단장된 채 있는 것을 발견한다. 45 그때에 그것이 가며 그자신보다 더 악한 일곱 다른 영들을 그자신과 함께 옆에 취하며 들어간 후 거기에 거주한다. 그리고 저 사람의 마지막들이 첫 번째들보다 더 심하게 된다. 악한 이 세대도 이와 같을 것이

198)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199) 히브리어 ‘요나’(비둘기)의 헬라어 음역이다.

200) 니느웨 사람.

201) ‘μετανοεω’(메타노에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다’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의 ‘회심(回心)하다’로 번역했다.

202) 히브리어 ‘셸로모’(평화스러운)의 헬라어 음역이다.

다.”

46 아직 그분이 군중들에게 발언하시고 있을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에게 발언하려고 찾고 있으면서 바깥에 선 채 있었다. 47 [그런데 어떤 이가 그분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에게 발언하려고 찾고 있으면서 바깥에 선 채 있습니다.”]203) 48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그분에게 말하는 이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49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손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내미신 후 말씀하셨다. “보라!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이다. 50 왜냐하면 어느 누가 만약 장차 하늘들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것이면 그가 나의 형제이며 누이이며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13 저 날 안에서 예수스께서204) 집 밖으로 나가신 후 바다 옆에 앉아 계셨다. 2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향하여 모였다, 따라서 그분이 배 안으로 타신 후 앉아 계신다, 그리고 모든 군중은 해변에 선 채 있었다. 3 그리고 그분이 비유들 안에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발언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보라! 씨 뿌리고 있는 이가 씨 뿌리고 있으려고 나갔다. 4. 그리고 그가 씨 뿌리고 있는 안에서 한편 어떤 것들은 길옆에 떨어졌다, 그리고 새들이 온 후 그것들을 먹어치웠다. 5 오히려 또 한편 다른 것들은 많은 땅을 갖고 있지 않았던 돌밭들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깊은 땅을 갖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곧 솟아올랐다. 6 그런데 해가 떠오른 후에 그것들은 타게 되었으며 뿌리를 갖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마르게 되었다. 7 오히려 또 한편 다른 것들은 가시나무들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가시나무들이 자랐으며 그것들을 질식사시켰다. 8 오히려 또 한편 다른 것들은 좋은 땅 위에 떨어졌으며 열매를 주고 있었다, 한편 백 개를, 또 한편 육십 개를, 또 한편 삼십 개를. 9 205)귀들을 갖고 있는 이는 듣고 있어라.”

10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온 후 그분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비유들 안에서 그들에게 발언하십니까?” 11 그런데 그분이 대답한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들의 왕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주어진 채 있으나, 저들에게는 주어진 채 있지 않기 때문이다. 12 왜냐하면 어느 누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며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누가 갖고 있지 않을 때, 갖고 있는 것도 그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13 이것 때문에 나는 비유들 안에서 그들에게 발언한다, 그들이 보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듣고 있으면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206) 14 그리고 에사리아스가207) 말하고 있는 대언이208) 그들에게 완전히 성취된다.

203) 47절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04)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05) ‘듣고 있으려는’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06) “그들이 ~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들이 ~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07) 히브리어 ‘에샤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209)듣는 곳으로 너희가 들을 것이나 너희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보고 있으면서 볼 것이나 너희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15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더졌으며,

그리고 그들이 귀들로 둔하게 들었으며

그들의 눈들을 감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들로 볼까

그리고 귀들로 들을까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할까

그리고 돌이킬까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낮게 할까 함이다.’

16 그런데 너희의 눈들은 보기 때문에 너희의 귀들은 듣기 때문에 복되다. 17 왜냐하면 많은 대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기를 갈망했으나 보지 못했다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듣기를 갈망했으나 듣지 못했다고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18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렸던 이의 비유를 들어라. 19 모든 이가 왕국의 말씀을 듣고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는 악한 자가 오며 그의 마음 안에 씨 뿌려진 채 있는 것을 탈취한다, 이이가 길옆에 씨 뿌려졌던 이이다. 20 그런데 돌밭들 위에 씨 뿌려졌던 이, 이이는 말씀을 듣고 있으며 곧 기쁨과 함께 그것을 취하고 있는 이이다, 21 그런데 그는 그자신 안에 뿌리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잠시 있으나, 말씀 때문에 옥여쌈이나 박해가 있게 된 후 곧 넘어진다. 22 그런데 가시나무들 안으로 씨 뿌려졌던 이, 이이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이다, 그러나 시대의 염려와 부유함의 속임이 말씀을 아주 질식시키며 그는 열매 없게 된다. 23 그런데 좋은 땅 위에 씨 뿌려졌던 이, 이이는 말씀을 듣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는 이인데, 이제 그는 열매 맺으며 한편 백 개를, 또 한편 육십 개를, 또 한편 삼십 개를 만든다.”

24 그분이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내놓으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하늘들의 왕국은 사람이 그의 밭 안에 좋은 씨를 뿌렸던 것과 같아졌다. 25 그런데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가운데 그의 원수가 왔으며 밀 사이사이에 가라지들을 덧뿌렸으며 떠나갔다. 26 그런데 풀이 싹트었으며 열매를 만들었을 때에, 그대에 가라지들도 나타났다. 27 그런데 집주인의 종들이 나아온 후 그에게 말했다. ‘주인님, 당신이 당신의 밭 안에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210)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가라지들을 갖고 있습니까?’ 28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원수인 사람이 이것을 행했다.’ 그런데 종들이 그에게 말한다. ‘그렇다면 저희가 떠나간 후 그것들을 거두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29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고 있을 때 그것들과 동시에 밀을 뿌리재 뽑을까 함이다. 30 너희는 추수까지 양쪽 모두 함께 자라고 있도록 내버려두어라, 그리고 추수의 시점 안

208) ‘προφητεία’(프로페테이아)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ים’(네부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것의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으로 번역했다.

209) 이 앞부분에 ‘너는 가라 그리고 이 백성에게 말하라.’가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10)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에서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거두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을 향하여 단 안으로 그것들을 묶어라, 그리고 밀을 나의 창고 안으로 모아라.”

31 그분이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내놓으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하늘들의 왕국은 겨자의 한 낱알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취한 후 그의 밭 안에 뿌렸던 것인. 32 한편 그것은 모든 씨들 중의 가장 작은 것인데, 또 한편 그것이 자라게 되었을 때는 야채들보다 더 크며 나무가 된다, 따라서

‘하늘의 새들이 오며 그것의 가지들 안에 장막을 치고 있다.’”

33 그분이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발언하셨다. “하늘들의 왕국은 발효제와 같은 것이다, 여인이 그것을 취한 후 전부가 발효될 때까지 밀가루의 세 사튼들²¹¹⁾ 안으로 감췄던 것인.”

34 예수스께서 이 모든 것들을 비유들 안에서 군중들에게 발언하셨으며 비유 외에는 아무 것도 그들에게 발언하시지 않고 있었다, 35 ²¹²⁾대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말해졌던 일이 성취되기 위함이다.

“내가 나의 입을 비유들 안에서 열 것이며,

세상의²¹³⁾ 시초부터 감춰진 채 있는 것들을 발설할 것이다.”

36 그대에 그분이 군중들을 내버려두신 후 집 안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밭의 가라지들의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주십시오.” 37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다, 38 그런데 밭은 세상이다, 그런데 좋은 씨인 이들은 왕국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39 그런데 그것들을 뿌렸던 원수는 마귀이다, 그런데 추수는 시대의 맨 끝이다, 그런데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40 그러므로 마치 가라지들이 거두어지며 불로 태워버려지는 것처럼, 시대의 맨 끝 안에서도 이와 같을 것이다. 41 사람의 아들이 그의 사자(使者)들을 파송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넘어뜨리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고 있는 이들을 그들이 그의 왕국 밖으로 거둘 것이다 42 그리고 그들을 불의 아궁이 안으로 그들이 던질 것이다. 거기에 울부짖음과 이빨들의 값이 있을 것이다. 43 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²¹⁴⁾귀들을 갖고 있는 이는 듣고 있어라.”

44 “하늘들의 왕국은 밭에 감춰진 채 있는 저장물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 감췄던 것인, 그리고 그가 그의 기쁨으로부터 떠나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며 저 밭을 산다.”

45 “또다시 하늘들의 왕국은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 상인과 같은 것이다. 46 그런데

211) 히브리어 ‘스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부피단위인데, 1‘사튼’은 약 0.7말(斗) 정도이다.

212) ‘에사이아스’(히브리어 ‘에샤야’의 헬라어 음역-이사야)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13) “세상의”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14) ‘듣고 있으려는’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그가 값비싼 진주 하나를 찾아낸 후에 떠나간 후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처분한 채 있으며 그것을 샀다.”

47 “또다시 하늘들의 왕국은 큰 그물이 바다 안으로 던져졌으며 모든 종류 중에서 모았던 것과 같은 것이다. 48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들이 바닷가에 끌어올린 후에 그리고 앉은 후 좋은 것들을 그릇들 안으로 거두었다, 그런데 부패한 것들을 바깥에 던졌다. 49 시대의 맨 끝 안에서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올 것이며 의인들 가운데서 밖으로 악한 자들을 구별할 것이며 50 그리고

‘그들을 불의 아궁이 안으로 그들이 던질 것이다.’

거기에 울부짖음과 이빨들의 값이 있을 것이다.”

51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한다. “그렇습니다.” 52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 때문에 하늘들의 왕국에게 제자 되었던 모든 서기관은 집주인인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의 저장물 밖으로 새로운 것들과 오래된 것들을 내보내고 있는 어느 누구인.”

53 그리고 예수스께서 이 비유들을 끝마치셨을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옮기셨다. 54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고향 안으로 가신 후 그들의 회당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충격 받고 있으며 말하고 있다. “이 지혜와 권능들은 어디로부터 이이에게 왔는가? 55 이이는 그 건축기술자의 아들이 아니냐?²¹⁵⁾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므로²¹⁶⁾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스와 요셉과²¹⁷⁾ 시몬과²¹⁸⁾ 유다스로²¹⁹⁾ 말해지고 있지 않느냐?²²⁰⁾ 56 그리고 모든 그의 누이들은 우리를 향하여 있지 않느냐?²²¹⁾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이이에게 왔는가?” 57 그리고 그들이 그것 안에서 넘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대언자는 그의 고향 안과 집 안이 아니라면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58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않으셨다.

14 저 시점 안에서 1/4통치자²²²⁾ 헤로데스가²²³⁾ 예수스의²²⁴⁾ 소문을 들었다, 2 그리고 그가 그의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이는 세례자 요안네스²²⁵⁾이다. 그가 죽은

215)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16)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얌’(개역을 비롯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으로 번역)을 ‘마리아’으로 기록하고 있다.

217) ‘요세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18) 히브리어 ‘셈온’(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219)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220)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21)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22) 이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을 4등분으로 나누고, 그 4등분된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각각 따로 세웠다. 1/4통치자는 이 4등분된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이다.

223) 이 헤로데스는 예수님 출생 당시의 왕이었던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헤로데스의 아들이다.

224)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이들로부터 일어났으며 이것 때문에 권능들이 그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3 왜냐하면 헤로데스가 그의 형제 필립포스의²²⁶⁾ 아내 헤로디아스 때문에 요안네스를 붙잡은 후 그를 묶었으며 감옥 안에 떼어두었기 때문이다. 4 왜냐하면 요안네스가 그에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갖고 있는 것은 당신에게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5 그리고 그는 그를 살해하기 원하고 있으면서도 군중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그를 대언자처럼²²⁷⁾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6 그런데 헤로데스의 생일잔치들이 있게 된 후 헤로디아스의 딸이 그 생일잔치들에 가운데서 춤을 추었으며 헤로데스를 기쁘게 했다, 7 거기에서 만약 장차 그녀가 구할 것이면 그녀에게 주기로 그가 맹세와 함께 선언했다. 8 그런데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부추김 받은 후에, “당신은 저에게 주십시오”, 말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세례자 요안네스의 머리를 쟁반 위에 담아.” 9 그리고 왕은 슬퍼한 후²²⁸⁾ 맹세들과 앉아 있는 이들 때문에 ²²⁹⁾주어질 것을 명령했다,²³⁰⁾ 10 그리고 그가 사람을 보낸 후 요안네스를 감옥 안에서 목 잘랐다. 11 그리고 그의 머리가 쟁반 위로 가져와졌으며 소녀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12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나아온 후 시체를 들어올렸으며 그를²³¹⁾ 매장했으며 간 후에 예수스께 알려주었다.

13 그런데 예수스께서 들으신 후 거기서부터 배 안에서 광야 안으로 따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군중들이 들은 후 성읍들로부터 육로로 그분을 따라갔다. 14 그리고 그분이 나간 후 많은 군중을 보셨으며 그들에 대하여 애타게 되셨으며 그들의 병든 이들을 치료하셨다. 15 그런데 해 질 녘이 된 후에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왔다. 말하고 있기를, “이곳은 광야이며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당신은 군중들을 풀어보내십시오, 그들이 마을들 안으로 떠나간 후 그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6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떠나갈 필요를 갖고 있지 않다, 너희 자신들이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어라.” 17 그런데 그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다섯 빵들과 두 물고기들이 아니라면 저희는 여기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18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것들을 여기로 나에게 가져오고 있어라.” 19 그리고 군중들이 풀 위에 앉혀질 것을 그분이 명령하신 후에, 다섯 빵들과 두 물고기들을 취하신 후에, 하늘 안으로 쳐다보신 후 축복하셨으며 떼신 후 빵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주었다. 20 그리고 모든 이들이 먹었으며 배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조각들의 넘치고 있는 총만한 열두 바구니들을 들어올렸다. 21 그런데 먹고 있는 이들은 여인들과 아이들 외에 거의 오

225) 히브리어 ‘요하난’과 ‘예호하난’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226) 이 필립포스와 마태복음 16장 13절과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이투라이아와 트라코니티스의 1/4통치자 필립포스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227)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228) ‘슬퍼하였다. 그러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29) ‘그녀에게’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30) ‘그리고 왕이 맹세들과 앉아 있는 이들 때문에 슬퍼한 후 주어질 것을 명령했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

231) “그것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많다. 어느 것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천 정도의 남자들이었다.

22 그리고 곧 제자들이 배 안으로 타며 건너편 안으로 그분을 앞서 가고 있도록 그분이 강권하셨다. 그분이 군중들을 풀어보내시는 동안에. 23 그리고 그분은 군중들을 풀어보내신 후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 안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해 질 녘이 된 후에 그분이 홀로 거기에 계셨다. 24 그런데 배가 이미 파도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많은 스타디온들을²³²⁾ 땅으로부터²³³⁾ 멀어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바람이 마주하기 때문이었다. 25 그런데 그분이 밤의 넷째 1/4야간경비시간에²³⁴⁾ 바다 위로 걸어다니시고 있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오셨다. 26 그런데 그분이 바다 위로 걸어다니시고 있는 것을 본 후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동요되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소리쳤다. 27 그런데 곧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너희는 용기를 내고 있어라, 바로 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28 그런데 페트로스가 대답한 후 그분에게 말했다. “주님, 만약 당신이시라면, 제가 물들 위로 당신을 향하여 가도록 당신은 명령해주십시오.” 29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오라.” 그리고 페트로스가 배로부터 내려온 후 물들 위로 걸어다녔으며 예수스를 향하여 갔다.²³⁵⁾ 30 그런데 그가 강한²³⁶⁾ 바람을 보고 있으면서 두려워했다, 그리고 바다에 빠져들고 있기를 시작한 후 소리쳤다. 말하고 있기를, “주님, 당신은 저를 구원해주십시오.” 31 그런데 곧 예수스께서 손을 내미신 후 그를 붙드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신다. “믿음작은이야, 무엇 안으로 너는 의심했느냐?” 32 그리고 그들이 배 안으로 올라온 후에 바람이 그쳤다. 33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이들이 그분에게 경배했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4 그리고 그들이 건너간 후 겐네사헬²³⁷⁾ 안으로 땅 위로 갔다. 35 그리고 저 곳의 남자들이 그분을 알아본 후 저 온 주변지역 안으로 파송했으며 나쁘게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을 그분에게 데려왔으며 36 오직 그분의 겂옷의 술을 만지기를 그분에게 요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졌던 이들만큼은 무사히 구원받았다.

15 그때에 히에로솔뤼마로부터²³⁸⁾ 파리사이오스들과²³⁹⁾ 서기관들이 예수스께²⁴⁰⁾ 오고 있다. 말하고 있기를, 2 “무엇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빵을 먹고 있을 때 그들의 손들을 스스로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232) 거리단위로, 1‘스타디온’은 약 192미터이다.

233) ‘바다 가운데에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34) 당시 로마의 관습에 따라 하룻밤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세 시간씩 4등분하여 교대로 경비하던 시간. 따라서 본문의 시점은 새벽 3시~6시이다.

235) ‘예수스를 향하여 가려고 물들 위로 걸어다녔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36) “강한”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37) 히브리어 ‘킨네로트’의 헬라어 음역으로, 갈릴리아 바다의 카팔나움과 막달라(마가단) 사이의 서쪽 해안에 접하여 있는 작은 평야이다.

238) 히브리어 ‘에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에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239)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240) 히브리어 ‘에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 때문에 너희도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²⁴¹⁾ 때문이다.

‘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고 있는 이는
죽음으로 최후를 맞게 하고 있어라.’

5 그런데 너희는 말한다. ‘만약 장차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할 것이면, 당신이 제게서 유익 받을 것이면 하는 것이 제물입니다, 6 그는 그의 아버지를²⁴²⁾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²⁴³⁾’ 그리고 너희의 전통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²⁴⁴⁾ 무효화시킨다. 7 가면 연기자들아,²⁴⁵⁾ 에사리아스가²⁴⁶⁾ 너희에 관하여 잘 대언했다.²⁴⁷⁾ 말하고 있기를,

8 ‘이 백성이 입술들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9 그런데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훈들로 가르치고 있으면서.’”

10 그리고 그분이 군중을 부르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있어라 그리고 이해하고 있어라. 11 입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12 그때에 제자들이 나아온 후 그분에게 말한다. “파리사이오스들이 말씀을 들은 후 넘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13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하늘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았던 모든 심은 것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14 너희는 그들을 내버려두어라. 소경들이 소경들의²⁴⁸⁾ 인도자들이다. 그런데 소경이 소경을 만약 장차 인도하고 있을 것이면, 양쪽 모두가 구덩이 안으로 떨어질 것이다.” 15 그런데 페트로스가 대답한 후 그분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²⁴⁹⁾ 비유를 저희에게 풀이해주십시오.” 16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아직까지 너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냐? 17 입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든 것은 배 안으로 받아들여지며 똥통 안으로 내보내진다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18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마음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저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19 왜냐하면 마음 밖으로 악한 의견들이, 살인들이, 간음들이, 음행들이, 도둑질들이, 거짓증언들이, 모독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20 이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씻지 않은 손들로 먹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241)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명하셨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42)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43) 실제적인 의미는 ‘그는 그의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이다.

244) ‘계명’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45) 원문은 ‘ὑποκριτής’(휘포크리데스)로 주로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지칭하며, 관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로 보기도 한다.

246) 히브리어 ‘에샤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247) ‘προφητεῖω’(프로페티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바)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다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하다’로 번역했다.

248) “소경들의”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49) “이”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1 그리고 예수스께서 거기에서 나오신 후 튀로스와²⁵⁰⁾ 시돈의²⁵¹⁾ 지방들로 물러가셨다. 22 그리고 보라! 카나나리아 여인이 저 지방들로부터 나온 후 소리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저에게 공흠을 베풀어주십시오, 다원의 자손 주님이시여. 저의 딸이 나쁘게 귀신들려 있습니다.” 23 그런데 그분이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나아온 후 그분에게 청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그녀를 풀어보내십시오, 그녀가 저희 뒤에서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24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멸망시킨 채 있는 양들 안으로가 아니라면 파송 받지 않았다.” 25 그런데 그녀가 온 후 그분에게 경배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주님, 당신은 저를 도와주고 있으십시오.” 26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취하며 집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27 그런데 그녀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집개들은 그것들의 주인들의 식탁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부터 먹기 때문입니다.” 28 그때에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다. 네가 원하는 것처럼 그것이 너에게 되어라.” 그리고 그녀의 딸이 저 시간부터 낫게 되었다.

29 그리고 예수스께서 거기에서 옮겨가신 후 갈릴라이아의²⁵²⁾ 바다 옆을 가셨다, 그리고 산 안으로 오르신 후 거기에 앉아 계셨다. 30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그자신들과 함께 앉은뱅이들을, 소경들을, 불구자들을, 병어리들을, 많은 탄 이들을 갖고 있을 때 그분에게 나아왔으며 그들을 그분의 발들 옆에 던져 놓았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치료하셨다. 31 따라서 병어리들이 발언하고 있는 것을²⁵³⁾, 불구자들이 건강한 것과 앉은뱅이들이 걸어나고 있는 것과 소경들이 보고 있는 것을 군중이 보고 있으면서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²⁵⁴⁾.

32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 말씀하셨다. “내가 군중에 대하여 애가 탄다, 이미 세 날들이 나에게 머물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인가 먹을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굶은 그들을 나는 풀어보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길 안에서 탈진하게 될까 함이다.” 33 그리고 제자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광야 안에서 이렇게 많은 빵들이 어디로부터 저희에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부르게 합니까?” 34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얼마만큼의 빵들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일곱 개와 적은 수의 작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35 그리고 그분이 군중에게 땅 위에 앉도록 분부하신 후 36 그분이 일곱 빵들과 물고기들을 취하셨으며 감사하신 후 떼셨으며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주고 있었다. 37 그리고 모든 이들이 먹었으며 배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조각들의 넘치고 있는 충만한 일곱 광주리들을 들어올렸다. 38 그런데 먹고 있는 이들은 여인들과 아이들 외에 사천의 남

250) 히브리어 ‘초르’(돌, 반석)의 헬라어 번역이다.

251) 히브리어 ‘치돈’(사냥하다)의 헬라어 음역이다.

252)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253) “병어리들이 발언하고 있는 것을” 대신에 ‘귀머거리들이 듣고 있는 것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4) ‘돌리고 있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자들이었다. 39 그리고 그분이 군중들을 풀어보내신 후 배 안으로 타셨으며 마가단²⁵⁵ 지방들 안으로 가셨다.

16 그리고 파리사이오스들과²⁵⁶ 살두카이오스들이²⁵⁷ 나아온 후 그들에게 하늘 밖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시험하고 있으면서 그분에게 질문했다. 2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해 질 녘이 되었을 때 너희는 말한다. ‘좋은 날씨이다, 왜냐하면 하늘이 붉기 때문이다.’ 3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오늘은 궂은 날씨이다, 왜냐하면 하늘이 흐리고 있으면서 붉기 때문이다.’ 한편 너희가 하늘의 얼굴을 분별하고 있을 줄 알면서, 또 한편 시점들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없느냐?]²⁵⁸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애써 찾는다, 그러나 요나스의²⁵⁹ 표적이 아니라면 그것에게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남겨두신 후 떠나가셨다.

5 그리고 제자들이 건너편 안으로 간 후 빵들을 취하는 것을 잊었다. 6 그런데 예수스께서²⁶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파리사이오스들과 살두카이오스들의 발효제로부터 주의하고 있어라 그리고 유의하고 있어라.” 7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빵들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자신들 안에서 의논하고 있었다. 8 그런데 예수스께서 아신 후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너희자신들 안에서 의논하고 있느냐, 믿음작은이들아, 너희가 빵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9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오천의 다섯 빵들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너희가 얼마만큼의 바구니들을 취했느냐? 10 사천의 일곱 빵들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너희가 얼마만큼의 광주리들을 취했느냐? 11 어떻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빵들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파리사이오스들과 살두카이오스들의 발효제로부터 유의하고 있어라.” 12 그때에 그분이 빵들의²⁶¹ 발효제로부터 유의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파리사이오스들과 살두카이오스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유의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다.

13 그런데 예수스께서 필립포스의²⁶² 카이사레이아 지방들 안으로 간 후 그분의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있었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²⁶³ 누구라고 말하느냐?” 14 그런데 그들이 말했다. “한편 그들은 세례자 요안네스라고,²⁶⁴ 또 한편 다른 이들은 엘리야스라고,²⁶⁵ 또 한편 딴 이들은 예레미아스²⁶⁶ 또는 대언자들²⁶⁷ 중의 한

255) ‘막달라, 막달란, 마게단’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6)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257) 히브리어 ‘차독’(70인역 ‘사독’)의 헬라어 번역으로 추정한다.

258) [] 부분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59) 히브리어 ‘요나’(비둘기)의 헬라어 음역이다.

260)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61) ‘파리사이오스들과 살두카이오스들의 빵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62) 이 필립포스는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 필립포스와는 다른 인물로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이투라이아와 트라코니티스의 1/4통치자 필립포스이다.

263) ‘사람의 아들인 나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64) 히브리어 ‘요한난’과 ‘예호한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명이라고 말합니다.” 15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16 그런데 시몬²⁶⁸) 페트로스가 대답한 후 말했다. “당신은 살아계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스²⁶⁹)이십니다.” 17 그런데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복된 이이다, 시몬 바리오나스야,²⁷⁰) 육체와 피가 너에게 벗겨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하늘들 안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벗겨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18 그런데 내가 페트로스이며, 내가 이 바위²⁷¹)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문들이 그것보다 더 우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19 내가 너에게 하늘들의 왕국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장차 내가 땅 위에서 묶을 것이면 그것은 하늘들 안에서 묶여진 채 있으면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장차 내가 땅 위에서 풀 것이면 그것은 하늘들 안에서 풀려진 채 있으면서 있을 것이다.” 20 그때에 그분이 크리스토스이신²⁷²)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21 그때부터 그분이 히에로솔뤼마²⁷³) 안으로 떠나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고난당해야 하며 살해당해야 하며 셋째 날에 일어나야 할 것을 예수스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22 그리고 페트로스가 그분을 취한 후 그분에게 훈계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에게 은혜롭기를, 주님. 당신에게 이일이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23 그런데 그분이 돌아서신 후 페트로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뒤로 떠나고 있어라, 사타나스야,²⁷⁴) 너는 나의 넘어뜨리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일들을 마음에 두기 때문이다.” 24 그때에 예수스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지금 어떤 자가 나의 뒤로 오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는 그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들어올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25 왜냐하면 만약 장차 그의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면 그는 그것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고, 만약 장차 나 때문에 그의 목숨을 멸망시킬 것이면 그는 그것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26 왜냐하면 만약 장차 그가 온 세상을 얻을 것이면 그런데 그의 목숨을 손해 볼 것이면 사람이 무엇으로 유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냐? 또는 사람이 그의 목숨의 대용품을 무엇으로 줄 것이냐? 27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그의 사자(使者)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오고 있으려고 하며, 그때에

265) 히브리어 ‘엘리아’의 헬라어 음역이다.

266) 히브리어 ‘이르메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267)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268) 히브리어 ‘שמון’(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269)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270) 아람어 ‘바르 요나’(요나의 아들)의 헬라어 음역이다.

271) 원문은 ‘πετρα’(페트라)인데, ‘πετρος’(페트로스)는 남성형이며 ‘πετρα’(페트라)는 여성형으로 동일한 단어가 성별(性別)에 따라 달리 표현되었다. 그 뜻은 동일하게 ‘바위’이다.

272) ‘예수스 크리스토스이신’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73)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274) 히브리어 ‘사탄’(대항자, 대적자)의 헬라어 음역이다.

‘그의 실행에²⁷⁵⁾ 따라 각자에게 갚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28 여기 선 채 있는 이들 중의 어떤 이들은 사람의 아들이 그의 왕국 안에서 오고 있는 것을 볼 때까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이들이라고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17 그리고 여섯 날들 후에 예수스께서²⁷⁶⁾ 페트로스와 야코보스와²⁷⁷⁾ 그의 형제 요안네스를²⁷⁸⁾ 옆에 취하시며 따로 높은 산 안으로 그들을 위로 데려가신다. 2 그리고 그분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런데 그분의 겹옷들은 빛²⁷⁹⁾처럼 하얗게 되었다. 3 그리고 보라! 모우세스와²⁸⁰⁾ 엘리아스가²⁸¹⁾ 그분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4 그런데 페트로스가 대답한 후 예수스께 말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원하시고 있다면, 여기에 세 장막들을 제가²⁸²⁾ 만들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를 그리고 모우세스에게 하나를 그리고 엘리아스에게 하나를.” 5 그가 아직 발언하고 있을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그늘지게 했다, 그리고 보라! 소리가 구름 밖으로 말하고 있기를, “이이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이 안에서 내가 좋게 생각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있어라.” 6 그리고 제자들이 들은 후 그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며 매우 두려워했다. 7 그리고 예수스께서 나아오셨으며 그들을 만지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8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눈들을 위로 들어올린 후 오직 예수스 자신이 아니라면 아무도 보지 못했다.

9 그리고 그들이 산 밖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밖으로 일어날 때까지 너희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10 그리고 제자들이 그분에게 질문했다. 말하고 있기를, “그렇다면 왜 서기관들은 엘리아스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11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한편 엘리아스가 온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12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엘리아스가 이미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원했던 것들만큼을 그이 안에서 행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으려고 한다.” 13 그때에 그분이 세례자 요안네스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했다.

14 그리고 그들이 군중을 향하여 온 후에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무릎 꿇고 있으면서

275) ‘일들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76)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77)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278) 히브리어 ‘요하난’과 ‘예호하난’의 헬라어 음역이며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279) ‘눈(snow)’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80) 히브리어 ‘모쉐’의 헬라어 음역이다.

281) 히브리어 ‘엘리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282) ‘우리가’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나아왔다. 15 그리고 말하고 있기를, “주님, 당신은 저의 아들에게 공황을 베풀어주십시오, 그가 간질병에 걸려 있으며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 번 불 속으로 떨어지며 여러 번 물 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6 그리고 제가 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치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7 그런데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오! 믿지 않으며 왜곡된 채 있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을 것이냐? 너희는 그를 여기로 나에게 데려오고 있어라.” 18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것을 꾸짖으셨으며 귀신이 그로부터 나갔으며 아이가 저 시간부터 치료되었다. 19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스께 따로 나아온 후 말했다. “무엇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내쫓을 수 없게 되었습니까?” 20 그런데 그분이²⁸³⁾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작은 믿음²⁸⁴⁾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인데, 만약 장차 너희가 겨자의 낱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그리고 그것은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너희에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21 (없음)²⁸⁵⁾”

22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아²⁸⁶⁾ 안에 모이고²⁸⁷⁾ 있을 때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들 안으로 넘겨지고 있으려고 한다, 23 그리고 그들이 그를 살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매우 슬퍼하게 되었다.

24 그런데 그들이 카팔나움²⁸⁸⁾ 안으로 들어간 후에 2드라크메들을²⁸⁹⁾ 취하는 이들이 페트로스에게 나아왔으며 말했다. “너희의 선생님은 2드라크메들을 내지 않느냐?”²⁹⁰⁾ 25 그가 말한다. “내신다.” 그리고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기를 먼저 하셨다. “너에게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느냐, 시몬아?²⁹¹⁾ 땅의 왕들이 누구들로부터 관세와 인두세를 취하느냐? 그들의 아들들로부터냐 또는 남들로부터냐?” 26 그런데 그가 말한 후에²⁹²⁾, “남들로부터라고”,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그러면 아들들은 더욱 자유자들이다. 27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는 간 후에 바다 안으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첫 번째로 올라왔던 물고기를 들어 올려라, 그것의 입을 연 후 일 스타테르를²⁹³⁾ 네가 발견할 것이다. 너는 저것을 취한 후 나와 너에 대하여 그들에게 주어라.”

283) ‘예수스께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84) ‘믿지 않음’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85) 21절이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그런데 기도와 금식 안이 아니라면 이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286)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287) ‘다시 돌이키고’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88) ‘위로의 마을’

289) 일 ‘드라크메’는 로마의 일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삤이다.

290)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91) 히브리어 ‘שמון’(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292) ‘말하고 있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93) 일 ‘스타테르’는 4‘드라크메’에 해당하는 로마 은화이다.

18 저 시간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스께²⁹⁴⁾ 나아왔다. 말하고 있기를, “그러면 누가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더 큼이냐?” 2 그리고 그분이 아이를 부르신 후 그를 그들 가운데 세웠다 3 그리고 말씀하셨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너희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면 그리고 아이들처럼 되지 않을 것이면, 너희는 결코 하늘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그자신을 이 아이처럼 낮출 어느 누구, 이이가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더 큰 이이다. 5 그리고 만약 장차 이런 아이 하나를 나의 이름으로 영접할 것이면, 그는 나를 영접한다. 6 그런데 만약 장차 내 안으로 믿고 있는²⁹⁵⁾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넘어뜨릴 것이면 그는, 나귀용 멧돌이 그의 목 둘레에 매달려지며 바다의 깊은 곳 안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다. 7 넘어뜨리는 것들로부터 세상에게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필연이 넘어뜨리는 것들을 오게 하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넘어뜨리는 것이 오는 것을 통하여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8 그런데 만약 지금 너의 손이 나 너의 발이 너를 넘어뜨리고 있다면, 너는 그것을 쳐내라 그리고 너로부터 던져라. 불구자나 외발이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들이나 두 발들을 갖고 있으면서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너에게 좋은 일이다. 9 그리고 만약 지금 너의 눈이 너를 넘어뜨리고 있다면, 너는 그것을 빼내라 그리고 너로부터 던져라. 애꾸눈이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들을 갖고 있으면서 불의 게엔나²⁹⁶⁾ 안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너에게 좋은 일이다. 10 너희는 이 작은 자들 중의 한 명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 안에서 하늘들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본다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11 (없음)²⁹⁷⁾ 12 너희에게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느냐? 만약 장차 어떤 사람에게 일백 양들이 있을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하나가 길을 잃게 될 것이면, 그가 아흔아홉들을 산에 내버려둘 것이며 간 후 길을 잃게 된 채 있는 것을 찾고 있지 않느냐?²⁹⁸⁾ 13 그리고 만약 장차 그가 그것을 찾아내게 될 것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은 채 있는 아흔아홉들로 인한 것보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더욱 기뻐한다고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가 멸망하는 것은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의²⁹⁹⁾ 아버지 앞에서 뜻이 아니다.”

15 “그런데 만약 장차 너의 형제가 네 안으로³⁰⁰⁾ 죄지을 것이면, 너는 떠나고 있어라

294)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95)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튜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튜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96) ‘γεεννα’(게엔나)는 히브리어 ‘게 힌놈’(애곡의 골짜기)에서 유래했으며, 예루살렘 남동부로 뻗어 있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를 의미한다. 예레미야(7:32, 19:6)는 이 골짜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선포한다. 신약에서 ‘γεεννα’(게엔나)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하여 불타는 곳으로 최종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곳으로 나타난다.

297) 11절이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멸망시킨 채 있는 이를 찾으려고 그리고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298)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99) ‘나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00) “네 안으로”가 없는 사본들도 있다.

오직 너와 그이 사이에서만 그를 책망하라. 만약 장차 그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면, 네가 너의 형제를 얻었다. 16 그런데 만약 장차 그가 듣지 않을 것이면, 너는 너와 함께 한 명이나 두 명까지 옆에 취하라,

‘모든 입말이³⁰¹⁾ 두 세 증인들의 입으로 인하여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17 그런데 만약 장차 그가 그들의 말을 불순종할 것이면, 너는 교회에게 말하라. 그런데 만약 장차 그가 교회의 말도 불순종할 것이면, 그는 너에게 마치 이방인이나 세금징수사처럼 되고 있어라. 18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장차 너희가 땅 위에서 묶을 것이면 그만큼들이 하늘 안에서 묶인 채 있으면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장차 너희가 땅 위에서 풀 것이면 그만큼들이 하늘 안에서 풀린 채 있으면서 있을 것이다. 19 또다시 만약 장차 구하였으면 하는 모든 행위에 관하여 만약 장차 너희 중에서 두 명이 땅 위에서 합의할 것이면, 그것이 하늘들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게서 그들에게 될 것이라고 아멘³⁰²⁾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20 왜냐하면 두 명이나 세 명이 나의 이름 안으로 모인 채 있는 곳, 거기에 그들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이다.”

21 그때에 페트로스가 나아온 후 그분에게 말했다. “주님, 저의 형제가 제 안으로 죄지를 것인데 몇 번이나 제가 그에게 용서할 것입니까? 일곱 번까지입니까?” 22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에게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오히려 일곱 번을 칠십 번까지라고 말한다. 23 이것 때문에 하늘들의 왕국은 어떤 사람 왕과 같게 되었다, 그의 종들과 함께 용건을 결산하기를 원했던 이인. 24 그런데 그가 결산하고 있기를 시작한 후에 일만 탈란톤들의³⁰³⁾ 빚진 자 한 명이 그에게 데려와졌다. 25 그런데 그가 갚을 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주인이 그에게 아내도 자녀들도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처분되며 갚아지기를 명령했다. 26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린 후 그에게 경배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³⁰⁴⁾당신은 저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제가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갚을 것입니다.’ 27 그런데 저 종의 주인이 애타게 된 후 그를 풀어보냈으며 빌려준 것을 그에게 내버려두었다. 28 그런데 저 종이 나간 후 그의 동료 종들 중의 한 명을 찾아내었다, 그에게 일백 데나리온들을³⁰⁵⁾ 빚지고 있었던 이인, 그리고 그가 그를 붙잡은 후 질식시키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만약 지금 네가 어떤 것을 빚지고 있다면 너는 갚아라.’ 29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이 ³⁰⁶⁾엎드린 후 그에게 요청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너는 나에게 오래 참아라, 내가 너에게 갚을 것이다.’ 30 그런데 그가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떠나간 후 빚지고 있는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 안으로 던졌다. 31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있게 되

301)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302) “아멘”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03) 일 ‘탈란톤’은 무게가 20.4kg 또는 33kg이라고 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6,000‘데나리온’(‘드라크메’)이다.

304) ‘주여,’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05) 로마의 은화로 일 ‘데나리온’은 무게가 3.8g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306) ‘그의 발들 안으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있던 일들을 본 후 매우 슬퍼했으며 간 후에 그자신들의 주인에게 되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했다. 32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부른 후 그에게 말한다. ‘악한 종아, 나는 너에게 저 모든 빛을 내버려두었다, 네가 나에게 요청했으므로. 33 너도 너의 동료 종에게 공흠을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³⁰⁷⁾ 내가 너에게 공흠을 베풀었던 것처럼?’ 34 그리고 그의 주인이 화낸 후 빗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값의 때까지 형벌자들에게 그를 넘겨주었다. 35 하늘 나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실 것이다, 만약 장차 너희가 각자 너희의 마음들로부터 ³⁰⁸⁾그의 형제에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면.”

19 그리고 예수스께서³⁰⁹⁾ 이 말씀들을 끝마치셨을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갈릴리아로부터³¹⁰⁾ 옮기셨으며 올다네스의³¹¹⁾ 건너편 유다이아의³¹²⁾ 지방들 안으로 가셨다. 2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서 그들을 치료하셨다.

3 그리고 파리사이오스들이³¹³⁾ 그분을 시험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분에게 나아왔다. “모든 이유에 의하여 그의 아내를 풀어보내는 것이 사람에게 합법적인니까?” 4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창조하셨던³¹⁴⁾ 분이

‘시작부터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는 것을 너희가 읽었지 않느냐?³¹⁵⁾ 5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겨둘 것이며

그의 아내에게 붙여질 것이다,

그리고 둘이 한 육체 안으로 될 것이다.’

6 따라서 더 이상 둘이 아니고 오히려 한 육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명에 메게 하셨던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고 있어라.” 7 그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그러면 왜 모우세스는³¹⁶⁾ 이혼의 증서를 주라고 그리고 그녀를³¹⁷⁾ 풀어보내라고 명했습니까?” 8 모우세스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향하여 너희의 아내들을 풀어보낼 것을 너희에게 허락했으며, 시작부터 이와 같이 있게 된 채 있지 않다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9 그런데 만약 장차 음행으로 인하지 않고³¹⁸⁾ 그의 아내를 풀어보낼 것이면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307)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08) ‘그들의 잘못들을’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09)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10)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311) 히브리어 ‘야르덴’의 헬라어 음역으로 ‘요단강’이다.

312)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313)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314) ‘만드셨던’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15)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16) 히브리어 ‘모쉐’의 헬라어 음역이다.

317) “그녀를”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18) ‘음행의 사건 이외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것이면 그는 간음하는 것이라고³¹⁹)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10 그분의³²⁰) 제자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만약 아내와 함께 있는 사람의 경우가 이와 같다면,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11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이들이 이³²¹)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은 주어진 채 있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진다. 12 왜냐하면 어머니의 배 밖으로 이와 같이 태어나게 되었던 고자들이 있으며,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자로 만들어졌던 고자들이 있으며, 하늘들의 왕국 때문에 자신들을 고자로 만들었던 고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는 받아들이고 있어야.”

13 그때에 그분이 손들을 그들에게 얹으시며 기도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그분에게 데려와졌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14 그런데 예수스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이들을 내버려두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있어야, 왜냐하면 하늘들의 왕국은 이런 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15 그리고 그분이 손들을 그들에게 얹으신 후 거기에서 가셨다.

16 그리고 보라! 한 명이 그분에게 나아온 후 말했다. “선생님,³²²)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하여 무슨 선한 일을 행할 것입니까?” 17 그런데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선한 일에 관하여 나에게 질문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³²³)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로 원하고 있다면, 너는 계명들을 지켜라.” 18 그가 그분에게 말한다. “어느 것들입니까?” 그런데 예수스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살인하지 말 것이다, 너는 간음하지 말 것이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 것이다, 너는 거짓증언하지 말 것이다,

19 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어야,

그리고 너는 너의 이웃을 너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다.”

20 그 청년이 그분에게 말한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³²⁴) 준수했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21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만약 지금 내가 완전한 이이기를 원하고 있다면, 너는 떠나고 있어야 너의 있는 것들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네가 하늘들 안에서 저장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리 오라 나를 따라오고 있어야.” 22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들은 후 슬퍼하고 있으면서 떠나갔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소유물들을 갖고 있으면서 있었기 때문이다.

23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부유한 이는 하늘들의 왕국 안으로 어렵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24 그런데 또다시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낙타가³²⁵) 바늘의 구멍을 통하여 통과하는 것이 부유한 이가 하나님의 왕국

319) 이어서 ‘그리고 풀어보낸 채 있는 여자와 결혼하고 있는 이도 간음하는 것이라고’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20) “그분의”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21) “이”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22) ‘선한 선생님’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23) ①‘왜 너는 나를 선한 이로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면 아무도 선하지 않다.’ ②‘왜 너는 나를 선한 이로 말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24) ‘저의 젊음 밖으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 25 그런데 제자들이 들은 후 매우 충격 받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26 그런데 예수스께서 살 펴보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 에게서 모든 일들은 가능한 일들이다.” 27 그때에 페트로스가 대답한 후 그분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희가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었으며 당신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저희에 게 무엇이 있을 것입니까?” 28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중생 안에 서³²⁶⁾ 나를 따라왔던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때에, 너희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을 심판하고 있으면서 열두 보좌들 위에 앉을 것이라고 아멘 나 는 너희에게 말한다. 29 그리고 나의 이름 때문에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누이들이나 아버 지나 어머니나³²⁷⁾ 자녀들이나 딸들을 내버려두었던 모든 이, 그는 백배이상들을³²⁸⁾ 취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이다. 30 그런데 많은 이들이 첫째 이들로서 마지막 이 들로 있을 것이며 마지막 이들로서 첫째 이들로 있을 것이다.”

20 “왜냐하면 하늘들의 왕국은 집주인인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과 동시에 그는 그의 포도원 안으로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나갔던 어느 누구인. 2 그런데 그 가 일꾼들과 함께 하루 일 데나리온에³²⁹⁾ 합의한 후 그들을 그의 포도원 안으로 파송했 다. 3 그리고 그가 세 시쯤³³⁰⁾ 나간 후 다른 이들이 일없이 장터 안에서 선 채 있는 것 을 보았다 4 그리고 그가 저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포도원 안으로 떠나고 있어라, 그리 고 그것이 만약 정당한 것이면³³¹⁾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5 그런데 그들이 떠나갔다. 그런데³³²⁾ 그가 또다시 여섯 시와 아홉 시쯤³³³⁾ 나간 후 그와 같이 행했다. 6 그런데 그 가 열한 시쯤³³⁴⁾ 나간 후 다른 이들이 선 채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들에게 말한다. ‘너 희는 왜 온종일 일없이 여기 선 채 있느냐?’ 7 그들이 그에게 말한다. ‘아무도 저희를 고 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한다. ‘너희도 포도원 안으로 떠나고 있어 라.’ 8 그런데 해 질 녘이 된 후 포도원의 주인이 그의 감독자에게 말한다. ‘너는 일꾼들 을 부르라 그리고 마지막 이들부터 시작해서 첫째 이들까지 대가를 그들에게 내주어라.’ 9 그리고 열한 시쯤의 이들이 온 후 일 데나리온을 취했다. 10 그리고 첫째 이들은 온 후 더 많이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들도 일 데나리온씩을 취했다. 11 그런데 그들이 취한 후 집주인에 반대하여 불평하고 있었다. 12 말하고 있기를, ‘이 마지막 이들

325) ‘낙타’를 의미하는 ‘καμηλον’(카멜론) 대신에 ‘밭줄’을 의미하는 ‘καμιλον’(카밀론)으로 기록된 소 수의 후기 사본들도 있다.

326) 또는 “~나를 따라왔던 너희는, 새 시대 안에서 사람의 아들이 보좌에 앉을 때에,~”

327) 이어서 ‘아내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28) ‘여러 배 이상들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29) 로마의 은화로 일 ‘데나리온’은 무게가 3.8g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삤이다.

330) 오전 9시, 이 당시에는 지금의 오전 6시가 0시이다.

331) 실제적인 의미는 ‘그리고 정당히 여기는 대로’일 것이다..

332) “그런데”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33) 낮 12시와 오후 3시, 당시의 0시는 지금의 오전 6시이다.

334) 오후 5시, 당시의 0시는 지금의 오전 6시이다.

은 한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당신은 하루의 수고와 열기를 짊어진 저희와 동등하게 만드십니다.’ 13 그런데 그가 그들 중의 한 명에게 대답한 후 말했다. ‘친구여, 나는 너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 네가 나와 일 데나리온에 합의했지 않느냐?³³⁵⁾ 14 너는 너의 것을 들어올려라 그리고 떠나고 있어라. 나는 이 마지막 이에 너처럼 주기를 원한다. 15 내가 나의 것들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합법적이지 않느냐?³³⁶⁾ 또는³³⁷⁾ 내가 선한 것이 너의 눈에는 악한 것이냐?’ 16 이와 같이 마지막 이들이 첫째 이들로 그리고 첫째 이들이 마지막 이들로 있을 것이다.”³³⁸⁾

17 그리고 예수스께서³³⁹⁾ 히에로솔뤼마³⁴⁰⁾ 안으로 올라가시고 있으려고 하고 있을 때 열두 제자들을³⁴¹⁾ 따로 옆에 취하셨으며 길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8 “보라! 우리가 히에로솔뤼마 안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죽음으로 유죄 선고할 것이다 19 그리고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다는 것 안으로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이다.”

20 그때에 제베다이오스의³⁴²⁾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들들과 함께 경배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구하고 있으면서 그분에게 나아왔다. 21 그런데 그분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녀가 그분에게 말한다. “저의 이 두 아들들이 한 명은 당신의 오른쪽들 밖으로 한 명은 당신의 왼쪽들 밖으로 당신의 왕국 안에서 앉도록 당신은 말해주십시오.” 22 그런데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고 있으려고³⁴³⁾ 하고 있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23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한편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것이지만³⁴⁴⁾, 또 한편 나의 오른쪽들 밖으로와 왼쪽들 밖으로 앉는 것은 내가 이것을³⁴⁵⁾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준비된 채 있는 이들에게 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24 그리고 열 명이 들은 후 그 두 형제들에 관하여 분개했다. 25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을 부르신 후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은 그들에게 주인으로 지배하며 큰 자들은 그들에게 권세 부린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26 너희 안에서는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³⁴⁶⁾, 오히려 만약 장차 너희 안

335)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36)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37) “또는”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38) 이어서 ‘왜냐하면 부름 받은 이들은 많은 이들이나, 선택받은 이들은 적은 이들이기 때문이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39) 히브리어 ‘에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에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40) 히브리어 ‘에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에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341) “제자들을”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42) 히브리어 ‘제바드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343) 이어서 ‘또는 내가 세례 받고 있는 세례를 세례 받고 있으려고’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44) 이어서 ‘그리고 내가 세례 받고 있는 세례를 세례 받을 것이지만’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45) “이것을”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46) 미래형 대신에 현재형 ‘이와 같지 않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에서 큰이가 되기 원하고 있을 것이면 그는 너희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27 그리고 만약 장차 너희 안에서 첫째이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면 그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28 마치 사람의 아들이 봉사 받으려고 오지 않았고 오히려 봉사하려고 그리고 그의 목숨을 많은 이들 대신에 대속물로 주려고 왔던 것처럼이다.³⁴⁷⁾”

29 그리고 그들이 예리코로부터³⁴⁸⁾ 나오고 있을 때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30 그리고 보라! 두 소경들이 길옆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스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들은 후, 소리쳤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십시오, 주님,³⁴⁹⁾ 다원의 자손이시여.” 31 그런데 그들이 조용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중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런데 그들이 더 크게 소리쳤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십시오, 주님, 다원의 자손이시여.” 32 그리고 예수스께서 서신 후 그들을 부르셨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너희가 원하느냐?” 33 그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주님, 저희의 눈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34 그런데 예수스께서 애타게 되신 후 그들의 눈을³⁵⁰⁾ 만지셨다, 그리고 곧 그들이 쳐다보았으며 그분을 따라갔다.

21 그리고 그들이 히에로솔뤼마³⁵¹⁾ 안으로 가까이 갔으며 올리브나무들의 산 안으로 베뜨파게³⁵²⁾ 안으로 갔을 때, 그때에 예수스께서³⁵³⁾ 두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2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기를, “너희는 너희의 맞은편 마을 안으로 가고 있어라, 곧 나귀가 묶인 채 있는 것과 그것과 함께 새끼나귀를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너희는 풀 후 나에게 이끌고 있어라. 3 그리고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면, 너희는 그것들의 주인이 필요를 갖고 있다고 말하라. 곧 그가 그것들을 파송할 것이다³⁵⁴⁾.” 4 그런데 이일은 대언자가³⁵⁵⁾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말해졌던 일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있게 된 채 있다.

5 “너희는 시온의³⁵⁶⁾ 딸에게 말하라.

347) 베자 사본인 D사본에는 이어서 ‘그리고 너희는 작은 것 중에서 자라기를 그리고 큰 것 중에서 보다 못하게 되기를 찾고 있어라. 그리고 저녁식사하기 위하여 초대받은 후 들어갈 때에 너희는 높은 자리 안으로 앉아 있지 마라, 너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가 들어오고 저녁식사를 베풀 이가 나아온 후 너에게 말할까 함이다, 당신은 아래로 물러가십시오, 네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장차 네가 낮은 자리 안으로 앉을 것이면 그리고 너보다 더 낮은 이가 올 것이면, 저녁식사를 베풀 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위로 올라오십시오, 이것이 너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가 덧붙여 기록되어 있다.

348) 히브리어 ‘예리호’의 헬라어 음역이다.

349) “주님,”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50) 원문은 ‘ομμα’ (오마)로 신약성경 전체에서 2번 쓰였는데, 눈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인 ‘οφθαλμος’ (오프탈모스)와는 약간 다르게 아마도 눈꺼풀이나 눈두덩을 의미하는 것 같다.

351)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352) 히브리어 ‘베뜨파게’의 헬라어 음역으로 ‘무화과의 집’이다.

353)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54) ‘파송한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55) ‘προφητης’ (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 (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고 있다
 온유하며 나귀 위에 올라탄 채 있는
 새끼나귀 멩에 메는 짐승의 새끼 위에.”

6 그런데 제자들이 간 후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셨던 것과 같이 행한 후 7 그들이 나귀와 새끼나귀를 이끌었으며 그것들 위에 겂옷들을 얹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들 위에 앉으셨다. 8 그런데 가장 많은 군중이 자신들의 겂옷들을 길 안에 펼쳤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나무들로부터 가지들을 자르고 있었으며 길 안에 펼치고 있었다. 9 그런데 그분을 앞서 가고 있으며 따라가고 있는 군중들이 소리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다원의 자손에게 호산나³⁵⁷).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고 있는 이가 칭송받으신 채 있을 때.
 가장 높은 것들 안에서 호산나.”

10 그리고 그분이 히어로솔뤼마 안으로 들어가신 후 모든 성읍이 흔들렸다. 말하고 있기를, “이분이 누구신가?” 11 그런데 군중들이 말하고 있었다. “이분은 갈릴라이아의³⁵⁸ 나자레뜨 출신 대언자 예수스이시다.”

12 그리고 예수스께서 ³⁵⁹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팔고 있으며 사고 있는 모든 이들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탁자들을 뒤엎으셨다 비둘기들을 팔고 있는 이들의 의자들도, 13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기록된 채 있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으로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굴로 만들고 있다.’”

14 그리고 소경들과 앓은뱅이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에게 나아왔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치료하셨다. 15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이 행하셨던 놀랍고 이상한 일들과 성전 안에서 다원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소리치고 있으며 말하고 있는 아이들을 본 후 분개했으며 16 그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고 있느냐?”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렇다. 너희는 전혀 읽지 못했느냐?³⁶⁰)

‘그분이 어린애들과 젓 먹는 애들의 입 밖으로
 찬송을 준비하여 갖추실 것이다.’”

17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남겨두신 후 성읍의 바깥 베타니아³⁶¹) 안으로 나가셨으며 거기에서 머무셨다.

18 그런데 그분이 이른 아침에 성읍 안으로 되돌아오시고 있을 때에 주리셨다. 19 그리고 그분이 길에서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신 후 그것에게 가셨으며 오직 잎사귀들이 아니

356) 히브리어 ‘치온’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357) 히브리어 ‘호쉬아 나’의 헬라이어 음역으로 ‘부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를 의미한다.

358)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이어 번역이다.

359) ‘하나님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60)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61) 히브리어 ‘베타니아’의 헬라이어 음역으로 ‘고통 받는 이의 집’이다.

라면 그것 안에서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하셨다, 그리고 그것에게 말씀하신다. “더 이상 너의 밖으로 열매가 영원히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즉시 그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되었다. 20 그리고 제자들이 본 후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 말하고 있기를,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즉시 마르게 되었습니까?” 21 그런데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면 그리고 의혹을 품게 되지 않을 것이면, 너희는 오직 무화과나무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할지라도, ‘너는 들어올려지며 바다 안으로 던져져라’, 그것이 될 것이다. 22 그리고 만약 장차 너희가 믿고 있으면서 기도 안에서 구할 것이면 그 모든 것들만큼을 너희가 취할 것이다.”

23 그리고 그분이 성전 안으로 가신 후 가르치시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에게 나아왔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무슨 권세 안에서 이일들을 행하느냐?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24 그런데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말 하나를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그것을 만약 장차 너희가 나에게 말할 것이면 나도 무슨 권세 안에서 내가 이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말할 것이다. 25 요안네스의³⁶²⁾ 세례가 어디로부터이었느냐? 하늘 밖으로냐 또는 사람들 밖으로냐?” 그런데 그들이 그자신들 안에서 의논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만약 장차 우리가 말할 것이면, ‘하늘 밖으로’, 그가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26 그런데 만약 장차 우리가 말할 것이면, ‘사람들 밖으로’, 우리는 군중이 두렵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요안네스를 대언자처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7 그리고 그들이 대답한 후 예수스께 말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분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나도 무슨 권세 안에서 내가 이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28 그런데 너희에게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느냐? 어떤 사람이 자녀들 두 명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첫째에게 나아간 후 말했다. ‘아들아, 너는 떠나고 있어라 오늘 포도원 안에서 일하고 있어라.’ 29 그런데 그가 대답한 후 말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후회한 후 떠나갔다. 30 그런데 그가 다른 자녀에게 나아간 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한 후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가 떠나가지 않았다. 31 두 명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말한다. “첫째입니다.³⁶³⁾”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세금징수자들과 창녀들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너희를 앞서 가고 있다고 말한다. 32 왜냐하면 요안네스가 의의 길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으며, 세금징수자들과 창녀

362) 히브리어 ‘요하난’과 ‘에호하난’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363) 이 부분은 사본에 따라 세 종류 내용의 본문으로 나온다. ① 첫째 아들이 “싫습니다.”라고 말한 후 후회하고서 갔으나, 둘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하고서 가지 않았으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에 대한 대답이 ‘첫째’라는 내용. ② 첫째 아들이 “싫습니다.”라고 말한 후 후회하고서 갔으나, 둘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하고서 가지 않았으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에 대한 대답이 ‘둘째’라는 내용. ③ 첫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하고서 가지 않았으나,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라고 말한 후 후회하고서 갔으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에 대한 대답이 ‘둘째’라는 내용이다.

들은 그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본 후에도 그를 믿으려고 끝내 후회하지도 않았다.

33 너희는 다른 비유를 들어라. 포도원을 심었으며 그것에 울타리를 둘러놓았으며 그것 안에 포도즙 짜는 틀을 팠으며 망대를 세웠으며 그것을 농부들에게 임대했으며 여행 떠났던 집주인인 어떤 사람이 있었다. 34 그런데 열매들의 시점이 가까이 왔을 때, 그가 그의 열매들을 취하려고 농부들을 향하여 그의 종들을 파송했다. 35 그리고 그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취한 후 한편 누구를 매질했으며, 또 한편 누구를 살해했으며, 또 한편 누구를 돌로 쳤다. 36 또다시 그가 첫째보다 더 많은 다른 종들을 파송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했다. 37 그런데 마침내 그가 그의 아들을 그들을 향하여 파송했다. 말하고 있기를, ‘그들이 나의 아들을 존중할 것이다.’ 38 그런데 그 농부들이 아들을 본 후 그 자신들 안에서 말했다. ‘이이가 상속자다. 너희는 오라 우리가 그를 살해하자 그리고 그의 상속재산을 갖자’, 39 그리고 그들이 그를 취한 후 포도원 바깥에 내쫓았으며 살해했다. 40 그러므로 포도원의 주인이 왔을 때에는, 그가 저 농부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이냐?’ 41 그들이 그에게 말한다. “그가 나쁜 그들을 비참하게 멸망시킬 것이며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임대할 것입니다, 그것들의 시점들 안에서 열매들을 그에게 내줄 어느 누구도 인.” 42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성경기록들 안에서 전혀 읽지 못했느냐?³⁶⁴)

‘집을 세우고 있는 이들이 거부했던 돌을,

이것이 모퉁이의 머리 안으로 되었다.

주님에게서 그 일이 되었으며

그 일은 우리의 눈들 안에 놀랍고 이상한 일이다.’

43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로부터 제거될 것이며 그것의 열매들을 만들고 있는 이방인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44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졌던 이는 부서질 것이다. 그런데 그 위로 만약 장차 그것이 떨어질 것이면 그것이 그를 빻을 것이다.]³⁶⁵)” 45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파리사이오스들이³⁶⁶) 그분의 비유들을 들은 후 그분이 그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46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붙잡으려고 찾고 있으면서도 군중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 안으로 갖고 있었으므로.

22 그리고 예수스께서³⁶⁷) 대답하신 후 또다시 그들에게 비유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2 “하늘들의 왕국은 어떤 사람 왕과 같게 되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에게 결혼잔치들을 행했다. 3 그리고 부름 받은 채 있는 이들을 결혼잔치들 안으로 부르려고 그가 그의 종들을 파송했다, 그러나 그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4

364)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65) 44절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66) 아랍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367)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또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파송했다. 말하고 있기를, ‘너희는 부름 받은 채 있는 이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나의 점심잔치를 준비한 채 있다, 나의 황소들과 도축된 채 있는 살찐 것들과 준비한 모든 것들이. 너희는 결혼잔치들 안으로 오라.’ 5 그런데 그들이 소홀히 여긴 후 떠나갔는데, 한편 누구는 자기 자신의 밭 안으로, 또 한편 누구는 그의 장사로. 6 또 한편 남은 이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은 후 능욕했으며 살해했다. 7 그런데 왕이 화내었으며 그의 군대들을 보낸 후 저 살인자들을 멸망시켰으며 그들의 성읍을 불살랐다. 8 그때에 그가 그의 종들에게 말한다. ‘한편 결혼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또 한편 부름 받은 채 있는 이들은 합당하지 않았다. 9 그러므로 너희는 길들의 출입구들로 가고 있어라 그리고 만약 장차 너희가 찾아낼 것이면 그들만큼을 너희는 결혼잔치들 안으로 불러라.’ 10 그리고 저 종들이 길들 안으로 나간 후 찾아내었던 모든 이들을 모았다, 악한 이들도 선한 이들도. 그리고 결혼잔치는³⁶⁸⁾ 앉아 있는 이들로 가득 채워졌다. 11 그런데 왕이 앉아 있는 이들을 지켜보려고 들어온 후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결혼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있는 것을 보았다, 12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한다. ‘친구여, 어떻게 너는 결혼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면서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런데 그가 잠잠하게 되었다. 13 그때에 왕이 봉사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그의 밭들과 손들을 묶어서 그를 더 바깥 어둠 안으로 내쫓아라. 거기에 울부짖음과 이빨들의 값이 있을 것이다.’ 14 왜냐하면 부름 받은 이들은 많은 이들이나, 선택받은 이들은 적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15 그때에 파리사이오스들이³⁶⁹⁾ 간 후 말(言) 안에서 그분을 울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상의했다. 16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헤로디아노스들과³⁷⁰⁾ 함께 그분에게 파송한다. 말하고 있기를, “선생님, 당신은 참되며 하나님의 길을 진리 안에서 가르치며 누구에 관하여도 당신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들의 얼굴 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7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당신은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오. 카이사르에게 인두세를 주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또는 아닙니까?” 18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의 악을 아신 후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가면연기자들아?³⁷¹⁾ 19 너희는 인두세의 동전을 나에게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데나리온을³⁷²⁾ 그분에게 가져왔다. 20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의 형상과 겉글이 누구의 것이냐?” 21 그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내주며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내드려라.” 22 그리고 그들이 들은 후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분을 내버려둔 후 떠나갔다.

23 저 날 안에 살두카이오스들이³⁷³⁾ 그분에게 나아왔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

368) ‘혼인집은’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69)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370) 헤롯당원

371) 원문은 ‘υποκριτης’(ହି포크리데스)로 주로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지칭하며, 관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로 보기도 한다.

372) 로마의 은화로 일 ‘데나리온’은 무게가 3.8g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서, 그리고 그분에게 질문했다. 24 말하고 있기를, “선생님, 모우세스는³⁷⁴⁾ 말했습니다.

‘만약 장차 어떤 이가 자녀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죽을 것이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와 계대결혼³⁷⁵⁾ 할 것이며
그의 형제에게 씨를 일어서게 할 것이다.’

25 그런데 우리 옆에 일곱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결혼한 후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씨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의 아내를 그의 형제에게 내버려두었습니다. 26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까지 마찬가지로. 27 그런데 마침내 모든 이들의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28 그렇다면 부활 안에서 그녀는 일곱 이들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이가 그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29 그런데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기록들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은 채 있지 않으므로 길을 잃게 되고 있다. 30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 그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오히려 하늘 안에 있는 ³⁷⁶⁾천사들처럼 되기 때문이다. 31 그런데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해졌던 것을 너희가 읽었지 않느냐?³⁷⁷⁾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사악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33 그리고 군중들이 들은 후 그분의 가르침에 충격 받고 있었다.

34 그런데 그분이 살두카이오스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파리사이오스들이 들은 후 그곳에 모였다. 35 그리고 그들 중에서 율법사³⁷⁸⁾ 한 명이 그분을 시험하고 있으면서 질문했다. 36 “선생님, 율법 안에서 어느 계명이 큼니까?” 37 그런데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온 마음 안에서와 너의 온 영혼 안에서와 너의 온 정신 안에서
사랑할 것이다.’

38 이것이 크고 첫째인 계명이다. 39 그런데 둘째는 이것과 같다.

‘너는 너의 이웃을 너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다.’

40 이 두 계명들 안에 온 율법과 대언자들이³⁷⁹⁾ 매달려지고 있다.”

41 그런데 파리사이오스들이 모인 채 있을 때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42 말씀하시고 있기를, “크리스토스에³⁸⁰⁾ 관하여 너희에게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느냐? 그는 누

373) 히브리어 ‘차독’(70인역 ‘사독’)의 헬라어 번역으로 추정한다.

374) 히브리어 ‘모셰’의 헬라어 음역이다.

375)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대를 잇기 위하여 그 사람의 형제가 그 사람의 미망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것.

376) ‘하나님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77)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78) “율법사”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79)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다월의.” 43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월이 영 안에서 그를 주님으로 부르느냐? 말하고 있기를,

44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오른쪽들 밖으로 앉아 있어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둘 때까지

너의 발들 아래에.’

45 그러므로 다월이 그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면,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이냐?” 46 그리고 아무도 그분에게 어떤 말도 대답할 수 없었으며 누구도 저 날부터 그분에게 감히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23 그때에 예수스께서³⁸¹⁾ 군중들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발언하셨다. 2 말씀하시고 있기를,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들이³⁸²⁾ 모우세스의³⁸³⁾ 의자 위에 앉았다. 3 그러므로 만약 장차 그들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면 그 모든 것들만큼을 너희는 행하라 그리고 지키고 있어라, 그런데 그들의 일들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지만 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4 그런데 그들은 무거우며 지기 어려운³⁸⁴⁾ 짐들을 묶으며 사람들의 어깨들 위에 얹는다, 그런데 그들 자신들은 그들의 손가락으로도 그것들을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5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지켜보이는 것을 향하여 행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성경구절함들을 넓게 하며 옷술들을 크게 하며, 6 저녁잔치들 안에서 상석과 회당들 안에서 첫째자리들과 7 장터들 안에서 인사들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랍비여’³⁸⁵⁾라고 불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8 그런데 너희는 랍비로 불리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의 선생님은 ³⁸⁶⁾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 모든 이들은 형제들이다. 9 그리고 너희는 땅 위에서 너희의 아버지를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10 너희는 지도자들로 불리지도 마라, 한 분 크리스토스가³⁸⁷⁾ 너희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이다. 11 그런데 너희의 큰이는 너희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12 그런데 그자신을 높일 어느 누구는 낮춰질 것이며 그자신을 낮출 어느 누구는 높여질 것이다.”

13 “그런데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들 가면연기자들아,³⁸⁸⁾ 너

380)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381) 히브리어 ‘에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82)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383) 히브리어 ‘모세’의 헬라어 음역이다.

384) “지기 어려운”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85) 히브리어 ‘랍비’의 헬라어 음역으로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이다. ‘랍비여, 랍비여’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86) ‘크리스토스’(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87)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388) 원문은 ‘ὑποκριτής’(휘포크리데스)로 주로 연극에서 가면 쓴 배우를 지칭하며, 관객

희가 하늘들의 왕국을 사람들 앞에서 잠그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들이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가고 있는 이들이 들어가도록 너희가 내버려두지도 않기 때문이다. 14 (없음)³⁸⁹⁾”

15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들 가면연기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명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로 두루 이끌고 있으며, 그일이 있게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그를 너희보다 두 배 이상 게엔나의³⁹⁰⁾ 아들로 만들기 때문이다.”

16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말하고 있는 소경 인도자들아. ‘만약 장차 그가 성소 안에서 맹세할 것이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데 만약 장차 성소의 금 안에서 맹세할 것이면, 그는 빗지고 있다.’ 17 어리석은 이들과 소경들아, 왜냐하면 무엇이 더 크기 때문 이냐? 금이냐 또는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소냐? 18 그리고 말한다. ‘만약 장차 그가 제 단 안에서 맹세할 것이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데 만약 장차 그것 위에 있는 제물 안에서 맹세할 것이면, 그는 빗지고 있다.’ 19 ³⁹¹⁾소경들아, 왜냐하면 무엇이 더 크기 때문이냐? 제물이냐 또는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 그러므로 제단 안에서 맹세했던 이는 그것 안에서와 그것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맹세하고 있다. 21 그리고 성소 안에서 맹세했던 이는 그것 안에서와 그것에 거주하시는 분 안에서 맹세하고 있다. 22 그리고 하늘 안에서 맹세했던 이는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분 안에서 맹세하고 있다.”

23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들 가면연기자들아, 너희가 박하와 향신료식물과 미나리에 대하여 십일조 드리고 있으나 율법의 더 무거운 것들을 내버려두었기 때문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런데³⁹²⁾ 그는 이것들도 행해야 하는 중이었으며 저것들도 내버려두지 말고 있어야 하는 중이었다. 24 소경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를 걸러 내고 있으며, 낙타를 삼키고 있는 자들아.”

25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들 가면연기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바깥에서부터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안쪽에서부터 탈취와 방탕 밖으로 가득하다. 26 소경 파리사이오스야, 너는 먼저 잔의³⁹³⁾ 내부를 깨끗하게 하라, 그것의 외부도 깨끗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7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들 가면연기자들아, 너희는 회칠된 채 있는 무덤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바깥에서부터는 아름답게 나타나지만, 또 한편 안쪽

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로 보기도 한다.

389) 14절이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들 가면연기자들아, 너희가 과부들의 집들을 먹어치우며 걸치레로 길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는 더 넘치는 심판을 취할 것이다.’

390) ‘γεεννα’(게엔나)는 히브리어 ‘게 힌놈’(애곡의 골짜기)에서 유래했으며, 예루살렘 남동부로 뻗어 있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를 의미한다. 예레미야(7:32, 19:6)는 이 골짜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선포한다. 신약에서 ‘γεεννα’(게엔나)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하여 불타는 곳으로 최종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곳으로 나타난다.

391) ‘어리석은 이들과 그리고’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92) ‘그런데’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93) ‘그리고 접시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에서부터는 죽은 이들의 뼈들과 모든 더러움들로 가득한 어느 무엇들인. 28 이와 같이 너희도 한편 바깥에서부터는 사람들에게 의인들로 나타나지만, 또 한편 안쪽에서부터는 가면연기와 불법으로 가득한 이들이다.”

29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들 가면연기자들아, 너희가 대언자들의³⁹⁴ 무덤들을 세우며 의인들의 묘비들을 단장하며, 30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의 날들 안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대언자들의 피 안에서 그들의 동참자들로 있지 않았을 것이다.’ 31 따라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였던 이들의 자손들이라고 너희가 너희자신들에게 증언하고 있다. 32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의 분량을 너희가 채워라. 33 뱀들아, 독사들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가 게엔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겠느냐? 34 이것 때문에 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파송한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살해할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 것이며 그들 중에서 너희의 회당들 안에서 채찍질할 것이며 성읍으로부터 성읍 안으로 박해할 것이다. 35 의인 아벨의³⁹⁵ 피로부터 바라키아스의³⁹⁶ 아들 자카리아스의³⁹⁷ 피까지,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였던 이인, 땅 위에 흘려지고 있는 모든 의인의 피가 너희 위에 오게 하기 위함이다. 36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위에 다다를 것이다.”

37 “예루살렘아³⁹⁸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살해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향하여 파송 받은 채 있는 이들을 돌로 치고 있는 것이여, 나는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기를 원했는가,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들 아래 모으는 모습으로,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38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한 것으로 내버려진다. 39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인데, 너희는 나를 지금부터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말할 때까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고 있는 이가 칭송받으신 채 있을 때.’”

24 그리고 예수스께서³⁹⁹ 성전으로부터 나가신 후 가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그분에게 보이려고 나아왔다. 2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기에 어떤 돌도 허물어지지 않을 돌 위에 결코 내버려두지 않게 될 것이다.”

3 그런데 그분이 올리브나무들의 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분에게 나아왔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저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언제 이일들이 있을 것이며 당신의 임하심과 시대의 맨 끝의 표적은 무엇일 것입니까?” 4 그리고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394)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395) 히브리어 ‘헤벨’의 헬라어 음역이다.

396) 히브리어 ‘베레크야’의 헬라어 음역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이다.

397) 히브리어 ‘제카르야’의 헬라어 음역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로, 기존 한국어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사가랴’로, 구약에서는 ‘스가랴’로 번역되었다.

398)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이다.

399)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떤 이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보고 있어야. 5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나의 이름으로 올 것이며, 말하고 있기를, ‘내가 그리스토스⁴⁰⁰이다’, 많은 이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6 그런데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을 듣고 있으려고 할 것이다. 너희는 불안해하지 않고 있도록 주의하고 있어야. 왜냐하면 그일이⁴⁰¹ 있게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끝은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7 왜냐하면 민족이 민족 위에 그리고 왕국이 왕국 위에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들과 ⁴⁰²지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8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해산고통들의 시작이다. 9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옥여쌈 안으로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살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로 말미암아 미움당하고 있는 이들로 있을 것이다. 10 그리고 그때에 많은 이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며 서로를 넘겨줄 것이며 서로를 미워할 것이다. 11 그리고 많은 거짓대언자들이⁴⁰³ 일어날 것이며 많은 이들을 미혹할 것이다. 12 그리고 불법이 증가되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의 사랑이 차가워질 것이다. 13 그런데 끝 안으로 견디었던 이는 구원 받을 것이다. 14 그리고 이 왕국의 복음이 온 세계 안에서 증언 안으로⁴⁰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끝이 다다를 것이다.”

15 “그러므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해졌던 파멸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 안에 선 채 있는 것을 너희가 보았을 때에는, 읽고 있는 이는 깨닫고 있어야, 16 그때에 유다이아⁴⁰⁵ 안에 있는 이들은 산들 안으로 피하고 있어야, 17 옥상 위에 있는 이는 그의 집 밖으로 그것들을 들어올리려고 내려가지 마라, 18 그리고 들 안에 있는 이는 그의 겹옷을 들어올리려고 뒤로 돌이지 마라. 19 그런데 저 날들 안에서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20 그런데 너희의 도망함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고 있어야. 21 왜냐하면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게 된 채 있지 않으며 결코 있게 되지도 않을 큰 옥여쌈이 그때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그리고 만약 저 날들이 단축되지 않았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선택받은 이들 때문에 저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23 그때에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면, ‘보라! 여기에 그리스토스가, 또는 여기에’, 너희는 믿지 마라. 24 왜냐하면 거짓그리스토스들과 거짓대언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만약 할 수 있다면, 선택받은 이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큰 표적들과 징조들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채 있다. 26 그러므로 만약 장차 그들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면, ‘보라! 그분이 광야 안에 계시다’, 너희는 나가지 마라. ‘보라! 골방들 안에’, 너희는 믿지 마라. 27 왜냐하면 마치 번개가 동쪽으로부터 일어나며 서쪽까지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의

400)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401) ‘이 모든 일들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02) ‘전염병들과’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03)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404) 실제적인 의미는 ‘증언이 되도록’일 것이다.

405)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임함이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28 만약 장차 시체가 있을 곳이면,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29 “그런데 곧 저 날들의 옥여쌈 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리고 달이 그것의 빛남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것이며,
그리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30 그리고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땅의 모든 민족들이 가슴 칠 것이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권능과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위에서 오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31 그리고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그의 사자(使者)들을 파송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선택받은 이들을 하늘들의 끝부분들로부터 그것들의 끝부분들까지 사방 밖으로 모을 것이다.”

32 “그런데 너희는 무화과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워라. 이미 그것의 가지가 부드럽게 되며 잎사귀들이 움트고 있을 때에는, 여름이 가깝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33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는, 그것이⁴⁰⁶⁾ 문들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34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될 때까지 이 세대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35 하늘과 땅은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나의 말들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36 그런데 저 날과 시간에 관하여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늘들의 사자(使者)들도 아들도⁴⁰⁷⁾, 오직 아버지가 아니라면. 37 왜냐하면 마치 노예의⁴⁰⁸⁾ 날들처럼, 사람의 아들의 임함이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38 왜냐하면 대홍수 전의 저⁴⁰⁹⁾ 날들 안에서 그들이 먹고 있으면서 그리고 마시고 있으면서, 장가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있었으며, 노예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날까지, 39 그리고 대홍수가 온 후 모든 것들을 제거했을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40 그때에 두 명이 밭 안에 있을 것인데, 한 남자는 옆에 취해지며 한 남자는 내버려진다. 41 두 명이 방앗간 안에서 맷돌질하고 있을 때, 한 여자는 옆에 취해지며 한 여자는 내버려진다. 42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있어라, 너희의 주님이 어느 날에⁴¹⁰⁾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3 그런데 만약 지금 집주인이 밤의 어느 1/4야간경비시간에⁴¹¹⁾ 도둑이 오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가 정신 차렸으며 그의 집이 뚫

406) 누가 혹은 무엇이 가까이 있는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원문에서는 주어가 별도로 나오지 않으며, 다만 동사에 나타난 주어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동사는 ‘εστιν’(에스틴)으로 ‘εimi’(에이미, ~이다, 있다, 영어의 be에 해당)의 3인칭 단수형이다. 따라서 주어는 ‘그’, ‘그녀’, ‘그것’인데, 문맥상 ‘그것’이 타당한 것 같다. 참고로 대부분의 한국어 성경은 ‘인자’로 번역하고, 한글 킹제임스성경은 ‘그때’로 번역하며, 영어성경 중 NASB, ASV, NRSV 등은 ‘he’로, NIV, NKJV 등은 ‘it’으로 번역하고 있다.

407) “아들도”가 없는 사본들도 있다.

408) 히브리어 ‘노아흐’의 헬라어 음역이다.

409) “저”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10) ‘시간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11) 당시 로마의 관습에 따라 하룻밤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세 시간씩 4등분하여 교대

리도록 허용하지 않았으리라는 것 저것을 너희가 안다. 44 이것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는 이들이 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기 때문이다. 45 그러면 시점 안에서 음식을 그들에게 주려고 주인이 그의 가족을 맡겼던 믿을만하며 슬기로운 종은 누구냐? 46 그의 주인이 온 후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저 종은 복되다. 47 아멘 나는 너희에게 그가 그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한다. 48 그런데 만약 장차 저 나쁜 종이 그의 마음 속에서 말할 것이면, ‘나의 주인이 지체하고 있다’, 49 그리고 그의 동료 종들을 치고 있기를 시작할 것이면, 그리고 술 취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먹고 있으며 마시고 있을 것이면, 50 그가 고대하지 않고 있는 날 안에 그리고 알지 못하고 있는 시간 안에 저 종의 주인이 다다를 것이다, 51 그리고 그가 그를 두 동강 낼 것이며 그것의 부분을 가면연기자들과⁴¹²⁾ 함께 둘 것이다. 거기에 울부짖음과 이빨들의 값이 있을 것이다.”

25 “그때에 하늘들의 왕국은 열 처녀들과 같아질 것이다, 그녀 자신들의 등들을 취한 후 신랑의 마중 안으로 나갔던 어느 누구들인. 2 그런데 그녀들 중에서 다섯 명은 어리석었으며 다섯 명은 슬기로웠다. 3 왜냐하면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녀들의 등들을 취한 후 그것 자체들과 함께 올리브기름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그리고 슬기로운 여자들은 그녀 자신들의 등들과 함께 그릇들 안에 올리브기름을 취했기 때문이다. 5 그런데 신랑이 지체하고 있을 때 모든 여자들이 졸았으며 잠자고 있었다. 6 그런데 밤중에 외침이 있게 된 채 있다. ‘보라! 신랑이다, 너희는 그의 맞이함 안으로 나오고 있어라.’ 7 그때에 저 모든 처녀들이 일어났으며 그녀 자신들의 등들을 단장했다. 8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들이 슬기로운 여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의 올리브기름 중에서 우리에게 주라, 우리의 등들이 꺼지고 있기 때문이다.’ 9 그런데 슬기로운 여자들이 대답했다. 말하고 있기를, ‘우리와 너희에게 결코 충분하지 않을까 함이다. 도리어 너희는 파는 이들을 향하여 가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 자신들에게 사라.’ 10 그런데 그녀들이 사려고 떠나가고 있을 때 신랑이 왔다, 그리고 준비한 여자들은 그와 함께 결혼잔치들 안으로 들어갔으며 문은 잠겼다. 11 그런데 마침내 남은 처녀들도 온다. 말하고 있기를, ‘주님 주님, 당신은 저희에게 열어 주십시오.’ 12 그런데 그가 대답한 후 말했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13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있어라, 너희는 ⁴¹³⁾그날도 그 시간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왜냐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여행 떠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종들을 불렀으며 그들에게 그의 있는 것들을 넘겨주었던 것처럼이기 때문이다, 15 그리고 한편 그가 누구에게는 다섯 탈란톤들을⁴¹⁴⁾ 주었으며, 또 한편 누구에게는 둘을, 또 한편 누구에게는 하

로 경비하던 시간.

412) 원문은 ‘υποκριτης’(히포크리데스)로 주로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지칭하며, 관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로 보기도 한다.

413) ‘사람의 아들이 오고 있는 것 안에 있는’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14) 일 ‘탈란톤’은 무게가 20.4kg 또는 33kg이라고 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6,000‘데나리온’(드라

나를, 각자에게 자기 자신의 권능에 의하여, 그리고 그는 여행 떠났다. 곧⁴¹⁵⁾ 16 다섯 탈란톤들을 취했던 이는 간 후 그것들 안에서 일했으며 다른 다섯을 얻었다. 17 그와 같이 둘을 취했던 이도 다른 둘을 얻었다. 18 그런데 하나를 취했던 이는 떠나간 후 땅을 팠으며 그의 주인의 은을 감췄다. 19 그런데 많은 기간 후에 저 종들의 주인이 오며 그들과 함께 용건을 결산한다. 20 그리고 다섯 탈란톤들을 취했던 이가 나아온 후 다른 다섯 탈란톤들을 가져왔다. 말하고 있기를, ‘주인님, 당신이 저에게 다섯 탈란톤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다른 다섯 탈란톤들을 얻었습니다.’ 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잘했다, 선하고 믿을만한 종아, 네가 작은 것들에 믿을만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너는 너의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라.’ 22 그런데⁴¹⁶⁾ 두 탈란톤들을 취했던 이도 나아온 후 말했다. ‘주인님, 당신이 저에게 두 탈란톤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다른 두 탈란톤들을 얻었습니다.’ 23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잘했다, 선하고 믿을만한 종아, 네가 작은 것들에 믿을만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너는 너의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라.’ 24 그런데 일 탈란톤을 취한 채 있는 이도 나아온 후 말했다. ‘주인님, 당신은 씨 뿌리지 않았던 곳에서 추수하며 흩어버리지 않았던 곳에서 거두는 굳은 사람이라고 제가 당신을 알았습니다, 25 그리고 제가 두려워한 후에 떠나간 후 당신의 탈란톤을 땅 안에 감췄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것을 가져가고 있으십시오.’ 26 그런데 그의 주인이 대답한 후 그에게 말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씨 뿌리지 않았던 곳에서 추수하며 흩어버리지 않았던 곳에서 거둔다고 네가 알고 있었느냐? 27 그렇다면 너는 나의 은들을 대부업자들에게 맡기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온 후에 이자와 함께 나의 것을 돌려받았다. 28 그러므로 너희는 그로부터 탈란톤을 제거하며 열 탈란톤들을 갖고 있는 이에게 주어라. 29 왜냐하면 갖고 있는 모든 이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고 넘치게 될 것인데, 갖고 있지 못할 때는 갖고 있는 것도 그로부터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30 그리고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더 바깥 어둠 안으로 내쫓아라. 거기에 울부짖음과 이빨들의 값이 있을 것이다.’”

31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 안에서 그와 함께 모든 천사들과 올 때에는, 그때에 그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32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서로들로부터 구별할 것이다, 마치 목자가 새끼염소들로부터⁴¹⁷⁾ 양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33 그리고 한편 양들을 그가 그의 오른쪽들 밖으로 세울 것이며, 또 한편 새끼염소들을 왼쪽들 밖으로 세울 것이다. 34 그때에 왕이 그의 오른쪽들 밖으로 세운 이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아버지의 복 받은 채 있는 이들 너희는 오라, 너희는 세상의 시초부터 너희에게 준비된 채 있는 왕국을 상속받아라. 35 왜냐하면 내가 주렸는데 너희는 나에게 먹으라고 주었으며, 내가 목말랐는데 너희는 나에게 마시게 했으

크메)이다.

415) “곧”을 앞 문장과 연결하여 ‘곧 그는 여행 떠났다’로 기록한 사본들도 있다. 이 차이는 마침표를 ‘곧’ 앞에 찍거나 뒤에 찍은 것이다.

416) “그런데”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17) 새끼염소는 양과 비슷해서 잘 구별되지 않는다.

며, 내가 나그네로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모아들였으며, 36 벌거벗은 이었는데 너희는 나를 두르게 했으며, 내가 병들었는데 너희는 나를 돌보았으며, 내가 감옥 안에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향하여 왔기 때문이다.’ 37 그때에 의인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말하고 있기를, ‘주님, 언제 저희가 당신이 주리시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먹였습니까, 또는 목마르시고 있을 때 마시게 했습니까? 38 그런데 언제 저희가 당신이 나그네이신 것을 보았으며 모아들였습니까, 또는 벌거벗으신 것을 두르게 했습니까? 39 그런데 언제 저희가 당신이 병들어 있는 것이나 감옥 안에 계신 것을 보았으며 당신을 향하여 갔습니까?’ 40 그리고 왕이 대답한 후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의 이 가장 작은 형제들 중의 한 명에게 너희가 행했던 만큼을, 너희는 나에게 행했다.’ 41 그 때에 그가 왼쪽들 밖으로 세운 이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채 있는 이들 너희는 나로부터 마귀와 그의 사자(使者)들에게 준비된 채 있는 영원한 불 속으로 가고 있어라. 42 왜냐하면 내가 주렸는데 너희는 나에게 먹으라고 주지 않았으며, 내가 목말랐는데 너희는 나에게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43 내가 나그네로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모아들이지 않았으며, 벌거벗은 이었는데 너희는 나를 두르게 하지 않았으며, 병든 이로 그리고 감옥 안에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44 그때에 그들도 대답할 것이다. 말하고 있기를, ‘주님, 언제 저희가 당신이 주리시고 있으며 목마르시고 있으며 나그네이시며 벌거벗은 이시며 병든 이시며 감옥 안에 계시는 것을 보았으며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45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말하고 있기를,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 가장 작은이들 중의 한 명에게 행하지 않았던 만큼을, 너희는 나에게 행하지 않았다.’ 46 그리고 이들은 영원한 형벌 안으로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떠나갈 것이다.”

26 그리고 예수스께서⁴¹⁸⁾ 이 모든 말씀들을 끝마치셨을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 “두 날들 후에 유월절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지는 것 안으로 넘겨진다.” 3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카이아파스로 말해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마당 안으로 모였으며 4 그들이 예수스를 계교로 붙잡기 위하여 그리고 살해하기 위하여 상의했다. 5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 “절기 안에서는 아니다, 소란이 백성 안에서 있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6 그런데 예수스께서 베따니아⁴¹⁹⁾ 안에서 문둥병자의 시몬의⁴²⁰⁾ 집 안에 계시게 되었을 때, 7 어떤 여인이 귀중한 향유 옥합을 갖고 있으면서 그분에게 나아왔으며 앉아 계시는 그분의 머리 위에 내리부었다. 8 그런데 제자들이 본 후 분개했다. 말하고 있기를,

418)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419) 히브리어 ‘베트아니아’의 헬라어 음역으로 ‘고통 받는 이의 집’이다.

420) 히브리어 ‘שמון’(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이 멸망은 무엇 안으로냐? 9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값에 팔릴 수 있으며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10 그런데 예수스께서 아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괴로움들을 그 여인에게 제공하느냐? 왜냐하면 그녀는 내 안으로 좋은 일로 일했기 때문이다. 11 왜냐하면 너희는 항상 가난한 이들을 너희자신들과 함께 갖고 있으나, 나를 항상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12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 향유를 나의 몸 위에 부은 후 나를 방부보존하는 것을 향하여 행했기 때문이다. 13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이 복음이 온 세상 안에서 선포될 것이면 그곳에서, 이 여자가 행했던 일도 그녀의 기념 안으로 발언될 것이다.”

14 그때에 열둘 중의 한 명이 나간 후, 이스카리오테스 유다스로⁴²¹⁾ 말해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15 말했다.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기 원합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그를 넘겨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에게 은 삼십을 달았다. 16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을 넘기려고 그가 기회를 찾고 있었다.

17 그런데 무교절들의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스께 나아왔다. 말하고 있기를, “유월절을 먹도록 저희가 당신에게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18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읍 안으로 아무개를 향하여 떠나고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해라.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시점이 가까이 있다, 내가 나의 ⁴²²⁾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를 향하여 행한다.’” 19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셨던 것처럼 행했으며 유월절을 준비했다. 20 그런데 해 질 녘이 된 후 그분이 열둘과 함께 앉아 계셨다. 21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중의 한 명이 나를 넘길 것이라고 말한다.” 22 그들이 매우 슬퍼하고 있으면서 각각 한 명씩 그분에게 말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아무래도 저는 아니지요, 주님?”⁴²³⁾ 23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 안에 손을 담갔던 이이가 나를 넘길 것이다. 24 한편 사람의 아들은 그에 관하여 기록된 채 있는 것과 같이 떠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넘겨지는 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화가 있다. 저 사람은 태어나게 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그에게 좋은 일이었을 것이다.” 25 그런데 그분을 넘기고 있는 유다스가 대답한 후 말했다. “아무래도 저는 아니지요, 선생님?”⁴²⁴⁾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말했다.” 26 그런데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스께서 빵을 취하신 후 그리고 축복하신 후 떼셨으며 제자들에게 주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취(取)하라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27 그리고 잔을 취하신 후 그리고 감사하신 후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너희 모든 이들은 그것 중에서 마셔라, 28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이들에 관하여 죄들의 용서 안으로 쏟아지고 있는 ⁴²⁵⁾언약의 나의 피이기 때문이다. 29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지금부터 나의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새로운 것 자체를 너희와 함께 내가

421)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422) ‘제자들 중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23) ‘μητι’(메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24) ‘μητι’(메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25) ‘새로운’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마시고 있을 때인 저 날까지 포도나무의 이 소산물 중에서 나는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30 그리고 그들이 찬양한 후 올리브나무들의 산 안으로 나갔다.

31 그때에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모든 이들이 이 밤 안에 내 안에서 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된 채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리고 양떼의 양들은 흩어버려지게 될 것이다.’

32 그런데 나는 일어난 후 갈릴리아⁴²⁶⁾ 안으로 너희를 앞서 갈 것이다.” 33 그런데 페트로스가 대답한 후 그분에게 말했다. “만약 장차 모든 이들이 당신 안에서 넘어질 것이라도,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34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아멘 나는 너에게 이 밤 안에 수탉이 소리 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35 페트로스가 그분에게 말한다. “비록 제가 당신과 함께 죽고 있어야 할지라도, 저는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36 그때에 예수스께서 그들과 함께 게뜨세마니로⁴²⁷⁾ 말해지고 있는 곳 안으로 가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기로 떠나간 후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바로 여기에 앉아라.” 37 그리고 그분이 페트로스와 제베다이오스의⁴²⁸⁾ 두 아들들을 옆에 취하신 후 슬퍼하시고 있기를 그리고 침통해하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38 그때에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영혼이 죽음까지 이를 정도로 슬픔에 싸인 것으로 있다. 너희는 여기 머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정신 차리고 있어라.” 39 그리고 그분이 약간 앞서 가신 후 그분의 얼굴을 대고 엮드리셨다. 기도하시고 있으면서 말씀하시고 있기를, “나의 아버지, 만약 지금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 잔이 나로부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40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시며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 그리고 페트로스에게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너희는 한 시간을 나와 함께 정신 차릴 만한 능력이 없었느냐?⁴²⁹⁾ 41 너희는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라, 너희가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영은 간절하나 또 한편 육체는 연약하다.” 42 또다시 그분이 두 번째로 떠나가신 후 기도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나의 아버지, 만약 장차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고서는 만약 지금 이것이 지나가고 있을 수 없다면, 당신의 뜻이 되게 하십시오.” 43 그리고 또다시 그분이 오신 후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들이 무거워진 채 있었기 때문이다. 44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내버려두신 후 또다시 떠나가신 후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말씀하신 후 세 번째 기도하셨다. 45 그때에 그분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끝내 잠자고 있으며 쉬고 있구나!⁴³⁰⁾ 보라! 시

426)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427) 히브리어 ‘갈취마네’의 헬라어 음역으로 ‘기름 짜는 틀’이다.

428) 히브리어 ‘제바드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429)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30) 명령문으로 보면 “너희는 이제 잠자고 있으며 쉬고 있어라.”이며, 의문문으로 보면 “너희는 끝내

간이 가까이 온 채 있으며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들 안으로 넘겨지고 있다. 46 너희는 일어나고 있어라 우리가 이끌고 있자. 보라! 나를 넘겨주고 있는 이가 가까이 온 채 있다.”

47 그리고 아직 그분이 발언하시고 있을 때 보라! 열둘 중의 한 명인 유다스가 왔으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많은 군중도 칼들과 몽둥이들과 함께 왔다. 48 그런데 그분을 넘겨주고 있는 이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었다. 말하고 있기를, “만약 장차 내가 입 맞출 것이면 그가 바로 그이니, 당신들은 그를 붙잡아라.” 49 그리고 그가 곧 예수스께 나아온 후 말했다. “당신은 기뻐하고 있으십시오, 랍비여,⁴³¹⁾” 그리고 그분에게 열렬히 입 맞추었다. 50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친구여, 내가 옆에 있는 것에 대하여.⁴³²⁾” 그때에 그들이 나아온 후 예수스에게 손들을 내밀었으며 그분을 붙잡았다. 51 그리고 보라! 예수스와 함께 있는 이들 중의 한 명이 손을 내민 후 그의 칼을 꺼냈으며 대제사장의 종을 친 후 그의 귀를 떼어내었다. 52 그때에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너의 칼을 그것의 곳 안으로 돌이키라. 왜냐하면 칼을 취했던 모든 이들이 칼 안에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53 혹시 내가 나의 아버지께 요청할 수 없으며, 그분이 나에게 지금 천사들의 열두 군단들 이상을 옆에 세우시지 못할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54 그렇다면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기록들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55 저 시간 안에 예수스께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칼들과 몽둥이들과 함께 나를 같이 취하려고 나아왔느냐? 나는 날마다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있으면서 앉아 있었으며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56 그런데 이일 전부는 대언자들의⁴³³⁾ 성경기록들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있게 된 채 있다.”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내버려둔 후 피했다.

57 그런데 예수스를 붙잡았던 이들이 대제사장 카이아파스를 향하여 이끌어갔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였던 곳. 58 그런데 페트로스는 대제사장의 마당까지 멀리서부터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으며 안쪽에 들어간 후 마지막을 보려고 보조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59 그런데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스를 반대하여 그분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찾고 있었다, 60 그러나 많은 거짓증인들이 나아온 후에도 그들이 찾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마침내 두 명이 나아온 후 61 말했다. 이이가 말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성소를 허물고 세 날들을 통하여 세울 수 있다.” 62 그리고 대제사장이 일어난 후 그분에게 말했다. “이들이 너에 대하여 무엇을 반대 증언하는지 너는 아무 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63 그런데 예수스께서 조용히 하시고 있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분에게 말했다. “네가

잠자고 있으며 쉬고 있느냐?”이다. 무엇으로 볼지는 독법에 따라 다르다. 참고로 대부분의 영역본은 의문문으로 번역하고 있다.

431) 히브리어 ‘랍비’의 헬라이어 음역으로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이다.

432) 이 문장은 파격문장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번역하기가 모호한데, “드디어 네가 왔구나!”라는 정도의 의미일 것 같다.

433)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스인지⁴³⁴) 내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너를 맹세시킨다.” 64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말했다. 덧 붙여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쪽들 밖으로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위에서 오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65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의 겹옷들을 찢어발겼다. 말하고 있기를, “그가 신성모독했다. 왜 아직도 우리가 증인들의 필요를 가지는가? 보라! 지금 너희가 신성모독을 들었다. 66 너희에게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느냐?” 그런데 그들이 대답한 후 말했다. “그것은 죽음에 해당된다.” 67 그때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 안으로 침 뱉었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쳤으며, 손바닥으로 때렸다. 68 말하고 있기를, “너는 우리에게 대언하라, 크리스토스야, 너를 쳤던 이가 누구냐?”

69 그런데 페트로스가 마당 안에서 바깥쪽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 여종이 그에게 나아왔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도 갈릴라이오스의⁴³⁵) 예수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70 그런데 그가 모든 이들 앞에서 부인했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71 그런데 그가 대문 안으로 나간 후 다른 여자가 그를 보았으며 거기 있는 이들에게 말한다. “이이가⁴³⁶) 나조라이오스의⁴³⁷) 예수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72 그리고 또다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가 맹세와 함께 부인했다. 73 그런데 약간 후에 선 채 있는 이들이 나아온 후 페트로스에게 말했다. “참으로 당신도 그들 중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씨가 당신을 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74 그때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가 맹렬히 저주하고 있기를 그리고 맹세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곧 수탉이 소리 냈다. 75 그리고 수탉이 소리 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채 있는 예수스의 입말씀을⁴³⁸) 페트로스가 기억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간 후 쓰라리게 울었다.

27 그런데 이른 아침이 된 후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스께⁴³⁹) 반대하여 그분을 죽이기 위하여 상의했다. 2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묶은 후 이끌어갔으며 총독⁴⁴⁰) 필라토스에게 넘겨주었다.

3 그때에 그분을 넘겨주고 있는 유다스가⁴⁴¹) 그분이 유죄 선고당하는 것을 본 후에, 후회한 후 삼십 은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이켰다. 4 말하고 있기를, “내가 형벌 당하지 않는⁴⁴²) 피를 넘겨준 후 죄지었다.” 그런데 그들이 말했다. “우리를 향하여 무엇

434)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435)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

436) ‘이이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37) 나자렐 출신, 혹은 나자렐 사람.

438)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439)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440) ‘폰티오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41)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이나? 내가 볼 것이다.⁴⁴³⁾ 5 그리고 그가 은들을 성소 안으로 던져 놓은 후 물러갔다, 그리고 떠나간 후 스스로 목매달았다. 6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은들을 취한 후 말했다. “그것들을 성전 금고 안으로 넣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것들이 피의 값이기 때문이다.” 7 그런데 그들이 상의한 후 그것들 밖으로 나그네들에게 묘지 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8 이리므로 저 밭이 오늘까지 피의 밭으로 불렸다. 9 그때에 대언자⁴⁴⁴⁾ 예레미아스를⁴⁴⁵⁾ 통하여 말해졌던 일이 성취되었다. 말하고 있기를,

“그리고 그들이 삼십 은들을 취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로부터 가격 매겼던
가격 매겨진 채 있는 이의 값을,”

10 그리고 그것들을 토기장이의 밭 안으로 그들이 주었다⁴⁴⁶⁾,
“주님이 나에게 지정하셨던 것과 같이.”

11 그런데 예수스께서 총독 앞에 세워지셨다. 그리고 총독이 그분에게 질문했다. 말하고 있기를, “네가 유다이오스들의 왕이나?” 그런데 예수스께서 말씀하시고 있었다. “내가 말하고 있다.” 12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말미암아 고발당하시고 있는 것 안에서 아무 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13 그때에 필라토스가 그분에게 말한다. “너는 그들이 얼마만큼 너를 반대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14 그러나 그분은 한 마디 입말을⁴⁴⁷⁾ 향하여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총독이 몹시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15 그런데 절기에 의하여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죄수 한 명을 총독이 군중에게 풀어보내고 있는 관습이 있어 왔었다. 16 그런데 그때에 예수스⁴⁴⁸⁾ 바랍바스로⁴⁴⁹⁾ 말해지고 있는 유명한 죄수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 17 그러므로 그들이 모인 채 있을 때 필라토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풀어보낼 것을 너희는 원하느냐, 바랍바스라는 예수스냐⁴⁵⁰⁾ 또는 크리스토스로⁴⁵¹⁾ 말해지고 있는 예수스냐?” 18 왜냐하면 그들이 시기 때문에 그분을 넘겼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 그런데 그가 재판석 위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향하여 파송했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당신과 저 의로운 이에게 아무 것도 없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꿈에 의하여 그이 때문에 오늘 많은 것들을 고난당했기 때문입니다.” 20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랍바스

442) ‘의로운’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43) 문맥상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책임질 것이다.’이다.

444)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445) 히브리어 ‘이르메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자카리아스’(히브리어 ‘제카르야’의 헬라어 음역-스가라), 또는 ‘에사야스’(히브리어 ‘예샤야’의 헬라어 음역-이사야)가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46) ‘그가 주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47)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448) “예수스”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49) 아람어 ‘바르 아바’(아버지의 아들)의 헬라어 음역이다.

450) “예수스”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51)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를 구(求)하도록, 그리고 예수스를 멸망시키도록 군중들을 설득했다. 21 그런데 총독이 대답한 후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두 명 중에서부터 누구를 너희에게 풀어보내기를 너희는 원하느냐?” 그런데 그들이 말했다. “바랍바스를.” 22 필라토스가 그들에게 말한다. “그렇다면 크리스토스로 말해지고 있는 예수스에게 나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모든 이들이 말한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지게 하십시오.” 23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었다.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행했기 때문이냐?” 그런데 그들이 넘치게 소리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지게 하십시오.” 24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소란이 더욱 있게 되는 것을 필라토스가 본 후에, 물을 취한 후 군중 앞쪽에서 손들을 씻었다. 말하고 있기를, “나는 이⁴⁵²⁾ 피로부터 형벌당하지 않는다. 너희가 볼 것이다.⁴⁵³⁾” 25 그리고 모든 군중이 대답한 후 말했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위에 있을 것입니다.” 26 그때에 그가 바랍바스를 그들에게 풀어보냈다, 그런데 예수스를 그가 채찍질한 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넘겨주었다.

27 그때에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스를 병영 안으로 옆에 취한 후 그분에게 온 부대를 모았다. 28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벗긴 후⁴⁵⁴⁾ 빨간 망토를 그분에게 둘러놓았다, 29 그리고 그들이 가시나무들 밖으로 월계관을 엮은 후 그분의 머리 위에 얹었으며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 안에 두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은 후 그분을 조롱했다⁴⁵⁵⁾.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기뻐하고 있으십시오, 유다이오스들의 왕이여”, 30 그리고 그들이 그분 안으로 침 뱉은 후 갈대를 취했으며 그분의 머리 안으로 치고 있었다. 31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조롱했을 때, 망토를 그분에게서 벗겼으며 그분의 겹옷들을 그분에게 입혔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다는 것 안으로 그분을 이끌어갔다.

32 그런데 그들이 나가고 있을 때 시몬이라는⁴⁵⁶⁾ 이름의 퀴레나이오스⁴⁵⁷⁾ 사람을 발견했으며, 그가 그분의 십자가를 들어올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이를 징용했다. 33 그리고 그들이 골고따로⁴⁵⁸⁾ 말해지고 있는 곳 안으로 간 후, 해골의 곳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인, 34 쓸개와 함께 섞여진 채 있는 포도주를 마시도록 그들이 그분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분은 맛보신 후 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35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 후

“제비를 던지고 있으면서⁴⁵⁹⁾ 그분의 겹옷들을 여럿으로 분리했다.”⁴⁶⁰⁾

36 그리고 그들이 앉아 있으면서 그분을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다. 37 그리고 그들이 그

452) ‘이’의로운 ‘이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53) 문맥상 실제적인 의미는 “너희가 책임질 것이다.”이다.

454) ‘입힌 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55)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과거형 ‘조롱하고 있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56) 히브리어 ‘שמון’(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457) ‘퀴레네 출신’

458) 아람어 ‘골골타’의 헬라어 음역으로 ‘해골’이다. 흔히 ‘갈보리’로 쓰인다.

459) ‘던진 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60) 이어서 ‘대언자로 말미암아 말해졌던 일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나의 겹옷들을 여럿으로 분리했다, 그리고 나의 겹옷들에 대하여 제비를 던졌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분의 머리 위에 기록된 채 있는 그분의 이유를 엮었다.

“이이는 유다이오스들의 왕 예수스이다.”

38 그때에 그분과 함께 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지고 있다. 오른쪽들 밖으로 한 명이 그리고 왼쪽들 밖으로 한 명이. 39 그런데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머리들을 흔들고 있으면서 그분을 모독하고 있었다. 40 그리고 말하고 있기를, “성소를 허물고 있으며 세 날들 안에 세우고 있는 이야, 너는 너자신을 구원하라. 만약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라.” 41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고 있으면서 말하고 있었다. 42 “그가 다른 이들을 구원했는데, 그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⁴⁶¹⁾, 지금 십자가로부터 그가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에 대하여 믿을 것이다.

43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채 있다.

지금 그분이 그를 원하시고 있다면 그분이 건지시게 하라.’

왜냐하면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44 그런데 그분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졌던 강도들도 그렇게 그분을 비난하고 있었다.

45 그런데 여섯 시부터⁴⁶²⁾ 어둠이 모든 땅에 아홉 시까지⁴⁶³⁾ 있게 되었다. 46 그런데 아홉 시쯤에 예수스께서 큰 소리로 위로 외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엘리⁴⁶⁴⁾ 엘리 레마⁴⁶⁵⁾ 사박따니⁴⁶⁶⁾?”

그리고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지여 나의 하나님이지여,

어찌하여 당신께서 저를 내버리셨나이까?”

이다. 47 그런데 거기에 선 채 있는 어떤 이들이 들은 후 이이가 엘리아스를⁴⁶⁷⁾ 부르다고 말하고 있었다. 48 그리고 곧 그들 중에서 한 명이 달려간 후 그리고 해면을 취한 후 신 포도주를 가득 채운 후에 그리고 갈대에 둘러놓은 후 그분에게 마시게 하고 있었다. 49 그런데 남은 이들이 말하고 있었다. “너는 내버려두라 엘리아스가 오고 있으며 그를 구원할 것인지 우리가 보자.⁴⁶⁸⁾” 50 그런데 예수스께서 또다시 큰 소리로 소리치신 후 영을 내버려두셨다. 51 그리고 보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 안으로 찢어졌으며 땅이 흔들렸으며 바위들이 찢어졌다, 52 그리고 무덤들이 열려졌으며 잠들게 된 채 있는 거룩한 많은 몸들이 일어났다, 53 그리고 그들이 무덤들 밖으로 나온 후 그분의 일

461)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62) 낮 12시, 당시의 0시는 지금의 오전 6시이다.

463) 오후 3시, 당시의 0시는 지금의 오전 6시이다.

464) 히브리어 ‘엘리’의 헬라어 음역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465) 아람어 ‘레마’(왜?)의 헬라어 음역이며, 히브리어 ‘람마’(왜?)를 음역한 ‘라마’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66) 아람어 ‘셰박타니’의 헬라어 음역으로 ‘당신이 나를 버렸다.’이다. 히브리어는 ‘아잡타니’이다.

467) 히브리어 ‘엘리아’의 헬라어 음역이다.

468) 이어서 ‘그런데 다른 이가 창을 취한 후 그분의 옆구리를 찌셨다, 그리고 물과 피가 나왔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어남과 함께 거룩한 성읍 안으로 갔으며 많은 이들에게 보였다. 54 그런데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스를 지키는 이들이 지진과 있게 된 일들을 본 후 매우 두려워했다. 말하고 있기를, “참으로 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55 그런데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있었는데, 그녀들은 갈릴리아로부터⁴⁶⁹⁾ 그분에게 봉사하고 있으면서 예수스를 따라왔었다. 56 그 여자들 중에 막달레네 마리아와⁴⁷⁰⁾ 야코보스와⁴⁷¹⁾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⁴⁷²⁾ 제베다이오스의⁴⁷³⁾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57 그런데 해 질 녘이 된 후 아리마테이아⁴⁷⁴⁾ 출신의 부유한 어떤 사람이 왔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그이 자신도 예수스께 제자 되었던 이인. 58 이이가 필라토스에게 나아간 후 예수스의 몸을 구했다. 그때에 필라토스가 내주게 될 것을 명령했다. 59 그리고 요셉이 그 몸을 취한 후 그분을 깨끗한 고운 삼베 안에 썼으며 60 그분을 바위 안에 쏘아내었던 그의 새로운 무덤 안에 두었으며 큰 돌을 무덤의 문에 굴러놓은 후 그가 떠나갔다. 61 그런데 거기에 막달레네 마리아와⁴⁷⁵⁾ 다른 마리아가 무덤 앞쪽에 앉아 있으면서 있었다.

62 그런데 다음날에, 준비일 후에 있는 어느 무엇인, 대제사장들과 파리사이오스들이⁴⁷⁶⁾ 필라토스를 향하여 모였다. 63 말하고 있기를, “주여, 저 미혹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 날들 후에 내가 일어날 것이다.’ 64 그러므로 셋째 날까지 무덤이 확실하게 되도록 당신은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온 후 그를 도둑질하며 백성에게 말할까 함입니다. ‘그분이 죽은 이들로부터 일어났다’, 마지막 미혹이 첫째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65 필라토스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너희가 경비대를 갖고 있다. 너희는 떠나고 있어라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는 확실하게 하라.” 66 그런데 그들이 간 후 경비대와 함께 돌을 봉인한 후 무덤을 확실하게 했다.

28 그런데 안식일들의 늦은 시간에, 안식일들의 첫날 안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을 때 에 막달레네 마리아와⁴⁷⁷⁾ 다른 마리아가⁴⁷⁸⁾ 무덤을 바라보려고 갔다. 2 그리고

469)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470) 히브리어 ‘미르얌’(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을 헬라어로 음역한 ‘마리아’의 또 다른 음역이다. ‘마리아’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71)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472) ‘마리아’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73) 히브리어 ‘제바드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474) 히브리어 ‘라마’(높은 곳)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475) 히브리어 ‘미르얌’을 헬라어로 음역한 ‘마리아’의 또 다른 음역이다.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얌’(개역을 비롯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으로 번역)을 ‘마리아’으로 기록하고 있다. ‘마리아’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76)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477) ‘마리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얌’(개역을 비롯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으로 번역)을 ‘마리아’으로 기록하고 있다.

478) 히브리어 ‘미르얌’(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을 헬라어로 음역한 ‘마리아’의 또 다른 음역이다. ‘마리아’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보라! 큰 지진이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자(使者)가 하늘 밖으로 내려온 후에 그리고 온 후 돌을 굴러 냈으며 그것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그의 모양은 번개와 같았으며 그의 의복은 눈처럼 희었다. 4 그런데 그의 두려움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이들이 흔들렸으며 죽은 이들과 같아졌다. 5 그런데 그 사자(使者)가 대답한 후 여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지신 채 있는 예수스를⁴⁷⁹⁾ 찾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6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분이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라 그분이⁴⁸⁰⁾ 놓여 계셨던 곳을 보라. 7 그리고 너희는 빨리 간 후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은 이들로부터⁴⁸¹⁾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그리고 보라! 그분이 갈릴리아⁴⁸²⁾ 안으로 너희를 앞서 가신다, 거기에서 너희가 그분을 볼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8 그리고 그 여자들이 무덤으로부터 두려움과 큰 기쁨과 함께 빨리 떠나간 후 그분의 제자들에 알려주려고 달려갔다. 9 그리고 ⁴⁸³⁾보라! 예수스께서 그녀들을 맞이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너희는 기뻐하고 있어라.” 그런데 그녀들이 나아온 후 그분의 발들을 붙잡았으며 그분에게 경배했다. 10 그때에 예수스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떠나고 있어라 그들이 갈릴리아 안으로 떠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형제들에게 알려주어라,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11 그런데 그 여자들이 가고 있을 때 보라! 경비대의 어떤 이들이 성읍 안으로 간 후 대제사장들에게 있게 되었던 모든 일들을 알려주었다. 12 그리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인 후 상의했으며 충분한 은들을 군인들에게 주었다. 13 말하고 있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온 후 우리가 잠들게 되고 있을 때 그를 도둑질했다고 너희는 말해라. 14 그리고 만약 장차 이것이 총독에게 들릴 것이면, 우리가 그를⁴⁸⁴⁾ 설득할 것이며 너희로 염려 없도록 행할 것이다.” 15 그런데 그들이 은들을 취한 후 가르침 받았던 것처럼 행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 날⁴⁸⁵⁾까지 유다이오스들에게 널리 소문나게 되었다.

16 그런데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아 안으로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던 산 안으로 갔다. 17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본 후 경배했다, 그런데 그들이 의심했다. 18 그리고 예수스께서 나아오신 후 그들에게 발언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모든 권세가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서 나에게 주어졌다.⁴⁸⁶⁾ 19 그러므로 너희는 간 후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으면서, 20 내가

479)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480) ‘주님께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81) “죽은 이들로부터”가 없는 사본들도 있다.

482)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483) ‘그녀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가고 있었을 때 그리고’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84) “그를”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85) “날”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86) 이어서 ‘아버지가 나를 파송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파송할 것이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너희에게 명했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리고 보라! 시대의 맨 끝까지 모든 날들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⁴⁸⁷⁾

487) 이어서 ‘아멘’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KATA MAPKON

말코스에 의하여¹⁾

1 하나님의 아들의²⁾ 예수스³⁾ 크리스토스의⁴⁾ 복음의 시작이다. 2 대언자⁵⁾ 에사리아스⁶⁾ 안에 기록된 채 있는 것과 같이.

“보라! 내가 너의 얼굴 앞에 사자(使者)를 파송한다,
너의 길을 갓출 이인,

3 광야 안에서 외치고 있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다져진 길들을 곧은 것들로 만들고 있어라.’”

4 세례를 주고 있으며 죄들의 용서 안으로 회심의⁷⁾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⁸⁾ 요안네스가⁹⁾ 광야 안에서 있게 되었다. 5 그리고 모든 유다이아¹⁰⁾ 지역과 모든 히에로솔뤼미테스들이¹¹⁾ 그를 향하여 나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올다네스¹²⁾ 강물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세례 받고 있었다. 6 그리고 요안네스는 낙타의 털들을¹³⁾ 입은 채 있으면서 있었으며 그의 허리둘레에 가죽 허리띠를 띤 채 있으면서 있었으며 메뚜기들과 야생 꿀을 먹고 있으면서 있었다. 7 그리고 그가 선포했다. 말하고 있기를, “나의 뒤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굽힌 후 그분의 신발들의 끈을 풀기

-
- 1) ① ‘말코스에 의한 복음’ ② ‘말코스에 의한 거룩한 복음’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 2) “하나님이 아들의”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 3)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 4)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 5)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 6) 히브리어 ‘에샤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대언자 에사리아스” 대신에 ‘대언자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 7) ‘μετανοια’(메타노이아)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는 것’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는 의미의 ‘회심(回心)’으로 번역했다.
 - 8) “세례를 주고 있으며 ~ 선포하고 있는” 대신에 ‘세례를 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 선포하고 있으면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많다. 어느 것이 원본문인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이 차이는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 9) 히브리어 ‘요한’과 ‘예호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 10)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 11) 예루살렘 사람
 - 12) 히브리어 ‘야르덴’의 헬라어 음역으로 ‘요단강’이다.
 - 13) ‘가죽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에도 충분하지 않다. 8 나는 물로¹⁴⁾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9 그리고 예수스께서 갈릴리아의¹⁵⁾ 나자렛으로부터 오셨으며 요안네스로 말미암아 올다네스 안으로 세례 받으셨던 일이 저 날들 안에서 있게 되었다. 10 그리고 곧 그분이 물 밖으로 올라오시고 있으면서 하늘들이 찢기고 있는 것과 영이 비둘기처럼 그분 안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셨다. 11 그리고 소리가 하늘들 밖으로 있게 되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네 안에서 내가 좋게 생각했다.”

12 그리고 곧 영이 그분을 광야 안으로 내보낸다. 13 그리고 그분이 사십 일들을 사타나스로¹⁶⁾ 말미암아 시험 당하시고 있으면서 광야 안에 계셨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분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14 그런데 요안네스가 넘겨진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¹⁷⁾ 선포하시고 있으면서 15 그리고 시점이 채워진 채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채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예수스께서 갈릴리아 안으로 가셨다.¹⁸⁾ “너희는 회심하고 있어라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고 있어라.”

16 그리고 그분이 갈릴리아의 바다 옆을 지나가시고 있으면서 시몬과¹⁹⁾ 시몬의 형제 안드레아스가 바다 안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이다. 17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뒤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18 그리고 곧 그들이 그물들을 내 버려둔 후 그분을 따라갔다. 19 그리고 그분이 조금 앞으로 가신 후 제베다이오스의²⁰⁾ 아들 야코보스와²¹⁾ 그의 형제 요안네스를 보셨으며 그들이 배 안에서 그물들을 준비하여 갖추고 있는 것을 보셨다, 20 그리고 곧 그분이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제베다이오스를 품꾼들과 함께 배 안에 내버려둔 후 그분 뒤로 떠나갔다.

21 그리고 그들이 카팔나움²²⁾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곧 그분이 안식일들에 회당 안으로 들어가신 후 가르치시고 있었다. 22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충격 받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권세를 가지시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계셨기 때문이다. 23 그리고 곧 그들의 회당 안에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영 안에 있었으며 위로 소리쳤다. 24 말하고 있기를, “무엇이 저희와 당신께 있습니까,²³⁾ 나zare노스²⁴⁾ 예수스시여? 당신께서 저희를 멸망시키시려고 오셨습니까? 저는 당

14) ‘물 안에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5)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16) 히브리어 ‘사탄’(대항자, 대적자)의 헬라어 음역이다.

17)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로 기록된 어떤 고대 사본들도 있다.

18) “예수스께서 갈릴리아 안으로 가셨다.”가 원문에는 14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 구성상 15절로 돌렸다.

19) 히브리어 ‘썬온’(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20) 히브리어 ‘제바드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21)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22) ‘위로의 마을’

23) 실제적인 의미는 ‘저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이다.

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25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것을 꾸짖으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너는 잠잠해져라 그리고 그이 밖으로 나와라.” 26 그리고 더러운 영이 그를 경련하게 했으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으며 그이 밖으로 나갔다. 27 그리고 모든 이들이 두려워 놀라게 되었다 따라서 그자신들을 향하여 논쟁하고 있다. 말하고 있기를, “이것이 무엇이나? 권세에 의한²⁵⁾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 지시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에게 순종한다.” 28 그리고 그분의 소문이 곧 사방에 갈릴리아의 온 주변지역 안으로 나갔다.

29 그리고 곧 그들이²⁶⁾ 회당 밖으로 나온 후 시몬과 안드레아스의 집 안으로 야코보스와 요안네스와 함께 갔다. 30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으면서 누워 있었다, 그리고 곧 그들이 그녀에 관하여 그분에게 말한다. 31 그리고 그분이 나아오신 후에 손을 붙잡으신 후 그녀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열병이 그녀를 떠났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32 그런데 해 질 녘이 된 후에, 해가 졌을 때, 그들이 그분을 향하여 나쁘게 갖고 있는 이들과 귀신들려 있는 이들 모든 이들을 데려오고 있었다. 33 그리고 온 성읍이 문을 향하여 모인 채 있으면서 있었다. 34 그리고 그분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나쁘게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을 치료하셨으며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으며 귀신들이 발언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두시지 않고 있었다, 그것들이 그분을²⁷⁾ 알았기 때문이다.

35 그리고 몹시 이른 아침 밤중에 그분이 일어서신 후 나가셨으며 광야의 어떤 곳으로 떠나가셨으며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있었다. 36 그리고 시몬과 그와 함께 한 이들이 그분을 뒤쫓았다, 37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발견했으며 그분에게 모든 이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38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성읍마을들을 갖고 있는 곳들 안으로 가고 있자, 거기에서도 내가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 안으로 왔기 때문이다.” 39 그리고 그분이 그들의 회당들 안으로 선포하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있으면서 온 갈릴리아 안으로 가셨다²⁸⁾.

40 그리고 어떤 문둥병자가 그분에게 요청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무릎 꿇고 있으면서²⁹⁾ 그리고 그분에게 만약 장차 당신이 원할 것이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분을 향하여 온다. 41 그리고 그분이³⁰⁾ 애타게 되신 후에 그분의 손을 내미신 후 만지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해져라.” 42 그리고 곧 문둥병이 그로부터 떠나갔다, 그리고 그가 깨끗해졌다. 43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엄히 경고하

24) ‘나자렐’사람.

25) 구두점에 따라서 뒤 문장과 연결하여 ‘권세에 의하여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 지시한다.’로 볼 수도 있다.

26) ‘그분이’로 기록된 어떤 고대 사본들도 있다.

27) ‘그분이 크리스트스이신 것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8) ‘계셨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9) “그리고 무릎 꿇고 있으면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0) ‘예수스께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신 후 곧 그를 내보셨으며 44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아무에게도 아무 것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어라, 오히려 너는 떠나고 있어라 너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너의 정결함에 관하여 모우세스가³¹⁾ 지시했던 것들을 가져가라, 그들에게 증거 안으로.” 45 그런데 그가 나간 후 많은 것들을 선포하고 있기를 그리고 그 일을 널리 소문내고 있기를 시작했다, 따라서 그분이 더 이상 나타나게 성읍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바깥에 광야들의 어떤 곳들에 계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향하여 사방에서 오고 있었다.

2 그리고 그분이 날들을 통하여 카팔나움³²⁾ 안으로 또다시 들어가신 후에 그분이 집 안에³³⁾ 계시다는 것이 들렸다. 2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모였고 따라서 더 이상 문을 향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을 발언하시고 있었다. 3 그리고 중풍병자가 네 명으로 말미암아 들어올려지고 있을 때 그들이 그분을 향하여 데려가고 있으면서 온다. 4 그리고 그들이 군중 때문에 그분에게 데려갈³⁴⁾ 수 없을 때 그분이³⁵⁾ 계셨던 곳의 지붕을 뜯어냈다, 그리고 구멍 낸 후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간이침상을 달아 내렸다. 5 그리고 예수스께서³⁶⁾ 그들의 믿음을 보신 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아, 너의 죄들이 용서된다³⁷⁾.” 6 그런데 서기관들 중의 어떤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들 안에 의논하고 있으면서 있었다. 7 “왜 이는 이와 같이 말하는가? 그가 신성모독하고 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면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8 그리고 곧 예수스께서 그분의 영으로 그들이 그자신들 안에서 이와 같이 의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너희가 너희의 마음들 안에서 이것들을 의논하고 있느냐? 9 무엇이 더 쉬운 일이나, ‘너의 죄들이 용서된다³⁸⁾’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것, 또는 ‘너는 일어나고 있어라 그리고 너의 간이침상을 들어올려라 그리고 걸어다니고 있어라’ 말하는 것 중에서? 10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고 있으려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다. 11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일어나고 있어라 너의 간이침상을 들어올려라 그리고 너의 집 안으로 떠나고 있어라.” 12 그리고 그가 일어났으며 곧 간이침상을 들어올린 후 모든 이들의 앞에서 나갔다, 따라서 모든 이들이 정신 나가고 있었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결코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31) 히브리어 ‘모세’의 헬라어 음역이다.

32) ‘위로의 마을’

33) ‘안으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4) ‘가까이 갈’, 또는 ‘향하여 갈’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5) ‘예수스께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6)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7) 현재형 대신에 현재완료형 ‘용서된 채 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8) 현재형 대신에 현재완료형 ‘용서된 채 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3 그리고 그분이 또다시 바다 옆에 나가셨다. 그리고 모든 군중이 그분을 향하여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었다. 14 그리고 그분이 지나가시고 있으면서 알파이오스의 아들 류이가³⁹⁾ 세금징수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그리고 그가 일어난 후 그분을 따라갔다. 15 그리고 그분이 그의 집 안에 앉아 계시는 일이 있게 된다, 그리고 많은 세금징수자들과 죄인들이 예수스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있었으며 그분을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16 그리고 그분이 죄인들과 세금징수자들과 함께 먹고 있는 것을 파리사이오스들의⁴⁰⁾ 서기관들이⁴¹⁾ 본 후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어떤 이유로 그는 세금징수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⁴²⁾?” 17 그리고 예수스께서 들으신 후에 건강하게 있는 이들이 의사의 필요를 갖지 않고 오히려 나쁘게 갖고 있는 이들이 갖는다고,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오히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18 그리고 요안네스의⁴³⁾ 제자들과 파리사이오스들이 금식하고 있으면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오며 그분에게 말한다. “무엇 때문에 요안네스의 제자들과 파리사이오스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19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혼인집의 아들들이 금식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⁴⁴⁾ 그들이 그들과 함께 신랑을 갖고 있는 기간만큼은 그들이 금식하고 있을 수 없다. 20 그런데 신랑이 그들로부터 빼앗겨질 날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저 날 안에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21 아무도 세탁가공하지 않은 옷감 조각을 오래된 겂옷 위에 꿰매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채운 새로운 것이 그것의 오래된 것으로부터 들어올리며 찢김은 더 심하게 된다. 22 그리고 아무도 젊은⁴⁵⁾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부대들 안으로 넣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가 가죽들을 파괴할 것이며 포도주는 멸망당한다 가죽부대들도⁴⁶⁾. 오히려 젊은 포도주를 새로운 가죽부대들 안으로 넣는다⁴⁷⁾.”

23 그리고 그분이 안식일들 안에서 밀밭들을 통하여 지나가시고 있는 일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이삭들을 뜯고 있으면서 길을 만들고 있기를 시작했다. 24 그리고 파리사이오스들이 그분에게 말하고 있었다. “보십시오! 왜 그들이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안식일들에 행합니까?” 25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다윗이 그가

39) 히브리어 ‘레워’의 헬라어 음역이다.

40) 아랍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41)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들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2) ‘먹고 있으며 마시고 있느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3) 히브리어 ‘요하난’과 ‘예호하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44)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5) 실제적인 의미는 ‘한창 발효 중에 있는’이다.

46) ‘포도주와 가죽부대들은 멸망당한다’ 또는 ‘포도주는 쏟아지며 가죽부대들은 멸망당한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7) ‘그들이 넣는다’ 또는 ‘~포도주는 ~ 넣어지는 것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필요를 가졌을 때에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이들과 그가 주렸을 때에 무엇을 행했는지 너희가 결코 잊지 못했느냐, 26 어떻게 그가 아비아달⁴⁸⁾ 대제사장⁴⁹⁾ 때에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진설한 것의 빵들을 먹었느냐, 제사장들이 아니라면 먹기에는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을,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그가 주었느냐?” 27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있게 되었으며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게 되지 않았다. 28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다.”

3 그리고 그분이 또다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말라진 채 있는 손을 갖고 있으면서 있었다. 2 그리고 그분이 안식일들에 그를 치료할 것인지 그들이 그분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분을 고발하기 위함이다. 3 그리고 그분이 마른 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가운데 안으로 일어나고 있어라.” 4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선을 행하는 것 또는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원하는 것 또는 살해하는 것 어느 것이 안식일들에 합법적이냐?” 그런데 그들이 조용히 하고 있었다. 5 그리고 그분이 진노와 함께 그들을 둘러보신 후,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에 아주 슬퍼하시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가 내밀었다 그리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6 그리고 파리사이오스들이⁵⁰⁾ 나간 후 곧 헤로디아노스들과⁵¹⁾ 함께 그분에 반대하여 그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상의함을 주고 있었다.

7 그리고 예수스께서⁵²⁾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향하여 물러가셨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갈릴리아로부터⁵³⁾ 따라왔다, 그리고 유다이아로부터⁵⁴⁾ 8 그리고 히에로솔뤼마로부터⁵⁵⁾ 그리고 유다이아로부터 그리고 올다네스의⁵⁶⁾ 건너편 그리고 튀로스와⁵⁷⁾ 시돈⁵⁸⁾ 둘레에서 많은 무리가 그분이 행하시고 있었던 것들만큼을 듣고 있으면서 그분을 향하여 왔다. 9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옥여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중 때문에 작은 배가 그분에게 몰두하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0 왜냐하면 그분이 많은 이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들을 갖고 있었던 이들만큼은 그분을 만지기 위하여 그분에게 덮쳐오고 있다. 11 그리고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그분에게 엎드리고 있었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소리치고 있었다. 12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는 일을 그들이 행하지 않도록 하

48) 히브리어 ‘에브야타르’의 헬라어 음역이다.

49) ‘제사장’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50)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51) 헤롯당원

52)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53)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54)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55) 히브리어 ‘에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56) 히브리어 ‘야르덴’의 헬라어 음역으로 ‘요단강’이다.

57) 히브리어 ‘초르’(돌, 반석)의 헬라어 번역이다.

58) 히브리어 ‘치돈’(사냥하다)의 헬라어 음역이다.

기 위하여 그분이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훈계하시고 있었다.

13 그리고 그분이 산 안으로 올라가시며 그분이 원하시고 있었던 이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향하여 떠나왔다. 14 그리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포하고 있으려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있기 위하여 사도들로도 불렀던⁵⁹⁾ 열둘을 그분이 만드셨다. 15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으려고도. 16 그리고 그분이 열둘을 만드셨다,⁶⁰⁾ 시몬에게⁶¹⁾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얹으셨으며, 17 그리고 제 베다이오스의⁶²⁾ 아들 야코보스와⁶³⁾ 야코보스의 형제 요안네스⁶⁴⁾ 그리고 그들에게 보아 넬게스라는 이름을 얹으셨다, 우레의 아들들인. 18 그리고 안드레아스와 필립포스와 발 쏘로마이오스와⁶⁵⁾ 말따이오스와 또마스와 알파이오스의 아들 야코보스와 딸다이오스와 카나나이오스⁶⁶⁾ 시몬과 19 이스카리오뜨⁶⁷⁾ 유다스,⁶⁸⁾ 그분을 넘기기도 했던 이인.

20 그리고 집 안으로 그분이 가신다⁶⁹⁾. 그리고 또다시 군중이 함께 온다, 따라서 그들은 빵도 먹을 수 없었다. 21 그리고 그분 옆에 있는 이들이⁷⁰⁾ 들은 후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왔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신 나갔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2 그리고 히에로솔뤼마로부터 내려왔던 서기관들은 그가 베엘제불을⁷¹⁾ 갖고 있으며 귀신들의 통치자 안에서 귀신들을 내쫓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23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부르신 후 비유들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어떻게 사타나스가⁷²⁾ 사타나스를 내쫓고 있을 수 있느냐? 24 그리고 만약 장차 왕국이 그자신에 대하여 분리될 것이면, 저 왕국은 서 있을 수 없다. 25 그리고 만약 장차 집이 그자신에 대하여 분리될 것이면, 저 집은 서 있을 수 없다. 26 그리고 만약 사타나스가 그자신에 대하여 일어섰으며 분리되었다면, 그는 설 수 없고 오히려 끝을 가진다. 27 오히려 아무도 능력 있는 이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의 물건들을 강탈할 수 없다, 만약 장차 먼저 그 능력 있는 이를 묶지 않을 것이면, 그때에 그가 그의 집을 강탈할 것이다. 28 만약 장차 그들이 모독할 것이면 그만큼의 모든 범죄들과 모독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용서될 것이라고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29 그런데 만약 장차 성령 안으로 모독할 것이면, 그는 영원히 용서를 갖지 못하고,

59) “사도들로도 불렀던”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60) “그리고 그분이 열둘을 만드셨는데,”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61) 히브리어 ‘שמון’(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62) 히브리어 ‘제바드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63)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64) 히브리어 ‘요하난’과 ‘예호하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65) 아람어 ‘바르탈메’(탈메의 아들)의 헬라어 음역이다.

66) 아람어 ‘칸안’에서 유래했으며,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67) ‘이스카리오테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68)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69) ‘그들이 간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70) ‘옆에 있는 이들’의 실제적인 의미는 가족 또는 친족을 의미할 것이다.

71) ‘베엘제불’ 또는 ‘베엘제붐’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베엘제불’은 히브리어 ‘제불’이나 ‘제벨’(똥)과 ‘바알’의 합성 형태로 ‘똥의 신’으로 보기도 하며, ‘베엘제붐’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파리신)에서 나온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경멸조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72) 히브리어 ‘사탄’(대항자, 대적자)의 헬라어 음역이다.

오히려 영원한 범죄에⁷³⁾ 해당된다.” 30 그들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러운 영을 갖고 있다.”

31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온다 그리고 바깥에 서 있을 때 그분을 부르고 있으면서 그분을 향하여 파송했다. 32 그리고 군중이 그분 둘레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과 당신의 누이들이⁷⁴⁾ 바깥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33 그리고 그분이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이냐?” 34 그리고 그분이 그분 둘레 주변에 앉아 있는 이들을 둘러보신 후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35 왜냐하면⁷⁵⁾ 만약 장차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면, 이이가 나의 형제와 누이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4 그리고 또다시 그분이 바다 옆에서 가르치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가장 많은 군중이 그분을 향하여 모인다, 따라서 그분이 배 안으로 타신 후 바다 안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모든 군중은 바다를 향하여 땅 위에 있었다. 2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많은 비유들 안에서 가르치시고 있으며 그들에게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었다. 3 “너희는 듣고 있어라. 보라! 씨 뿌리고 있는 이가 씨 뿌리려고 나갔다. 4 그리고 씨 뿌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한편 어떤 것은 길옆에 떨어졌다, 그리고 새들이 왔으며 그것을 먹어치웠다. 5 그리고 다른 것은 많은 땅을 갖고 있지 않았던 돌밭들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깊은 땅을 갖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곧 솟아올랐다. 6 그러나 해가 떠올랐을 때에 그것이 태워졌으며 뿌리를 갖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마르게 되었다. 7 그리고 다른 것은 가시나무들 안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가시나무들이 자랐으며 그것을 아주 질식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주지 못했다. 8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좋은 땅 안으로 떨어졌으며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라고 있으면서 열매를 주었으며 하나가 삼십 개를 그리고 하나가 육십 개를 그리고 하나가 백 개를⁷⁶⁾ 가져오고 있었다.” 9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었다. “듣고 있기 위한 귀들을 갖고 있는 이는 듣고 있어라.”

10 그리고 그분이 홀로 되었을 때, 그분 둘레에 있는 이들이 열둘과 함께 비유들을 그분에게 묻고 있었다. 11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진 채 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저이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비유들 안에서 된다.⁷⁷⁾

12 ‘그들이 보고 있으면서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73) ‘심판에’ 또는 ‘형벌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74) “당신의 누이들이”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75) “왜냐하면 ~ 때문이다”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76) “하나가 삼십 개를 ~ 백 개를”은 원문을 직역한 것인데, 아람어 표현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그 실제적인 의미는 ‘삼십 배와 육십 배와 일백 배를’이다.

77) ‘말해진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있으면서 듣고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돌아설까 함이며 그것이 그들에게 용서될까 함이다.”

13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모든 비유들을 너희가 알 것이냐? 14 씨 뿌리고 있는 이는 말씀을 씨 뿌린다. 15 그런데 이들이 길옆에 있는 이들이다. 말씀이 씨 뿌려지는 곳에 그리고 그들이 듣고 있을 때에는, 곧 사타나스가⁷⁸⁾ 오며 그들 안으로⁷⁹⁾ 씨 뿌려진 채 있는 말씀을 제거한다. 16 그리고 이들이 돌밭들 위에 씨 뿌려진 채 있는 이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곧 기쁨과 함께 그것을 취한다, 17 그러나 그들은 그자신들 안에 뿌리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잠시 있지만, 말씀 때문에 옥여쌘이나 박해가 있게 된 다음에 곧 넘어진다. 18 그리고 다른 이들은 가시나무들 안으로 씨 뿌려지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다, 19 그리고 시대의 염려들과 부유함의 속임과 기타 남은 갈망들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말씀을 아주 질식시키며 그는 열매 없게 된다. 20 그리고 저이들이 좋은 땅 위에 씨 뿌려졌던 이들이다, 말씀을 들으며 영접하며 하나가 삼십 개를 그리고 하나가 육십 개를 그리고 하나가 백 개를⁸⁰⁾ 열매 맺는 어느 누구들인.”

21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아무래도 등불이 말(斗) 아래나 간이 침대 아래에 놓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⁸¹⁾ 등잔대 위에 놓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냐?⁸²⁾ 22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장차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할 지라도 그것은 감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숨김이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타남 안으로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었다. 23 만약 지금 어떤 이가 듣고 있기 위한 귀들을 갖고 있다면 그는 듣고 있어라.” 24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너희는 보고 있어라. 너희가 재는 그 자 안에서 그것이 너희에게 재어질 것이며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25 왜냐하면 갖고 있는 이인, 그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갖고 있지 않는 이인, 그로부터 그가 갖고 있는 것도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26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땅 위에 씨앗을 뿌렸으며 27 그가 밤낮에 자고 있으며 일어나고 있으며,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씨앗이 싹트고 있으며 자라고 있는 것처럼 된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 맺는다, 첫 번째는 풀을 다음에 이삭을 다음에 이삭 안에 충만한 밀을. 29 그런데 열매가 넘겨줄 때에는, 곧 그가 낫을 파송한다,⁸³⁾ 추수가 옆에 선 채 있기 때문이다.”

78) 히브리어 ‘사탄’(대항자, 대적자)의 헬라어 음역이다.

79) ‘그들의 마음들 안에’ 또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또는 ‘그들 안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80) “하나가 삼십 개를 ~ 백 개를”은 원문을 직역한 것인데, 아람어 표현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그 실제적인 의미는 ‘삼십 배와 육십 배와 일백 배를’이다.

81) ‘μητι’(메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82)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83) ‘낫을 댄다.’보다는 ‘낫을 든 사람을 파송한다.’가 실제적인 의미에 더 가까운 것 같다.

30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비교하겠으며 그것을 무슨 비유 안에 두겠는가? 31 겨자의 낱알처럼, 그것이 땅 위에 씨 뿌려졌을 때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 작은 것으로 있으면서, 32 그리고 씨 뿌려졌을 때에는, 그것이 올라오며 모든 야채들보다 더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만든다, 따라서 그것의 그늘 아래

‘하늘의 새들이 장막을 치고 있을 수 있다.’”

33 그리고 그들이 듣고 있을 수 있었던 대로 그분이 이런 많은 비유들로 그들에게 발언하시고 있었다. 34 그런데 비유 외에는 그분이 그들에게 발언하시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따로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그분이 풀어주시고 있었다.

35 그리고 저 날 안에서 해 질 녘이 된 후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건너편 안으로 통과하여 가자.” 36 그리고 그들이 군중을 내버려둔 후 그분이 배 안에 계셨던 그대로 그분을 옆에 취한다, 그리고 다른 배들도 그것과 함께 있었다. 37 그리고 큰 폭풍이 있게 되며 파도들을 배 안으로 던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미 배가 가득하게 되고 있다. 38 그리고 그분은 배 뒤편 안에서 베개⁸⁴⁾ 위에 주무시고 있으면서 계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일으키며 그분에게 말한다. “선생님, 우리가 멸망하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는 상관없습니까?” 39 그리고 그분이 깨신 후 바람을 꾸짖으셨으며 바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라, 잠잠해진 채 있어라.” 그리고 바람이 그쳤으며 큰 잔잔함이 있게 되었다. 40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무서워하는 이들이냐? 아직도 너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⁸⁵⁾ 41 그리고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으며 서로를 향하여 말하고 있었다. “바람도 바다도 그분에게 순종하다니 그러면 이분은 누구신가?”

5 그리고 그분이 바다의 건너편 안으로 게라세노스들의⁸⁶⁾ 지역 안으로 가셨다. 2 그리고 그분이 배 밖으로 나오신 후에 곧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영 안에서 무덤들 밖으로 그분을 맞이했다, 3 거주지를 무덤들 안에 갖고 있었던 이인, 그리고 쇠사슬로도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묶고 있을 수 없었다 4 그가 여러 번 족쇄들과 쇠사슬들로 묶여진 채 있었으나 그 쇠사슬들과 족쇄들이 그로 말미암아 부서진 채 있으며 끊어진 채 있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통제할 만한 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 5 그리고 그가 모든 밤과 낮을 통하여 무덤들 안과 산들 안에서 소리치고 있으면서 그리고 돌들로써 그 자신을 내리치고 있으면서 있었다. 6 그리고 그가 멀리서부터 예수스를⁸⁷⁾ 본 후 달려왔

84) 일반적인 ‘베개’인지 또는 ‘배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머리를 기대어 쉴 수 있도록 배 안에 마련된 어떤 것일 가능성이 많다.

85) ‘왜 너희는 이와 같이 무서워하는 이들이냐? 어떻게 너희는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86) ①‘가다레노스들의’ ②‘겔귀스테노스들의’ ③‘겔게세노스들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마태복음 8장 28절과 누가복음 8장 26절과 비교하라.

87)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으며 그분에게 경배했으며 7 그가 큰 소리로 소리친 후 말한다. “무엇이 저와 당신께 있 습니까,⁸⁸⁾ 예수스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당신을 하나님께 맹세시킵니다, 당신은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8 왜냐하면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 너는 그 사람 밖으로 나와라.” 9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질문하시고 있었다. “이름이 너에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가 그분에게 말한다. “저에게 이름은 군단입니다, 저희가 많기 때문입니다.” 10 그리고 그분이 지역의 바깥으로 그것들을⁸⁹⁾ 보내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이 많은 것들을 그분에게 요청하고 있었다. 11 그런데 거기에 산 곁으로 돼지들의 큰 떼가 길러지고 있으면서 있었다. 12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요청했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저희를 돼지들 안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그것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13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나온 후 돼지들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떼가 벼랑 아래 바다 안으로 돌진했으며, 대략 이천쯤이, 그것들이 바다 안에서 질식당하고 있었다. 14 그리고 그것들을 기르고 있는 이들이 피했으며 성읍 안으로와 시골들 안으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무엇이 있게 된 채 있으면서 있는지 보려고 그들이 왔다 15 그리고 그들이 예수스를 향하여 오며 군단을 가진 채 있는 귀신들려 있는 이가 겹옷 입힌 채 있으며 정신이 멀쩡한 채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16 그리고 귀신들려 있는 이에게와 돼지들에 관하여 그 일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보았던 이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17 그리고 그분이 그들의 지방들로부터 떠나가실 것을 그들이 요청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18 그리고 그분이 배 안으로 타시고 있을 때 귀신들렸던 이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그분에게 요청하고 있었다. 19 그러나 그분이 그를 내버려두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너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의 집 안으로 떠나고 있어라 그리고 주님이 너에게 행하신 채 있으며 너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만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20 그리고 그가 떠나갔으며 예수스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만큼들을 데카폴리스⁹⁰⁾ 안에서 전파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21 그리고 예수스께서 배 안에서⁹¹⁾ 다시 건너편 안으로 건너가신 후에 많은 군중이 그분에게 모였다, 그리고 그분은 바다 옆에 계셨다. 22 그리고 회당장들 중의 한 명이 온다, 이름으로 야이로스⁹²⁾인, 그리고 그가 그분을 본 후 그분의 발들을 향하여 엎드리며 23 저의 어린 딸이 마지막을 갖고 있으니, 그녀가 구원받도록 그리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이 오신 후 손들을 그녀에게 얹어달라고 그가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분에게 요청한다. 24 그리고 그분이 그와 함께 떠나가셨다. 그리고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으며 그분을 함께 옥여싸고 있었다. 25 그리고 어떤 여인이 십이 년을 피의 흐름 안

88) 실제적인 의미는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이다.

89) ‘그들을’ 또는 ‘그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90) ‘데카폴리스’는 10을 뜻하는 ‘δεκα’(데카)와 성읍, 도시를 뜻하는 ‘πολις’(폴리스)의 합성어로 10성읍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뜻한다.

91) “배 안에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92) 히브리어 ‘야일’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에서 있으면서 26 그리고 많은 의사들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고난당한 후 그리고 그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한 후 그러나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한 후 오히려 더욱 심한 것 안으로 간 후에, 27 예수스에 관하여 들은 후에, 군중 안에서 뒤에서 온 후 그녀가 그분의 겹옷을 만졌다. 28 왜냐하면 만약 장차 내가 비록 그분의 겹옷들이라도 만질 것이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녀가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9 그리고 곧 그녀의 피의 샘이 마르게 되었으며 고통으로부터 낮게 된 채 있다는 것을 그녀가 몸으로 알았다. 30 그리고 곧 예수스께서 그분 밖으로 권능이 나갔다는 것을 그분자신 안에서 알아보신 후에 군중 안에서 돌이키신 후 말씀하시곤 있었다. “누가 나의 겹옷들을 만졌느냐?” 31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말하고 있었다. “군중이 당신을 함께 옥여싸고 있는 것을 당신이 보시며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32 그러나 그분은 이것을 행했던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고 있었다. 33 그런데 그 여인이 두려워한 후 그리고 떨고 있으면서, 그녀에게 있게 된 채 있는 일을 알은 채 있으면서, 왔으며 그분에게 엎드렸으며 그분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다. 34 그런데 그분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채 있다. 너는 평안 안으로 떠나고 있어라 그리고 너의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이로 있어라.”

35 아직 그분이 발언하시고 있을 때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으면서 회당장으로부터 온다, “왜 아직 당신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36 그런데 예수스께서 발언되고 있는 말을 옆에서 들으신 후 회당장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오직 믿고 있기만 해라.” 37 그리고 그분이 페트로스와 야코보스와⁹³⁾ 야코보스의 형제 요안네스가⁹⁴⁾ 아니라면 아무도 그분과 함께 같이 따라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38 그리고 그들이 회당장의 집 안으로 간다, 그리고 소란과 그들이 울고 있는 것과 많은 것들을 떠들썩하고 있는 것을 그분이 바라보신다, 39 그리고 그분이 들어가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너희는 소란스러우며 울고 있느냐? 아이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자고 있다.” 40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비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이들을 내보내신 후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분과 함께 한 이들을 옆에 취하시며 아이가 있었던 곳으로 들어가신다. 41 그리고 그분이 아이의 손을 붙잡으신 후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탈리따 쿨,⁹⁵⁾” 번역되는 것인, “아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일어나고 있어라.” 42 그리고 곧⁹⁶⁾ 소녀가 일어섰으며 걸어다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열두 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 그들이 큰 정신나감으로 정신 나갔다. 43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경고하셨다, 그리고 먹을 것이 그녀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93)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94) 히브리어 ‘요한난’과 ‘에호한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95) 아람어 ‘탈에타’나 ‘델리타’(소녀)와 히브리어 ‘쿨’(너는 일어나라)의 합성어로 헬라어 음역이다. ‘탈리따 쿠미’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는데, 아람어에서 이 차이는 남성형과 여성형의 차이이다.

96) “곧”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6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서 나가셨으며 그분의 고향 안으로 가신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간다. 2 그리고 안식일이 된 후에 그분이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듣고 있으면서 충격 받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이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이이에게 왔는가, 그리고 이이에게 주어졌던 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손들을 통하여 있게 되고 있는 이런 권능들은 무엇인가? 3 이이는 그 건축기술자가⁹⁷⁾ 아니냐,⁹⁸⁾ 마리아의⁹⁹⁾ 아들이며 야코보스와¹⁰⁰⁾ 요세스와¹⁰¹⁾ 유다스와¹⁰²⁾ 시몬의¹⁰³⁾ 형제?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여기 우리를 향하여 있지 않느냐?”¹⁰⁴⁾ 그리고 그들이 그것 안에서 넘어지고 있었다. 4 그리고 대언자는¹⁰⁵⁾ 그의 고향 안과 그의 친족들 안과 그의 집 안이 아니라면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고 예수스께서¹⁰⁶⁾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5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¹⁰⁷⁾ 만약 그분이 적은 수의 병든 이들에게 손들을 얹으신 후 치료하지 않았더라면. 6 그리고 그분이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주변 마을들로 두루 이끄시고 있었다.

7 그리고 그분이 열둘을 부르시며 그들을 두 명씩 두 명씩 보내시고 있기를 시작하셨으며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의¹⁰⁸⁾ 권세를 주시고 있었다, 8 그리고 오직 지팡이가 아니라면 그들이 길 안으로 아무 것도 들어올리지 않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빵도, 여행용자루도, 허리띠 안으로 동화(銅貨)도, 9 오히려 샌들들은 신겨진 채 있으며, 너희는 두 옷들을 입지 말라고. 10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

97) ‘그 건축기술자의 아들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98)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99) 원문은 ‘μαριας’(마리아스)로 소유격 형태인데, 그 주격을 ‘마리아’나 ‘마리아’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타낼 때 모두(마 13:55,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여러 곳, 행 1:14) 그 주격이 ‘마리아’로 나오는 것을 근거로 ‘마리아’로 했다.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암’(개역을 비롯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으로 번역)을 ‘마리아’로 기록하고 있다.

100)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101) ‘요셉’ 또는 ‘요세’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02)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103) 히브리어 ‘셈온’(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104)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05)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106)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07) 이 문장은 독법에 따라 해석과 번역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보통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식으로 읽고 번역한다. 그런데 ‘할 수 없었다.’는 ‘하지 않을 수 있었다.’로 읽기도 가능하며, 이런 독법이 문맥과 더 어울린다고 본다. ‘할 수 없다.’는 타의에 의한 또는 능력에 의한 제한이며,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기의지에 의한 제한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타의, 또는 능력에 의하여 제한받으셨다는 것보다는 자기의지에 따라 제한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리고 이 문장은 뒤이어 나오는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할 때 쓰이는 εἰ(에이)+과거시상 용법의 조건문을 따르는 귀결문으로써 조건을 전제로 추측하는 문장이다.

108) 헬라어에서 소유격의 용법 중 부사적 용법으로 ‘더러운 영들에 대하여’를 의미한다.

다. “만약 장차 너희가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이면, 거기에서 나올 때까지 너희는 거기에 머물고 있어라. 11 그리고 만약 장차 어떤 곳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으며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면,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증거 안으로 너희의 발들 아래 티끌을 털어내어라.”¹⁰⁹⁾ 12 그리고 그들이 나간 후 그들이 회심하고 있도록¹¹⁰⁾ 하기 위하여 선포했다, 13 그리고 그들이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많은 병든 이들에게 올리브기름을 바르고 있었으며 치료하고 있었다.

14 그리고 헤로데스¹¹¹⁾ 왕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있는 요안네스가¹¹²⁾ 죽은 이들 밖으로 일어난 채 있으며 이것 때문에 권능들이 그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들이¹¹³⁾ 말하고 있었다. 15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가 엘리야스라고¹¹⁴⁾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대언자들 중의 한 명처럼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었다. 16 그런데 헤로데스는 들은 후 말하고 있었다. “내가 목을 잘랐던 요안네스, 이이가 일어났다.” 17 왜냐하면 헤로데스 자신이 그의 형제 필립포스의¹¹⁵⁾ 아내 헤로디아스 때문에 사람을 파송한 후 요안네스를 붙잡았으며 그를 감옥 안에 묶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18 왜냐하면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갖고 있는 것은 당신에게 합법적이지 않다고 요안네스가 헤로데스에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 그런데 헤로디아스가 그에게 양심을 품고 있었으며 그를 살해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할 수 없었다. 20 왜냐하면 헤로데스가 요안네스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를 의롭고 거룩한 남자로 알고 있으면서, 그를 보존하고 있었으며, 그의 말들을 들은 후 많은 것들을 당황하고 있었으며¹¹⁶⁾, 그러나 달갑게 그의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21 그리고 헤로데스가 그의 생일잔치들에 저녁잔치를 그의 고위관리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아의¹¹⁷⁾ 첫째 이들에게 행했을 때에 기회의 날이 된 후, 22 그의 헤로디아스의 딸이¹¹⁸⁾ 들어온 후에 춤을 춘 후 헤로데스와 함께 앉아 있는 이들을 기쁘게 했다. 왕이 소

109) 이어서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견디는 것이 심판의 날 안에 저 성읍에게 보다 소도마들과 고모라들에게 있을 것이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10) ‘μετανοεω’(메타노에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다’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의 ‘회심(回心)하다’로 번역했다.

111) 이 헤로데스는 예수님 출생 당시의 왕이었던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헤로데스의 아들이다.

112) 히브리어 ‘요하난’과 ‘예호하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113) ‘그가’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14) 히브리어 ‘엘리아’의 헬라어 음역이다.

115) 이 필립포스와 마태복음 16장 13절과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이투라이아와 트라코니티스의 1/4통치자 필립포스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116) ‘행하고 있었으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17)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118) 여기 ① ‘그의 헤로디아스의 딸’로 번역된 본문은 독법과 사본에 따라 그 해석과 번역이 분분하다. 이 본문을 ② ‘그의 딸 헤로디아스’로 읽는 독법도 있는데, 이 독법은 문맥이나 역사적 사실과 어울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이 본문이 사본 평가에 있어서 원본문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받아들이기 주저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αυτου’(아우투) 대신에 ‘αυτης’(아우테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는데 그것은 ③ ‘헤로디아스 자신의 딸’ 또는 개역개정처럼 ④ ‘헤로디아스의 딸 자신’으로 읽히고 번역된다. 이 독법들의 차이점은 헤로디아스나 딸 중 누구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느냐이다. 또한 방금 언급한 동일한 사본의 본문을 ⑤ ‘바로

녀에게 말했다. “만약 장차 네가 원할 것이면 그것을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23 그리고 무엇을 만약 장차 네가 구할 것이면 나의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줄 것이라고 그가 그녀에게 많은 것들을¹¹⁹⁾ 맹세했다. 24 그리고 그녀가 나간 후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런데 그녀가 말했다. “세례를 주고 있는 요안네스의 머리를 구하라.” 25 그리고 그녀가 곧 부지런함과 함께 왕을 향하여 들어간 후 구했다. 말하고 있기를, “저는 세례자 요안네스의 머리를 쟁반 위에 담아 저에게 곧바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26 그리고 왕이 슬픔에 싸이게 된 후에 맹세들과 앉아 있는 이들 때문에 그녀를 저버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27 그리고 곧 왕이 집행자를 파송한 후 그의 머리를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가 떠나간 후 감옥 안에서 그를 목 잘랐다 28 그리고 그가 그의 머리를 쟁반 위에 담아 가져왔으며 소녀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리고 소녀는 그것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주었다. 29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들은 후 왔으며 그의 몸을 들어올렸으며 그것을 무덤 안에 두었다.

30 사도들이 예수스를 향하여 모이며 그들이 행했던 만침들과 가르쳤던 만침들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알려주었다. 31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자신들은 따로 광야의 어떤 곳 안으로 가라 그리고 잠시 안식하라”, 왜냐하면 오고 있는 이들과 떠나는 이들이 많았으며, 그들이 먹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2 그리고 그들이 배 안에서 광야의 어떤 곳 안으로 떠나갔다. 33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들이 떠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알아보았으며 육로로 모든 성읍들로부터 거기에 함께 달려갔으며 그들을 앞서 갔다¹²⁰⁾. 34 그리고 그분이 나오신 후 많은 군중을 보셨으며 그들에 대하여 애타게 되셨다, 그들이

“목자를 갖고 있지 않는 양들처럼”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많은 것들로 가르치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35 그리고 이미 많은 시간이 된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온 후 그곳이 광야이며 이미 많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36 “당신은 그들을 풀어보내십시오, 그들이 주변 시골들과 마을들 안으로 간 후 그자신들에게 사도록 그리고 무엇인가를 먹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7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신들이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저희가 간 후 이백 데나리온들의¹²¹⁾ 빵들을 사며 그들에게 먹으라고 줍니까?” 38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얼마만큼의 빵들을 갖고 있느냐? 너희는 떠나고 있어라 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알은 후 말한다. “다섯 개와, 두 물고기들입니다.” 39 그리고 모든 이들이 푸른 풀 위에

그 헤로디아스의 딸'로 읽는 독법도 있는데, 관사를 갖지 않는 'αυτης'(아우테스)를 과연 '바로 그의 용법으로 보아도 되는지 강한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단순히 ⑥'헤로디아스의 딸'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으며, 표준새번역이나 NIV처럼 이런 사본들을 따르는 번역 성경들도 있다.

119) “많은 것들을”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20) ‘그들에게 향하여 갔다’ 또는 ‘그분과 함께 갔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으며, 이어서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함께 갔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21) 로마의 은화로 일 ‘데나리온’은 무게가 3.8g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삤이다.

집단 집단으로 앉도록 그분이 그들에게 지시하셨다. 40 그리고 그들이 무더기 무더기로 백 명씩 오십 명씩 앉았다. 41 그리고 그분이 다섯 빵들과 두 물고기들을 취하신 후에 하늘 안으로 쳐다보신 후 축복하셨으며 빵들을 조각조각 떼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내놓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¹²²⁾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었다, 그리고 두 물고기들도 모든 이들에게 분리하셨다. 42 그리고 모든 이들이 먹었으며 배부르게 되었다, 43 그리고 그들이 열두 바구니들의 충만함 조각들을¹²³⁾ 들어올렸다 그리고 물고기들로부터도. 44 그리고 빵들을¹²⁴⁾ 먹었던 이들은 오천의 남자들이었다.

45 그리고 곧 그분의 제자들이 배 안으로 타도록 그리고 건너편 안으로 베뜨사이다를¹²⁵⁾ 향하여 앞서 가고 있도록 그분이 강권하셨다, 그분 자신이 군중들을 풀어보내시고 있을 때까지. 46 그리고 그분은 그들과 헤어지신 후 산 안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떠나가셨다. 47 그리고 해 질 녘이 된 후에 배는 바다의 가운데에 ¹²⁶⁾있었으며, 그분은 홀로 땅 위에 계셨다. 48 그리고 그들이 노 젓고 있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그분이 보신 후, 왜냐하면 바람이 그들에게 마주하기 때문이었다, 밤의 넷째 1/4야간경비시간쯤에¹²⁷⁾ 그분이 바다 위로 걸어나다니고 있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오시며 그들을 지나가시기를 원하시고 있었다. 49 그런데 그분이 바다 위에 걸어나다니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본 후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위로 소리쳤다. 50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그분을 보았으며 동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곧 그분이 그들과 함께 발언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용기를 내고 있어라, 바로 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51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배 안으로 올라가셨으며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그들이 넘침 밖으로¹²⁸⁾ 그자신들 안에서 몹시 정신 나가고 있었다¹²⁹⁾. 52 왜냐하면 그들이 빵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된 채 있으면서 있었기 때문이다.

53 그리고 그들이 땅 위로 건너간 후 겐네사렐¹³⁰⁾ 안으로 갔으며 정박하게 되었다. 54 그리고 그들이 배 밖으로 나갔을 때 곧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후 55 그들이 저 온 지방을 뛰어다녔으며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듣고 있었던 곳으로 나쁘게 갖고 있는 이들을 간 이침상들 위에서 데리고 다니고 있기를 시작했다. 56 그리고 그분이 마을 안이나 성읍 안이나 시골 안이나 가시고 있는 곳이라면, 그들이 장터들 안에 병들어 있는 이들을 놓았으며 만약 그분의 겂옷의 술이라도 만졌으면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요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졌던 이들만큼은 구원받고 있었다.

122) “그분의”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23) ‘조각들의 충만한 열두 바구니들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24) “빵들을”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25) 아랍어 ‘베트차이다’의 헬라어 음역으로 ‘물고기의 집’이다.

126) ‘오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27) 당시 로마의 관습에 따라 하룻밤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세 시간씩 4등분하여 교대로 경비하던 시간. 따라서 본문의 시점은 새벽 3시~6시이다.

128) “넘침 밖으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29) 이어서 ‘그리고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30) 히브리어 ‘킨네로트’의 헬라어 음역으로, 갈릴리아 바다의 카팔나움과 막달라(마가단) 사이의 서쪽 해안에 접하여 있는 작은 평야이다.

7 그리고 파리사이오스들과¹³¹⁾ 서기관들 중의 어떤 이들이 히에로솔뤼마로부터¹³²⁾ 온 후 그분을 향하여 모인다. 2 그리고 부정한 손들로, 이것은 씻지 않은 것이다, 빵들을 먹고 있는 그분의 제자들 중의 어떤 이들을 그들이 본 후에 3 - 왜냐하면 파리사이오스들과 모든 유다이오스들은 만약 장차 손들을 마주 비벼 씻지 않을 것이면 먹지 않으며,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붙잡고 있으면서, 4 그리고 장터로부터 (왔을 때에는)¹³³⁾ 만약 장차 세례를 베풀지¹³⁴⁾ 않을 것이면 그들은 먹지 않는다, 그들이 붙잡고 있으려고 취했던 다른 많은 것들도 있다, 잔들과 물병들과 구리그릇들과 간이침대들의¹³⁵⁾ 세례들을 - 5 그리고 파리사이오스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에게 질문한다. “무엇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걸어나다니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손들로 빵을 먹습니까?” 6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에사이사스가¹³⁶⁾ 너희 가면연기사들에¹³⁷⁾ 관하여 잘 대언했다,¹³⁸⁾ 기록된 채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들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7 그런데 그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훈들로 가르치고 있으면서.’

8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버려둔 후 사람들의 전통을 붙잡고 있다.¹³⁹⁾ 9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고 있다, 너희의 전통을 세우기¹⁴⁰⁾ 위함이다. 10 왜냐하면 모우세스가¹⁴¹⁾ 말했다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고 있는 이는

죽음으로 최후를 맞게 하고 있어라.’

11 그런데 너희는 말한다. ‘만약 장차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할 것이면, 코르반, 제물이 되는 것인, 당신이 제게서 유익 받을 것이면 하는 것인’, 12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무 것도 행하지 않게 하여서 너희가 그를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고 있다¹⁴²⁾, 13 너희

131)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132) 히브리어 ‘에루살라임’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에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133) 괄호부분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34) “세례를 베풀지” 대신에 ‘뿌리지’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35) “간이침대들”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36) 히브리어 ‘에사야’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137) 원문은 ‘υποκριτης’(휘포크리데스)로 주로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지칭하며, 관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로 보기도 한다.

138) ‘προφητεω’(프로페티우)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바)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다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하다’로 번역했다.

139) 이어서 ‘물병들과 잔들의 세례들과 이런 비슷한 다른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40) ‘지키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어느 것이 원본문에 있었는지 결정하기 어렵다.

141) 히브리어 ‘모세’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142) 실제적인 의미는 ‘부모를 존경하고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이다.

가 넘겨주었던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있으면서. 그리고 너희는 이런 비슷한 많은 일들을 행한다.” 14 그리고 그분이 또다시 군중을 부르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너희 모든 이들은 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해하여라. 15 사람의 밖에서부터 그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다. 16 (없음)¹⁴³⁾ 17 그리고 그분이 군중으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비유를¹⁴⁴⁾ 질문하고 있었다. 18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도 이와 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냐? 밖에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것과 19 그것이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배 안으로 들어가고, 똥통 안으로 나온다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¹⁴⁵⁾” 모든 먹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있으면서.¹⁴⁶⁾ 20 그리고 사람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 저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었다. 21 “왜냐하면 안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 밖으로 나쁜 의견들이, 음행들이, 도둑질들이, 살인들이, 22 간음들이, 탐욕들이, 악들이, 계교가, 음탕이, 악한 눈이, 모독이, 교만이, 무분별이 나오기 때문이다. 23 악한 이 모든 것들이 안에서부터 나오며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24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일어서신 후 튀로스의¹⁴⁷⁾ 지방들 안으로 떠나가셨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모르게 될 수 없었다. 25 오히려 곧 어떤 여인이 그분에 관하여 들은 후에, 그녀의 어린 딸이 더러운 영을 갖고 있었던 여자인, 온 후에 그분의 발들을 향하여 엎드렸다. 26 그런데 그 여인은 헬레니스¹⁴⁸⁾이었다, 쉬로포이니키타 민족으로. 그리고 그녀의 딸 밖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그녀가 청하고 있었다. 27 그리고 그분이 그녀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너는 먼저 자녀들이 배부르게 되도록 내버려두어라, 왜냐하면 자녀들의 빵을 취하며 집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8 그런데 그녀가 대답했으며 그분에게 말한다. “¹⁴⁹⁾주님, 집개들도 식탁 아래에서 아이들의 부스러기들로부터 먹습니다.” 29 그리고 그분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 때문에 너는 떠나고 있어라, 너의 딸 밖으로 귀신이 나가게 된 채 있다.” 30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집 안으로 떠나간 후 아이가 간이 침대 위에 던져진 채 있으며 귀신이 나간 채 있는 것을 발견했다.

31 그리고 또다시 그분이 튀로스의 지방들 밖으로 나가신 후 시돈을¹⁵⁰⁾ 통하여¹⁵¹⁾ 데

143) 16절이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만약 지금 어떤 이가 듣고 있기 위한 귀들을 갖고 있다면 그는 듣고 있어라.’

144) ‘비유에 관하여’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45)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가 원문에는 18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 구성상 19절로 돌렸다.

146) 이 문장이 어디에 연결되느냐는 독법에 따라 달라진다. 바로 앞 문장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18절의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문장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47) 히브리어 ‘초르’(돌, 반석)의 헬라어 번역이다. 이어서 ‘그리고 시돈의’(히브리어 ‘치돈’의 헬라어 음역)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48) 헬라인 여자

149) ‘그렇습니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50) 히브리어 ‘치돈’(사냥하다)의 헬라어 음역이다.

카폴리스의¹⁵²⁾ 지방들 가운데 있는 갈릴라이아의¹⁵³⁾ 바다 안으로 가셨다. 32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귀머거리이자 말더듬이를 데려오며 그분이 손을 그에게 얹어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요청한다. 33 그리고 그분이 그를 군중으로부터 따로 취하신 후 그분의 손가락들을 그의 귀들 안으로 넣으셨으며 침 뱉으신 후 그의 혀를 만지셨다. 34 그리고 그분이 하늘 안으로 쳐다보신 후 탄식하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신다. “웁파다¹⁵⁴⁾”, ‘너는 열어젖혀져라’인. 35 그리고 곧¹⁵⁵⁾ 그의 듣는 곳들이 열렸다, 그리고 그의 혀의 결박이 풀어졌으며 그가 올바르게 발언하고 있었다. 36 그리고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있었을 만큼을, 그들은 더욱 더 넘치게 선포하고 있었다. 37 그리고 그들은 넘침 이상으로 충격 받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그가 모든 것들을 잘 행한 채 있다, 귀머거리들도 듣고 있게 그리고 말 못하는 이들도 발언하고 있게 그가 행하고 있다.”

8 저 날들 안에서 또다시 많은 군중이 있으며 무엇인가 먹을 것을 갖고 있지 못할 때,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2 “내가 군중에 대하여 애가 탄다, 이미 세 날들이 나에게 머물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인가 먹을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그리고 만약 장차 내가 굶은 그들을 그들의 집 안으로 풀어보낼 것이면, 그들은 길 안에서 탈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 중의 어떤 이들은 먼 곳으로부터 다다른 채 있다.” 4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어디로부터 어떤 이가 이 광야에서 이이들을 빵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그분에게 대답했다. 5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물으시고 있었다. “너희가 얼마만큼의 빵들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일곱입니다.” 6 그리고 그분이 군중에게 땅 위에 앉도록 분부하신다. 그리고 일곱 빵들을 취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 떼셨으며 그들이 내놓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군중에게 내놓았다. 7 그리고 그들이 작은 물고기들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들을 축복하신 후 이것들도 내놓고 있도록 말씀하셨다. 8 그리고 그들이 먹었으며 배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조각들의 넘치는 일곱 광주리들을 그들이 들어올렸다. 9 그런데 그들은 대략 사천쯤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풀어보내셨다. 10 그리고 곧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배 안으로 타신 후 달마누따 지방들¹⁵⁶⁾ 안으로 가셨다.

11 그리고 파리사이오스들이¹⁵⁷⁾ 나왔으며 그분과 논쟁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그분에게

151) “튀로스의 지방들 밖으로 나가신 후 시돈을 통하여” 대신에 ‘튀로스와 시돈의 지방들 밖으로 나가신 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52) ‘데카폴리스’는 10을 뜻하는 ‘δεκα’(데카)와 성읍, 도시를 뜻하는 ‘πολις’(폴리스)의 합성어로 10 성읍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뜻한다.

153)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이어 번역이다.

154) 아람어 ‘웁파타흐’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155) “곧”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56) ‘달무나이(마게다) 산’, ‘막달라(마게다) 지방들’, ‘마가다(멜레가다) 산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57)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찾고 있으면서. 12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신 후 말씀하신다. “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에게 표적이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13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후에 또다시 타신 후 건너편 안으로 떠나가셨다.

14 그리고 그들이 빵들을 취하는 것을 잊었으며 하나의 빵이 아니라면 그자신들과 함께 배 안에 갖고 있지 않았다. 15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있었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너희는 주의하고 있어라, 파리사이오스들의 발효제와 헤로데스의 발효제로부터 보고 있어라.” 16 그리고 그들이 빵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들이 서로들을 향하여 의논하고 있었다. 17 그리고 그분이 아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너희는 너희가 빵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의논하고 있느냐?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된 채 있는 것을 너희가 갖고 있느냐?”

18 ‘너희는 눈들을 갖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며

귀들을 갖고 있으면서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19 내가 다섯 빵들을 오천 명 안으로 떼었을 때, 조각들의 채운 얼마만큼의 바구니들을 너희가 들어올렸느냐?” 그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열둘입니다.” 20 “일곱을¹⁵⁸⁾ 사천 명 안으로 떼었을 때, 얼마만큼의 광주리들의 조각들의 넘치는 것들을 너희가 들어올렸느냐?” 그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일곱입니다.” 21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아직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느냐?”

22 그리고 그들이 베뜨사이다¹⁵⁹⁾ 안으로 간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소경을 데려오며 그분이 그를 만져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요청한다. 23 그리고 그분이 그 소경의 손을 붙잡으신 후 마을 바깥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셨으며 그의 눈들¹⁶⁰⁾ 안으로 침 뱉으신 후에, 손들을 그에게 얹으신 후 그에게 질문하시고 있었다. “혹시 너는 무엇을 보느냐?” 24 그리고 그가 쳐다본 후 말하고 있었다. “나무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25 그 다음에 또다시 그분이 손들을 그의 눈들 위에 얹으셨다. 그리고 그가 분명하게 보았으며 회복했으며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살펴보고 있었다. 26 그리고 그분이 그를 그의 집 안으로 파송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너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도 마라.¹⁶¹⁾”

27 그리고 예수스와¹⁶²⁾ 그분의 제자들이 필립포스의¹⁶³⁾ 카이사레이아의 마을들 안으

158) ‘일곱 빵들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59) 아랍어 ‘베트차이다’의 헬라어 음역으로 ‘물고기의 집’이다.

160) 원문은 ‘ομμα’(오마)로 신약성경 전체에서 2번 쓰였는데, 눈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인 ‘οφθαλμος’(오프탈모스)와는 약간 다르게 아마도 눈꺼풀이나 눈두덩을 의미하는 것 같다.

161) ① ‘너는 너의 집 안으로 떠나고 있어라 그리고 마을 안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② ‘너는 너의 집 안으로 떠나고 있어라 그리고 만약 장차 네가 마을 안으로 들어갈 것이면 너는 마을 안에서 아무에게도 아무 것도 말하지 마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62)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63) 이 필립포스는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 필립포스와는 다른 인물로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이투라이아와 트라코니티스의 1/4통치자 필립포스이다.

로 나가셨다. 그리고 길 안에서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28 그런데 그들이 그분에게 세례자 요안네스¹⁶⁴)라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스¹⁶⁵)라고, 그런데 다른 이들은 대언자들¹⁶⁶) 중의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29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페트로스가 대답한 후 그분에게 말한다. “당신은 크리스토스¹⁶⁷)이십니다.¹⁶⁸” 30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그들에게 훈계하셨다. 31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많은 것들을 고난당해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말미암아 거부당해야 하며 살해당해야 하며 세 날들 후에 일어서야 한다고 그분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32 그리고 그분이 드러냄으로 그 일을 발언하시고 있었다. 그리고 페트로스가 그분을 취한 후 그분에게 훈계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33 그런데 그분이 돌이키신 후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을 보신 후 페트로스에게 훈계하셨으며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뒤로 떠나고 있어라, 사타나스야,¹⁶⁹)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일들을 마음에 두기 때문이다.” 34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부르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지금 어떤 이가 나의 뒤로 따라오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는 그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들어올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35 왜냐하면 만약 장차 그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원하고 있을 것이면 그는 그것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고, 만약 장차 나와 복음 때문에 그의 목숨을 멸망시킬 것이면 그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36 왜냐하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 것 그러나 그의 목숨을 손해당하는 것이 무엇에 유익하기 때문이냐? 37 왜냐하면 사람이 그의 목숨의 대용품으로 줄 것이기 때문이냐? 38 왜냐하면 만약 장차 그가 이 음란하며 죄 있는 세대 안에서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면, 사람의 아들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올 때에는.”

9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여기에 선 채 있는 이들 중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안에서 온 채 있는 것을 볼 때까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이들이라고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2 그리고 여섯 날들 후에 예수스께서¹⁷⁰) 페트로스와 야코보스와¹⁷¹) 요안네스를¹⁷²)

164) 히브리어 ‘요한’과 ‘예호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165) 히브리어 ‘엘리아’의 헬라어 음역이다.

166)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167)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168) ①‘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스이십니다.’ ②‘당신은 살아계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스이십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69) 히브리어 ‘사탄’(대항자, 대적자)의 헬라어 음역이다.

170)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71)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옆에 취하시며 오직 따로 높은 산 안으로 그들을 위로 데려가신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3 그리고 그분의 겹옷들이 몹시 하얗게 광채가 나고 있게 되었다. 땅 위에서 어떤 세탁가공업자도 이와 같이 하얗게 할 수 없었을 만큼. 4 그리고 엘리야스¹⁷³⁾가 모우세스와¹⁷⁴⁾ 함께 그들에게 보였으며 그들이 예수스와 함께 말하고 있으면서 있었다. 5 그리고 페트로스가 대답한 후 예수스께 말한다. “랍비여,¹⁷⁵⁾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세 장막들을 만드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를 그리고 모우세스에게 하나를 그리고 엘리야스에게 하나를.” 6 왜냐하면 그가 무엇으로 대답할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이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7 그리고 구름이 그들에게 그늘지게 하고 있으면서 있게 되었다. 그리고 소리가 구름 밖으로 있게 되었다. “이이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있어라.” 8 그리고 그들이 문득 둘러본 후 더 이상 아무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오직 그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오직 예수스만 보았다.

9 그리고 그들이 산 밖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만약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밖으로 일어설 때가 아니라면. 10 그리고 죽은 이들 밖으로 일어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논쟁하고 있으면서 그자신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붙잡았다.

11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무엇 때문에 서기관들은 ‘엘리야스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12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한편 엘리야스가 먼저 온 후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그가 많은 것들을 고난당하며 경멸당하리라고 기록된 채 있느냐?” 13 엘리야스가 온 채 있으나, 그에 대하여 기록된 채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만큼들을 그들이 그에게 행했다고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14 그리고 그들이¹⁷⁶⁾ 제자들을 향하여 온 후에 그들 둘레의 많은 군중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향하여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15 그리고 곧 모든 군중이 그분을 본 후 두려워 심히 놀라게 되었으며 달려온 후 그분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16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17 그리고 군중 중의 한 명이 그분에게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저의 아들을 당신을 향하여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는 영을 갖고 있는. 18 그리고 만약 장차 그것이 그를 단단히 취할 것이라면 그곳에서 그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품을 내며 이빨들을 갈며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내쫓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19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대답하신 후 말씀하신다. “오! 믿지 않는 세대

172) 히브리어 ‘요하난’과 ‘예호하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173) 히브리어 ‘엘리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174) 히브리어 ‘모세’의 헬라어 음역이다.

175) 히브리어 ‘랍비’의 헬라어 음역으로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이다.

176) ‘그분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을 것이냐? 너희는 나를 향하여 그를 데려오고 있어라.” 20 그리고 그들이 그를 그분을 향하여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영이 그분을 본 후 곧 그를 심하게 경련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땅 위에 엎드린 후 거품을 내고 있으면서 구르고 있었다. 21 그리고 그분이 그의 아버지에게 질문하셨다. “이일이 그에게 있게 된 채 있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냐?” 그리고 그가 말했다. “아이 때부터입니다. 22 그리고 그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여러 번 그것이 불 속으로 그리고 물들 속으로 그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만약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당신은 저희에 대하여 애타게 되신 후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23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만약 지금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¹⁷⁷⁾ 믿고 있는 이에게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24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친 후 ¹⁷⁸⁾말하고 있었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지 않음을 당신은 도와주고 있으십시오.” 25 그런데 예수스께서 군중이 더하여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신 후,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다. 그것에게 말씀하시고 있기를, “말 못하고 귀머거리인 영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다, 너는 그이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그이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26 그리고 그것이 소리친 후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련하게 한 후 나왔다. 그리고 그는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고, 따라서 많은 이들이 그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27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신 후 그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가 일어섰다. 28 그리고 그분이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그분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까?” 29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종류는 기도 안에서가¹⁷⁹⁾ 아니라면 어떤 것 안에서도 나갈 수 없다.

30 거기에서 그들이 나온 후 갈릴리아를¹⁸⁰⁾ 통하여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가 아는 것을 그분이 원하지 않고 있었다. 31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있었으며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들 안으로 넘겨지며, 그들이 그를 살해할 것이며, 그는 살해당한 후 세 날들 후에 일어설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32 그런데 그들은 그 입말씀을¹⁸¹⁾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질문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33 그리고 그들이 카팔나움¹⁸²⁾ 안으로 갔다. 그리고 그분이 집 안에 있게 된 후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있었다. “길 안에서 너희는 무엇을 의논하고 있었느냐?” 34 그런데 그들

177) 의문문으로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평서문으로 보고 ‘만약 지금 네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지금 네가 믿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78) ‘눈물 흘리고 있는 것과 함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79) ‘기도와 금식 안에서가’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80)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181)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182) ‘워로의 마을’

이 조용히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 안에서 서로들을 향하여 누가 더 큰이인지 토론했기 때문이다. 35 그리고 그분이 앉으신 후 열들을 부르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만약 지금 어떤 이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는 모든 이들의 마지막과 모든 이들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36 그리고 그분이 아이를 취하신 후 그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으며 그를 안으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만약 장차 이런 아이들 중의 한 명을 나의 이름으로 영접할 것이면, 그는 나를 영접한다. 그리고 만약 장차 나를 영접할 것이면, 그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보내셨던 분을 영접한다.”

38 요안네스가 그분에게 말하고 있었다. “선생님, 어떤 이가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을 내쫓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막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¹⁸³⁾” 39 그런데 예수스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를 막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권능을 행하고 빨리 나를 비방할 수 있을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40 왜냐하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 그는 우리를 위하기 때문이다. 41 왜냐하면 만약 장차 너희가 크리스토스의¹⁸⁴⁾ 것이라는 이름¹⁸⁵⁾ 안에서 물의 잔을 너희에게 마시게 할 것이면 그는, 아멘 나는 너희에게 그는 그의 대가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42 그리고 만약 장차 내 안으로¹⁸⁶⁾ 믿고 있는¹⁸⁷⁾ 이 작은 자들 중의 한 명을 넘어뜨릴 것이면 그는, 나귀용 멧돌이 그의 목 둘레에 둘러놓이며 그가 바다 안으로 던져진 채 있는 것이 그에게 도리어 좋은 일이다. 43 그리고 만약 장차 너의 손이 너를 넘어뜨릴 것이면, 너는 그것을 쳐내라. 네가 불구자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들을 갖고 있으면서 게엔나¹⁸⁸⁾ 안으로,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떠나가는 것보다 좋은 일이다. 44 (없음)¹⁸⁹⁾ 45 그리고 만약 장차 너의 발이 너를 넘어뜨릴 것이면, 너는 그것을 쳐내라. 네가 외발이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발들을 갖고 있으면서 게엔나 안으로¹⁹⁰⁾ 던져지는 것보다 좋은 일이다. 46 (없음)¹⁹¹⁾ 47 그리고 만약 장차 너의 눈이 너를 넘어뜨릴 것이면, 너는 그것을 내보내라. 네가 애꾸눈이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들을 갖고 있으면서 ¹⁹²⁾게엔나 안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좋은

183) “그리고 그를 막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① ‘그는 저희를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를 막았습니다.’

② ‘그는 저희를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를 막았습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84)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185) ‘나의 이름’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86) “내 안으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87)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튜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튜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8) ‘γεεννα’(게엔나)는 히브리어 ‘게 힌놈’(애곡의 골짜기)에서 유래했으며, 예루살렘 남동부로 뻗어 있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를 의미한다. 예레미야(7:32, 19:6)는 이 골짜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선포한다. 신약에서 ‘γεεννα’(게엔나)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하여 불타는 곳으로 최종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곳으로 나타난다.

189) 44절이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그들의 애벌레도 최후를 맞지 않으며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인.’

190) 이어서 ‘꺼지지 않는 불 안으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91) 46절이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그들의 애벌레도 최후를 맞지 않으며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인.’

192) ‘불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일이다.

48 ‘그들의 애벌레도 최후를 맞지 않으며 불도 꺼지지 않는’ 곳.

49 왜냐하면 모든 이가 불로 소금 쳐질 것이기 때문이다.¹⁹³⁾ 50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장차 소금이 소금기 없는 것이 될 것이면, 너희는 무엇 안에서 그것을 만나게 할 것이냐? 너희는 너희자신들 안에 소금을 갖고 있어야 그리고 서로들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야.”

10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이 일어서신 후 유다이아의¹⁹⁴⁾ 산들과 율다네스의¹⁹⁵⁾ 건너편¹⁹⁶⁾ 안으로 가신다, 그리고 또다시 군중들이 그분을 향하여 함께 오고 있다, 그리고 관습이 있는 채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그분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었다.

2 그리고 파리사이오스들이¹⁹⁷⁾ 나아온 후 그분에게 아내를 풀어보내는 것이 남편에게 합법적인지 질문하고 있었다. 그분을 시험하고 있으면서. 3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우세스는¹⁹⁸⁾ 무엇을 너희에게 명했느냐?” 4 그런데 그들이 말했다. “모우세스는¹⁹⁹⁾ 이혼의 증서를 기록하도록 그리고 풀어보내도록 허락했습니다.” 5 그런데 예수스께서²⁰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향하여 그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기록했다. 6 그런데 창조의 시작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이 그들을²⁰¹⁾ 만드셨다.

7 이것 때문에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에게 붙여질 것이다,²⁰²⁾

8 그리고 그 둘이 한 육체 안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둘이 아니고 오히려 한 육체이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명에 메게 하셨던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고 있어야.”

10 그리고 집 안으로 간 후 또다시 제자들이 이것에 관하여 그분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11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만약 장차 그의 아내를 풀어보낼 것이면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것이면 그는 그녀에 대하여 간음하고 있다. 12 그리고 만약 장차 그녀가²⁰³⁾ 그녀의 남편을 풀어보낸 후 다른 이와 결혼할 것이면 그녀는 간음하고 있다.”

193) ①‘왜냐하면 모든 제물이 소금으로 소금 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②‘왜냐하면 모든 이는 불로 소금 쳐질 것이며 모든 제물은 소금으로 소금 쳐질 것이기 때문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94) 히브리어 ‘에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195) 히브리어 ‘야르덴’의 헬라어 음역으로 ‘요단강’이다.

196) ‘율다네스의 건너편 유다이아의 산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는데, 어느 것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율다네스의 건너편을 통하여 유다이아의 산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97)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198) 히브리어 ‘모쉐’의 헬라어 음역이다.

199) 히브리어 ‘모쉐’의 헬라어 음역이다.

200) 히브리어 ‘에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01) ‘하나님께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02)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에게 붙여질 것이다.”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3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만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아이들을 그분에게 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²⁰⁴. 14 그런데 예수스께서 보신 후 분개하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이 나를 향하여 오도록 너희는 내버려두라, 그들을 막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아이처럼 영접하지 않을 것이면, 그는 결코 그것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6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안으신 후에 그들 위에 손을 놓으신 후 축복하시고 있었다.

17 그리고 그분이 길 안으로 나가실 때 한 명이 달려온 후 그리고 그분에게 무릎 꿇은 후 그분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하여 저는 무엇을 행할 것입니까?” 18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를 선한 이로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면 아무도 선하지 않다. 19 네가 계명들을 알고 있다.

‘너는 살인하지 마라, 너는 간음하지 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너는 거짓증언하지 마라,

너는 탈취하지 마라,²⁰⁵ 너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20 그런데 그가 그분에게 말하고 있었다.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저의 젊음 밖으로²⁰⁶ 저에게 준수했습니다.” 21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를 살펴보신 후 그를 사랑하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가 너에게 부족하다. 너는 떠나고 있어라, 네가 갖고 있는 만 큼들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네가 하늘 안에서 저장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리 오라 ²⁰⁷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22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 침울해진 후 슬퍼하고 있으면서 떠나갔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소유물들을 갖고 있으면서 있었기 때문이다.

23 그리고 예수스께서 둘러보신 후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재산들을 갖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나 어렵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²⁰⁸” 24 그런데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두려워 놀라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스께서 또다시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자녀들아, 그들이²⁰⁹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나 어려운지! 25 낙타가²¹⁰ 바늘의 구멍을 통하여 통과하는 것이 부유한 이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 26 그런데 그들은 그자신들을²¹¹ 향하여

203) ‘아내가’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04) “그들을 꾸짖었다” 대신에 ‘데려오고 있는 이들을 꾸짖고 있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05) “너는 탈취하지 마라”가 없는 사본들도 있다.

206) 실제적인 의미는 ‘어려서부터’보다 ‘젊은 시절부터’일 것 같다.

207) ‘십자가를 진 후에’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08) 이어서 ‘부유한 이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낙타가 바늘의 구멍을 통하여 통과할 것이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09) ‘재산들을 의지한 채 있는 이들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10) ‘낙타’를 의미하는 ‘καμηλον’(카멜론) 대신에 ‘밭줄’을 의미하는 ‘καμιλον’(카밀론)으로 기록된 소수의 후기 사본들도 있다.

211) ‘서로들을’ 또는 ‘그분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말하고 있으면서 넘치게 충격 받고 있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27 예수스께서 그들을 살펴보신 후 말씀하신다. “사람들에게서는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28 페트로스가 그분에게 말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었으며 당신을 따라온 채 있습니다.” 29 예수스께서 말씀하시고 있었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들이나 누이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²¹²⁾ 자녀들이나 밭들을 내버려두었던 이는 아무도 없다. 30 만약 장차 지금의 이 시점 안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누이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밭들을, 그리고 오고 있는 시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박해들과 함께 취하지 않을 것이면. 31 그런데 많은 이들이 첫째 이들로써 마지막 이들로 있을 것이며 ^그²¹³⁾ 마지막 이들로써 첫째 이들로 있을 것이다.”

32 그런데 그들이 히에로솔뤼마²¹⁴⁾ 안으로 올라가고 있으면서 길 안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고 있으면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 놀라고 있었다, 그런데 따라가고 있는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또다시 열들을 옆에 취하신 후 그분에게 마주치고 있으려고 하고 있는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33 보라! 우리가 히에로솔뤼마 안으로 올라가고 있고,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그를 죽음으로 유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34 그를 조롱할 것이며 그에게 침 뱉을 것이며 그를 채찍질할 것이며 살해할 것이나, 그는 세 날들 후에²¹⁵⁾ 일어설 것이라고.

35 그리고 제베다이오스의²¹⁶⁾ 아들들 야코보스와²¹⁷⁾ 요안네스가²¹⁸⁾ 그분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분에게 나아온다. “선생님, 만약 장차 저희가 당신에게 구할 것이면 당신이 저희에게 행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는 원합니다.” 36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을²¹⁹⁾ 너희는 나에게²²⁰⁾ 원하느냐?” 37 그런데 그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저희가 한 명은 당신의 오른쪽들 밖으로 그리고 한 명은 당신의 왼쪽들 밖으로 당신의 영광 안에서 앉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은 저희에게 주십시오.” 38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거나 내가 세례 받는 세례를 너희가 세례 받을 수 있느냐?” 39 그런데 그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며 내가 세례 받는

212) 이어서 ‘아내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13) 정관사 “그”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14) 히브리어 ‘에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에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215) ‘셋째 날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16) 히브리어 ‘제바드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217)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218) 히브리어 ‘요하난’과 ‘에호하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219) ‘행하기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20) “나에게”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세례를 너희가 세례 받을 것이다, 40 그런데 나의 오른쪽들 밖으로나 왼쪽들 밖으로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된 채 있는 이들에게 221)주어지는 것이다.”

41 그리고 열 명이 들은 후 야코보스와 요안네스에 관하여 분개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42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들을 부르신 후 말씀하신다. “이방인들의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에게 주인으로 지배하며 그들의 큰이들은 그들에게 권세 부린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43 그런데 너희 안에서는 이와 같지 않다²²²⁾, 오히려 만약 장차 너희 안에서 큰이가 되기 원하고 있을 것이면 그는 너희의 봉사자로 있을 것이다²²³⁾, 44 그리고 만약 장차 너희 안에서 첫째이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면 그는 모든 이들의 종으로 있을 것이다²²⁴⁾. 45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봉사 받으려고 오지 않았고 오히려 봉사하려고 그리고 그의 목숨을 많은 이들 대신에 대속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46 그리고 그들이 예리코²²⁵⁾ 안으로 간다. 그리고 그분이 예리코로부터 나오시고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과 충분한 군중도, 티마이오스의 아들 발티마이오스가, 소경 거지, 길옆에 앉아 있었다. 47 그리고 그가 나자레노스²²⁶⁾ 예수스이시라는 것을 들은 후 소리치고 있으며 말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다원의 자손 예수스여, 당신은 저에게 공흠을 베풀어주십시오.” 48 그리고 그가 조용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그를 꾸짖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더욱 많은 것으로 소리치고 있었다. “다원의 자손이여, 당신은 저에게 공흠을 베풀어주십시오.” 49 그리고 예수스께서 서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를 불러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 소경을 부른다. “너는 용기를 내고 있어라, 일어나고 있어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50 그런데 그가 그의 겹옷을 내던진 후에 벌떡 일어난 후 예수스를 향하여 갔다. 51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너는 원하느냐?” 그런데 그 소경이 그분에게 말했다. “랍부니,²²⁷⁾ 제가 쳐다보기 위한 것입니다.” 52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떠나고 있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채 있다.” 그리고 곧 그가 쳐다보았으며 길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다.

11 그리고 그들이 올리브나무들의 산을 향하여 베뜨파게와²²⁸⁾ 베따니아²²⁹⁾ 안으로 히어로솔뤼마²³⁰⁾ 안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 중의 두 명을 파송하시며 2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의 맞은편 마을 안으로 떠나

221) ‘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22) 미래형 ‘앉을 것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23) 헬라어에서 미래형은 명령의 의미가 있다.

224) 위 각주와 같다.

225) 히브리어 ‘예리호’의 헬라어 음역이다.

226) ‘나자렛’사람.

227) ‘랍부니’는 아람어 ‘라부니’의 헬라어 음역으로, 히브리어 ‘랍비’와 동일하게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을 의미한다.

228) 히브리어 ‘베뜨파게’의 헬라어 음역으로 ‘무화과의 집’이다.

229) 히브리어 ‘베뜨아니아’의 헬라어 음역으로 ‘고통 받는 이의 집’이다.

230)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고 있어라, 그리고 곧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위에 아직 사람들 중의 아무도 앉지 않았던 새끼나귀가 묶인 채 있는 것을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풀어라 그리고 데려오고 있어라. 3 그리고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면, ‘왜 당신들이 이것을 행합니까?’, 너희는 말하라. ‘그것의 주인이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곧 그분이 그것을 또다시 여기로 파송합니다.’²³¹⁾ 4 그리고 그들이 떠나갔으며 새끼나귀가 길거리 바깥에 문을 향하여 묶인 채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것을 푼다. 5 그리고 거기에 선 채 있는 이들 중의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왜 당신들은 새끼나귀를 풀고 있는 일을 행하느냐?” 6 그런데 그들이 그들에게 예수스께서²³²⁾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내버려두었다. 7 그리고 그들이 새끼나귀를 예수스를 향하여 데려오며 그들의 겂옷들을 그것에게 얹어 놓는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 위에 앉으셨다. 8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겂옷들을 길 안으로 펼쳤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밭들 중에서 무성한 가지들을 친 후 펼쳤다. 9 그리고 앞서 가고 있는 이들과 따라가고 있는 이들이 소리치고 있었다.

“호산나²³³⁾.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고 있는 이가 칭송받으신 채 있을 때.

10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이 오고 있는 것이 칭송받은 채 있을 때.

가장 높은 것들 안에서 호산나.”

11 그리고 그분이 히에로솔뤼마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모든 것들을 둘러보신 후, 이미 시간이 해 질 녘이어서, 베따니아 안으로 열둘과 함께 나가셨다.

12 그리고 다음날에 그들이 베따니아로부터 나온 후에 그분이 주리셨다. 13 그리고 어떤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들을 갖고 있는 것을 멀리서부터 그분이 보신 후 가셨다, 어쩌면 그것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일까 하여, 그러나 그분이 가신 후 잎사귀들이 아니라면 그것에서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왜냐하면 무화과들의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그리고 그분이 대답하신 후 그것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영원히 너의 밖으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듣고 있었다.

15 그리고 그들이 히에로솔뤼마 안으로 간다. 그리고 그분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후 팔고 있는 이들과 사고 있는 이들을 성전 안에서 내쫓으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탁자들과 비둘기들을 팔고 있는 이들의 의자들을 뒤엎으셨다. 16 그리고 어떤 이가 성전을 통하여 물건을 옮기는 것을 그분이 내버려두시지 않고 있었다. 17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도 있었다. “기록된 채 있지 않느냐?²³⁴⁾

231) “곧 그분이 그것을 또다시 여기로 파송합니다.”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묻는 이에게 전달 하라고 하신 전달 내용의 일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진술로 볼 것인지는 독법에 따라 달라진다. 문장 내용으로 본다면 전달 내용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다. 반면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진술로 보고 ‘그가 그것을 파송할 것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32)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33) 히브리어 ‘호쉬아 나’의 헬라어 음역으로 ‘부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를 의미한다.

234)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의 집으로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굴로 만든 채 있다.” 18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으며 어떻게 그분을 멸망시킬 것인지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군중이 그분의 가르침에 충격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9 그리고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²³⁵⁾ 성읍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다.

20 그리고 그들이 이른 아침에 지나가고 있으면서 무화과나무가 뿌리들 밖으로 말라진 채 있는 것을 보았다. 21 그리고 페트로스가 다시 기억하게 된 후 그분에게 말한다. “랍비여,²³⁶⁾ 보십시오! 당신이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말라진 채 있습니다.” 22 그리고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²³⁷⁾ 믿음을 갖고 있어라.²³⁸⁾ 23 만약 장차 그가 이 산에게 말할 것이면, ‘너는 들어올려져라 그리고 바다 안으로 던져져라’,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서 의혹을 품게 되지 않을 것이면 오히려 발언하는 것이 된다고 믿을 것이면, 그일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24 이것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만큼들을, 너희는 받았다고²³⁹⁾ 믿고 있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25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서있을 때에는, 만약 지금 너희가 누구에 반대하여 무엇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용서하고 있어라,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들을 너희에게 용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6 (없음)²⁴⁰⁾”

27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히에로솔뤼마 안으로 간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분이 걸어 다니시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을 향하여 오며 28 그들이 그분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무슨 권세 안에서 이일들을 행하느냐? 또는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었느냐?” 29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의 말을 너희에게 질문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대답하라 나도 무슨 권세 안에서 내가 이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30 요안네스의²⁴¹⁾ 세례가 하늘 밖으로 있었느냐 또는 사람들 밖으로 있었느냐? 너희는 나에게 대답하라.” 31 그리고 그들이 그자신들을 향하여 의논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만약 장차 우리가 말할 것이면, ‘하늘 밖으로’, 그는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²⁴²⁾ 무엇 때문에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32 오히려 우리가 말할까? ‘사람들 밖으로’” 그들은 군중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안네스를 실제로 그가 선지자였다고 갖고 있었기

235) ‘그분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36) 히브리어 ‘랍비’의 헬라어 음역으로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이다.

237) 헬라어에서 소유격의 용법은 그 소유격으로 수식하는 대상의 단어를 설명하며 묘사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다. 따라서 여기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238) ‘만약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39) 현재형 ‘받는다’로 또는 미래형 ‘받을 것이라고’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40) 26절이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너희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241) 히브리어 ‘요한’과 ‘에호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242) “그렇다면”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때문이다. 33 그리고 그들이 예수스께 대답한 후 말한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도 무슨 권세 안에서 내가 이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12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비유들 안에서 발언하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심었으며 울타리를 둘러놓았으며 포도즙 짜는 틀을 팠으며 망대를 세웠으며 그것을 농부들에게 임대했으며 여행 떠났다. 2 그리고 그가 그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의 열매들로부터 취하기 위하여 그 시점에 종을 그 농부들을 향하여 파송했다. 3 그러나 그들이 그를 취한 후 매질했으며 공허한 이로 보냈다. 4 그리고 또다시 그가 그들을 향하여 다른 종을 파송했다.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도 머리에 상처 입혔으며²⁴³⁾ 모욕했다. 5 그리고 그가 다른 이를 파송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살해했다, 다른 많은 이들도, 한편 그들을 매질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 그들을 살해하고 있으면서. 6 사랑하는 아들 한 명을 아직 그가 갖고 있었다. 그들이 나의 아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하여 파송했다. 7 그런데 저 농부들이 그자신들을 향하여 이이가 상속자라고 말했다. ‘너희는 오라 우리가 그를 살해하자, 상속재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8 그리고 그들이 그를 취한 후 살해했으며 포도원 바깥에 그를 내던졌다. 9 그러므로 포도원의 주인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가 올 것이며 농부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10 너희도 이 성경구절을 읽었지 않느냐?²⁴⁴⁾

‘집을 세우는 이들이 거부했던 돌을,
이것이 모퉁이의 머리 안으로 되었다.

11 주님께에서 그 일이 되었으며

그 일은 우리의 눈들 안에 놀랍고 이상한 일이다.’”

12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붙잡으려고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군중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내버려둔 후 떠나갔다.

13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향하여 파리사이오스들과²⁴⁵⁾ 헤로디아노스들의²⁴⁶⁾ 어떤 이들을 그들이 말(言)로 그분을 포획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송한다. 14 그리고 그들이 온 후 그분에게 말한다.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며 누구에 관하여도 당신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들의 얼굴 안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에게 인두세를 주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또는 아납니까? 우리가 주어야 합니까 또는 주지 않아야 합니까?” 15 그런데 그분이 그들의 가면연기를²⁴⁷⁾ 아시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243) ‘돌로 친 후 머리에 상처 입혔으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44)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45) 아랍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246) 헤롯당원

247) 원문은 ‘υποκρισις’(히포크리시스)로 주로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지칭하며, 관객에

내가 보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나에게 데나리온을²⁴⁸⁾ 가져오고 있어라.” 16 그런데 그들이 가져왔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형상과 겉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런데 그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17 그런데 예수스께서²⁴⁹⁾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카이사르의 것들을 카이사르에게 내주며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드려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아주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18 그리고 살두카이오스들이²⁵⁰⁾ 그분을 향하여 온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인, 그리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분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19 “선생님,

‘만약 장차 어떤 이의 형제가 죽을 것이면’

그리고 아내를 남겨둘 것이면

‘그리고 자녀를 내버려두지 못할 것이면,

그의 형제가 그 여인을 취하도록

그리고 그의 형제에게 씨를 일으켜 세우도록 하라’

라고 모우세스는²⁵¹⁾ 저희에게 기록했습니다. 20 일곱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아내를 취했으며 죽고 있으면서 씨를 내버려두지 못했습니다. 21 둘째도 그녀를 취했으며 씨를 남겨두지 못한 후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그와 같았습니다. 22 그리고 일곱 이들이 씨를 내버려두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들의 마지막에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23 부활 안에서 그들이 일어서게 될 때에는²⁵²⁾ 여인은 그들 중의 누구의 것이 될 것입니까? 왜냐하면 일곱 이들이 그 여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4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너희가 성경기록들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너희가 길을 잃게 되고 있지 않느냐? 25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이들 밖으로 일어설 때에는 그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오히려 하늘들 안에 있는 천사들처럼 되기 때문이다. 26 그런데 죽은 이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시덤불에 대한 모우세스의 기록물 안에서 너희가 읽었지 않느냐²⁵³⁾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시고 있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사악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27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많은 것을 길 잃게 되고 있다.”

28 그리고 서기관들 중의 한 명이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을 들은 후에 나아온 후, 그분이 그들에게 잘 대답하셨던 것을 본 후 그분에게 질문했다. “어느 계명이 모든 것들

게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로 보기도 한다.

248) 로마의 은화로 일 ‘데나리온’은 무게가 3.8g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삤이다.

249)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50) 히브리어 ‘차독’(70인역 ‘사독’)의 헬라어 번역으로 추정한다.

251) 히브리어 ‘모셰’의 헬라어 음역이다.

252) “그들이 일어서게 될 때에는”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53)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중의 첫째입니까?” 29 예수스께서 그것이 첫째라고 대답하셨다.

“너는 듣고 있어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의 하나님은 한 분 주님이시다,

30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온 마음 밖으로와 너의 온 영혼 밖으로와

너의 온 정신 밖으로와 너의 온 힘 밖으로 사랑할 것이다.’

31 그것이 둘째이다.

‘너는 너의 이웃을 너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다.” 32 그리고 그 서기관이 그분에게 말했다. “선생님,

‘그분은 한 분이시며 그분에 더하여 다른 이는 없다.

33 그리고 온 마음 밖으로와 온 이하여 밖으로와 온 힘 밖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웃을 그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모든 번제물들과 제물들보다 더 넘치는 것이라고 당신은 진리에 대하여 잘 말씀하셨습니다.” 34 그리고 예수스께서 현명하게 대답했던 그를²⁵⁴⁾ 보신 후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멀지 않게 있다.”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감히 그분에게 질문하지 못했다.

35 그리고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말씀하시고 있었다. “어떻게 서기관들은 크리스토스가²⁵⁵⁾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36 다윗 자신이 성령 안에서 말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오른쪽들 밖으로 앉아 있어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둘 때까지

너의 발들 아래에²⁵⁶⁾.’

37 다윗 자신이 그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어디로부터 그의 자손이냐?” 그리고 많은 군중이 달갑게 그분의 말을 듣고 있었다.

38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었다. “긴 겹옷들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것과 장터들 안에서 인사와 39 회당들 안에서 첫째자리들과 저녁잔치들 안에서 상석들을 원하고 있으며, 40 과부들의 집들을 먹여치우고 있으면서 그리고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는 이들인 서기관들로부터 너희는 보고 있어라.²⁵⁷⁾ 이이들은 더 넘치는 심판을 취할 것이다.”

41 그리고 그분이²⁵⁸⁾ 헌금함의 맞은편에²⁵⁹⁾ 앉으신 후 군중이 어떻게 헌금함 안으로

254) “그를”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55)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256) ‘발판으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7) “서기관들로부터 너희는 보고 있어라.”가 원문에는 38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40절로 돌렸다.

동화(銅貨)를 넣고 있는지 보시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부유한 이들은 많은 것들을 넣고 있었다. 42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온 후 두 뿔톤들을²⁶⁰ 넣었다. 일 코드란테스인. 43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현금함 안으로 넣고 있는 모든 이들보다 가난한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한다. 44 왜냐하면 모든 이들은 그들에게 넘치고 있는 것 중에서 넣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녀의 부족함 중에서 그녀가 갖고 있었던 만큼들의 모든 것들 그녀의 온 자산 밖으로 넣었기 때문이다.”

13 그리고 그분이 성전 밖으로 나오시고 있을 때 그분의 제자들 중의 한 명이 그분에게 말한다. “선생님, 돌들은 어떠한지 건물들은 어떠한지 보십시오.” 2 그리고 예수스께서²⁶¹ 그에게 말씀하셨다²⁶².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에 어떤 돌도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돌 위에²⁶³ 결코 내버려두지 않게 될 것이다.”

3 그리고 그분이 성전의 맞은편 올리브나무들의 산 안으로 앉아 계실 때 페트로스와 야코보스와²⁶⁴ 요안네스와²⁶⁵ 안드레아스가 따로 그분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4 “당신은 저희에게 말해주십시오, 언제 이일들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끝나쳐지고 있으려고 하고 있을 때에는 그 표적은 무엇일 것입니까?” 5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너희는 어떤 이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보고 있어라. 6 많은 이들이 바로 나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나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미혹할 것이다. 7 그런데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는,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고 있어라. 그일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끝은 아직 아니다. 8 왜냐하면 민족이 민족 위에 그리고 왕국이 왕국 위에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지진들이 있을 것이며, 기근들이²⁶⁶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해산고통들의 시작이다.”

9 “그런데 너희는 너희자신들을 보고 있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 안으로 넘길 것이며 너희는 회당들 안으로 매질당할 것이며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증언 안으로 서게 될 것이다. 10 그리고 모든 민족들 안으로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11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있으면서 이끌 때에는, 너희가 무엇을 발언할지 너희는 미리 염려하지 말고 있어라, 오히려 만약 장차 저 시간 안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 이면 이것을 너희는 발언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발언하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오

258) ‘예수스께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9) ‘앞쪽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60) 두 ‘뿔톤’은 일 ‘코드란테스’에 해당하며, 1/4‘앗사리온’에 해당하기도 한다. 현재 가치로 대략 1,000원 정도의 금액이다.

261) 히브리어 ‘에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62)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63) ‘돌로 인하여’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64)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265) 히브리어 ‘요하난’과 ‘에호하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266) ‘그리고 동요함들이’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히려 성령이 발언하고 있는 이이기 때문이다. 12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음 안으로 넘겨줄 것이며 아버지가 자녀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그들을 죽일 것이다. 13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미움 당하고 있는 이들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끝 안으로 견디었던 이이는 구원받을 것이다.”

14 “그런데 파멸의 가증한 것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선 채 있는 것을 너희가 보았을 때에는, 읽고 있는 이는 깨닫고 있어야, 그때에 유다이아²⁶⁷⁾ 안에 있는 이들은 산들 안으로 피하고 있어야, 15 그런데²⁶⁸⁾ 옥상 위에 있는 이는 그의 집 밖으로 무엇을 들어올리려고 내려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마라, 16 그리고 밭 안으로 있는 이는 그의 겹옷을 들어올리려고 그것들 안으로 뒤로 돌이지 마라. 17 그런데 저 날들 안에서는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18 그런데 그일이²⁶⁹⁾ 겨울에 있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고 있어야. 1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게 된 채 있지 않는 그리고 결코 있게 되지 않을 옥여쌘이 저 날들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그리고 만약 주님이 그 날들을 단축하시지 않았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그분이 선택하셨던 선택받은 이들 때문에 그 날들을 단축하셨다. 21 그리고 그때에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면, ‘보라! 여기에 크리스토스가,²⁷⁰⁾ 보라! 저기에’, 너희는 믿지 말고 있어야. 22 왜냐하면 거짓크리스토스들과 거짓대언자들이²⁷¹⁾ 일어날 것이며, 만약 할 수 있다면, 선택받은 이들도 미혹하고 있는 것을 향하여 표적들과 징조들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23 그런데 너희는 보고 있어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미리 말한 채 있다.”

24 “오히려 저 날들 안에서 저 옥여쌘 후에

해는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고 달은 그것의 빛남을 주지 않을 것이다,

25 그리고 별들은 하늘 밖으로 떨어지고 있으면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들 안에 있는 권능들은 흔들릴 것이다.’

26 그리고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많은 권능과 영광과 함께 구름들 안에서 오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27 그리고 그때에 그가 사자(使者)들을 파송할 것이며 그의 선택받은 이들을 사방 밖으로 땅의 끝부분들로부터 하늘의 끝부분들까지 모을 것이다.”

28 “그런데 너희는 무화과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워라. 이미 그것의 가지가 부드럽게 되며 잎사귀들이 움트고 있을 때에는, 여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일들이 있게 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았을 때에는, 그것이²⁷²⁾ 문들에 가까

267)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268) “그런데”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69) ‘너희의 피함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70)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271)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272) 누가 혹은 무엇이 가까이 있는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원문에서는 주어가 별도로 나오지 않으며, 다만 동사에 나타난 주어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동사는 ‘εστιν’(에스틴)으로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30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될 때까지 이 세대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31 하늘과 땅은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나의 말들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런데 저 날과 그 시간에 관하여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늘 안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가 아니라면. 33 너희는 보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²⁷³⁾ 왜냐하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4 여행 떠나는 사람이 그의 집을 내버려두며 그의 일을 각자 맡을만한 권세를 그의 종들에게 준 후에 문지기에게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명했던 것처럼. 35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늦은 시간일는지 한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이른 아침일는지,²⁷⁴⁾ 36 갑자기 그가 온 후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게 하라. 37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말한다, 너희는 정신 차리고 있어라.”

14 그런데 두 날들 후에 유월절과 무교절들이 있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그분을 계교 안에서 붙잡은 후 살해할지를 찾고 있었다. 2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기 안에서는 아니다, 백성의 소란이 있을까 함이다.”

3 그리고 그분이 베타니아²⁷⁵⁾ 안에서 문동병자 시몬의²⁷⁶⁾ 집 안에 계시면서, 앉아 계실 때 어떤 여인이 많은 값의 순수한 날도스²⁷⁷⁾ 향유 옥합을 갖고 있으면서 왔다, 그녀가 그 옥합을 부순 후 그분의 머리에 내리부었다. 4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자신들을 향하여 분개하고 있으면서 있었다. “무엇 안으로 이 향유의 멸망이 있게 된 채 있는가? 5 왜냐하면 이 향유는 삼백 데나리온들²⁷⁸⁾ 이상에 팔릴 수 있는 중이었으며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었다. 6 그런데 예수스께서²⁷⁹⁾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녀를 내버려두어라. 왜 너희가 그녀에게 괴로움들을 제공하느냐? 그녀는 내 안에서 좋을 일로 일했다. 7 왜냐하면 너희는 항상 가난한 이들을 너희자신들과 함께 갖고 있으며 너희가 원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좋게 행할 수 있으나, 나를 항상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8 그녀는 갖고 있었던 것을 행했다. 그녀는 방부 처리 안으로 나의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미리 취했다. 9 그런데 아멘 나는 너

‘εἰμι’(에이미, ~이다, 있다, 영어의 be에 해당)의 3인칭 단수형이다. 따라서 주어진 ‘그’, ‘그녀’, ‘그것’인데, 문맥상 ‘그것’이 타당한 것 같다. 참고로 대부분의 한국어 성경은 ‘인자’로 번역하고, 우리 말성경과 한글킹제임스성경은 ‘그때’로 번역하며, 영어성경 중 NASB, ASV, NRSV 등은 ‘he’로, NIV, NKJV 등은 ‘it’로 번역하고 있다.

273)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라.’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74) 당시 로마의 관습에 따라 하룻밤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세 시간씩 4등분하여 경비했던 경비시간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275) 히브리어 ‘베타니아’의 헬라어 음역으로 ‘고통 받는 이의 집’이다.

276) 히브리어 ‘שמון’(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277) 발레리아나(Valeriana, 쥐오줌풀) 속(屬)에 속하는 향기로운 동인도 산물 식물의 줄기에서 채취한 값비싼 향유이다.

278) 로마의 은화로 일 ‘데나리온’은 무게가 3.8g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삤이다.

279)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복음이 온 세상 안으로 선포될 것이라면 그곳에서, 이 여자가 행했던 일도 그녀의 기념 안으로 발언될 것이다.”

10 그리고 열둘 중의 한 명인 이스카리오뜨²⁸⁰⁾ 유다스가²⁸¹⁾ 그분을 그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떠나갔다. 11 그런데 그들이 들은 후 기뻐했으며 은을 주기로 그와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분을 좋은 기회에 넘길 것인지를 찾고 있었다.

12 그리고 무교절들의 첫째 날에, 그들이 유월절 양을 도축하고 있었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당신이 유월절을 잡수시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가 어디로 간 후에 준비하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13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 중의 두 명을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성읍 안으로 떠나고 있어라, 물 항아리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 것이다. 너희는 그를 따라가라 14 그리고 만약 장차 그가 들어갈 것이라면 그곳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다고 너희는 집주인에게 말해라.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손님방은 어디 있느냐?’ 15 준비된 큰 이층 방이 펼쳐진 채 있는 것을 그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준비하라.” 16 그리고 제자들이 나갔으며 성읍 안으로 갔으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견했으며 유월절을 준비했다.

17 그리고 해 질 녘이 된 후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다. 18 그리고 그들이 앉아 있으면서 먹고 있을 때 예수스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나와 함께 먹고 있는 너희 중의 한 명이 나를 넘길 것이라고 말한다.” 19 그들이 슬퍼하고 있기를 그리고 그분에게 한 명 한 명씩 말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아무래도 저는 아니지요?”²⁸²⁾ 20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열둘 중의 한 명이며, 나와 함께 그릇 안으로 담고 있는 이이다. 21 한편 사람의 아들은 그에 관하여 기록된 채 있는 것처럼 떠나지만, 사람의 아들이 넘겨지는 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만약 저 사람은 태어나게 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는 좋은 일이었다.”

22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그분이 빵을 취한 후에 축복하신 후 떼셨으며 그들에게 주셨으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취(取)하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23 그리고 그분이 잔을 취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것 중에서 마셨다. 24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이들을 위하여 쏟아지고 있는 언약의²⁸³⁾ 나의 피다. 25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새로운 것 자체를 내가 마시고 있을 때인 저 날들까지 포도나무의 소산물 중에서 나는 더 이상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26 그리고 그들이 찬양한 후 올리브나무들의 산 안으로 나갔다.

27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너희 모든 이들이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기록

280) ‘이스카리오테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81)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282) ‘μητι’(메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83) ‘새로운 언약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된 채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리고 양들은 흩어버려지게 될 것이다.’

28 오히려 나는 일어난 후 갈릴리아²⁸⁴⁾ 안으로 너희를 앞서 갈 것이다.” 29 그런데 페트로스가 그분에게 말하고 있었다. “만약 장차 모든 이들이 당신 안에서 넘어질 것이라도, 저는 아닙니다.” 30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나는 너에게 오늘 이 밤에 수탉이 두 번 소리 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31 그런데 그가 넘쳐나게 발언하고 있었다. “만약 장차 제가 당신과 함께 죽고 있어야 할지라도, 저는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었다.

32 그리고 그들이 게뜨세마니라는²⁸⁵⁾ 이름이 붙은 곳 안으로 가며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기까지 너희는 여기 앉아라.” 33 그리고 그분이 페트로스와 야코보스와²⁸⁶⁾ 요안네스를²⁸⁷⁾ 그분과 함께 옆에 취하시며 두려워 심히 놀라시게 되고 있기를 그리고 침통해하시고 있기를 시작하셨으며 34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영혼이 죽음까지 이를 정도로 슬픔에 싸인 것으로 있다. 너희는 여기 머물라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35 그리고 그분이 약간 앞서 가신 후 땅 위에 엎드리시고 있었으며 만약 지금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분으로부터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시고 있었다, 36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었다. “압바²⁸⁸⁾ 아버지, 모든 일들이 당신에게는 가능합니다. 당신은 이 잔을 나로부터 옆으로 가져가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37 그리고 그분이 오시며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 그리고 페트로스에게 말씀하신다. “시몬아, 내가 잠자고 있느냐? 너는 한 시간을 정신 차릴만한 능력이 없었느냐?²⁸⁹⁾ 38 너희는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라, 너희가 시험 안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영은 간절하나 또 한편 육체는 연약하다.” 39 그리고 또다시 그분이 떠나가신 후에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신 후 기도하셨다. 40 그리고 또다시 그분이 오신 후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들이 내리눌러지고 있으면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에게 무엇을 대답할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41 그리고 그분이 세 번째 오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끝내 잠자고 있으며 쉬고 있구나!²⁹⁰⁾ 그것이 받아가지고 있다.²⁹¹⁾ 시간이 왔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들 안으로 넘겨지고 있다. 42 너희

284)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285) 히브리어 ‘갈쉬마네’의 헬라어 음역으로 ‘기름 짜는 틀’이다.

286)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287) 히브리어 ‘요하난’과 ‘에호하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288) 아람어 ‘압바’(아빠)의 헬라어 음역이다.

289)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90) 명령문으로 보면 “너희는 이제 잠자고 있으며 쉬고 있어라.”이며, 의문문으로 보면 “너희는 끝내 잠자고 있으며 쉬고 있느냐?”이다. 무엇으로 볼지는 독법에 따라 다르다. 참고로 대부분의 영역본은 의문문으로 번역하고 있다.

는 일어나고 있어라 우리가 이끌고 있자. 보라! 나를 넘겨주고 있는 이가 가까이 온 채 있다.”

43 그리고 곧 아직 그분이 발언하시고 있을 때 보라! 열둘 중의 한 명인 유다스가 당도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군중도 칼들과 몽둥이들과 함께. 44 그런데 그분을 넘겨주고 있는 이가 그들에게 신호를 준 채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만약 장차 내가 입 맞출 것이면 그가 바로 그이입니다, 당신들은 그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게 이끌어가고 있으십시오.” 45 그리고 그가 온 후에 곧 나아온 후 그분에게 말한다. “랍비여²⁹²⁾”, 그리고 그분에게 열렬히 입 맞추었다. 46 그런데 그들이 그분에게 손들을 내밀었으며 그분을 붙잡았다. 47 그런데 옆에 선 채 있는 이들 중의 어떤 이²⁹³⁾ 한 명이 칼을 꺼낸 후 대제사장의 종을 쳤으며 그의 귀를 떼어내었다. 48 그리고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는 칼들과 몽둥이들과 함께 나를 같이 취하려고 나아왔느냐? 49 날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있으면서 있었으며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기록들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50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분을 내버려둔 후 피했다. 51 그리고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것 위에 고운 삼베를 두른 채 있으면서 그분을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²⁹⁴⁾ 그를 붙잡고 있다. 52 그런데 그가 고운 삼베를 남겨둔 후 벌거벗은 것으로 피했다.

53 그리고 그들이 예수스를 대제사장을 향하여 이끌어갔다,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다. 54 그리고 페트로스가 멀리서부터 대제사장의 마당 안으로 안쪽까지 그분을 따라갔으며 보조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빛을 향하여 따뜻하게 하고 있으면서 있었다. 55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스께 반대하여 그분을 죽이는 것 안으로 증언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56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그분에 반대하여 거짓증언하고 있었지만, 그 증언들이 똑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57 그리고 어떤 이들이 일어난 후 58 내가 손으로 만든 이 성소를 허물 것이며 세 날들을 통하여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른 것을 세울 것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분에 반대하여 거짓증언하고 있었다.²⁹⁵⁾ 59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이와 같이 똑같지 않았다. 60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운데 안으로 일어난 후 예수스께 질문했다. 말하고 있기를, “이들이 너에 대하여 무엇을 반대 증언하는지 너는 아무 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61 그런데 그분이 조용히 하시고 있었으며 아무 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또다시 대제사장이 그분에게 질문하고 있었으며 그분에게 말한다.

291)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아마 ‘충분하다’ 정도의 의미일 것이다. 독법의 어려움 때문에 사본들마다 다양하게 수정된 본문이 등장한다. ‘끝을 받아가지고 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고, 아예 생략한 사본들도 있다.

292) 히브리어 ‘랍비’의 헬라어 음역으로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이다.

293) “어떤 이”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94) ‘젊은 청년들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95) “말하고 있으면서 그분에 반대하여 거짓증언하고 있었다.”가 원문에는 57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58절로 돌렸다.

“네가 칭송받으시는 분의 아들 크리스토스²⁹⁶)이나?” 62 그런데 예수스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나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쪽들 밖으로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63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의 옷들을 찢어발긴 후 말한다. “왜 아직 우리가 증인들의 필요를 가지는가? 64 너희가 신성모독의 말을 들었다. 무엇이 너희에게 나타나는가?²⁹⁷)”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가 죽음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했다. 65 그리고 어떤 이들이 그분에게 침 뱉고 있으며 그분의 얼굴을 둘러덮고 있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있으며 그분에게 말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너는 대언하라²⁹⁸)”, 그리고 보조자들이 때리는 것들로 그분을 취했다.

66 그리고 페트로스가 마당 안에서 아래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들 중의 한 명이 오며 67 페트로스가 따뜻하게 하고 있는 것을 그녀가 본 후에 살펴본 후 그에게 말한다. “당신도 나자레노스²⁹⁹) 예수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68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으면서 부인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달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깥 앞마당 안으로 나갔다 그리고 수탉이 소리 냈다.³⁰⁰) 69 그리고 그 여종이 그를 본 후 또다시 옆에 선 채 있는 이들에게 이이는 그들 중에서 있다고 말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70 그런데 또다시 그는 부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다시 옆에 선 채 있는 이들이 페트로스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참으로 그들 중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갈릴라이오스이기³⁰¹) 때문입니다.” 71 그런데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가 맹세하기를 그리고 맹세로 저주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72 그리고 곧 두 번째 밖으로 수탉이 소리 냈다. 그리고 수탉이 두 번 소리 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입말씀을³⁰²) 페트로스가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내던진 후³⁰³) 울고 있었다.³⁰⁴)

15 그리고 곧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함께 상의를 행한 후에, 예수스를³⁰⁵) 묶은 후 데리고 나갔으며 필라토스에게 넘겨주었다.

296)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297) 실제적인 의미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이다.

298) ‘προφητεω’ (프로페티우)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 (나바)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다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하다’로 번역했다. 이어서 ‘크리스토스야, 너를 찢던 이가 누구냐?’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99) ‘나자렐’사람.

300) “그리고 수탉이 소리 냈다”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01)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

302) 원문은 ‘ρημα’ (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 (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303) ‘엎드려서’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역장이 무너져서’의 의미로 봐도 될 것 같다.

304) “내던진 후 울고 있었다.” 대신에 ‘울고 있기를 시작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05)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 그리고 필라토스가 그분에게 질문했다. “네가 유다리오스들의 왕이냐?” 그런데 그 분이 그에게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고 있다.” 3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많은 것들로 그분을 고발하고 있었다.³⁰⁶⁾ 4 그런데 필라토스가 또다시 그분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너는 아무 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보라! 그들이 얼마만큼 너를 고발하고 있는지.” 5 그런데 예수스께서는 더 이상 아무 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필라토스가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6 그런데 절기에 의하여 그들이 구하고 있었던 죄수 한 명을 그가 그들에게 풀어보내고 있었다. 7 그런데 바랍바로³⁰⁷⁾ 말해지고 있는 이가 폭동 가운데 살인을 행한 채 있었던 폭동자들과 함께 묶여진 채 있으면서 있었다. 8 그리고 군중이 올라간 후³⁰⁸⁾ 그가 그들에게 행하고 있었던 대로 해주기를 구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9 그런데 필라토스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유다리오스들의 왕을 풀어보낼 것을 너희가 원하느냐?” 10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그분을 넘겨준 채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1 그런데 그가 도리어 바라바스를 그들에게 풀어보내 주도록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이 군중을 선동했다. 12 그런데 필라토스가 또다시 대답한 후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유다리오스들의 왕으로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에게³⁰⁹⁾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을 너희는 원하느냐³¹⁰⁾?” 13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소리쳤다. “당신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주십시오.” 14 그런데 필라토스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행했기 때문이냐?” 그런데 그들이 넘치게 소리쳤다. “당신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주십시오.” 15 그런데 필라토스가 군중에게 충분한 것을 행하려고 의도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바라바스를 풀어보냈다, 그리고 예수스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지라고 넘겨주었다.

16 그런데 군인들이 그분을 마당 안쪽에 데려갔다, 병영이 있는 곳인, 그리고 그들이 온 부대를 불러 모았다. 17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자주색옷을 입히며 가시로 된 월계관을 엮은 후 그분에게 돌려놓는다. 18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인사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당신은 기뻐하고 있으십시오, 유다리오스들의 왕이여.” 19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머리를 갈대로 치고 있었으며 그분에게 침 뱉고 있었으며 무릎들을 두고 있으면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있었다. 20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조롱했을 때, 자주색옷을 그분에게서 벗겼으며 그분의 겂옷들을 그분에게 입혔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기 위하여 그분을 이끌어낸다.

21 그리고 어떤 이 퀴레나이오스³¹¹⁾ 시몬이,³¹²⁾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 시

306) 이어서 ‘그러나 그분은 아무 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07) 아람어 ‘바르 아바’(아버지의 아들)의 헬라어 음역이다.

308) ‘위로 외친 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09)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에게”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10) “너희는 원하느냐”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11) ‘퀴레네 출신’

312) 히브리어 ‘שמון’(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골로부터 오고 있으면서 지나가고 있을 때 그들이 그를 징용한다, 그가 그분의 십자가를 들어올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22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골고따³¹³)라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 해골의 곳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인. 23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몰약이 태워진 채 있는 포도주를 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취(取)하시지 않았다. 24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며 누가 무엇을 들어올릴 것인지³¹⁴)

“그것들에 대하여 제비를 던지고 있으면서
그분의 겂옷들을 여럿으로 분리한다.”

25 그런데 세 시가³¹⁵) 되었으며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26 그리고 그분의 이유의 겂글이 기록된 채 있으면서 있었다.

“유다이오스들의 왕”

27 그리고 그분과 함께 두 강도들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있다, 그분의 오른 쪽들 밖으로 한 명을 그리고 왼쪽들 밖으로 한 명을. 28 (없음)³¹⁶) 29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머리를 흔들고 있으면서 그리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분을 모독하고 있었다. “우야! 성소를 허물고 있으며 세 날들 안에 세우고 있는 이야, 30 너는 십자가로부터 내려온 후 너자신을 구원하라.” 31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서로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으면서 말하고 있었다. “그가 다른 이들을 구원했는데, 그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32 이스라엘 왕 크리스토스는³¹⁷) 지금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라, 우리가 보도록 그리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진 채 있는 이들도 그분을 비난하고 있었다.

33 그리고 여섯 시가³¹⁸) 된 후에 어둠이 온 땅에 아홉 시까지³¹⁹) 있게 되었다. 34 그리고 아홉 시에 예수스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엘로이³²⁰) 엘로이 레마³²¹) 사박따니³²²)?”

번역되고 있는 것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엇 안으로 당신은 저를 버리셨습니까?’

35 그리고 옆에 선 채 있는 이들 중의 어떤 이들이 들은 후 말하고 있었다. “보라! 그가 엘리야스를³²³) 부른다.” 36 그런데 어떤 이가 달려간 후에 그리고 신 포도주의 해면을

313) 아람어 ‘골골타’의 헬라어 음역으로 ‘해골’이다. 흔히 ‘갈보리’로 쓰인다.

314) 실제적인 의미는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지’이다.

315) 오전 9시, 당시의 0시는 지금의 오전 6시이다. ‘여섯 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16) 28절이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그래서 그가 무법자들과 함께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다.’

317)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318) 낮 12시, 당시의 0시는 지금의 오전 6시이다.

319) 오후 3시, 당시의 0시는 지금의 오전 6시이다.

320) 히브리어 ‘엘리’보다 아람어 ‘엘로이’의 헬라어 음역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321) 아람어 ‘레마’(왜?)의 헬라어 음역이며, 히브리어 ‘람마’(왜?)를 음역한 ‘라마’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22) 아람어 ‘셰박타니’의 헬라어 음역으로 ‘당신이 나를 버렸다.’이다. 히브리어는 ‘아잡타니’이다.

323) 히브리어 ‘엘리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가득하게 한 후에 갈대에 둘러놓은 후 그분에게 마시게 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너희는 내버려두라 엘리야스가 그를 내리기 위하여 오는지 우리가 보자.” 37 그런데 예수께서 큰 소리를 내버려둔 후 숨지셨다. 38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 안으로 찢어졌다. 39 그런데 그분의 맞은편 밖으로 옆에 선 채 있는 백부장이 이와 같이 그분이 숨지셨던 것을³²⁴⁾ 본 후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40 그런데 여인들도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있으면서 있었다, 그녀들 안에 막달레네 마리아도³²⁵⁾ 작은 야코보스와³²⁶⁾ 요세스의 어머니 마리아도 살로메도 있었다, 41 그녀들은 갈릴리아³²⁷⁾ 안에 있었을 때 그분을 따르고 있었으며 그분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히에로솔뤼마³²⁸⁾ 안으로 그분과 함께 올라왔었던 다른 많은 여자들도 있었다.

42 그리고 이미 해 질 녘이 된 후에, 그것이 안식일 전날인 준비일이었으므로, 43 영예로운 공의회 의원 아리마떼이아³²⁹⁾ 출신 요셉이 왔다, 그 자신도 하나님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으면서 있었던 이인, 그가 필라토스를 향하여 감히 들어갔으며 예수스의 몸을 구했다. 44 그런데 필파토스가 이미 그분이 죽은 채 있는지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으며 백부장을 부른 후 그분이 벌써 죽었는지 그에게 질문했다. 45 그리고 그가 백부장으로부터 알은 후 요셉에게 시신을 선사했다. 46 그리고 그가 고운 삼베를 산 후에 그분을 내린 후 고운 삼베로 감쌌으며 바위 밖으로 쪼아내어진 채 있으면서 있었던 무덤 안에 그분을 두었으며 무덤의 문에 돌을 굴러놓았다. 47 그런데 막달레네 마리아와³³⁰⁾ 요세스의³³¹⁾ 마리아가³³²⁾ 그분이 어디에 놓인 채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16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막달레네 마리아와³³³⁾ 야코보스의³³⁴⁾ 마리아와 살로메가 간 후 그녀들이 그분에게 기름 바르도록 하기 위하여 향료들을 샀다. 2 그리고 안식일들의 첫날 몹시 이른 아침에 해가 떠오른 후에 그녀들이 무덤에 가고 있다. 3 그리고 그녀들이 그자신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었다. “누가 우리에게 돌을 무덤의 문 밖으로 굴려 내줄 것인가?” 4 그리고 그녀들이 쳐다본 후 돌이 굴려내진 채 있는 것을 바라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큰 것이었기 때문이다. 5 그리고 그녀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

324) ‘이와 같이 그분이 소리치신 후 숨지셨던 것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25) 히브리어 ‘미르얌’을 헬라어로 음역한 ‘마리아’의 또 다른 음역이다.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얌’(개역을 비롯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으로 번역)을 ‘마리아’으로 기록하고 있다. ‘마리아’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26)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327)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328)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329) 히브리어 ‘라마’(높은 곳)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30) ‘마리아’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31) ‘요세스의 어머니’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32) ‘마리아’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33) 히브리어 ‘미르얌’을 헬라어로 음역한 ‘마리아’의 또 다른 음역이다.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얌’(개역을 비롯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으로 번역)을 ‘마리아’으로 기록하고 있다.

334)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간 후 어떤 청년이 하얀 긴 겹옷을 두른 채 있으면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두려워 심히 놀라게 되었다. 6 그런데 그가 그녀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두려워 심히 놀라게 되지 말고 있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채 있는 나자레노스³³⁵⁾ 예수스를³³⁶⁾ 찾고 있다. 그분은 일어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7 오히려 너희는 떠나고 있어라 그분의 제자들과 페트로스에게 그분이 갈릴리아³³⁷⁾ 안으로 너희를 앞서 가신다고 말하라. 너희는 거기에서 그분을 볼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8 그리고 그녀들이 나간 후 무덤으로부터 피했다, 왜냐하면 떨림과 정신나감이 그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들은 아무에게 아무 것도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³³⁸⁾9 그런데 안식일의 첫째 날 이른 아침에 그분이 막달레네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그분이 그녀에게서 일곱 귀신들을 내쫓으신 채 있었던 여자인. 10 그분과 함께 있었던 이들이 애통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울고 있으면서 있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저 여자가 간 후 알려주었다. 11 그러나 저이들은 그분이 살아 계시며 그녀로 말미암아 지켜보였다는 것을 들은 후에도 믿지 않았다.

12 그런데 이일들 후에 그들 중의 두 명이 걸어나고 있으면서 시골 안으로 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탄 형제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게 되셨다. 13 그리고 저이들도 간 후 남은 이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저이들도 믿지 않았다.

14 그런데³³⁹⁾ 마침내 열한 명 자신들이 앉아 있을 때 그들에게 그분이 나타나게 되셨으며 그분이 일어나신 채 있는 것을 지켜보았던 이들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지 않음과 굳은 마음을 그분이 비난하셨다.³⁴⁰⁾ 15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든 세상 안으로 간 후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16 믿고 세례 받는 이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는 유죄 선고받을 것이다. 17 그런데 이 표적들이 믿은 이들에게 동행할 것이다. 그들이 나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을 내쫓을 것이며, 새로운 언어들을 발언할 것이며, 18 그리고 손 안에서³⁴¹⁾ 그들이 뱀들을 들어올릴 것

335) ‘나자렐’사람.

336)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37)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338) 9~20절이 없는 사본들도 있다. 이 9~20절이 원본문에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339) “그런데”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40) 이어서 ‘그리고 더러운 영들 아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권능을 이해하는 것을 사타나스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면서, 불법과 믿지 않음의 이 시대가 사타나스 아래 있으며, 이것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의를 진작 벗겨 드러내라고 저들이 말하고 있으면서 변명하고 있었다. 저들이 그리스도스에게 말하고 있었으며, 사타나스의 권세의 기한이 채워진 채 있으나, 다른 무엇들이 가까이 하고 있다고, 그리고 죄 지었던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진리 안으로 돌이키며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또한 그들이 하늘 안에 있는 영적인 것과 의의 불멸하는 영광을 상속받게 하려고 나는 죽음 안으로 넘겨졌었다고 그리스도스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내용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도 있다.

341) “그리고 손 안에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이며 비록 그들이 무슨 죽음의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병든 이들 위에 손들을 얹을 것이며 그들은 잘 가질 것이다.”

19 그러므로 한편 주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발언하신 후 하늘 안으로 올려 취해지셨으며 하나님의 오른쪽들 밖으로 앉으셨다. 20 또 한편 저들은 나간 후 어디서나 선포했다, 주님이 함께 일하시고 있으면서 표적들이 따르고 있는 것을 통하여 말씀을 확고하게 하고 있을 때.³⁴²⁾]

343)[그런데 그녀들이 분부된 채 있는 모든 것들을 페트로스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간단하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이일들 후에 예수스께서 친히 영원함의 구원의 기록하고 불멸하는 선포를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그들을 통하여 밖으로 파송하셨다. 아멘.]

342) 이어서 ‘아멘’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43) 9~20절의 긴 본문 대신에 이 짧은 본문이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KATA ΛΟΥΚΑΝ

루카스에 의하여¹⁾

1 우리 안에서 완수된 채 있는 행위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많은 이들이 손대었으므로, **2** 시작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보조자들이 되었던 이들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던 대로, **3** 처음부터 모든 것들에 자세하게 동행했던 나에게도 차례대로 당신에게 기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 때오필로스²⁾ 각하여, **4** 당신이 교육받았던 말씀들에 관하여 그 확실함을 당신이 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5 유다이야의³⁾ 헤로데스 왕의 날들 안에 아비아⁴⁾ 반열 밖으로 자카리아스라는⁵⁾ 이름으로 어떤 제사장이 있게 되었으며, 그의 아내는 아아론의⁶⁾ 딸들 밖으로이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벨⁷⁾이다. **6** 그런데 그들은 양쪽 모두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인들이었으며, 모든 계명들 안에서 가고 있는 이들이며 주님의 규정들에 흠이 없는 이들이었다. **7**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벨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쪽 모두는 그들의 날들 안에서 앞으로 나아간 채 있으면서⁸⁾ 있었다.

8 그런데 그의 반열의 순서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맞은편에서 제사장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9** 제사장직분의 관습에 의하여 주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간 후 분향하는 일을 그가 제비뽑아 얻었다, **10** 그리고 백성의 모든 무리는 분향의 시간에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있었다. **11** 그런데 주님의 사자(使者)가 분향의 제단의 오른쪽들 밖에 선 채 있는 것이 그에게 보였다. **12** 그리고 자카리아스가 본 후에 동요되었으며 두려움이 그이 위에 덮혔다. **13** 그런데 그 사자(使者)가 그를 향하여 말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자카리아스여,
너의 간구가 들려졌기 때문이다.

1) ① ‘루카스에 의한 복음’ ② ‘루카스에 의한 거룩한 복음’ ③ ‘루카스에 의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 ‘θεος’(때오스-하나님)과 ‘φίλος’(필로스-친구)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이다.

3)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4) 히브리어 ‘아비아’의 헬라어 음역이다.

5) 히브리어 ‘제카르야’의 헬라어 음역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로, 기존 한국어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사가랴’로, 구약에서는 ‘스가랴’로 번역되었다.

6) 히브리어 ‘아하론’의 헬라어 음역이다.

7) 히브리어 ‘엘리셰바’의 헬라어 음역이다.

8) 실제적인 의미는 ‘나이가 많이 든 채 있으면서’이다.

그리고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이름을 요안네스로⁹⁾ 부를 것이다.¹⁰⁾

14 그리고 기쁨과 큰 즐거움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기원에¹¹⁾ 대하여 기뻐할 것이다.

15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눈앞에 큰이가 될 것이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며,

아직 그의 어머니의 배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¹²⁾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16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의 많은 이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그가 돌이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¹³⁾

17 그리고 그는 엘리야스의¹⁴⁾ 영과 권능 안에서 그분의 눈앞에 앞서 갈 것이다,

아버지들의 마음들을 자녀들 위로

그리고 거역하는 이들을 의인들의 슬기 안에서 돌이키려고,

갖추어진 채 있는 백성을 주님께 준비하려고.”

18 그리고 자카리아스가 그 사자(使者)를 향하여 말했다. “무엇에 의하여 내가 이것을 알 것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노인이며 나의 아내도 그녀의 날들 안에서 앞으로 나아간 채 있으면서¹⁵⁾ 있기 때문입니다.” 19 그리고 그 사자(使者)가 대답한 후 그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 옆에 선 채 있는 그리고 너를 향하여 발언하려고 그리고 너에게 이것들을 복음으로 전하려고 파송 받았던 가브리엘이다.¹⁶⁾ 20 그리고 보라! 너는 조용히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것들이 되는 날까지 발언하지 못하게 되고 있으면서 있을 것이다. 그것들의 시점 안으로 성취될 것인, 나의 말들을 네가 믿지 않은 것에 의하여.” 21 그리고 백성은 자카리아스를 고대하고 있으면서 있었으며 그가 성소 안에서 지체하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22 그런데 그가 나온 후 그들에게 발언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채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몸짓하여 신호하고 있으면서 있었으며 병어리로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 23 그리고 그의 사역의 날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그의 집 안으로 떠나갔다.

24 그런데 이 날들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으며 25 사람들 안에서 나의 수치를 떼어내시려고 돌아보셨던 날들 안에 주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하신 채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녀가 그녀자신을 다섯 달 동안 두루 숨기고 있었다.¹⁷⁾

9) 히브리어 ‘요한’과 ‘예호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10) 헬라어에서 미래형은 명령의 의미가 있다.

11) ‘탄생’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2) ‘배 안에 있었을 때’로 기록된 사본도 있다.

13) “때문이다.”가 원문에는 15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16절로 돌렸다.

14) 히브리어 ‘엘리아’의 헬라어 음역이다.

15) 실제적인 의미는 ‘나이가 많이 든 채 있으면서’이다.

16) 히브리어 ‘가브리엘’의 헬라어 음역으로 ‘하나님의 강한 자’라는 의미이다.

17) “말하고 있으면서 그녀자신을 다섯 달 동안 두루 숨기고 있었다.”가 원문에는 24절에 있지만, 한국

26 그런데 여섯째 달 안에서 가브리엘 사자(使者)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자렐이라는 이름의 갈릴리아의¹⁸⁾ 성읍 안으로 27 다윗의 집 밖의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된 채 있는 처녀를 향하여 파송 받았는데¹⁹⁾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이다.²⁰⁾ 28 그리고 그가²¹⁾ 들어간 후 그녀를 향하여 말했다. “너는 기뻐하고 있어라, 은혜 받은 채 있는 이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²²⁾.” 29 그런데 그녀가 그 말로 인하여 심히 동요되었으며 이 인사는 어떠한 의미일까 하여 의논하고 있었다. 30 그리고 그 사자(使者)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마리아이여,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31 그리고 보라! 너는 태 안에 잉태할 것이며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예수스로²³⁾ 부를 것이다.

32 이분은 큰 분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로 불릴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33 그리고 그분은 야곱의 집 위에 영원히 왕이 되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의 끝은 없을 것이다.”

34 그런데 마리아가 그 사자(使者)를 향하여 말했다. “어떻게 이일이 있을 것입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²⁴⁾ 못하므로?” 35 그리고 그 사자(使者)가 대답한 후 그녀에게 말했다.

“성령이 네 위에 임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지게 할 것이다.

이러므로 ²⁵⁾태어나게 된 채 있는 거룩한 이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36 그리고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 그녀도 그녀의 늙은 때 안에서 아들을 잉태했으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로 불리고 있는 그녀에게 이일이 여섯 달째이다. 37 모든 입말씀이²⁶⁾ 하나님에게서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8 그리고 마리아가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입말에 의하여 그것이 나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자(使者)가 그녀로부터 떠나갔다.

39 그런데 마리아가 이 날들 안에 일어난 후 부지런함과 함께 유다²⁷⁾ 성읍 안으로 가

어 문장구성상 25절로 돌렸다.

18)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19) “파송 받았다”가 원문에는 26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27절로 돌렸다.

20)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얌’(개역을 비롯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으로 번역)을 ‘마리아’으로 기록하고 있다.

21) ‘그 사자(使者)가’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2) ‘네가 여인들 안에서 복 받은 채 있을 때’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3) 히브리어 ‘예호수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4) “알다”는 ‘성관계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식 표현이다.

25) ‘너의 밖으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6)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서 산골 안으로 갔다, 40 그리고 그녀가 자카리아스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엘리사벳에게 인사했다. 41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배 안에서 뛰놀았으며,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42 그리고 그녀가 큰 외침으로 외쳤으며 말했다.

“네가 여인들 안에서 복 받은 채 있으면서
그리고 너의 배의 열매도 복 받은 채 있으면서 있다.’

43 그리고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 오도록 하기 위한 이일은 어디서부터 나에게 있게 되었는가? 44 보라! 왜냐하면 너의 인사의 소리가 내 귀들 안으로 있게 되었을 때, 아기가 나의 배 안에서 큰 즐거움 안에 뛰놀았기 때문이다. 45 그리고 주님께에서 그녀에게 발언된 채 있는 것들에게 완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여자는 복되다.”

46 그리고 마리아²⁸⁾ 말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크게 하고 있으며,
47 나의 영이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했으니,
48 그분의 여종의 낮아짐에 대하여 그분이 돌아보셨기 때문이로다.
보라! 왜냐하면 지금부터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니,
49 능력 있는 분이 나에게 큰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며,
50 그분의 공훈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세대와 세대 안으로 있도다.
51 그분이 그분의 팔 안에서 능력을 행하셨고,
그들의 마음의 정신에게 교만한 이들을 흠어버리셨도다.
52 그분이 권력자들을 보좌로부터 내리셨으며 낮은 이들을 높이셨고,
53 주리고 있는 이들을 선한 것들로 만족시키셨으며
부유하고 있는 이들을 공허한 이들로 밖으로 파송하셨도다.
54 그분이 그분의 종 이스라엘 대신에 취(取)하셨도다,
공훈을 기억하심으로,
55 그분이 우리의 조상들을 향하여 발언하셨던 것과 같이,
아브라암에게 그리고 그의 씨에게 영원히.”

56 그런데 마리아가 대략 세 달들쯤을 그녀와 함께 머물렀다, 그리고 그녀의 집 안으로 돌아왔다.

57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그녀가 낳을 기간이 가득 채워졌으며 그녀가 아들을 태어나게 했다. 58 그리고 그녀와 함께 하는 그분의 공훈을 주님이 크게 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이웃집들과 그녀의 친족들이 들었으며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있었다. 59 그리고 여덟째 날 안에서 아이를 할례하려고 그들이 왔으며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아이를 자카리아스로 부르고 있었던 일이 있게 되었다. 60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대답한 후 말했다

27)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28) ‘엘리사벳’으로 기록된 고대 라틴어 번역본 사본들도 있다.

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요안네스로 불릴 것입니다.” 61 그리고 이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가 너의 친족 밖으로는 아무도 없다고 그들이 그녀를 향하여 말했다. 62 그런데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그가 무엇이냐 불리고 있기를 위하여 바라는지를 눈짓하여 신호하고 있었다. 63 그리고 그가 글씨 쓰는 판을 구한 후 기록했다. 말하고 있기를, “그의 이름은 요안네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 64 그런데 즉시 그의 입과 그의 혀가 열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으면서 발언하고 있었다. 65 그리고 두려움이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유다이하의 온 산골 안에서 이 모든 입말들이 서로 말해지고 있었다, 66 그리고 들었던 모든 이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두었다. 말하고 있기를, “그러면 이 아이는 무엇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67 그리고 그의 아버지 자카리아스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며 대언했다.²⁹⁾ 말하고 있기를,

- 68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칭송받으시는 이시로다,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돌보셨으며 대속을 행하셨기 때문이로다,
 69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종 다윗의 집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70 시대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분이 발언하셨던 것과 같이,
 71 우리의 원수들 밖으로와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손 밖으로 구원을,
 72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는 긍휼을 행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려고,
 73 우리의 조상 아브라암을 향하여 맹세하셨던 맹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74 ³⁰⁾원수들의 손 밖으로 건져졌던 이들이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고 있으려고 75 그분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날들에게 경건과 의 안에서.
 76 그런데 너도, 아이야, 가장 높으신 분의 대언자로 불릴 것이로다.
 왜냐하면 네가 주님의 눈앞에서 그분의 길들을 준비하려고
 앞서 갈 것이기 때문이로다,
 77 그들의 죄들의 용서 안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려는 그분의 길들을 준비하려고,
 78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의 심정들 때문에,
 동쪽이 높은 곳 밖으로 우리를 돌볼³¹⁾ 것들 안에서,

29) ‘προφητεύω’(프로페튜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א’ (나바)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다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하다’로 번역했다.

30) ‘우리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나타내시려고,
 우리의 발들을 평화의 길 안으로 직행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길들을 준비하려고.”
 80 그런데 아이가 자라고 있었으며 영에게 강건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임명의 날까지 광야들 안에 있었다.

2 그런데 모든 세계가 등록되고 있도록 아우구스토스 카이사르에게서 법령이 나왔
 던 일이 저 날들 안에서 있게 되었다. 2 이 등록은 퀴레니오스가 시리아를³²⁾ 다
 스리고 있을 때 처음으로 있게 되었다. 3 그리고 모든 이들이 등록되고 있으려고 가고 있
 었다, 각자 그자신들의 성읍 안으로. 4 그런데 요셉도 갈릴라이아로부터³³⁾ 나자렛 성읍
 밖에서 유다이아³⁴⁾ 안으로 베들레옴으로³⁵⁾ 불리고 있는 다윗의 성읍 안으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의 집과 족속 출신인 것 때문이다, 5 그와 정혼된 채 있는 마리아와³⁶⁾ 함께 등
 록되려고, 그녀가 임신하고 있을 때. 6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있는 가운데 그녀가 낳을
 날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7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분을
 포대기에 싸으며 구유 안에 그분을 눕히고 있었다, 이는 그들에게 자리가 손님방 안에서
 없었기 때문이다.

8 그리고 목자들이 들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들의 양떼에 대하여 밤의 1/4야간경
 비시간들을³⁷⁾ 준수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 안에 있었다. 9 그리고 38)주님의 사자(使者)가
 그들 옆에 섰으며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두
 려워했다. 10 그리고 그 사자(使者)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에게 있을 큰 기쁨을 복음으로 전하기 때문
 이다. 11 크리스토스³⁹⁾ 주님이신 구주께서 다윗의 성읍 안에서 오늘 너희에게 낳아지셨기 때문
 이다. 12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한 아기가 포대기에 싸여진 채 있으며 구유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13 그리고 갑자기 그 사자(使者)와 함께 하
 늘의 군대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말하고 있는 일이 있게 되었다.

14 “가장 높은 곳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고 땅 위에 평화가
 좋은 생각의 사람들 안에서⁴⁰⁾.”

31) 과거형 ‘돌보았던’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2) 히브리어 ‘아람’의 헬라어 번역으로 현대의 ‘시리아’이다.

33)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34)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35) 히브리어 ‘베트레헴’의 헬라어 음역이며, ‘베트’(집)와 ‘레헴’(빵)을 결합으로 ‘빵집’이라는 뜻이다.

36)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얌’(개역을 비롯
 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으로 번역)을 ‘마리아’으로 기록하고 있다.

37) 당시 로마의 관습에 따라 하룻밤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세 시간씩 4등분하여 교대로
 경비하던 시간.

38) 이어서 ‘보라!’가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9)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쁨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40)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5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로부터 하늘 안으로 떠나갔을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목자들이 서로를 향하여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베들레옴까지 통과하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있게 된 채 있는 이 입말씀을⁴¹⁾ 우리가 보자.” 16 그리고 그들이 서두른 후 갔으며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 안에 놓여 있는 아기를 찾아내었다. 17 그런데 그들이 본 후에 이 아이에 관하여 그들에게 발언되었던 그 입말씀에 관하여 알게 했다. 18 그리고 들었던 모든 이들이 그들을 향하여 목자들로 말미암아 발언되었던 것들에 관하여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 19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입말들을 그녀의 마음 안에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서 보존하고 있었다. 20 그리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발언되었던 것과 같이 들었고 보았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찬송하고 있으면서 돌아왔다.

21 그리고 그분을 할례하기 위한 것의 팔 일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 그분의 이름이 예수스로⁴²⁾ 불렸다, 그분이 취해지기 전에 배 안에서 그 사자(使者)로 말미암아 불렸다.

22 그리고 모우세스의⁴³⁾ 율법에 의한 그들의 정결함의 날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 그들이 그분을 주님께 옆에 세우려고 히에로솔뤼마⁴⁴⁾ 안으로 이끌어 올라갔다.

23 “자궁을 열고 있는 모든 남성은 주님에게 기록한 이로 불릴 것이다” 라고, 24 그리고 주님의 율법 안에 말해진 채 있는 것에 의하여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주님의 율법 안에 기록된 채 있는 것과 같이,⁴⁵⁾

“산비둘기들 한 쌍이나 비둘기들의 두 어린 새들을.”

25 그리고 보라! 어떤 사람이 쉬메온이라는⁴⁶⁾ 이름으로 예루살렘⁴⁷⁾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고대하고 있는 의롭고 경건한 이이다, 그리고 성령이 그이 위에 계셨다. 26 그리고 흑시⁴⁸⁾ 주님의 크리스토스를 보기 전에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명 받은 채 있는 것이 그에게 있었다. 27 그리고 그가 영 안에서 성전 안으로 갔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분에 관하여 율법의 관습에 의하여 행하려고 아이 예수스를 이끌어 들인 가운데 28 그가 그분을 굽힌 팔들 안에 영접했으며 하나님을 칭송했으며 말했다.

29 “지금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풀어보내십니다, 주권자시여,
평화 안에서 당신의 입말씀에 의하여.

41)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42)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43) 히브리어 ‘모세’의 헬라어 음역이다.

44)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45) “주님의 율법 안에 기록된 채 있는 것과 같이”가 원문에는 23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24절로 돌렸다.

46) 히브리어 ‘שמון’(들음)의 ‘시몬’과는 또 다른 헬라어 번역이다.

47)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이다.

48) “흑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0 저의 눈들이 당신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1 당신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에 의하여 준비하셨던 것을,
 32 이방인들의 계시 안으로 빛을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33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⁴⁹⁾ 그분에 관하여 발언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있었다. 34 그리고 쉬메온이 그들을 축복했으며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말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안에서 떨어짐과 많은 이들의 부활 안으로와 반박당하고 있는 표적 안으로 이분이 놓이십니다 - 35 그리고 검이 당신 자신의 영혼을 통과할 것이기도 합니다 - 많은 마음들 밖으로 의견들이 벗겨 드러내지기 위하여.” 36 그리고 한나라는 여대언자가⁵⁰⁾ 있었다, 파누엘의⁵¹⁾ 딸인, 아셀⁵²⁾ 지파 밖으로. 이 여자가 많은 날들 안에서 앞으로 나아간 채 있으면서⁵³⁾, 그녀의 처녀시절부터 칠 년을 남편과 함께 산 후 37 그녀가 팔십사 년까지 과부로 있었다, 그녀가 금식들과 간구들로 밤낮을 섬기고 있으면서 성전에서 떨어져 서있지 않고 있었다. 38 그리고 그 시간에 그녀가 옆에 선 후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고 있었으며 예루살렘의⁵⁴⁾ 대속을 고대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에 관하여 발언하고 있었다. 39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율법에 의한 모든 일들을 끝마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갈릴라이아 안으로 그자신들의 성읍 나자렛 안으로 되돌아갔다.

40 그런데 아이가 자라고 있었으며 지혜로 채워지고 있으면서 강건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다.

41 그리고 그분의 부모들이 해마다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안으로 가고 있었다. 42 그리고 그분이 열두 살 되셨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습에 의하여 올라가고 있으면서 43 그리고 날들을 완전하게 한 후, 돌이키고 있는 가운데 아이 예수스께서는 예루살렘 안에 머무셨다, 그러나 그분의 부모들은⁵⁵⁾ 알지 못했다. 44 그런데 그분이 동행 안에 있다고 그들이 예상한 후 한 날의 길을 갔으며 친족들과 아는 이들 안에서 그분을 계속 찾고 있었다, 45 그리고 그들이 찾아내지 못한 후 그분을 계속 찾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돌아왔다. 46 그리고 세 날들 후에 그분이 성전 안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찾아냈던 일이 있게 되었다. 47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이 그분의 이해와 대답들로 인하여 정신 나가고 있었다. 48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본 후 충격 받았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분을 향하여 말했다. “아들아, 왜 네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했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

49) “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신에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가’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50)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51) 히브리어 ‘프누엘’의 헬라어 음역으로 기존 한국어 성경에는 ‘브누엘’로 나온다.

52) 히브리어 ‘아셀르’의 헬라어 음역이다.

53) 실제적인 의미는 ‘나이가 많이 든 채 있으면서’이다.

54) ‘예루살렘 안에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55) “그분의 부모들은” 대신에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가 괴로워하고 있으면서 너를 찾고 있었다.” 49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찾고 있었습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까?”⁵⁶⁾ 50 그러나 그분이 그들에게 발언하셨던 그 입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51 그리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내려가셨으며 나 자렌 안으로 가셨으며 그들에게 복종하시고 있으면서 계셨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 모든 입말씀들을 그녀의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었다. 52 그리고 예수스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지혜와 키와⁵⁷⁾ 은혜 안에서 전진하시고 있었다.

3 그런데 티베리오스 카이사르의 집권의 열다섯째 해 안에서, 폰티오스 필라토스가 유다리아를⁵⁸⁾ 다스리고 있을 때, 그리고 헤로데스가⁵⁹⁾ 갈릴리아의⁶⁰⁾ 1/4통치자가 되고 있을 때,⁶¹⁾ 그리고 그의 형제 필립포스가⁶²⁾ 이투라이아와⁶³⁾ 트라코니티스 지역의 1/4통치자가 되고 있을 때, 그리고 퀴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1/4통치자가 되고 있을 때, 2 한나스와⁶⁴⁾ 카이아파스의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입말씀이⁶⁵⁾ 광야 안에서 자카리아스의⁶⁶⁾ 아들 요안네스⁶⁷⁾ 위에 있게 되었다. 3 그리고 그가 죄들의 용서 안으로 회심의⁶⁸⁾ 세례를 선포하고 있으면서 율다네스의⁶⁹⁾ 모든 주변지역 안으로 왔다, 4 대언자⁷⁰⁾ 예사이아스의⁷¹⁾ 말씀들의 기록물 안에 기록된 채 있는 것처럼.

“광야 안에서 외치고 있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다져진 길들을 곧은 것들로 만들고 있어라.

56)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57) 또는 ‘나이, 수명’

58)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59) 이 헤로데스는 예수님 출생 당시의 왕이었던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헤로데스의 아들이다.

60)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61) 이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을 4등분으로 나누고, 그 4등분된 지역을 각각 따로 통치자들을 세워 다스리게 했다. 1/4통치자가 되는 것은 이 4등분된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다.

62) 이 필립포스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로디아스의 첫 번째 남편 필립포스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63) 히브리어 ‘이투르’의 헬라어 음역이다.

64) 히브리어 ‘하난’(자비로운)의 헬라어 음역이다.

65)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66) 히브리어 ‘제카르야’의 헬라어 음역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로, 기존 한국어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사가랴’로, 구약에서는 ‘스가랴’로 번역되었다.

67) 히브리어 ‘요하난’과 ‘예호하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68) ‘μετανοια’(메타노이아)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는 것’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는 의미의 ‘회심(回心)’으로 번역했다.

69) 히브리어 ‘야르덴’의 헬라어 음역으로 ‘요단강’이다.

70)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71) 히브리어 ‘예샤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5 모든 골짜기는 채워질 것이며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춰질 것이다.

그리고 구불구불한 것들은 곧은 것 안으로

그리고 울퉁불퉁한 것들은 평평한 길들 안으로 될 것이다.

6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7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세례 받으려고 나아오고 있는 군중들에게 그가 말하고 있었다. “독사들의 자식들아, 하고 있으려고 하는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느냐? 8 그러므로 너희는 회심의 합당한 열매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자신들 안에서 말하고 있으려고 시작하지 마라. ‘우리는 아브라암을 조상으로 갖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 밖으로 아브라암에게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9 그런데 이미 도끼도 나무들의 뿌리를 향하여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만들지 않고 있는 모든 나무는 쳐내어지며 불 속으로 던져진다.” 10 그리고 군중들이 그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입니까?” 11 그런데 그가 대답한 후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두 옷들을 갖고 있는 이는 갖고 있지 않는 이에게 함께 나눠주라, 그리고 먹을 것들을 갖고 있는 이도 마찬가지로 행하고 있어라.” 12 그런데 세금징수자들도 세례 받으려고 왔으며 그를 향하여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입니까?” 13 그런데 그가 그들을 향하여 말했다. “너희는 아무 것도 너희에게 지시된 채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수금하지 말고 있어라.” 14 그런데 군복무하고 있는 이들도 그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우리도 무엇을 행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아무도 뒤흔들지도 말고 트집 잡아 빼앗지도 마라 그리고 너희의 봉급들로 만족하고 있어라.”

15 그런데 백성이 고대하고 있으면서 모든 이들이 그들의 마음들 안에서 요안네스에 관하여 의논하고 있을 때, 그가 크리스토스이기⁷²⁾ 바라고 혹시 그일까 하며, 16 요안네스가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대답했다. “한편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또 한편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들의 끈을 풀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그분은 성령과 불 안에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17 그분의 타작마당을 아주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고 밀을 그분의 창고 안으로 모으려고 키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18 그러므로 한편 그가 판 많은 것들을 권면하고 있으면서 백성에게 복음 전하고 있었다. 19 그런데 또 한편 1/4통치자 헤로데스는, 그의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스에 관하여 그리고 헤로데스가 행했던 많은 악한 일들에 관하여 그로 말미암아 책망 받고 있을 때, 20 모든 일들 위에 이것도 더했는데 요안네스를 감옥 안에 감금했다.

21 그런데 모든 백성이 세례 받는 가운데 예수스께서도⁷³⁾ 세례 받으신 후 그리고 기도

72)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73)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하시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이 비둘기처럼 육체적인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 오는 일이 있게 되었다.⁷⁴⁾ 그리고 소리가 하늘 밖으로 있게 되기를.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네 안에서 내가 좋게 생각했다.”⁷⁵⁾

23 그리고 예수스께서 시작하시고 있을 때 거의 서른 살 정도이셨다, 아들이시면서, 예상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엘리의 24 맏딸의 류이의 멜키의 안나이의 요셉의 25 말타 띠아스의 아모스의 나움의 헤슬리의 낭가이의 26 마알의 말타띠아스의 세메인의 요셉의 요다의 27 요아난의 레사의 조로바벨의 살라띠엘의 네리의 28 멜키의 안디의 코삼의 엘마담의 에르의 29 예수스의 엘리에젤의 요림의 맏딸의 류이의 30 쉬메온의 유다스의 요셉의 요남의 엘리아킴의 31 멜레아의 멘나의 말타따의 나뎡의 다원의 32 옛사이의 요벤의 보아즈의 살라의⁷⁶⁾ 나앗손의 33 아미나답의 아드민의 아르니의 헤스룸의 파레스의 유다스의 34 야콥의 이사악의 아브라함의 따라의 나코르의 35 세룩의 라가우의 팔렉의 에베르의 살라의 36 카이남의 아르팍사드의 셈의 노에의 라멕의 37 마뚜살라의 헤녹의 야렐의 말렐레엘의 카이남의 38 에노스의 셈의 아담의 하나님의.

4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예수스께서⁷⁷⁾ 올다네스로부터⁷⁸⁾ 돌이키셨으며 광야 안에서 영 안에 이끌리시고 있었다 2 사십 일들을 마귀로 말미암아 시험당하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분이 저 날들 안에 아무 것도 먹지 못하셨으며 그것들이 완전히 끝나쳐진 후 그분이 주리셨다. 3 그런데 마귀가 그분에게 말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이 돌에게 그것이 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하십시오.” 4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를 향하여 대답하셨다. “기록된 채 있다

‘사람이 빵으로 인하여만 살 것이 아니라’⁷⁹⁾고.”

5 그리고 마귀가⁸⁰⁾ 그분을⁸¹⁾ 이끌어 올라간 후 그분에게 순식간 안에서 세계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었으며 6 그분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넘겨진 채 있으며 만약 장차 내가 원하고 있을 것이면 내가 그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7 그러므로 만약 장차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할 것이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8 그리고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그에게 말씀하셨다.⁸²⁾ “기록된 채 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며 오직 그분만 섬길 것이다.’”

74) “있게 되었다.”가 원문에는 21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22절로 돌렸다.

75)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태어나게 한 채 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76) “살몬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77)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78) 히브리어 ‘아르덴’의 헬라어 음역으로 ‘요단강’이다.

79) 이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입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80) “마귀가”가 원문에는 6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5절로 돌렸다.

81) 이어서 ‘높은 산 안으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82) 이어서 ‘너는 나의 뒤로 떠나고 있어라 사타나스야.’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9 그런데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⁸³⁾ 안으로 이끌었으며 성전의 작은 날개 위에 세웠으며 그분에게 말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당신자신을 여기에서 아래로 던지십시오. 10 왜냐하면 기록된 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사자(使者)들에게 너에 대하여
너를 제대로 지킬 것을 명하실 것이며’

11 그리고

‘그들이 손들 위로 너를 들어올릴 것이다,
내가 너의 발을 돌을 향하여 부딪칠까 함이다.’라고.”

12 그리고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말해진 채 있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괜히 시험하지 말 것이다.”

13 그리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완전히 끝마친 후 그분으로부터 어떤 시점까지 떨어져 서 있었다.

14 그리고 예수스께서 영의 권능 안에서 갈릴리아⁸⁴⁾ 안으로 돌이키셨다. 그리고 그분에 관하여 소식이 온 주변지역마다 나갔다. 15 그리고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회당들 안에서 그분이 친히 가르치시고 있었다.

16 그리고 그분이 나자렛 안으로 가셨다, 양육 받으신 채 있으면서 계셨던 곳인, 그리고 그분에게 관습이 있는 채 있는 것에 의하여 그분이 안식일들의 날 안에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읽으시려고 일어서셨다. 17 그리고 대언자⁸⁵⁾ 예사이아스의⁸⁶⁾ 기록물이 그분에게 건네졌으며 그분이 기록물을 펴신 후 기록된 채 있으면서 있었던 곳을 찾아내셨다.

18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신 영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 전하시려고,

그분이 나를 보내신 채 있다,⁸⁷⁾

포로들에게 용서를 그리고 소경들에게 다시 봄을 선포하시려고,

짓눌린 채 있는 이들을 용서 안에서 파송하시려고,

19 주님의 영접하시는 해(年)를 선포하시려고.”

20 그리고 그분이 기록물을 말은 후에 보조자에게 주신 후 앉으셨다. 그리고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들이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으면서 있었다. 21 그런데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이 성경기록이 너희의 귀들 안에서 오늘 성취된 채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22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분에게 증언하고 있었으며 그분의 입 밖으로 나오고

83)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이다.

84)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85)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86) 히브리어 ‘예샤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87) 이어서 ‘마음이 부서진 채 있는 이들을 낮게 하시려고,’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있는 은혜의 말씀들로 인하여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말하고 있었다. “이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⁸⁸⁾ 23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희 모든 이들이 나에게 이 비유를 말할 것이다. ‘의사여, 너는 너자신을 치료하라. 우리가 들었던 만 큼들인 카팔나움⁸⁹⁾ 안으로⁹⁰⁾ 있게 되었던 일들을 너는 여기 너의 고향 안에서도 행하라.’” 24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그의 고향 안에서 영접받는 대 언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25 그런데 진리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아 스의⁹¹⁾ 날들 안에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 하늘이 삼년 육 개월에 대하여 잠겼을 때에, 큰 기근이 모든 땅 위에 있게 되었을 때, 26 그러나 시도니오스의⁹²⁾ 사뤼 엔티⁹³⁾ 안으로 어떤 과부 여인을 향하여가 아니라면 그들 중의 아무 여자를 향하여도 엘리 아스가 보내지지 않았다. 27 그리고 대언자 엘리사이오스⁹⁴⁾ 때 많은 문둥병자들이 이스 라엘 안에 있었다, 그러나 쉬리아⁹⁵⁾사람 나이만이 아니라면 그들 중의 아무도 깨끗해지 지 않았다.” 28 그리고 회당 안에서 이것들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분노로 가득 채워졌 다. 29 그리고 그들이 일어난 후 성읍 바깥으로 그분을 내쫓았으며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채 있었던 곳 위로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아래에 매달기 위하여 그분을 이끌었다. 30 그런데 그분은 그들의 가운데를 통하여 통과한 후 가셨다.

31 그리고 그분이 갈릴라이아의 카팔나움 성읍 안으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안식일들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계셨다. 32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정신 나가고 있었다, 그분의 말씀이 권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33 그리고 회당 안에 어 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갖고 있으면서 있었으며 큰 소리로 위로 소리쳤다. 34 “에 아!, 무엇이 저희와 당신께 있습니까,⁹⁶⁾ 나자레노스⁹⁷⁾ 예수스시여? 당신께서는 저희를 멸 망시키시려고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35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것을 꾸짖으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너는 잠잠해져라 그리고 그로부터 나와라.” 그리고 귀신이 그를 가운데 안으로 던져 놓은 후에 아무 것도 그를 해 치지 못한 후 그로부터 나갔다. 36 그리고 두려운 놀람이 모든 이들 위에 있게 되었으며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함께 말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그가 권세와 권능 안에서 더 러운 영들에게 지시하며 그것들은 나가다니 이 말씀은 무엇인가?” 37 그리고 그분에 관 한 소식이 주변지역의 모든 곳 안으로 나가고 있었다.

38 그런데 그분이 일어서신 후 회당으로부터 시몬의⁹⁸⁾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88)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89) ‘위로의 마을’

90) ‘안에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91) 히브리어 ‘엘리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92) ‘시돈에 속한, 시돈의’

93) 히브리어 ‘차르팔’의 헬라어 음역으로 기존 한국어 성경에는 ‘사르밧’으로 나온다.

94) 히브리어 ‘엘리샤’의 헬라어 음역이다.

95) 히브리어 ‘아람’의 헬라어 번역으로 현대의 ‘시리아’이다.

96) 실제적인 의미는 ‘저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이다.

97) ‘나자렐’사람.

98) 히브리어 ‘שמון’(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시몬의 장모가 큰 열병으로 억압당하고 있으면서 있었고 그들이 그녀에 관하여 그분에게 청했다. 39 그리고 그분이 그녀 위 옆에 서신 후 열병을 꾸짖으셨으며 그것이 그녀를 내버려두었다. 그리고 즉시 그녀가 일어선 후 그들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40 그런데 해가 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질병들로 병들어 있는 이들을 갖고 있었던 만큼의 모든 이들이 그들을 그분을 향하여 이끌었다. 그런데 그분이 그들 중의 각각 한 명에게 손들을 얹으시고 있으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있었다. 41 그런데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소리 지르고 있으면서 그리고 말하고 있으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발언하고 있는 것을 그분이 허용하지 않으시고 있었다. 그분이 크리스토스이신⁹⁹⁾ 것을 그것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42 그런데 어떤 날이 된 후에 그분이 나가신 후 광야의 어떤 곳 안으로 가셨다. 그리고 군중들이 그분을 애써 찾고 있었으며 그분에게까지 갔으며 그분이 그들로부터 가지지 못하고 있게 하려고 그분을 단단히 가졌다. 43 그런데 나는 탄 성읍들에게도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전해야 하고, 이것에 대하여 내가 파송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44 그리고 그분이 유다리아의¹⁰⁰⁾ 회당들 안으로 선포하시고 있으면서 계셨다.

5 그런데 군중이 그분에게 압박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겔네사렐¹⁰¹⁾ 호수 옆에 서신 채 있으면서 계셨으며 2 두 배들이 호수 옆에 선 채 있는 것을 그분이 보셨다. 그런데 어부들이 그것들로부터 나온 후 그물들을 빨고 있었다. 3 그런데 그분이 그 배들 중의 하나 안으로 타신 후, 시몬의¹⁰²⁾ 것이었던, 그것이 땅으로부터 조금 되돌아가도록 청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배 밖으로 앉으신 후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있었다. 4 그런데 그분이 발언하시고 있는 것을 멈추셨을 때, 시몬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깊은 곳 안으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그물들을 포획 안으로 내려라.” 5 그리고 시몬이 대답한 후 말했다. “주관자시여, 저희가 온 밤을 통하여 수고한 후 아무 것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입말씀으로¹⁰³⁾ 인하여 제가 그물들을 내릴 것입니다.” 6 그리고 그가 이것을 행한 후 많은 물고기들의 무리를 에워싸 가두었다. 그런데 그들의 그물들이 찢어발겨지고 있었다. 7 그리고 탄 배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그것들을 함께 취할 것을 그들이 손짓하여 신호했다. 그리고 그들이 왔으며 양쪽 배들을 가득 채웠으며 따라서 그것들이 잠기고 있다. 8 그런데 시몬 페트로스가 본 후에 예수스의¹⁰⁴⁾ 무릎들에 엎드렸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저

99)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100)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이어 번역이다. ‘갈릴라이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01) 히브리어 ‘킨네로트’의 헬라이어 음역으로, 갈릴라이아 바다의 카팔나움과 막달라(마가단) 사이의 서쪽 해안에 접하여 있는 작은 평야이다.

102) 히브리어 ‘שמון’(שמון)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103)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로부터 나가주십시오, 저는 죄인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9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취했던 물고기들의 포획으로 인하여 두려운 놀람이 그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둘러가졌기 때문이다, 10 그런데 제베다이오스의¹⁰⁵⁾ 아들들인 야코보스와¹⁰⁶⁾ 요안네스도¹⁰⁷⁾ 마찬가지로, 시몬에게 동참하는 이들이었던 이들인. 그런데 예수스께서 시몬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지금부터 너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가 될 것이다.” 11 그리고 그들이 배들을 땅 위에 이끌어 내린 후에 모든 것들을 내버려둔 후 그분을 따라갔다.

12 그리고 그분이 성읍들 중의 하나 안에 계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보라! 어떤 남자가 문둥병으로 충만하다. 그런데 그가 예수스를 본 후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후 그분에게 간구했다. 말하고 있기를, “주님, 만약 장차 당신이 원하시고 있을 것이면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3 그리고 그분이 손을 내미신 후 그를 만지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해져라.” 그리고 곧 문둥병이 그로부터 떠나갔다. 14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오히려 간 후 너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리고 모우세스가¹⁰⁸⁾ 지시했던 대로 너의 정결함에 관하여 가져가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에게 증거 안으로. 15 그런데 그분에 관하여 말이 더욱 통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듣고 있으려고 그리고 그들의 병약함들로부터 치료되고 있으려고 함께 오고 있었다. 16 그런데 그분은 물러가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있으면서 광야들 안에 계셨다.

17 그리고 그날들 중의 하나 안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계셨다, 그리고 갈릴리아와¹⁰⁹⁾ 유다이아의¹¹⁰⁾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¹¹¹⁾ 밖으로 온 채 있으면서 있었던 파리사이오스들과¹¹²⁾ 율법선생들이 앉아 있으면서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¹¹³⁾ 낮게 하시고 있는 것 안으로 주님의 권능이 있었다. 18 그리고 보라! 남자들이 마비된 채 있으면서 있었던 사람을 간이침대 위로 데려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리고 그분 앞에 그를 놓으려고 찾고 있었다. 19 그러나 그들이 군중 때문에 그를 데리고 들어갈 만한 어떠한 길을 찾아내지 못한 후에, 옥상 위에 올라간 후 기와들을 통하여 예수스 앞 가운데 안으로 간이침대와 함께 그를 내렸다. 20 그리고 그분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후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의 죄들이 너에게 용서된 채 있다.”

104)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05) 히브리어 ‘제바드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106)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107) 히브리어 ‘요한’과 ‘예호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108) 히브리어 ‘모세’의 헬라어 음역이다.

109)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110)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111)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이다.

112)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113) ‘그들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부정사의 주어로 목적격이 쓰인다는 것을 착각한 필사자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1 그리고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들이 의논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말하고 있기를, “신성모독들을 발언하는 이는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22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의 의논들을 알아보신 후에 대답하신 후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너희의 마음들 안에서 의논하느냐? 23 무엇이 더 쉬운 것이냐, ‘너의 죄들이 너에게 용서된 채 있다’ 말하는 것, 또는 ‘너는 일어나고 있어라 그리고 걸어다니고 있어라’ 말하는 것 중에서? 24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죄들을 용서하고 있으려고 땅 위에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이 마비된 채 있는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일어나고 있어라 그리고 너의 간이침대를 들어올린 후 너의 집 안으로 가고 있어라.” 25 그리고 즉시 그가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후에, 누워 있었던 것을 들어올린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면서 그의 집 안으로 떠나갔다. 26 그리고 정신나감이 모든 이들을 취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으며 우리가 기이한 표적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다.

27 그리고 이일들 후 그분이 나가셨으며 류이라는¹¹⁴⁾ 이름으로 어떤 세금징수자가 세금징수처에 앉아 있는 것을 지켜보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28 그리고 그가 모든 것들을 남겨둔 후에 일어난 후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다. 29 그리고 류이가 그분에게 그의 집 안에서 큰 연회를 행했다, 그리고 세금징수자들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다른 이들의 많은 군중이 있었다. 30 그리고 그들 중의 파리사이오스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의 제자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무엇 때문에 너희는 세금징수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그리고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건강하게 있는 이들이 의사의 필요를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나쁘게 갖고 있는 이들이 갖는다. 32 나는 의인들을 부르려고 온 채 있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회심¹¹⁵⁾ 안으로 부르려고 온 채 있다.” 33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향하여 말했다. “요안네스의 제자들은 파리사이오스들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금식하고 있으며 간구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¹¹⁶⁾” 34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혼인집의 아들들이 금식하도록 너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¹¹⁷⁾ 35 그런데 날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신랑이 그들로부터 빼앗겨질 때에, 그때에 저 날들 안에서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36 그런데 아무도 새로운 겹옷으로부터 조각을 찢은 후 오래된 겹옷 위에 덧붙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또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새로운 것이 찢을 것이며 그 새로운 것으로부터 온 조각도 그 오래된 것과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37 그리고 아무도 젊은¹¹⁸⁾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부대들 안

114) 히브리어 ‘레위’의 헬라어 음역이다.

115) ‘μετανοια’(메타노이아)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는 것’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는 의미의 ‘회심(回心)’으로 번역했다.

116)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십니까?’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17)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으로 넣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포도주가 가족부대들을 파괴할 것이며 그것은 쏟아질 것이며 가족부대들은 멸망당한다. 38 오히려 젊은 포도주는 새로운 가족부대들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다.¹¹⁹⁾ 39 그리고¹²⁰⁾ 아무도 오래된 것을 마신 후 ¹²¹⁾젊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것이 인자한¹²²⁾ 것이다.’¹²³⁾”

6 그런데 그분이 밀밭들을 통하여 통과하여 가시고 있는 일이 ¹²⁴⁾안식일 안에서 있게 되었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뜯고 있었으며 손들로 비비고 있으면서 이삭들을 먹고 있었다. 2 그런데 파리사이오스들¹²⁵⁾ 중의 어떤 이들이 말했다. “왜 너희는 안식일들에 합법적이지 않는 일을 행하느냐?” 3 그리고 예수스께서¹²⁶⁾ 그들을 향하여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이들이 주렸을 때 다원이 행했던 일을 읽지도 못했느냐?¹²⁷⁾ 4 그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진설한 것의 빵들을 취한 후 먹었으며 그와 함께 한 이들에게¹²⁸⁾ 주었을 때¹²⁹⁾, 오직 제사장들이 아니라면 먹기에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을.¹³⁰⁾” 5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¹³¹⁾ 주인이다¹³²⁾.”

6 그런데 그분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가르치시고 있는 일이 딱 안식일 안에서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으며 그의 오른손은 말라 있었다. 7 그런데 그분이 안식일 안에서 치료하시는지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들이 그분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분을 고발하고 있기 위한 것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8 그런데 그분이 그들의 의논들을 아시고 있었다. 그런데 마른 손을 갖고 있는 남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운데 안으로 서게 되어라.” 그리고 그가 일어난 후 섰다. 9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질문할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 또는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 또는 멸망시키는 것 어느 것이 안식일 안에서 합법적이

118) 실제적인 의미는 ‘한창 발효 중에 있는’이다.

119) 이어서 ‘그리고 양쪽 모두 보존된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20) “그리고”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21) ‘곧’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22) 비교급 ‘더 인자한’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23) 39절이 없는 사본들도 있다.

124) 뜻과 출처가 불분명한 ‘첫돌째’라는 단어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25)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126)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27)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28) ‘이들에게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29) ‘주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많다. 어느 것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30) 베자 사본인 D사본에는 이어서 ‘바로 그 날에 어떤 이가 안식일에 일하고 있는 것을 그분이 알아 보신 후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한편 만약 지금 네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네가 알고 있다면, 너는 복된 이이다. 그러나 또 한편 만약 지금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저주받은 자이며 율법의 범법자이다.’가 덧붙여 기록되어 있다.

131) ‘안식일에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32) ‘주인이기 때문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냐?” 10 그리고 그분이 그들 모든 이들을 둘러보신 후 그에게 133)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런데 그가 행했으며 그의 손이134) 회복되었다. 11 그런데 그들이 몰지각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예수스께 무엇을 행할까 하여 서로들을 향하여 서로 말하고 있었다.

12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시려고 산 안으로 나가시는 일이 저 날들 안에서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135) 기도 안에서 밤을 지내시고 있으면서 계셨다. 13 그리고 낮이 되었을 때,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을 불러내셨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열둘을 선택하신 후, 그들을 사도들로 일컬으셨다. 14 그분이 페트로스라고 일컬으셨기도 했던 시몬,136)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아스, 그리고 야코보스와137) 요안네스와138) 필립포스와 발돌로마이오스와139) 15 말타이오스와 토마스과 알파이오스의 야코보스와 열정파로 불리고 있는 시몬과 16 야코보스의 유다스와140) 이스카리오뜨141) 유다스, 배신자가 되었던 이인. 17 그리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신 후 평지의 어떤 곳 위에 서셨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중의 많은 군중이, 그리고 유다이아의142) 모든 곳과 예루살렘과143) 튀로스와144) 시돈의145) 해안으로부터 백성의 많은 무리가, 18 그들이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그리고 그들의 질병들로부터 낫게 되려고 왔다. 그리고 더러운 영들로부터 어지럽혀지고 있는 이들이 치료되고 있었다. 19 그리고 모든 군중이 그분을 만지고 있으려고 찾고 있었다, 권능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있었으며 모든 이들을 낫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눈들을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위로 들어올리신 후 말씀하시고 있었다.

“가난한 이들은 복되다,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21 지금 주리고 있는 이들은 복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울고 있는 이들은 복되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133) ‘진노 안에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34) 이어서 ‘다른 쪽처럼’, 또는 ‘다른 쪽처럼 건강하게’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35) 헬라어에서 소유격의 용법은 그 소유격으로 수식하는 대상의 단어를 설명하며 묘사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다. 따라서 여기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의미한다.

136) 히브리어 ‘셈온’(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137)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138) 히브리어 ‘요하난’과 ‘에호하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139) 아람어 ‘바르탈메’(탈메의 아들)의 헬라어 음역이다.

140) 히브리어 ‘에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141) ‘이스카리오테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42) 히브리어 ‘에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143)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이다.

144) 히브리어 ‘초르’(돌, 반석)의 헬라어 번역이다.

145) 히브리어 ‘치돈’(사냥하다)의 헬라어 음역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별하며 박해하며 너희의 이름을 악한 것처럼 내보낼 때 너희는 복된 이들이다.’

23 너희는 저 날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뛰놀라, 보라! 왜냐하면 너희의 대가가 하늘 안에서 많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에 의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¹⁴⁶⁾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4 ‘덧붙여서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가 너희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5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지금 만족하게 된 채 있는 이들이여,

너희가 주릴 것이기 때문이다.

¹⁴⁷⁾화가 있도다, 지금 웃고 있는 이들이여,

너희는 애통할 것이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26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잘 말할 때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그것들에 의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대언자들에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7 “오히려 나는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있어라, 너희를 미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잘 행하고 있어라, 28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고 있는 이들을 축복하고 있어라, 너희를 악의적으로 대하고 있는 이들에 관하여 기도하고 있어라. 29 뺨에 대하여 너를 치고 있는 이에게 너희는 다른 쪽도 제공하고 있어라, 그리고 너의 겹옷을 제거하고 있는 이로부터 안쪽 옷도¹⁴⁸⁾ 막지 마라. 30 너에게 구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너는 주고 있어라, 그리고 너의 것들을 제거하고 있는 이로부터 도로 구하지 말고 있어라. 31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여 주기를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너희는¹⁴⁹⁾ 그들에게 행하고 있어라. 32 그리고 만약 지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무슨 은혜가 너희에게 있느냐? 왜냐하면 죄인들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33 그리고 만약 장차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선을 행할 것이면, 무슨 은혜가 너희에게 있느냐? 죄인들도 그것을 행한다. 34 그리고 만약 장차 도로 취하기를 너희가 소망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빌려줄 것이면, 무슨 은혜가 너희에게 있느냐? 죄인들도 똑같은 것들을 도로 취하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35 덧붙여서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있어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있어라 그리고 아무 것도¹⁵⁰⁾ 소망하지 않고 있으면서 빌려주고 있어라. 너희의 많은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

146)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147) ‘너희에게’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48) ‘겹옷’은 ‘ἱματιον’(히마티온)으로 외투처럼 가장 바깥에 입는 옷을 의미하며, ‘안쪽 옷’은 ‘χιτων’(키톤)으로 현재의 티셔츠나 남방처럼 간편하게 입는 옷을 의미한다.

149) ‘너희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50) ‘아무에게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혜 베풀지 않는 이들과 악한 이들에 대하여도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36 너희의 아버지께서 동정하시는 분이신 것과 같이 너희는 동정하는 이들이 되고 있어라. 37 그리고 너희는 심판하지 말고 있어라, 너희가 결코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정죄하지 말고 있어라, 너희가 결코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풀어보내고 있어라, 너희가 풀어보내질 것이다. 38 너희는 주고 있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눌러진 채 있으며 흔들린 채 있으며 넘치게 부어지고 있는 좋은 분량을 그들이 너희의 품 안으로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재는 자로 그것이 너희에게 도로 재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9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¹⁵¹⁾ 양쪽 모두 구덩이 안으로 빠질 것이 아니냐?¹⁵²⁾ 40 제자는 선생 이상으로 있지 못한다. 그런데 준비하여 갖추어진 채 있는 모든 이는 그의 선생처럼 될 것이다. 41 그런데 왜 너는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잔가지를 보며,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알아채지 않느냐? 42 어떻게 네가 너의 형제에게 말하고 있을 수 있느냐, ‘형제여, 내가 너의 눈 속에 있는 잔가지를 내보내게 너는 내버려두라’, 너 자신이 너의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면연기자야,¹⁵³⁾ 너는 먼저 통나무를 너의 눈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그때에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잔가지를 내보내기 위하여 내가 분명하게 볼 것이다. 43 왜냐하면 부패한 열매를 만들고 있는 좋은 나무는 없기 때문이고, 또한 좋은 열매를 만들고 있는 부패한 나무도 없기 때문이다. 44 왜냐하면 각각의 나무는 자기 자신의 열매 밖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시나무들 밖으로 무화과들을 거두지 못하며 가시덤불 밖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기 때문이다. 4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저장물 밖으로 선한 것을 생산하며, 악한 이는 악한 것 밖으로 악한 것을 생산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넘침 밖으로 그의 입이 발언하기 때문이다.”

46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부르느냐, ‘주님 주님’,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느냐? 47 나를 향하여 오고 있으면서 나의 말들을 듣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모든 이, 그는 무엇과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48 그는 집을 세우고 있으면서 꿩이며 길게 했으며 바위 위에 기초를 두었던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홍수가 있게 된 후 그 강물이 저 집에 들이쳐 파괴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세워진 채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은 그것을 흔들 능력이 없었다.¹⁵⁴⁾ 49 그런데 들은 후에 행하지 않았던 이는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것에 강물이 들이쳐 파괴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함께 보냈으며 저 집의 큰 파괴가 있게 되었다.”

151) ‘μητι’(메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52)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53) 원문은 ‘υποκριτης’(히포크리데스)로 주로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지칭하며, 관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로 보기도 한다.

154)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흔들 능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위 위에 기초된 채 있었기 때문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7 그분의 모든 입말씀들이¹⁵⁵⁾ 백성의 듣는 곳들 안으로 채웠으므로, 그분이 카팔나움¹⁵⁶⁾ 안으로 들어가셨다. 2 그런데 어떤 백부장의 종이 나쁘게 갖고 있으면서 최후를 맞고 있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에게 영예로운 이였던 이인. 3 그런데 그가 예수스에¹⁵⁷⁾ 관하여 들은 후에 그분이 오신 후 그의 종을 무사히 구원하시도록 그분에게 청하고 있으면서 그분을 향하여 유다리오스들의 장로들을 파송했다. 4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향하여 당도한 후에 당신이 이것을 제공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부지런히 그분에게 청하고 있었다. 5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그 자신이 우리에게 회당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6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그분이 그 집으로부터 멀지 않게 떨어져 있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냈다. 그분에게 말하고 있기를, “주님, 아닙니다, 당신은 괴롭혀지지 말고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기에 저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 이리므로 제자신이 당신을 향하여 가는 것을 제가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당신은 말씀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종이 낮게 되게 해주십시오.¹⁵⁸⁾ 8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 아래에 군인들을 갖고 있으면서 지시받고 있는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라, 그가 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너는 오고 있어라, 그가 옵니다, 그리고 저의 종에게, 너는 이것을 행하라, 그가 행합니다.” 9 그런데 예수스께서 이것들을 들으신 후 그를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셨으며 돌이키신 후 그분을 따라오고 있는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10 그리고 보내졌던 이들이 집 안으로 돌이킨 후 그¹⁵⁹⁾ 종이 건강하게 있는 것을 발견했다.

11 그리고 그분이 나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성읍 안으로 가셨던 일이 그 다음¹⁶⁰⁾ 안에서 있게 되었는데 그분의 ¹⁶¹⁾제자들과 많은 군중이 그분과 함께 가고 있었다. 12 그런데 그분이 성읍의 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 보라! 그의 어머니에게 외아들인 이가 죽은 채 있으면서 돌려보내지고 있었으며 그녀는 과부였다, 그리고 성읍의 충분한 군중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 13 그리고 주님이 그녀를 보신 후 그녀에 대하여 애타게 되셨으며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울지 말고 있어라.” 14 그리고 그분이 나아가신 후 관을 만지셨다, 그런데 짊어지고 있는 이들이 섰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

155)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156) ‘위로의 마을’

157) 히브리어 ‘에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58) 명령법 대신에 ‘저의 종이 낮게 될 것입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59) ‘병들어 있는’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60) ‘다음날’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61) ‘충분한’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는데, 너는 일어나라.” 15 그리고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았으며 발언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분이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 16 그런데 두려움이 모든 이들을 취했으며 큰 대언자가¹⁶²⁾ 우리 안에 일어났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다. 17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 말이 온 유다이아와¹⁶³⁾ 모든 주변지역 안에 나갔다.

18 그리고 요안네스에게¹⁶⁴⁾ 그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알려주었다. 그리고 요안네스가 그의 제자들 중의 어떤 이들 두 명을 부른 후 19 주님을¹⁶⁵⁾ 향하여 보냈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이 오실 분이십니까? 또는 우리가 다른 이를 고대합니까?” 20 그런데 그 남자들이 그분을 향하여 당도한 후 말했다. “세례자 요안네스가 저희를 당신을 향하여 말하고 있으면서 보냈습니다. ‘당신이 오실 분이십니까? 또는 우리가 다른 이를 고대합니까?’” 21 저 시간 안에서 그분이 질병들과 고통들과 악한 영들로부터 많은 이들을 치료하셨으며 보고 있도록 많은 소경들에게 은혜 베푸셨다. 22 그리고 그분이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간 후에 너희가 보았으며 들었던 일들을 요안네스에게 알려주어라.

‘소경들이 쳐다보고 있으며, 앓은뱅이들이 걸어나가고 있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있으며 병어리들이 듣고 있으며,
죽은 이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난한 이들이 복음으로 전하여 듣고 있다.’

23 그리고 만약 장차 내 안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면 그는 복된 이이다.”

24 그런데 요안네스의 사자(使者)들이 떠나간 후에 그분이 군중들을 향하여 요안네스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지켜보려고 광야 안으로 나갔느냐? 바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갈대냐?¹⁶⁶⁾ 25 오히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겂옷들 안에 두른 채 있는 사람이나?¹⁶⁷⁾ 보라! 영광스러운 겂옷들과 사치 안에서 지내고 있는 이들은 왕궁들 안에 있다. 26 오히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¹⁶⁸⁾ 맞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대언자보다 더 넘치는 이이다. 27 이이가 기록된 채 있는 것에 관한 이이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使者)를 너의 얼굴 앞에 파송하는데,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갓출 것이다.’

28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인들의 태어나게 하는 이들 중에서 ¹⁶⁹⁾요안네스보다 더

162)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163)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164) 히브리어 ‘요한’과 ‘예호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165) ‘예수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66) 사본에 따라서는 ‘왜 너희는 광야 안으로 나갔느냐? 바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나?’도 될 수 있다.

167) 사본에 따라서는 ‘오히려 왜 너희는 나갔느냐? 부드러운 것들 안에서 두른 채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함이나?’도 될 수 있다.

168) 사본에 따라서는 ‘오히려 왜 너희는 나갔느냐? 대언자를 보기 위함이나?’도 될 수 있다.

169) ‘세례자’ 또는 ‘세례자이며 대언자’ 또는 ‘대언자’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큰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가장 작은이도 그보다 더 큰이다.”
29 그리고 요안네스의 세례를 세례 받았던 모든 백성과 세금징수자들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다. 30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세례 받지 않았던 파리사이오스들과¹⁷⁰⁾ 율법사들은 그자신들 안으로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렸다. 31 “그러므로 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과 같다고 할 것이며 그들은 무엇과 같은 이들인가? 32 그것은 장터 안에 앉아 있으면서 서로에게 부르고 있으면서 말하는 아이들과 같은 이들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 불었으나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¹⁷¹⁾애곡했으나 너희는 울지 않았다.’

33 왜냐하면 세례자 요안네스가 빵을 먹지도 않고 있으면서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있으면서 온 채 있고, 너희는 말하기 때문이다. ‘그는 귀신을 갖고 있다.’ 34 사람의 아들은 먹고 있으면서 마시고 있으면서 온 채 있고, 너희는 말한다. ‘보라! 먹보이며 술꾼인 사람이요, 세금징수자들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35 그러나 지혜는 그것의 모든 자녀들로부터¹⁷²⁾ 의롭게 되었다.”

36 그런데 파리사이오스들 중의 어떤 이가 그분과 함께 먹기를 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파리사이오스의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 앉혀지셨다. 37 그리고 보라! 그 성읍 안에서 죄인이었던 여인이, 그분이 그 파리사이오스의 집 안에 앉아 계시는 것을 알아본 후에, 향유의 옥합을 돌려받은 후 38 그리고 그분의 발들 옆에 뒤로 선 후에 울고 있으면서 눈물들로 그분의 발들에 비 내리고 있기를 시작했으며 그녀의 머리의 머리카락들로 닦고 있었으며 그분의 발들에 열렬히 입 맞추고 있었으며 향유로 기름 바르고 있었다. 39 그런데 그분을 불렀던 그 파리사이오스가 본 후 그자신 안에서 말했다. 말하고 있기를, ‘이이가 만약 ¹⁷³⁾대언자였다면, 그는 자기를 만지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40 그리고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시몬아,¹⁷⁴⁾ 내가 너에게 무슨 말할 것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한다, “선생님,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41 “두 빛진 자들이 어떤 빛쟁이에게 있었다. 그 한 명은 오백 데나리온들을¹⁷⁵⁾ 빚지고 있었으며, 탄 이는 오십을. 42 그들이 갚을 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양쪽 모두에게 그가 은혜 베풀었다. 그러므로 그들 중의 누가 더 많이 그를 사랑할 것이냐?” 43 시몬이 대답한 후 말했다. “저는 그가 더 많이 은혜 베풀었던 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올바르게 판단했다.” 44 그리고 그분이 여인을 향하여 돌이키신 후 시몬에게 말씀하시곤 있었다. “네가 이 여인을 보고 있느냐? 내가 너의 집 안으로 들어왔으나, 너는 나에게 발들에 대한 물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들로 나의 발들에 비 내렸으며 그녀의 머리카락들로

170)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171) ‘너희에게’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72) ‘일들로부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73) 정관사 ‘그’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74) 히브리어 ‘솜온’(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175) 로마의 은화로 일 ‘데나리온’은 무게가 3.8g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삤이다.

뒹었다. 45 너는 나에게 입맞춤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¹⁷⁶⁾ 때부터 나의 발들에 열렬히 입 맞추고 있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46 너는 올리브기름으로 나의 머리에 기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로 나의 발들에 기름 발랐다. 47 그 이유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많은 그녀의 죄들이 용서된 채 있다고, 그녀가 많은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은 것을 용서받는 이, 그는 적은 것을 사랑한다.” 48 그런데 그분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죄들이 용서된 채 있다.” 49 그리고 함께 앉아 있는 이들이 그 자신들 안에서 말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죄들도 용서한다는 이는 누구인가?” 50 그런데 그분이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채 있다. 너는 평화 안으로 가고 있어라.”

8 그리고 다음차례 안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선포하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있으면서 각 성읍과 마을로 두루 길을 가시고 있었다 그분과 함께 열둘도, 2 그리고 악한 영들과 병약함들로부터 치료된 채 있으면서 있었던 어떤 여인들도 함께 갔다, 막달레네로 불리고 있는 마리아,¹⁷⁷⁾ 그녀로부터 일곱 귀신들이 나간 채 있었던 여자인, 3 그리고 헤로데스의 감독자의 쿠자스의 아내 요안나와¹⁷⁸⁾ 수산나와¹⁷⁹⁾ 많은 탄 여자들도, 그녀들에게 있는 것들 밖으로 그들에게¹⁸⁰⁾ 봉사하고 있었던 여자들인.

4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각 성읍에서 그분을 향하여 나아 오고 있을 때 그분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5 “그의 씨를 씨 뿌리려는 어떤 씨 뿌리고 있는 이가 나갔다. 그리고 그가 씨 뿌리고 있는 가운데 한편 어떤 것은 길옆에 떨어졌으며 짓밟혀졌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그것을 먹어치웠다. 6 그리고 탄 것은 바위 위에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그것은 움튼 후 습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마르게 되었다. 7 그리고 탄 것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떨어졌다, 그리고 가시나무들이 함께 움트게 된 후 그것을 질식시켰다. 8 그리고 탄 것은 선한 땅 안으로 떨어졌으며 움튼 후 백배 이상의 열매를 만들었다.” 그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부르짖으시고 있었다. “귀들을 갖고 있는 이는 듣고 있어라.”

9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엇이기 바라는지 그분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10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주어진 채 있다, 그런데 다른 남은 이들에게는 비유들 안에 있다,

‘그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도록

176) ‘그녀가 들어왔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77) 히브리어 ‘미르얌’을 헬라어로 음역한 ‘마리아’의 또 다른 음역이다.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얌’(개역을 비롯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으로 번역)을 ‘마리아’으로 기록하고 있다.

178) 히브리어 ‘요한나’의 헬라어 음역으로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이다.

179) 히브리어 ‘쇼산나’(백합)의 헬라어 음역이다.

180) ‘그분에게’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그리고 듣고 있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1 그런데 그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2 그런데 길옆의 그들은 들었던 이들도, 그 다음에 마귀가 오며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제거한다, 그들이 믿은 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3 그런데 바위 위의 그들은 들었을 때 기쁨과 함께 그 말씀을 영접한다, 그러나 이들은 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시점을 향하여¹⁸¹⁾ 믿고 있으나 시험의 시점 안에서는 떨어져 서있는 채 있게 된다. 14 그런데 가시나무들 안으로 떨어졌던 것은, 이들은 들었던 이들도, 그러나 그들은 가고 있을 때 생활의 염려들과 부유함과 향락들로 말미암아 아주 질식당하며 끝내 열매 맺지 못한다. 15 그런데 좋은 땅 안의 것은, 이들은 좋고 선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들은 후 단단히 갖고 있으며 인내 안에서 열매 맺는다.”

16 “그런데 아무도 등불에 불붙인 후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또는 간이침대 아래 두지 않고,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둔다, 들어오고 있는 이들이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17 왜냐하면 감춘 것이 나타남이 되지 않을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숨긴 것이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과 나타남 안으로 가지 않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8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너희는 보고 있어라. 왜냐하면 만약 장차 그가 갖고 있을 것이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장차 그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면, 그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19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을 향하여 당도했으며 군중 때문에 그분에게 합류하고 있을 수 없었다. 20 그런데 그것이 그분에게 알려졌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보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바깥에 선 채 있습니다.” 21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행하고 있는 이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22 그런데 날들 중의 한 날 안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배 안으로 타셨다 그분의 제자들도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우리가 호수의 건너편 안으로 통과하자”, 그리고 그들이 이끌려 올라갔다. 23 그런데 그들이 향해하고 있을 때 그분이 잠드셨다. 그리고 폭풍이 호수 안으로 내려왔으며 그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으며 위험에 빠지고 있었다. 24 그런데 그들이 나아온 후 그분을 깨웠다. 말하고 있기를, “주관자시여 주관자시여, 우리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깨신 후 바람과 물의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멈추었으며 잔잔함이 있게 되었다. 25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한 후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 서로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기를, “그분이 바람들과 물에게 지시하시고, 그것들은 그에게 순종하다니 그러면 이분은 누구신가?”

26 그리고 그들이 게라세노스들의¹⁸²⁾ 지역 안으로 향해하여 내려갔다, 갈릴리아

181) 실제적인 의미는 ‘잠시 동안’이다.

182) ① ‘겔게세노스들의’ ② ‘가다레노스들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마태복음 8장 28절과 마가복음 5장 1절과 비교하라.

의¹⁸³⁾ 맞은편에 있는 곳인. 27 그런데 그분이 땅 위로 나가신 후에 어떤 남자가 귀신들을 갖고 있으면서 성읍 밖에서 그분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는 충분한 기간에 겹옷을 입지 않았으며¹⁸⁴⁾ 집 안에 머물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무덤들 안에 머물고 있었다. 28 그런데 그가 예수스를¹⁸⁵⁾ 본 후에 위로 소리친 후 그분에게 엎드렸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저와 당신께 있습니까,¹⁸⁶⁾ 예수스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제가 당신께 간구합니다, 당신은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29 왜냐하면 그분이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가도록 분부하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많은 기간들에 그것이 그를 완전히 탈취한 채 있었으며 그는 간수되고 있으면서 쇠사슬들과 족쇄들로 묶여 있었으나 그가 결박들을 찢어발기고 있으면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광야들 안으로 밀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30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것에게 질문하셨다. “너에게 이름이 무엇이나?” 그런데 그것이 말했다. “군단입니다”, 많은 귀신들이 그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31 그리고 그분이 그것들에게 끝없는 구덩이 안으로 떠나가기를 지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들이 그분에게 요청하고 있었다. 32 그런데 충분한 돼지들의 떼가 산 안에서 길러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들에게 저것들 안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들이 그분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들에게 허락하셨다. 33 그런데 귀신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간 후 돼지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떼가 벼랑 아래 호수 안으로 돌진했으며 질식당했다. 34 그런데 기르고 있는 이들이 있게 된 채 있는 일을 본 후 피했으며 성읍 안으로와 시골들 안으로 알려주었다. 35 그런데 그들이 있게 된 채 있는 일을 보려고 나왔으며 예수스를 향하여 왔으며 그로부터 귀신들이 나갔던 사람이 겹옷 입힌 채 있으며 정신이 멀쩡하고 있으면서 예수스의 발들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36 그런데 귀신들렸던 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았던 이들이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37 그리고 게라세노스들의 주변지역의 모든 무리가 그들로부터 떠나가시기를 그분에게 청했다,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에워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이 배 안으로 타신 후 돌이키셨다. 38 그런데 그로부터 귀신들이 나간 채 있었던 그 남자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그를 풀어보내셨다. 39 “너는 너의 집 안으로 돌이키고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셨던 만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는 예수스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만큼들을 온 성읍마다 선포하고 있으면서 떠나갔다.

40 그런데 예수스께서 돌이키시고 있는 가운데 군중이 그분을 환영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그분을 고대하고 있으면서 있었기 때문이다. 41 그리고 보라! 야이로스라는¹⁸⁷⁾

183)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184) ‘어떤 남자가 충분한 시간 밖으로(오랫동안) 귀신들을 갖고 있으면서 성읍 밖에서 그분을 맞이했으며 겹옷을 입지 않았으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85)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86) 실제적인 의미는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이다.

187) 히브리어 ‘야이르’의 헬라어 음역으로 ‘그가 깨우치신다.’라는 뜻이다.

이름의 남자가 왔는데 이어는 회당의 통치자로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예수스의 발들 옆에 엎드린 후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분에게 요청하고 있었다, 42 대략 열두 살쯤인 외동딸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녀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고 있는 가운데 군중들이 그분을 질식사시키고 있었다.¹⁸⁸⁾ 43 그리고 십이 년으로부터 피의 흐름 안에 있는 여인이, 의사들에게 온 재산을 소멸시킨 후에¹⁸⁹⁾ 아무로부터도 치료될 수 없었던 어느 여자가, 44 그녀가 뒤에서 나아온 후 그분의 겹옷의 술을 만졌으며 즉시 그녀의 피의 흐름이 섰다. 45 그리고 예수스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만졌던 이가 누구냐?” 그런데 모든 이들이 부인하고 있을 때 페트로스가¹⁹⁰⁾ 말했다. “주권자시여, 군중들이 당신을 억압하고 있으며 옥여싸고 있습니다.¹⁹¹⁾” 46 그런데 예수스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이가 나를 만졌다, 왜냐하면 권능이 나로부터 나간 채 있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47 그런데 그 여인이 모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은 후, 떨고 있으면서 왔으며 그분에게 엎드린 후에 그분을 만졌던 이유 때문에¹⁹²⁾ 즉시 낮게 되었던 것처럼 된 것도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알려주었다. 48 그런데 그분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채 있다. 너는 평화 안으로 가고 있어라.” 49 아직 그분이 발언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당신의 딸이 죽은 채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회당장의 집에서 온다. “당신은 선생님을 더 이상¹⁹³⁾ 괴롭히지 말고 있으십시오.” 50 그런데 예수스께서 들으신 후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오직 믿어라, 그녀가 구원받을 것이다.” 51 그런데 그분이 집 안으로 가신 후 페트로스와 요안네스와¹⁹⁴⁾ 야코보스와¹⁹⁵⁾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면 어떤 이들도 그분과 함께 들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52 그런데 모든 이들이 울고 있었으며 그녀를 위하여 가슴 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울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녀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53 그러나 그들은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은 채 있으면서 그분을 비웃고 있었다. 54 그런데 그분이 친히 그녀의 손을 붙잡으신 후 부르셨다. 말씀하시고 기를, “아이야, 너는 일어나고 있어라.” 55 그리고 그녀의 영이 돌이켰으며 그녀는 즉시 일어섰으며 그분은 먹을 것이 그녀에게 주어질 것을 지시하셨다. 56 그리고 그녀의 부모들은 정신 나갔다. 그런데 그분은 있게 된 채 있는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188) 실제적인 의미는 ‘그분이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군중들이 몰려들고 있었다.’이다.

189) “의사들에게 온 재산을 소멸시킨 후에”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90) ‘페트로스와 그와 함께 한 이들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91) 이어서 “그런데 당신은 말씀하십니까? ‘나를 만졌던 이가 누구냐?’라고.”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92) “이유 때문에” 대신에 ‘이유와’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93) 강조형 “더 이상 ~ 없다” 대신에 단순형 ‘~ 없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94) 히브리어 ‘요하난’과 ‘에호하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195)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9 그런데 그분이 열둘을¹⁹⁶⁾ 불러 모으신 후 그들에게 모든 귀신들과 질병들을 치료 하고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으며 2 하나님을 왕국을 선포하고 있으며 병든 이 들을¹⁹⁷⁾ 낫게 하고 있도록 그들을 파송하셨다, 3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 다. “너희는 길 안으로 아무 것도 들어올리지 말고 있어라, 지팡이도 여행용자루도 빵도 은화도 두 옷들 이상도¹⁹⁸⁾ 갖고 있지 않도록. 4 그리고 만약 장차 너희가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이면, 너희는 거기에 머물고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고 있어라. 5 그러나 만약 장차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있을 것이면, 너희는 저 성읍으로부터 나오고 있 으면서 너희의 발들로부터 먼지를 그들에 대하여 증거 안으로 털어버리고 있어라.” 6 그 런데 그들이 나가고 있으면서 모든 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서 치료하고 있으면서 각 마을들을 통과하고 있었다.

7 그런데 1/4통치자¹⁹⁹⁾ 헤로데스가²⁰⁰⁾ 있게 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들었으며 어떤 이들로 말미암아 요안네스가²⁰¹⁾ 죽은 이들 밖으로 일어났다고, 8 그런데 어떤 이들로 말 미암아 엘리야스가²⁰²⁾ 나타났다고, 그런데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 옛날의 어떤 대언자가²⁰³⁾ 일어섰다고 말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주 당황하고 있었다.²⁰⁴⁾ 9 그런데 헤로데스가 말 했다. “내가 요안네스를 목 잘랐다. 그런데 내가 그에 관하여 이런 일들을 듣고 있는 이 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그분을 보려고 찾고 있었다.

10 그리고 사도들이 돌이킨 후 그들이 행했던 만큼들을 그분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취하신 후 베뜨사이다로²⁰⁵⁾ 불리고 있는 성읍 안으로 따로 물러가셨다. 11 그런데 군중들이 알은 후 그분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환영하신 후 하나님 의 왕국에 관하여 그들에게 발언하시고 있었다, 그리고 치료의 필요를 갖고 있는 이들을 낫게 하시고 있었다. 12 그런데 날이 기울고 있기 시작했다. 그런데 열둘이 나아온 후 그 분에게 말했다. “당신은 군중을 풀어보내십시오. 그들이 주변의 마을들과 시골들 안으로 간 후 묵도록 그리고 곡식을 찾아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기 광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3 그런데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친히 그들에게 먹으 라고 주어라.” 그런데 그들이 말했다. “빵들 다섯과 물고기들 둘보다 더 많은 것이 저희

196) ‘열두 사도들을’ 또는 ‘그분의 열두 제자들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97) “병든 이들을”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98) “이상도”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99) 이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을 4등분으로 나누고, 그 4등분된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 는 통치자들을 각각 따로 세웠다. 1/4통치자는 이 4등분된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이다.

200) 이 헤로데스는 예수님 출생 당시의 왕이었던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헤로데스의 아들이다.

201) 히브리어 ‘요한’과 ‘예호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202) 히브리어 ‘엘리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203)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204) “말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주 당황하고 있었다.”가 원문에는 7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8절로 돌렸다.

205) 아람어 ‘베트차이다’의 헬라어 음역으로 ‘물고기의 집’이다.

에게는 없습니다. 만약 저희가 간 후에 이 백성 안으로 모든 먹을 것들을 사지 않는다면.” 14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오천 정도의 남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들을 거의²⁰⁶⁾ 오십 정도 이상으로 식사자리들로 앉히라.” 15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이 행했으며 모든 이들을 앉혔다. 16 그런데 그분이 다섯 빵들과 두 물고기들을 취하신 후에 하늘 안으로 쳐다보신 후 그것들을 축복하셨으며 조각조각 떼셨으며 군중에게 내놓도록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었다. 17 그리고 그들이 먹었으며 모든 이들이 배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넘쳤던 조각들의 바구니 열둘이 들어올려졌다.

18 그리고 그분이 혼자 기도하시고 있으면서 계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군중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19 그런데 그들이 대답한 후 말했다. “세례자 요안네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엘리야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옛날의 어떤 대언자가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20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페트로스가 대답한 후 말했다. “하나님의 그리스토스²⁰⁷⁾이십니다.” 21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훈계하신 후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도록 분부하셨다 22 사람의 아들이 많은 것들을 고난당해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거부당해야 하며 살해당해야 하며 셋째 날에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23 그런데 그분이 모든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었다. “만약 지금 어떤 이가 나의 뒤로 오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는 그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그의 십자가를 들어올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24 왜냐하면 만약 장차 그의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면 그는 그것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장차 나 때문에 그의 목숨을 멸망시킬 것이면 이이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25 왜냐하면 온 세상을 얻은 후에 그런데 그자신을 멸망시킨 후에는 또는 손해 본 후에는 무엇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냐? 26 왜냐하면 만약 장차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면, 이이를 사람의 아들도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안에서 그가 올 때에는. 27 그런데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바로 여기에 선 채 있는 이들 중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까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이들이다.”

28 그런데 이 말씀들 후에 거의 여덟째 날들 정도에 그분이 페트로스와 요안네스와 야코보스를²⁰⁸⁾ 옆에 취하신 후 기도하시려고 산 안으로 올라가셨던 일이 있게 되었다. 29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시고 있는 가운데 그분의 얼굴의 형태가 탄 것이 되었으며 그분의 겉옷이 번쩍거리고 있으면서 하얗게 되었다. 30 그리고 보라! 남자 두 명이 그분과 함께 말하고 있었다, 모우세스와²⁰⁹⁾ 엘리야스이었다, 31 영광 안에서 보였던 이들이 그분의

206) “대략”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07)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208)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209) 히브리어 ‘모세’의 헬라어 음역이다.

떠나가심을 말하고 있었다, 그분이 예루살렘²¹⁰⁾ 안에서 성취하시고 있으려고 하시고 있었던 일을. 32 그런데 페트로스와 그와 함께 한 이들은 잠으로 무거워진 채 있으면서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정신 차린 후 그분의 영광과 그분에게 선 채 있는 두 남자들을 보았다. 33 그리고 그들이 그분으로부터 작별하게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페트로스가 예수스를²¹¹⁾ 향하여 말했다. “주권자시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막들 셋을 만드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를 그리고 모우세스에게 하나를 그리고 엘리야스에게 하나를”, 그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있다. 34 그런데 그가 이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 구름이 있게 되었으며 그들을 그늘지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했다. 35 그리고 소리가 구름 밖으로 있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이이는 선택된 채 있는²¹²⁾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있어라.” 36 그리고 소리가 있게 되었던 가운데 오직 예수스만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잠잠했으며 아무에게도 그들이 본 채 있는 것의 아무 것도 저 날들 안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37 그런데 다음날에 그들이 산으로부터 내려올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맞이했다. 38 그리고 보라! 어떤 남자가 군중으로부터 외쳤다. 말하고 있기를, “선생님, 저의 아들에 대하여 돌아보시기를 제가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그는 저에게 외자 식이기 때문입니다. 39 그리고 보십시오! 어떤 영이 그를 취하며 갑자기 소리치며 거품과 함께 그를 경련하게 하며 그를 부수고 있으면서 간신히 그로부터 물러갑니다. 40 그리고 그것을 내쫓을 것을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1 그런데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오! 믿지 않으며 왜곡된 채 있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있을 것이며 너희를 참을 것이냐? 너는 너의 아들을 여기로 이끌어라.” 42 그런데 아직 그가 나아오고 있을 때 귀신이 그를 파괴했으며 심하게 경련하게 했다.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으며 아이를 낮게 하셨으며 그를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43 그런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인하여 정신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시고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때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44 “너희는 너희의 귀들 안으로 이 말들을 두어라.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들 안으로 넘겨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45 그런데 그들은 이 입말씀을²¹³⁾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덮여진 채 있으면서 있었다,

210)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이다.

211)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12) ‘사랑하는’ 또는 ‘내가 좋게 생각했던 가운데 사랑하는’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13)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입말씀에 관하여 그분에게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46 그런데 의견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 누가 그들 중 더 큰 이이기 바라는지. 47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들의 마음의 의견을 아시고 있으면서²¹⁴⁾. 그분이 아이를 붙잡으신 후 그를 그자신 옆에 세우셨으며 48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장차 이 아이를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영접할 것이면, 그는 나를 영접한다. 그리고 만약 장차 나를 영접할 것이면, 그는 나를 보내셨던 분을 영접한다. 왜냐하면 너희 모든 이들 안에서 더 작은이로 존재하고 있는 이이가 큰이이기 때문이다.”

49 그런데 요안네스가 대답한 후 말했다. “주권자시여, 어떤 이가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을 내쫓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으며 그를 막고 있었습니까²¹⁵⁾, 그가 우리와 함께 따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0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막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를²¹⁶⁾ 반대하지 않는 이, 그이는 너희를²¹⁷⁾ 위하기 때문이다.”

51 그런데 그분의 올려취함의 날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예루살렘 안으로 가시고 있기 위한 것의 얼굴을 견고하게 하셨다.²¹⁸⁾ 52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얼굴 앞으로 사자(使者)들을 파송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간 후 그분에게 준비할 때에 사마리테스들의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53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분의 얼굴이 예루살렘 안으로 가고 있으면서 있었기 때문이다. 54 그런데²¹⁹⁾제자들이 본 후에 야코보스와 요안네스가 말했다. “주님,

220)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도록 그리고 그들을 소멸시키도록’ 저희가 말하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55 그런데 그분이 돌이키신 후 그들에게 훈계하셨다.²²¹⁾ 56 그리고 그들은 딴 마을 안으로 갔다.

57 그리고 그들이 길 안에서 가고 있을 때 어떤 이가 그분을 향하여 말했다. “만약 장차 당신이 떠나가시고 있을 곳이라면 저는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58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들을 갖고 있으며 하늘의 새들도 장막들을 갖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울일 곳을 갖고 있지 않다.” 59 그런데 그분이 딴 이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그런데 그가 말했다. “주님,²²²⁾ 제가 먼저 저의 아버지를 매장하려고 떠나가도록 당신은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60 그런데

214) ‘보신 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15) 진행이나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형 대신에 과거형 ‘막았습니까’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16) ‘우리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17) ‘우리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18) 실제적인 의미는 ‘굳게 결심하셨다.’이다.

219) ‘그분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20) ‘엘리아스도 행했던 것처럼’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21) 이어서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어떤 종류의 영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풀어보내려고(살해하려고) 오지 않았고 오히려 구원하려고 왔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22) “주님,”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죽은 이들이 그자신들의 죽은 이들을 매장하도록 내버려두라, 그런데 너는 간 후 하나님의 왕국을 널리 전하고 있어라.” 61 그런데 판 이도 말했다. “제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먼저 저의 집 안으로 있는 이들과 헤어지도록 당신은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62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를 향하여²²³⁾ 말씀하셨다. “쟁기 위에 손을 내민 후 뒤의 것들 안으로 보고 있을 때는 아무도 하나님 왕국에 알맞지 않다.”

10 그런데 이일들 후에 주님이 판 칠십이²²⁴⁾ 명을 임명하셨으며 그분이 가시고 있으려고 하시고 있었던 모든 성읍과 자리 안으로 그분의 얼굴 앞에 그들을 두 명씩 두 명씩²²⁵⁾ 파송하셨다. 2 그런데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한편 추수할 것은 많다, 또 한편 일꾼들은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인에게 그의 추수 안으로 일꾼들을 내보내시기를 간구하라. 3 너희는 떠나고 있어라. 보라! 내가 너희를 늑대들 가운데 있는 작은 양들처럼 파송한다. 4 너희는 돈주머니를 짊어지지 말고 있어라, 여행용 자루도, 신발들도, 그리고 길에 의하여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5 그런데 만약 장차 너희가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이면, 너희는 먼저 말하고 있어라. ‘이 집에 평화가.’ 6 그리고 만약 장차 거기에 평화의 아들이 있을 것이면, 너희의 평화가 그것 위에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 위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7 그런데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있으면서 그리고 마시고 있으면서 그 집 안에 머물고 있어라. 왜냐하면 일꾼은 그의 대가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떤 집 밖에서 어떤 집 안으로 옮겨가지 말고 있어라. 8 그리고 만약 장차 너희가 어떤 성읍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이며 그것이 너희를 영접하고 있을 것이면, 너희는 너희에게 내놓이고 있는 것들을 먹고 있어라 9 그리고 너희는 그것 안에 있는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위에 가까이 온 채 있다.’ 10 그런데 만약 장차 너희가 어떤 성읍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것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있을 것이면, 너희는 그것의 넓은 길들 안으로 간 후 말하라. 11 ‘너희의 성읍 밖에서 밭들 안으로 우리에게 붙여진 먼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닦아낸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채 있다는 이것을 너희는 알고 있어라.’ 12 나는 너희에게 저 날들 안에서 더 견디는 것이 저 성읍에게보다 소도마들에게²²⁶⁾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13 너에게 화로다, 코라진아, 너에게 화가 있도다, 베트사이다야.²²⁷⁾ 만약 너희 안에서 있게 되었던 권능들이 튀로스²²⁸⁾ 시돈²²⁹⁾ 안에서 있게 되었다면, 그것들은 벌써 굶은 베옷과 재 안에 앉아 있으면서 회심했

223) “그를 향하여”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24) 72명인지, 70명인지는 권위 있는 사본들에도 서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25) “두 명씩”이 한 번만 기록된 사본들도 많다. 어떤 것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26) 히브리어 ‘세돔’의 헬라어 음역. 복수형.

227) 아랍어 ‘베트차이다’의 헬라어 음역으로 ‘물고기의 집’이다.

228) 히브리어 ‘초르’(돌, 반석)의 헬라어 번역이다.

229) 히브리어 ‘치돈’(사냥하다)의 헬라어 음역이다.

을 것이기²³⁰) 때문이다. 14 덧붙여서 심판 안에서 더 견디는 것이 너희에게보다 튀로스
와 시돈에게 있을 것이다. 15 그리고 너, 카팔나움아,²³¹)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은 아
니지 않느냐?²³²) 네가 음부까지 내려갈 것이다.²³³) 16 너희의 말을 듣고 있는 이는 나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너희를 저버리고 있는 이는 나를 저버린다.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있는 이는 나를 파송하셨던 분을 저버린다.”

17 그런데 칠십이²³⁴) 명이 기쁨과 함께 돌이켜 왔다. 말하고 있기를, “주님, 귀신들도
당신의 이름 안에서 저희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18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타나스가²³⁵) 번개처럼 하늘 밖으로 떨어졌던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다. 19 보라! 내
가 너희에게 뱀들과 전갈들 위를 밟고 있기 위한 것의 권세를 준 채 있다, 원수의 모든
권능 위로도, 아무 것도 너희에게 결코 불의를 행하지 못할 것이다. 20 덧붙여서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것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지 말고 있으며,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들 안에 기록된 채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라.”

21 그 시간 안에서 그분이 성령 안에서²³⁶) 크게 즐거워하셨으며 말씀하셨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님이여, 당신이 이것들을 지혜로운 이들과 이해력
있는 이들로부터 감추셨으며 그것들을 어린애들에게 벗겨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
니다 아버지, 그것이 이와 같이 당신 앞에서 좋은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2 ²³⁷) 모든
것들이 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아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만약 장차 그에게 아들이 벗겨 드
러내려고 의도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는 아버지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²³⁸) 23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향하여 돌이키신 후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눈들은 복되다. 24 왜냐하면 많은 대언자들과²³⁹)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했지만 보지 못했으며,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했지만 듣지 못했다고 내
가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230) ‘μετανοεω’(메타노에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다’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
미의 ‘회심(回心)하다’로 번역했다.

231) ‘위로의 마을’

232)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네가 하늘까지 높아
질 것은 아니지 않느냐?” 대신에 ‘하늘까지 높여졌던 것이여,’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33) ‘끌어내려질 것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또한 앞 문장과 연결된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음부까지 내려갈 것이다.” 대신에 ‘하늘까지 높여졌던 너는 음부까지 끌어내려
질 것이다.’로 번역할 수도 있는 사본들도 있다.

234) 72명인지, 70명인지는 권위 있는 사본들에도 서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원본문에 있었
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35) 히브리어 ‘사탄’(대항자, 대적자)의 헬라어 음역이다.

236) ‘성령으로’ 또는 ‘영으로’ 또는 ‘영 안에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37) 이 앞에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향하여 돌이키신 후 말씀하셨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
다.

238) 22절을 기도문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단순한 진술로 볼 것인지는 독법에 따라 달라진다. 동
일한 내용의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비교하라.

239)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25 그리고 보라! 어떤 율법사가 그분을 괜히 시험하고 있으면서 일어섰다. 말하고 있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행한 후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입니까?” 26 그런데 그분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율법 안에 무엇이라고 기록된 채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27 그런데 그가 대답한 후 말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온 마음 밖으로와 너의 온 영혼 안에서와
너의 온 힘 안에서와 너의 온 정신 안에서 사랑할 것이며,
너의 이웃을 너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다.”

28 그런데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올바르게 대답했다. 너는 이것을 행하고 있어라 내가 살 것이다.” 29 그런데 그가 그자신을 의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예수스를²⁴⁰⁾ 향하여 말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30 예수스께서 가정하신 후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²⁴¹⁾ 예리코²⁴²⁾ 안으로 내려가고 있었으며 강도들에게 둘러싸여 떨어졌다, 그를 벗긴 후에도 폭행들을 엮은 후에도 반쯤 죽은 것을 내버려둔 후 떠나갔던 이들인. 31 그런데 우연에 의하여 어떤 제사장이 저 길 안에서 내려가고 있었으며 그를 본 후 반대편으로 지나갔다. 32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 류이테스도²⁴³⁾ 그곳에 의하여 있게 된 후에²⁴⁴⁾ 본 후 반대편으로 지나갔다. 33 그런데 어떤 사마리테스가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곳에 왔으며 본 후 애타게 되었다. 34 그리고 그가 나아온 후 올리브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있으면서 상처들을 싸맸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 위에 태운 후 숙박업소 안으로 그를 이끌었으며 그를 보살폈다. 35 그리고 다음날에 그가 그 숙박업자에게 두 데나리온들을²⁴⁵⁾ 내보낸 후 주었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를 보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장차 당신이 더 사용할 것이면 내가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내가 친히 당신에게 갚아줄 것입니다.’ 36 이 셋 중의 누가 강도들 안으로 떨어졌던 이의 이웃이 된 채 있다고 너에게는 생각되느냐?” 37 그런데 그가 말했다. “그와 함께 긍휼을 행했던 이입니다.”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고 있어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고 있어라.”

38 그런데 그들이 가고 있는 가운데 그분이 어떤 마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마르따라는 이름의 어떤 여인이 그분을²⁴⁶⁾ 영접하여 들였다. 39 그리고 이 여자에게 마리암으로²⁴⁷⁾ 불리고 있는 자매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의 발들을 향하여 옆에 앉은

240)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41)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이다.

242) 히브리어 ‘예리호’의 헬라어 음역이다.

243) 레위인.

244) “있게 된 후에”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45) 로마의 은화로 일 ‘데나리온’은 무게가 3.8g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246) 이어서 ‘집 안으로’ 또는 ‘그녀의 집 안으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47) ‘마리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암’(개역을 비롯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으로 번역)을 ‘마리암’으로 기록하고 있다.

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그런데 마르따는 많은 봉사 주위로 분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옆에 선 후 말했다. “주님, 저의 자매가 저 혼자 봉사하고 있도록 남겨둔 것이 당신에게는 상관없습니까?²⁴⁸⁾ 그러므로 그녀가 저에게 협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은 그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41 그런데 주님이 그녀에게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마르따야 마르따야, 너는 많은 것들 주위로 염려하고 있으며 소란스럽게 되고 있다, 42 그런데 필요한 것은 하나이다.²⁴⁹⁾ 왜냐하면 마리아는²⁵⁰⁾ 그녀의 것이²⁵¹⁾ 떼어내게 되지 않을 것인 선한 일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11 그리고 그분이 어떤 곳 안에서 기도하시고 있으면서 계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멈추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 중의 어떤 이가 그분을 향하여 말했다. “주님, 기도하고 있도록 당신은 저희를 가르쳐주십시오, 요안네스도²⁵²⁾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과 같이.” 2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하고 있을 때에 ²⁵³⁾말하고 있어라.

‘아버지,²⁵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옵소서.²⁵⁵⁾

3 하루 필요한²⁵⁶⁾ 저희의 빵을 날마다 저희에게 주시고 있으시옵소서.

4 그리고 저희의 죄들을 저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희 자신들도 저희에게 빚지고 있는²⁵⁷⁾ 모든 이에게 용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시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옵소서.²⁵⁸⁾”

5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서 누가 친구를 가질 것이며 그가 그를 향하여 한밤중에 올 것이며 그에게 말한다면. ‘친구야, 너는 나에게 세 빵들을 꾸어주어라, 6 나의 친구가 길 밖에서 나를 향하여 당도했으나 그에게 내놓을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7 그러나 저이가 안에서부터 대답한 후 말한다면. ‘너는 나에게 괴

248)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49) ‘그러나 필요한 것은 적은 것들 중에 있거나 또는 하나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0) ‘마리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1) ‘그녀로부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2) 히브리어 ‘요한’과 ‘예호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253) 베자 사본인 D사본에는 이 앞에 ‘너희는 남은 이들과 같이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많은 말 안에서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도하고 있으면서’가 덧붙여 기록되어 있다.

254)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또는 ‘우리의 아버지’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5) 이어서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6) 또는 ‘다음날을 위한’

257) 실제적인 의미는 ‘죄짓고 있는’이다.

258) 이어서 ‘오히려 저희를 악한 자(또는 악한 것)로부터 건지시옵소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로움을 제공하지 말고 있어라. 이미 문은 잠긴 채 있으며 나의 아이들은 나와 함께 잠자리 안으로 있다. 나는 일어난 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가 그의 친구인 것 때문에 일어난 후 그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도, 적어도 그의 염치없음 때문에는 일어난 후 그가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들을 그에게 줄 것이다. 9 내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구하고 있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는 찾고 있어라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너희는 두드리고 있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10 왜냐하면 구하고 있는 모든 이가 취하기 때문이며 찾고 있는 모든 이가 찾아내기 때문이며 두드리고 있는 모든 이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기²⁵⁹⁾ 때문이다. 11 그런데 너희 중에서 아버지인 누구에게 아들이 ²⁶⁰⁾물고기를 구할 것인데, 그가 물고기 대신 뱀을 그에게 건네 줄 것이냐?²⁶¹⁾ 12 혹은 그리고 그가 알을 구할 것인데, 그가 그에게 전갈을 건네줄 것이냐?²⁶²⁾ 13 그러므로 만약 지금 너희가 악한 이들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너희의 자녀들에게 선한 선물들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늘 밖으로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얼마만큼 더욱 성령을 주실 것인가!²⁶³⁾”

14 그리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있으면서 계셨는데 그것은 병어리 귀신이였다.²⁶⁴⁾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간 후 병어리가 발언했던 일이 있게 되었으며 군중들은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 15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말했다. “그는 베엘제불²⁶⁵⁾ 안에서 귀신들의 통치자로 귀신들을 내쫓고 있다.²⁶⁶⁾” 16 그런데 탄 이들은 시험하고 있으면서 하늘 밖으로 표적을 그분에게서 찾고 있었다. 17 그런데 그분이 그들의 의향들을 아시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왕국은 그자신에 대하여 여럿으로 분리된 후 황폐해지며 모든 집은 그자신에 대하여 여럿으로 분리된 후 떨어진다. 18 그런데 만약 지금 사타나스가²⁶⁷⁾ 그자신에 대하여 여럿으로 분리된다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냐? 내가 베엘제불 안에서 귀신들을 내쫓고 있다고 너희가 말하기 때문이다. 19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베엘제불 안에서 귀신들을 내쫓고 있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무엇 안에서 내쫓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20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하

259) 미래형 대신에 현재형인 ‘열리고 있기’로 기록된 사본들도 많다. 어느 것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60) ‘빵을 구할 것인데, 그에게 돌을 줄 것이냐? 혹은 그리고’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61) ‘건네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μὴ’^(때)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62) 위 각주와 같다.

263) “하늘 밖으로 계신 아버지께서는 ~ 성령을 주실 것인가!” 대신에 ‘아버지께서는 ~ 하늘 밖으로 성령을 주실 것인가!’로 기록된 사본들도 많다. 어느 것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64) “그것은 ~이었다.” 대신에 ‘~그분이 한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로 기록된 사본들도 많다. 어느 것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65) ‘베에제불’ 또는 ‘베엘제불’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베엘제불’은 히브리어 ‘제불’이나 ‘제벨’(똥)과 ‘바알’의 합성 형태로 ‘똥의 신’으로 보기도 하며, ‘베엘제불’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파리 신)에서 나온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경멸조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266) 이어서 ‘그러나 그분이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타나스가 사타나스를 내쫓고 있을 수 있느냐?’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67) 히브리어 ‘사탄’(대항자, 대적자)의 헬라어 음역이다.

나님의 손가락 안에서 귀신들을 내쫓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위에 임했다. 21 능력 있는 이가 완전무장한 채 있으면서 그자신의 마당을 간수하고 있을 때에는, 그의 있는 것들이 평화 안에 있다. 22 그런데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임한 후 그를 이긴 뒤에는, 의지한 채 있었던 그의 완전무장을 제거하며 그의 전리품들을 나눠준다. 23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이는 나에게 반대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고 있는 이는 흠트린다. 24 더러운 영이 사람으로부터 나갔을 때에는, 그것이 안식을 찾고 있으면서 그러나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물 없는 곳들을 통하여 통과하고 있다. 그때에²⁶⁸⁾ 그것이 말한다. ‘내가 나왔던 나의 집 안으로 내가 돌이킬 것이다.’ 25 그리고 그것이 간 후 그것이 ²⁶⁹⁾청소된 채 있는 것과 단장된 채 있는 것을 발견한다. 26 그때에 그것이 가며 그자신보다 더 악한 일곱 다른 영들을 옆에 취하며 들어간 후 거기에 거주한다. 그리고 저 사람의 마지막들이 첫 번째들보다 더 심하게 된다.”

27 그런데 그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가운데 군중 밖에서 어떤 여인이 소리를 위로 들어올린 후 그분에게 말했던 일이 있게 되었다. “당신을 짊어졌던 배와 당신이 젖을 먹었던 젖가슴은 복됩니다.” 28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준수하고 있는 이들이 복되다.”

29 그런데 군중들이 불어나게 되고 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그것이 표적을 구하나, ²⁷⁰⁾요나스의²⁷¹⁾ 표적이 아니라면 표적이 그것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30 왜냐하면 요나스가 니뉴이테스들에게²⁷²⁾ 표적이 되었던 것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31 남쪽의 여왕이 심판 안에서 이 세대의 남자들과 함께 일어날 것이며 그들을 유죄 선고할 것이다, 그녀가 솔로몬의²⁷³⁾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끄트머리들 밖으로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에 있다. 32 니뉴이테스 남자들이 심판 안에서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설 것이며 그것을 유죄 선고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스의 선포 안으로 회심했기²⁷⁴⁾ 때문이다, 그런데 보라! 요나스보다 더 큰이가 여기에 있다.

33 아무도 등불에 불붙인 후 움 안으로나 말(斗) 아래에도²⁷⁵⁾ 두지 않고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둔다, 들어오고 있는 이들이 빛을 보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4 몸의 등불은 너의 눈이다. 너의 눈이 멀쩡할 때에는, 너의 온 몸도 밝은 것이다. 그러나 너의 눈이 나쁜 뒤에는, 너의 몸도 어두운 것이다. 35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 것은 아닌지 너는 주시하고 있어라. 36 그러므로 만약 지금 너의 온 몸이 밝으며, 어떤 어두운 부분을

268) “그때에”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69) ‘비어 있으면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70) ‘대언자’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71) 히브리어 ‘요나’(비둘기)의 헬라어 음역이다.

272) 니느웨 사람.

273) 히브리어 ‘셀로모’(평화스러운)의 헬라어 음역이다.

274) ‘μετανοεω’(메타노에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다’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의 ‘회심(回心)하다’로 번역했다.

275) “말(斗) 아래에도”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갖고 있지 않다면, 빛이 번개로 너를 밝게 하고 있을 때처럼 전부가 밝은 것으로 있을 것이다.”

37 그런데 그분이 발언하시는 가운데 어떤 파리사이오스가²⁷⁶⁾ 그분 옆에서 식사하기 위하여 청한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가신 후 앉으셨다. 38 그런데 그분이 식사 전에 먼저 세례 받으시지 않는 것을²⁷⁷⁾ 그 파리사이오스가 본 후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 39 그런데 주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파리사이오스들은 잔과 쟁반의 바깥에서부터 있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너희의 안쪽에서부터는 탈취와 악으로 가득하다. 40 무분별한 이들이여, 바깥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드셨던 분이 안쪽에서부터 있는 것도 만드셨지 않느냐?²⁷⁸⁾ 41 덧붙여서 너희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긍휼로 주어라, 보라!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깨끗한 것들로 있다.”

42 “오히려 너희 파리사이오스들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야채에 대하여 십일조 드리며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들도 행해야 하는 중이었고 저것들도 지나치지 않아야 하는 중이었다. 43 너희 파리사이오스들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가 회당들 안에서 첫째자리와 장터들 안에서 인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44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는 분명하지 않은 무덤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위를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45 그런데 율법사들 중의 어떤 이가 대답한 후 그분에게 말한다. “선생님, 당신은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우리도 능욕합니다.” 46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사들에게도 화가 있도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들을 짐 지우나, 너희 자신들은 너희의 손가락들 중의 하나로도 그 짐들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47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가 대언자들의²⁷⁹⁾ 무덤들을 세우나, 너희의 조상들은 그들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48 그런 까닭에 너희는 증인들이며 너희의 조상들의 일들에 찬성한다, 한편 그들은 그들을 살해했고, 또 한편 너희는 ²⁸⁰⁾세우기 때문이다. 49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했다. ‘내가 그들 안으로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파송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 중에서 살해할 것이며 박해할 것이다’, 50 세상의 시초부터 흘려진 채 있는 모든 대언자들의 피가 이 세대로부터 힘써 찾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51 아벨의²⁸¹⁾ 피로부터 제단과 집 사이에서 멸망했던 자카리아스의²⁸²⁾ 피까지.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이 세대로부터 힘써 찾아질 것이다. 52 너희 율법사들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들어가고 있는 이들도

276)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277) 실제적인 의미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것을’이다.

278)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79)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280) ‘그들의 무덤들을’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81) 히브리어 ‘헤벨’의 헬라어 음역이다.

282) 히브리어 ‘제카르야’의 헬라어 음역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로, 기존 한국어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사가랴’로, 구약에서는 ‘스가랴’로 번역되었다.

너희가 막았다.”

53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이 나오신 후에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들이 심하게 양심을 품고 있기를 그리고 더 많은 것들에 관하여 그분에게 따지고 있기를 시작했다. 54 283) 그분의 입 밖에서 무엇을 덧에 걸리게 하려고 그분을 노리고 있으면서.

12 군중의 무수한 이들이 모이게 된 가운데, 따라서 서로들을 짓밟고 있을 때, 그분이 먼저 그분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가면연기²⁸⁴)인, 파리사이오스들의²⁸⁵), 발효제로부터 너희는 너희자신들에게 유의하고 있어라. 2 그런데 벗겨 드러내지지 않을 것이 완전히 덮인 채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알려지지 않을 것이 감춰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3 너희가 어둠 안에서 발언했던 만큼들에 대하여 그것이 빛 안에서 들려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귀를 향하여 골방들 안에서 말했던 것이 옥상들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4 그런데 나는 나의 친구들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몸을 살해하고 있으나 이일들 후에 더 넘치게 무엇을 행할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이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5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살해한 후에 게엔나²⁸⁶) 안으로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시고 있는 분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이분을 두려워하라. 6 다섯 참새들이 앗사리온들의²⁸⁷) 둘에 팔리고 있지 않느냐?²⁸⁸) 그러나 그것들 중의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채 있는 것은 아니다. 7 오히려 너희의 머리의 모든 머리카락들도 세어진 채 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 8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면, 사람의 아들도 그를 하나님의 사자(使者)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9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했던 이는 하나님의 사자(使者)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10 그리고 사람의 아들 안으로 어떤 말을 말할 모든 이는 그에게 용서될 것이다. 그런데 성령 안으로 신성모독 했던 이에게는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 11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지배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데리고 들어갈 때에, 너희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변론할지 또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12 왜냐하면 말해야 할 것들을 성령이 그 시간 안에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13 그런데 군중 밖에서 어떤 이가 그분에게 말했다. “선생님, 당신은 저의 형제에게 상속재산을 저와 함께 분리하도록 말씀해주십시오.” 14 그런데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283) ‘그분을 고발하기 위하여’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84) 원문은 ‘ὑποκρισις’(휘포크리시스)로 주로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지칭하며, 관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로 보기도 한다.

285)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286) ‘γεεννα’(게엔나)는 히브리어 ‘게 힌놈’(애곡의 골짜기)에서 유래했으며, 예루살렘 남동부로 뻗어 있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를 의미한다. 예레미야(7:32, 19:6)는 이 골짜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선포한다. 신약에서 ‘γεεννα’(게엔나)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하여 불타는 곳으로 최종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곳으로 나타난다.

287) 로마의 동전 화폐 중 하나이며, 일 앗사리온은 일 데나리온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288)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에 대하여 재판관 또는 분배자로 임명했느냐?” 15 그런데 그들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든 탐욕으로부터 경계하고 있으며 간수하고 있어라, 그의 생명이 무엇에 넘치고 있는 것 안에서 그에게 있는 것들 밖으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16 그런데 그들이 그들을 향하여 비유를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어떤 부유한 사람의 지역이 결실이 좋았다. 17 그리고 그가 그자신 안에서 의논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나의 열매들을 모을 곳을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8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나의 창고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더 크게 세울 것이며 거기에 모든 밀과 나의 선한 것들을 모을 것이며 19 나의 영혼에게 말할 것이다. 영혼아, 너는 많은 해(年) 안으로 많은 선한 것들이 놓여 있는 것을 갖고 있다. 너는 안식하고 있어라, 먹어라, 마셔라, 흥겨워하고 있어라.’ 20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무분별한 자야, 이 밤에 너의 영혼을 그(것)들이 너로부터 도로 구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누구에게 있을 것이냐?’ 21 그자신에게 저장하고 있으며 하나님 안으로 부유하지 않고 있는 이는 이와 같다.”

22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²⁸⁹⁾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이것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목숨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고 있어라, 몸에게도 너희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있어라. 23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24 너희는 씨 뿌리지도 않으며 저장하지도 않고 있는 까마귀들을 알아차려라, 골방도 창고도 없는 것들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만큼 더욱 귀한가! 25 그런데 너희 중에서 누가 염려하고 있으면서 그의 키에²⁹⁰⁾ 한 페퀴스를²⁹¹⁾ 더할 수 있느냐? 26 그러므로 만약 지금 너희가 가장 작은 것도 할 수 없다면, 왜 다른 남은 것들에 관하여 너희가 염려하느냐? 27 너희는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알아차려라. 그것은 수고하지도 않으며 실을 뽑아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이²⁹²⁾ 그의 모든 영광 안에서 이것들 중의 하나처럼도 자기를 위하여 두르지 못했다. 28 그런데 만약 지금 오늘 있으며 다음날 아궁이 안으로 던져지고 있는 들 안에 있는 풀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돌려 입히시고 있다면, 너희를 얼마만큼 더욱 돌려 입히시겠는가, 믿음작은이들아! 29 너희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구하지 말고 있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30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이방인들이 애써 찾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신다. 31 덧붙여서 너희는 그들의²⁹³⁾ 왕국을 찾고 있어라, 이것들이²⁹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32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작은 양

289) “그분의”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90) 또는 ‘나이, 수명’

291)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히브리어 ‘암마’의 헬라어 번역이며, 기존 한국어 성경에서 ‘규빗’으로 번역되었다.

292) 히브리어 ‘셀로모’(평화스러운)의 헬라어 음역이다.

293) ‘하나님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94) ‘이 모든 것들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때여,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너희의 아버지께서 좋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33 너희는 너희의 있는 것들을 팔아라 그리고 금화를 주어라. 너희는 너희자신들에게 남아 있지 않고 있는 돈주머니들을 만들어라, 하늘들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저장물을, 도둑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며 썩이 망하게 하지도 못하는 곳. 34 왜냐하면 너희의 저장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5 “너희의 허리들이 둘러 띠워진 채 있으며 등불들은 불붙여져 있게 하라. 36 너희는 그자신들의 주인이 결혼잔치들 밖에서 언제 원래대로 돌아올지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 그가 온 후에 두드린 후 곧 그들이 그에게 열어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37 저 종들은 복되다, 그 주인이 온 후 그들이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이들인. 아멘 나는 너희에게 그가 둘러 띤 것이며 그들을 앗힐 것이며 옆에 온 후 그들에게 봉사할 것이라고 말한다. 38 그리고 만약 장차 그가 둘째나 셋째 1/4야간경비시간²⁹⁵⁾ 안에서 올 것이라면 그리고 이와 같이 발견할 것이면, 저 이들은 복된 이들이다. 39 그런데 만약 도둑이 어떠한 시간에 오는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는 ²⁹⁶⁾그의 집이 뚫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40 너희도 준비하는 이들이 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기 때문이다.”

41 그런데 페트로스가 말했다. “주님, 저희를 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또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까?” 42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누가 믿을만하고 슬기로운 관리인이냐, 정해진 양의 곡식을 시점 안에서 주고 있으려고 그의 봉사에 대하여 주인이 맡길 것인가? 43 저 종은 복되다, 그의 주인이 온 후 그가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이인. 44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그가 그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한다. 45 그런데 만약 장차 저 종이 그의 마음 안에 말할 것이면, ‘나의 주인이 오고 있는 것을 지체하고 있다’, 그리고 종들과 여종들을 치고 있기를, 그러면서 먹고 있으며 마시고 있으며 술 취하게 되고 있기를 시작할 것이면, 46 그가 고대하지 않고 있는 날 안에 그리고 알지 못하고 있는 시간 안에 저 종의 주인이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를 두 동강 낼 것이며 그것의 부분을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둘 것이다. 47 그런데 그의 주인의 뜻을 알았으나 준비하지 않았으며 또는 그의 뜻을 향하여 행하지 않았던 저 종은 많은 것들로 매질당할 것이다. 48 그런데 알지 못했던 이, 그리고 폭행들에 합당하게 행했던 이는 적은 것들로 매질당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것이 주어졌던 모든 이, 그에게서 많은 것이 찾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것을 위탁했던 이에게서, 더 많은 것을 그들이 그에게 구할 것이다.”

49 “나는 땅 위에 불을 던지려고 왔다, 그리고 만약 이미 그것이 불붙여졌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50 그런데 나는 세례 받으려는 세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쳐지기까지 나는 어떻게나 억압당하고 있는지! 51 너희는 내가 땅 안에서 평화를 주려고

295) 당시 로마의 관습에 따라 하룻밤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세 시간씩 4등분하여 교대로 경비하던 시간. 따라서 본문의 시점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이다.

296) ‘정신 차렸을 것이며’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이르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오히려 여러 분리를 주기 위함이다. 52 왜냐하면 지금부터 다섯이 한 집 안에서 여럿으로 분리된 채 있으면서 있을 것이고, 셋이 둘로 인하여 그리고 둘이 셋으로 인하여, 53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어머니가 딸에 대하여 그리고 딸이 어머니에 대하여, 시어머니가 그녀의 며느리에 대하여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하여 여럿으로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54 그런데 그분이 군중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있었다. “구름이 서쪽들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는, 곧 너희는 폭풍우가 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와 같이 된다. 55 그리고 남풍이 불고 있을 때에는, 너희는 열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56 가면연기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얼굴을 검증하고 있을 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어떻게 너희는 검증하고 있을 줄 알지 못하고 있느냐?²⁹⁷⁾ 57 그리고 왜 너희는 너희자신들로부터도 의를 판단하지 않느냐? 58 왜냐하면 네가 너의 고소자와 함께 통치자에게 떠나고 있을 때, 길 안에서 너는 그로부터 벗어나게 되려고 소독을 주어라, 혹시 그가 너를 재판관을 향하여 강제로 끌어가고 있을까 함이기 때문이다, 재판관은 너를 집행자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 집행자는 너를 감옥 안으로 던질 것이다. 59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뿔돈을²⁹⁸⁾ 갚아주기까지는.”

13 그런데 그 시점 안에서 어떤 이들이 필라토스가 그들의 제물과 함께 피를 섞었던 갈릴라이오스들에²⁹⁹⁾ 관하여 그분에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옆에 있었다. 2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라이오스들이 모든 갈릴라이오스들보다 죄인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이일들로 고난당한 채 있기 때문에? 3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오히려 만약 장차 너희 모든 이가 회심하고³⁰⁰⁾ 있지 않을 것이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멸망할 것이다. 4 또는 망대가 실로암³⁰¹⁾ 안에서 그들 위에 떨어졌으며 그들을 살해했던 저 열여덟이, 그들이 예루살렘에³⁰²⁾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빛진 자들이³⁰³⁾ 되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5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오히려 만약 장차 너희 모든 이가 회심하지 않고 있을 것이면 너희도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297) “검증하고 있을 줄 알지 못하고 있느냐?” 대신에 ‘검증하지 못하고 있느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98) 일 ‘뿔돈’은 1/2 ‘코드란테스’에 해당하며, 1/8 ‘앗사리온’에 해당하기도 한다. 현재 가치로 대략 500원 정도의 금액이다.

299)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 복수형

300) ‘μετανοεω’(메타노에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다’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의 ‘회심(回心)하다’로 번역했다.

301) 히브리어 ‘실로아흐’의 헬라어 음역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302)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이다.

303) 원문은 ‘οφειλετης’(오페일레테스)로 ‘οφειλω’(오페일로) ‘빚지다’에서 유래했으며 원래 뜻은 ‘빚진 자’인데, 여기서 그 실제적인 의미는 ‘죄지은 자’이다.

6 그런데 그분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었다. “어떤 이가 그의 포도원 안에 심겨진 채 있는 무화과나무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것 안에서 열매를 찾고 있으면서 왔으나 찾아내지 못했다. 7 그런데 그가 포도원지기를 향하여 말했다. ‘보라! 내가 이 무화과나무 안에서 열매를 찾고 있으면서 왔으나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부터 삼 년째이다. 그러므로³⁰⁴⁾ 너는 그것을 쳐내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만 쓸모없게 하고 있느냐?’ 8 그런데 그가 대답한 후 그에게 말한다. ‘주인님, 당신은 이 해(年)에도 그것을 내버려두십시오, 제가 그것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는 동안까지, 9 그러면 한편 그것은 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으로 열매를 만들 것입니다.³⁰⁵⁾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쳐낼 것입니다.³⁰⁶⁾”

10 그런데 그분이 안식일들 안에 회당들 중의 하나 안에서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계셨다. 11 그리고 보라! 어떤 여인이 병약함의 영을 열여덟 해 동안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완전히 구부러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절대적인 것 안으로 펴 수 없게 된 채 있으면서 있었다. 12 그런데 예수스께서³⁰⁷⁾ 그녀를 보신 후 불러내셨으며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너는 너의 병약함에서 풀어보내진 채 있다”, 13 그리고 그분이 그녀에게 손들을 얹으셨다. 그리고 즉시 그녀가 똑바로 일어서 세워졌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14 그런데 회당장이 대답한 후, 예수스께서 안식일에 치료하셨기 때문에 분개하고 있으면서, 일하고 있어야 하는 날들 안에 여섯 날들이 있다고 군중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들 안에서 오고 있으면서 치료 받고 있어라 그러나 안식의 날 안에서는 치료 받지 마라.” 15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으며 말씀하셨다. “가면연기자들아,³⁰⁸⁾ 너희 각자가 안식일에 그의 소 또는 나귀를 구유로부터 풀며 이끌어간 후 마시게 하지 않느냐?³⁰⁹⁾ 16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사타나스가³¹⁰⁾ 보라! 열여덟 해를 묶었던 여자인, 안식의 날에 이 묶임으로부터 풀려지고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³¹¹⁾ 17 그리고 그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있을 때 그분에게 대항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부끄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군중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었다.

18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 것이며 나는 그것을 무엇과 같다고 할 것인가? 19 그것은 겨자의 낱알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취한 후 그자신의 동산 안으로 던졌던 것인, 그리고 그것이 자랐으며 ³¹²⁾나무 안으로 되었다, 그리고

304) “그러므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05) 실제적인 의미는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것입니다.’이다.

306) 헬라어에서 미래형은 명령의 의미가 있다.

307) 히브리어 ‘에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08) 원문은 ‘υποκριτης’(히포크리데스)로 주로 연극에서 가면 쓴 배우를 지칭하며, 관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로 보기도 한다.

309)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10) 히브리어 ‘사탄’(대항자, 대적자)의 헬라어 음역이다.

311)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12) ‘큰’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하늘의 새들이 그것의 가지들 안에 장막을 쳤다.’”

20 그리고 그분이 또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과 같다고 할 것인가?
21 그것은 발효제와 같은 것이다, 여인이 그것을 취한 후 전부가 발효될 때까지 밀가루의
세 사튼들³¹³⁾ 안으로 감췄던 것인.”

22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히에로솔뤼마³¹⁴⁾ 안으로 가는 것을 행
하시고 있으면서 성읍들과 마을들마다 통과하여 가시고 있었다. 23 그런데 어떤 이가 그
분에게 말했다. “주님, 만약 지금 구원받고 있는 이들이 적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들
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24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려고 싸우고 있어라, 나는 너
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찾을 것이나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5
만약 장차 집주인이 일어날 것이며 문을 닫아버릴 것이면 너희가 바깥에 선 채 있으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기 시작할지라도, 말하고 있기를, ‘주님, 당신은 저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가 너희에게 대답한 후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너희를 알지 못
한다.’ 26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당신의 눈앞에서 먹었으며 마셨
으며 당신은 저희의 넓은 길들 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7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너희를³¹⁵⁾ 알지 못한다.

불의의 모든 일꾼들 너희는 나로부터 떨어져 서있어라.’

28 거기에 울부짖음과 이빨들의 값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을³¹⁶⁾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볼 때에는, 그리고 너희가 바깥에 내쫓기고 있
는 것을 볼 때에는. 29 그리고 그들은 동쪽들과 서쪽들과 북쪽과 남쪽으로부터 다다를 것
이며 하나님의 왕국 안에 얹혀지게 될 것이다. 30 그리고 보라! 첫째 이들이 될 마지막
이들이 있으며 마지막 이들이 될 첫째 이들이 있다.”

31 그 시간 안에서 어떤 파리사이오스들이³¹⁷⁾ 그분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나아왔다.
“당신은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고 있으십시오, 헤로데스가³¹⁸⁾ 당신을 살해하
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간 후에
이 여우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오늘과 다음날에는 귀신들을 내쫓으며 낮게 함을 파송하
고 셋째 날에는 완전해진다. 33 덧붙여서 오늘과 다음날과 갖고 있는 날에³¹⁹⁾ 나는 가고
있어야 한다. 대언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멸망하는 것은 영접하여 들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살해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향하여 파송
받은 채 있는 이들을 돌로 치고 있는 것이여, 암탉이 그자신의 병아리를 날개들 아래 모

313) 히브리어 ‘사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부피단위인데, 1‘사튼’은 약 0.7말(斗) 정도이다.

314)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315) “너희를”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16)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317)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318) 이 헤로데스는 예수님 출생 당시의 왕이었던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헤로데스의
아들이다.

319) ‘오고 있는 날에’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은 모습으로 나는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기를 원했는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35 보라! 너희의 집이 320)내버려진다. 그런데321)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말했을 때가 다다를322) 때까지 너희는 나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고 있는 이가 칭송받으신 채 있을 때.’”

14 그리고 그분이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려고 파리사이오스들의323) 통치자들 중의 누구의 집 안으로 들어가신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분을 관찰하고 있으면서 있었다. 2 그리고 보라! 붓는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그분 앞에 있었다. 3 그리고 예수스께서324) 대답하신 후 율법사들과 파리사이오스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또는 아니냐?” 4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그를 붙잡으신 후 낮게 하셨으며 풀어보내셨다. 5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희 중의 누구의 아들이325) 또는 소가 우물 안으로 빠질 것인데, 곧 그가 안식의 날 안에서라도 그를 당겨 올릴 것이 아니냐?”326) 6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을 향하여 답변하기 위한 능력이 없었다.

7 그런데 그분이 부름 받은 채 있는 이들을 향하여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상석들을 선택하고 있었는지를 주목하시고 있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8 “네가 어떤 이로 말미암아 결혼잔치 안으로 부름 받을 때에는, 너는 상석 안으로 앉혀지지 마라, 너보다 영예로운 이 또는 부름 받은 이가 그로 말미암아 부름 받았을 까 함이다, 9 그리고 너와 그를 불렀던 이가 온 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이이에게 자리를 주어라’, 그리고 그때에 너는 부끄러움과 함께 마지막 자리를 단단히 갖고 있기 시작할 것이다. 10 오히려 네가 부름 받을 때에는, 너는 간 후 마지막 자리 안으로 앉아라, 너를 부른 채 있는 이가 올 때 너에게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친구여, 당신은 더 높이 위로 올라오라.’ 그때에 너와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이들의 눈앞에서 너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11 그자신을 높이고 있는 모든 이는 낮춰지게 될 것이며, 그자신을 낮추고 있는 이는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12 그런데 그분이 그분을 부른 채 있는 이에게도 말씀하시고 있었다. “네가 점심잔치 또는 저녁잔치를 행하고 있을 때에는, 너는 너의 친구들이나 너의 형제들이나 너의 친족들이나 부유한 친지들을 부르지 말고 있어라, 그들도 너를 도로 부르며 너에게 되갚음이 될까 함이다. 13 오히려 네가 연회를 행하고 있을 때에는, 너는 가난한 이들을, 절름발이들을, 앓은뱅이들을, 소경들을 부르고 있어라. 14 네가 복된 이로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

320) ‘황폐한 것으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21) “그런데”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22) “때가 다다를”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23)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324)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25) ‘나귀가’ 또는 ‘양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26)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에게 되갚아줄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활 안에서 그것이 너에게 되갚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15 그런데 함께 앉아 있는 이들 중의 어떤 이가 이것들을 들은 후 그분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빵을 먹을 어느 누구는 복됩니다.” 16 그런데 그분이 그에게 말씀 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저녁잔치를 행하고 있었으며, 많은 이들을 불렀으며 17 부름 받은 채 있는 이들에게 말하도록 저녁잔치의 시간에 그의 종을 파송했다. ‘당신들은 오십시오, 이미 준비한 것들이 있기³²⁷⁾ 때문입니다.’ 18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부터³²⁸⁾ 사양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첫째 이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간 후 그것을 보기 위한 필연을 나는 갖고 있다. 내가 너에게 청한다, 너는 내가 사양하게 된 채 있는 것을 갖고 있어라.’³²⁹⁾ 19 탄 이도 말했다. ‘내가 소들의 다섯 쌍을 샀는데 나는 그것들을 검증하려고 간다. 내가 너에게 청한다, 너는 내가 사양하게 된 채 있는 것을 갖고 있어라.’³³⁰⁾ 20 탄 이도 말했다. ‘내가 아내와 결혼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없다.’ 21 그리고 그 종이 당도한 후 그의 주인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었다. 그때에 집주인이 화낸 후 그의 종에게 말했다. ‘너는 급히 성읍의 넓은 길들과 거리들 안으로 나가라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절름발이들과 소경들과 앓은뱅이들을 여기로 이끌어 들여라.’ 22 그리고 그 종이 말했다. ‘주인님, 당신이 지시하셨던 것이 있게 된 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23 그리고 주인이 그 종을 향하여 말했다. ‘너는 길들과 울타리들 안으로 가라 그리고 들어오도록 강권하라, 나의 집이 가득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4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부름 받은 채 있는 저 남자들 중에서 아무도 나의 저녁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25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그분에게 함께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돌이키신 후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26 “만약 지금 어떤 이가 나를 향하여 오고 있다면 그리고 그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누이들과 또한 여전히 그자신의 목숨도 미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되고 있을 수 없다. 27 그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의 뒤로 오고 있는 어느 누구는, 그는 나의 제자가 되고 있을 수 없다. 28 왜냐하면 너희 중에서 누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을 때 먼저 앓은 후 비용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느냐,³³¹⁾ 완공 안으로 갖고 있을지? 29 그가 기초를 둔 후 완전히 끝마치기 위한 능력이 없을 때는 알아보고 있는 모든 이들이 30 이 사람이 세우고 있기를 시작했으나 끝마쳐내기 위한 능력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조롱하고 있기를 그에게 시작할까 하여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³³²⁾ 31 또는 어느 왕이 전쟁

327) ‘모든 것들이 준비한 것들이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28)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같이’이다.

329) 실제적인 의미는 ‘너는 나를 양해하고 있어라.’이다.

330) 실제적인 의미는 ‘너는 나를 양해하고 있어라.’이다.

331)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32) “조롱하고 있기를 그에게 시작하지 않을까 하여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가 원문에는 29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30절로 돌렸다.

안으로 교전하려고 탄 왕에게 가고 있을 때는 이만 명과 함께 그에게 오고 있는 이를 일만 명 안에서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먼저 앉은 후 논의하고 있지 않느냐?³³³) 32 그렇지 않으면,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 그는 사신을 파송한 후 평화를 향한 것들을 청한다. 33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과 헤어지지 않는 모든 이는 나의 제자가 되고 있을 수 없다. 34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약 장차 그 소금도 맛을 잃게 될 것이면, 그것은 무엇 안에서 맛나게 될 것이냐? 35 그것은 땅 안으로도 거름 안으로도 알맞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바깥에 던진다. 듣고 있기 위한 귀들을 갖고 있는 이는 듣고 있어라.”

15 그런데 모든 세금징수자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있으려고 그분에게 가까이 오고 있으면서 있었다. 2 그리고 파리사이오스들과³³⁴) 서기관들은 이이가 죄인들을 영접하여 들이며 그들과 함께 먹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심하게 불평하고 있었다.

3 그런데 그분이 이 비유를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4 “너희 중에서 어느 사람이 일백 양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들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후에는 아흔아홉을 광야 안에 남겨두며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잃어버린 채 있는 것에 대하여 가고 있지 않느냐?³³⁵) 5 그리고 그가 찾아낸 후에 기뻐하고 있으면서 그의 어깨들 위에 얹으며 6 그가 집 안으로 간 후 그가 친구들과 친지들을 불러 모은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기를, ‘당신들은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채 있는 나의 양을 찾아내었기 때문입니다.’ 7 이와 같이 회심의³³⁶) 필요를 갖고 있지 않는 의로운 아흔아홉에 대하여보다 회심하고 있는 한 명 죄인으로 인하여 기쁨이 하늘 안에서 있을 것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8 “또는 어느 여인이 열 드라크메들을³³⁷) 갖고 있으면서 만약 장차 드라크메 하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면, 찾아낼 때까지 등불에 불붙이며 집을 청소하며 주의하여 찾고 있지 않느냐?³³⁸) 9 그리고 찾아낸 후에 그녀가 친구들과 친지들을 불러 모은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들은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메를 내가 찾아내었기 때문입니다.’ 10 이와 같이,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회심하고 있는 한 명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자(使者)들의 눈앞에 기쁨이 있게 된다.”

11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들을 갖고 있었다. 12 그리고 그들 중의 더 젊은 이가 그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불리시고 있는 소유의 부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자산을 그들에게 분배했다. 13 그리고 많지 않은 날들 후에 더

333)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34)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335)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36) ‘μετανοια’(메타노이아)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는 것’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는 의미의 ‘회심(回心)’으로 번역했다.

337) 일 ‘드라크메’는 로마의 일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338)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어린 아들이 모든 것들을 모은 후 먼 지역 안으로 여행 떠났으며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의 소유를 흠어버렸다. 14 그런데 그가 모든 것들을 사용했을 때 저 지역마다 강한 기근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부족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15 그리고 그가 간 후 저 지역의 성읍백성들 중의 한 명에게 붙여졌으며, 돼지들을 기르고 있도록 그가 그의 들판들 안으로 그를 보냈다, 16 그리고 돼지들이 먹고 있었던 쥐엄 열매들 중에서 그가 배부르게 되기를³³⁹⁾ 갈망하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고 있었다. 17 그런데 그가 그자신 안으로 간 후³⁴⁰⁾ 말하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의 품꾼들은 얼마만큼이나 빵들로 넘치게 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기근으로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있다. 18 나는 일어난 후 나의 아버지를 향하여 갈 것이며 그분에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제가 하늘 안으로와 당신의 눈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19 더 이상 당신의 아들로 불리기에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품꾼들 중의 한 명처럼 저를 만들어주십시오.’ 20 그리고 그가 일어난 후 그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 갔다. 그런데 아직 그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으며 애타게 되었으며 달려간 후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에게 열렬히 입 맞추었다. 21 그런데 그 아들이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 안으로와 당신의 눈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아들로 불리기에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³⁴¹⁾ 22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의 종들을 향하여 말했다. ‘너희는 빨리 첫 번째³⁴²⁾ 긴 겹옷을 내어오며 그에게 입혀라, 그리고 반지를 그의 손가락 안으로 그리고 신발들을 발들 안으로 주어라, 23 그리고 너희는 살진 송아지를 가져오라, 도축하라, 우리가 먹은 후 흥겨워하자, 24 이 나의 아들은 죽은 자였으나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린 채 있었으나 찾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흥겨워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25 그런데 더 나이 많은 그의 아들은 들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오고 있으면서 집에 가까이 왔고, 음악과 노래들을 들었다, 26 그리고 그가 종들 중의 한 명을 부른 후 이것들이 무엇인가 하여 캐묻고 있었다. 27 그런데 그가 그에게 당신의 형제가 다다르고 있으며, 그가 건강하게 있는 것을 도로 취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도축했다고 말했다. 28 그런데 그가 화내었으며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나온 후 그에게 권면하고 있었다. 29 그런데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한 후 말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해(年)를 저는 당신에게 종이 되고 있으며 당신의 계명을 결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의 친구들과 함께 흥겨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께서는 저에게 새끼염소라도 결코 주시지 않았습니다. 30 그런데 당신의 자산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치운 이 당신의 아들이 왔을 때, 당신께서는 살진 송아지를 그에게 도축하셨습니다.’ 31 그런데 그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은 너의 것들이다. 32 그런데 흥겨워하고 있어야 하며 즐거워하고 있어야 한다, 이 너의 형제는 죽은 자였으나

339) ‘그의 배를 가득하게 하기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40) 실제적인 의미는 아마도 ‘정신 차린 후’일 것 같다.

341) 이어서 ‘당신은 당신의 품꾼들 중의 하나처럼 저를 만드십시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42) 실제적인 의미는 ‘가장 좋은’이다.

살아났으며, 잃어버린 채 있었으나 찾아졌기 때문이다.”

16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관리인을 갖고 있었던 부유한 이로 있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이 그의 있는 것들을 흠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비방 당하게 되었다. 2 그리고 그가 그를 부른 후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 관하여 듣고 있으니 이일이 무슨 일이나? 너는 너의 관리업무의 일을 갚아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관리업무를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그런데 그 관리인이 그자신 안에서 말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주인이 나로부터 관리업무를 떼어내기 때문이다? 땅을 파고 있자니 능력이 없고, 구걸하고 있자니 부끄럽다. 4 내가 무엇을 행할지 알았다, 내가 관리업무 밖으로 옮겨 놓일 때 그들이 나를 그들의 집들 안으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5 그리고 그가 그자신의 주인의 빛진 자들 중에서 각각 한 명씩 부른 후 그 첫째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나의 주인에게 얼마만큼 빚지고 있습니까?’ 6 그런데 그가 말했다. ‘올리브기름의 일백 바토스들³⁴³⁾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문서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앉은 후 급히 오십으로 기록하십시오.’ 7 그다음에 그가 탄 이에게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얼마만큼 빚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했다. ‘밀의 일백 코로스들³⁴⁴⁾입니다.’ 그가 그에게 말한다. ‘당신은 당신의 문서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팔십으로 기록하십시오.’ 8 그리고 그 주인은 그 불의의 관리인을 그가 슬기롭게 행했다고 찬송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그자신들의 세대 안으로는 빛의 아들들 이상으로 더 슬기로운 이들이기 때문이다. 9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자신들에게 불의의 재물³⁴⁵⁾ 밖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것이 사라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들 안으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0 가장 작은 것 안에서 믿을만한 이가 많은 것 안에서도 믿을만한 이이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 안에서 불의한 이가 많은 것 안에서도 불의한 이이다. 11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불의한 재물 안에서 믿을만한 이들이 되지 않았다면, 참된 것을 누가 너희에게 믿고 맡길 것이냐? 12 그리고 만약 너희가 남의 것 안에서 믿을만한 이들이 되지 않았다면, 너희의 것을³⁴⁶⁾ 누가 너희에게 줄 것이냐? 13 집안 하인이 두 주인에게 종이 되고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혹시 그가 한쪽을 미워할 것이고 탄 쪽을 사랑할 것이며, 혹시 한쪽을 꼭 붙잡을 것이고 탄 쪽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종이 되고 재물에게도 종이 되고 있을 수 없다.”

14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이들로 존재하고 있는 파리사이오스들은³⁴⁷⁾ 이 모든 것들을

343) 히브리어 ‘바트’의 헬라어 음역으로 액체의 부피 단위인데, 약 22리터 정도로 본다. 1바트는 10에 파와 같다.

344) 히브리어 ‘코르’의 헬라어 음역으로 곡물의 부피 단위인데, 에스겔 45장 14절에 의하면 1코르는 1호멜과 같으며 10바트이기 때문에 약 220리터 정도 된다.

345) 원문은 ‘μαμωνας’(마모나스)로 아람어 ‘맘몬’에서 유래한 헬라어 음역이다.

346) ‘우리의 것을’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47)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듣고 있었으며 그분을 경멸하고 있었다. 15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자신들을 사람들의 눈앞에서 의롭게 하고 있는 이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들을 아신다. 사람들 안에서 높은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16 율법과 대언자들은³⁴⁸⁾ 요안네스³⁴⁹⁾까지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모든 이가 그것³⁵⁰⁾ 안으로 스스로를 위하여 힘을 쓰고 있다.³⁵¹⁾ 17 그런데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운 것이다. 18 그의 아내를 풀어보내고 있으며 탄 여자와 결혼하고 있는 모든 이는 간음하고 있으며, 남편으로부터 풀어보내진 채 있는 여자와 결혼하고 있는 이도 간음하고 있다.”

19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유한 이로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흥겨워하고 있으면서 자주색옷과 고급 삼베를 입고 있었다. 20 그런데 라자로스라는³⁵²⁾ 이름으로 어떤 가난한 이가 종기가 나게 된 채 있으면서 21 그리고 그 부유한 이의 식탁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³⁵³⁾것들로부터 배부르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으면서 그가 그의 대문을 향하여 던져진 채 있었다.³⁵⁴⁾ 오히려 들개들도 오고 있으면서 그의 종기들을 핥고 있었다. 22 그런데 그 가난한 이가 죽으며 천사들로 말미암아 아브라암의 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이도 죽었으며 매장당했다. 23 그리고 음부 안에서 그가 그의 눈들을 위로 들어올린 후, 고통들 안에서 존재하고 있으면서, 멀리서부터 아브라암과 그의 품들 안에 있는 라자로스를 본다. 24 그리고 그가 부르짖은 후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암이여, 당신은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의 손가락 끝부분을 물로 적시고 저의 혀를 차갑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은 라자로스를 보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안에서 괴롭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 그런데 아브라암이 말했다. ‘아들아, 네가 너의 생명 안에서 너의 선한 것들을 취했으며, 라자로스도 마찬가지로 나쁜 것들을 취했던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받고 있으며, 너는 괴롭게 되고 있다. 26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견고하게 된 채 있다, 여기에서 너희를 향하여 건너가기를 원하고 있는 이들이 하고 있을 수 없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여 건너오지 못하고 있게도 하기 위함이다.’ 27 그런데 그가 말했다.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청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그를 저의 아버지의 집 안으로 보내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8 왜냐하면 제가 다섯 형제들을 갖고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확증하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도 고통의 이 곳 안으로 오지 않도

348)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349) 히브리어 ‘요한난’과 ‘예호한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350)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킨다.

351) “힘을 쓰고 있다.”의 실제적인 의미는 ‘밀려들어가고 있다.’이며, ‘스스로를 위하여 힘을 쓰고 있다.’는 ‘폭력당하고 있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

352) 누가복음 16장의 이 라자로스는 요한복음 11~12장의 라자로스와는 다른 사람이다.

353) ‘부스러기들’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54) “그의 대문을 향하여 던져진 채 있었다.”가 원문에는 20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21절로 돌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고 있었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29 그런데 아브라함이 355)말한다. ‘그들은 모우세스와³⁵⁶⁾ 대언자들을 갖고 있다.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30 그런데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암이여, 오히려 만약 장차 죽은 이들로부터 어떤 이가 그들을 향하여 갈 것이면 그들이 회심할 것입니다.³⁵⁷⁾’ 31 그런데 그가 그에게 말했다. ‘만약 지금 모우세스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면, 만약 장차 죽은 이들로부터 어떤 이가 일어설 것이라도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

17 그런데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넘어뜨리는 것들이 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덧붙여서 그것이 오는 것을 통하여 화로다. 2 만약 지금 뱀들의 돌이 그의 목 둘레에 둘러놓이며 바다 안으로 던져 놓인 채 있다면 그것이 작은 이들 중의 한 명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그에게 더 낫다. 3 너희는 너희자신들에게 유의하고 있어라. 만약 장차 너의 형제가 ³⁵⁸⁾죄지을 것이면 너는 그를 꾸짖어라, 그리고 만약 장차 그가 회심할³⁵⁹⁾ 것이면 너는 그를 용서하라. 4 그리고 만약 장차 그가 하루에 일곱 번을 네 안으로 죄지을 것이며 일곱 번을 너를 향하여 말하고 있으면서 돌이킬 것이면, ‘내가 회심한다’, 너는 그를 용서할 것이다.³⁶⁰⁾”

5 그리고 사도들이 주님에게 말했다. “당신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시오.” 6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다. “만약 지금 너희가 겨자의 낱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이 이집트무화과나무에게 말하고 있을지라도, ‘너는 뿌리째 뽑혀지며 바다 안에 심겨져라.’ 그것이 너희에게조차 순종했을 것이다. 7 그런데 너희 중에서 누가 쟁기질하고 있으며 양을 돌보고 있는 종을 갖고 있을 때, 그가 들 밖에서 들어왔을 때 그가 그에게 말할 것이냐, ‘곧 너는 옆에 온 후 앉아라’, 8 오히려 그가 그에게 말할 것이 아니냐?³⁶¹⁾ ‘너는 내가 저녁식사 하도록 준비하라 그리고 둘러 띠 후 내가 먹고 마시기까지 나에게 봉사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일들 후에 너는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다.’ 9 그가 지시되었던 것들을 행했다고 그가 그 종에게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³⁶²⁾ 10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지시되었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행했을 때에, 저희는 쓸모없는 종들이며, 저희가 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행한 채 있다고 너희는 말하고 있어라.”

355) ‘그에게’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56) 히브리어 ‘모셰’의 헬라어 음역이다.

357) ‘μετανοεω’(메타노에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다’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의 ‘회심(回心)하다’로 번역했다.

358) ‘네 안으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59) ‘μετανοεω’(메타노에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다’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의 ‘회심(回心)하다’로 번역했다.

360) 헬라어에서 미래형은 명령의 의미가 있다.

361)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62) 실제적인 의미는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이며,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이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1 그리고 예루살렘³⁶³) 안으로 가시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사마리아와³⁶⁴) 갈릴리아의³⁶⁵) 사이를 통하여 통과하시고 있었다. 12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마을 안으로 들어가시고 있을 때 열 문둥병자 남자들이 그분에게³⁶⁶) 마주쳤다, 멀리에서 서 있었던 이들인. 13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들어올렸다. 말하고 있기를, “예수³⁶⁷) 주관자이시여, 당신은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십시오.” 14 그리고 그분이 보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간 후 너희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해지게 되었다. 15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한 명이, 그가 낮게 되었던 것을 본 후, 큰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면서 돌이켰다, 16 그리고 그가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으면서 그분의 발들 옆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테스였다. 17 그런데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열 명이 깨끗해졌지 않느냐?³⁶⁸)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18 이 외국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돌이켰던 이들은 발견되지 않았느냐?” 19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난 후 가고 있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채 있다.”

20 그런데 파리사이오스들로³⁶⁹) 말미암아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지 질문하게 된 후에 그분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으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관찰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며, 21 그들이 말하지도 못할 것이다. ‘보라! 여기에 또는 저기에’, 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의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22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의 하나를 보려고 갈망하고 있을 날들이 올 것이나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23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보라! 저기에, 또는³⁷⁰) 보라! 여기에’, 너희는 나가지도 말고 뒤쫓지도 마라. 24 왜냐하면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 밖에서 하늘 아래 안으로 번쩍이고 있으면서 빛나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의 날 안에³⁷¹)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25 그런데 먼저 그는 많은 것들을 고난당해야 하며 이 세대로부터 거부당해야 한다. 26 그리고 노예의³⁷²) 날들 안에서 있게 되었던 것과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 안에서도 이와 같을 것이다. 27 그들이 먹고 있었고, 마시고 있었고, 결혼하고 있었고, 시집가게 되고 있었다, 노예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며 대홍수가 왔으며 모든 이들을 멸망시켰던 날까지. 28 룰의 날들 안에서 있게 되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들이 먹고 있었고, 마시고 있었고, 사고 있었고, 팔고 있었고, 심고 있었고, 세우고 있었다. 29 그런데 룰이 소도마들로부

363)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이다.

364) 히브리어 ‘쇼므론’의 헬라어 번역이다.

365)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366) “그분에게”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67)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68)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69)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370) “또는”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71) “그의 날 안에”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72) 히브리어 ‘노아흐’의 헬라어 음역이다.

터³⁷³) 나갔던 날에,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내렸으며 모든 이들을 멸망시켰다. 30 그 일들로 인하여 사람의 아들이 벗겨 드러내지는 날에 그 일이 있을 것이다. 31 저 날 안에 옥상 위에 있을 것이며 집 안에 물건들이 있을 것인 이인, 그는 그것들을 들어올리려고 내려가지 마라, 들 안에 있는 이도 뒤의 것들 안으로 돌이키지 마라. 32 너희는 룰의 아내를 기억하고 있어라. 33 만약 장차 획득하려고³⁷⁴) 그의 목숨을 찾을 것이면 그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며, 만약 장차 잃어버릴 것이면 그는 그것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34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밤에 두 명이 간이침대 하나위에 있을 것이고, 한 남자는 옆에 취해질 것이며 짠 이는 내버려질 것이다. 35 그것 위에 갈고 있는 여자 두 명이 있을 것이고, 한 여자는 옆에 취해질 것인데, 짠 여자는 내버려질 것이다. 36 (없음)³⁷⁵) 37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대답한 후 말한다. “어디입니까, 주님?”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몸이³⁷⁶)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도 모이게 될 것이다.”

18 그런데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하며 낙심하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을 향하여 그분이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었다, 2 말씀하시고 있기를, “어떤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떤 성읍 안에 있었다. 3 그런데 어떤 과부가 저 성읍 안에 있었으며 그를 향하여 말하고 있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당신은 저의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저를 위하여 보복해주시시오.’ 4 그러나 그는 어떤 기간에 대하여³⁷⁷) 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들 후에 그가 그자신 안에서 말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지만, 5 적어도 이 과부가 괴로움을 나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도 내가 그녀를 위하여 보복할 것이다, 그녀가 끝 안으로 오고 있으면서 나를 붙들고 늘어지지 않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6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있어라. 7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그분에게 외치고 있는 그분의 선택한 이들의 보복을 결코 행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있겠느냐? 8 나는 너희에게 그분이 신속함 안에서 그들의 보복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덧붙여서 사람의 아들이 온 후 땅 위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나 있을 것인가?”

9 그런데 자기들은 의인들이며 다른 남은 이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자신들에 대하여 확신한 채 있는 어떤 이들을 향하여도 그분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0 “사람들 두 명이 기도하려고 성전 안으로 올라갔다, 한 명은 파리사이오스이며³⁷⁸) 짠 이는 세금 징수자이다. 11 그 파리사이오스가 선 후 그자신을 향하여 이것들을 기도하고 있었다.

373) 히브리어 ‘세돔’의 헬라어 음역. 복수형.

374) ‘구원하려고’ 또는 ‘살아나게 하려고’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75) 36절이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두 명이 들 안에 있을 것이고, 한 남자는 옆에 취해질 것이며 짠 이는 내버려질 것이다.’

376) 실제적인 의미는 ‘시체’이다.

377) 실제적인 의미는 ‘얼마 동안’이다.

378)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하나님, 마치 탈취하는 이들이나, 불의한 이들이나, 간음하는 이들이나, 사람들 중의 다른 남은 이들처럼, 또는 이 세금징수자처럼도 제가 있지 않는 것을 저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12 저는 안식일에 두 번 금식하고 있으며, 제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의 모든 것들에서 십일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13 그런데 그 세금징수자는 멀리에서 선 채 있으면서 하늘 안으로 눈들도 위로 들어올리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말하고 있으면서 그의 가슴을 치고 있었다. ‘하나님, 당신은 죄인인 저에게 속죄를 베풀어주십시오.’ 14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이가 저보다 의롭게 된 채 있으면서 그의 집 안으로 내려갔다. 그 자신을 높이고 있는 모든 이는 낮아지게 될 것인데, 그 자신을 낮추고 있는 이는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15 그런데 그분이 그들을 만지시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아기들도 그분에게 데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본 후 그들을 꾸짖고 있었다. 16 그런데 예수스께서³⁷⁹⁾ 그 아기들을 부르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너희는 아이들이 나를 향하여 오고 있도록 내버려두라 그리고 그들을 막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17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아이처럼 영접하지 않을 것이면, 그는 결코 그것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8 그리고 통치자들 중의 어떤 이가 그분에게 질문했다. 말하고 있기를,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행한 후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입니까?” 19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를 선한 이로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면 아무도 선하지 않다. 20 네가 계명들을 알고 있다.

‘너는 간음하지 마라, 너는 살인하지 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너는 거짓증언하지 마라,
너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21 그런데 그가 말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저의 젊음 밖으로³⁸⁰⁾ 준수했습니다.” 22 그런데 예수스께서³⁸¹⁾ 들으신 후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하나가 너에게 모자란다.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만큼의 모든 것들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 네가 하늘들 안에서 저장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리 오라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23 그런데 그는 이것들을 들은 후 슬픔에 싸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부유한 이였기 때문이다. 24 그런데 그가 슬픔에 싸이게 된 것을³⁸²⁾ 예수스께서 보신 후 말씀하셨다. “재산들을 갖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나 어렵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지! 25 왜냐하면 낙타가³⁸³⁾ 바늘의 구멍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부유한 이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379)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80) 실제적인 의미는 ‘어려서부터’보다 ‘젊은 시절부터’일 것 같다.

381) ‘이것들을’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82) “슬픔에 싸이게 된 것을”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83) ‘낙타’를 의미하는 ‘καμηλον’(카멜론) 대신에 ‘밭줄’을 의미하는 ‘καμιλον’(카밀론)으로 기록된 소수의 후기 사본들도 있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26 그런데 들었던 이들이 말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27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에게서는 가능한 일들이다.” 28 그런데 페트로스가 말했다. “보십시오! 저희는 저희자신들의 것들을 내버려둔 후 당신을 따라왔습니다.” 29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 때문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부모들이나 자녀들이나 내버려두었던 이는 아무도 없다고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30 이 시점 안에서와 오고 있는 시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 배들로 결코 취하지 못할 이도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31 그런데 그분이 열둘을 옆에 취하신 후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³⁸⁴) 안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대언자들을³⁸⁵) 통하여 기록된 채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아들에게 끝나치게 될 것이다. 32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조롱당할 것이며 능욕당할 것이며 침 뱀음을 당할 것이며 33 그들이 그를 채찍질한 후 살해할 것이나 그는 셋째 날에 일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34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 중의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 입말씀은³⁸⁶) 그들로부터 감춰진 채 있으면서 있었으며 그들은 말해지고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35 그런데 그분이 예리코³⁸⁷) 안으로 가까이 가시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어떤 소경이 구걸하고 있으면서 길 옆에 앉아 있었다. 36 그런데 군중이 통과하고 있는 것을 그가 들은 후 이것이 무슨 일일까 하여 캐묻고 있었다. 37 그런데 나조라이오스³⁸⁸) 예수스께서 지나가시고 있다고 그들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38 그리고 그가 외쳤다. 말하고 있기를, “예수스 다윗의 자손이시여, 당신은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십시오.” 39 그리고 그가 잠잠하도록 하기 위하여 앞서 가는 이들이 그에게 꾸짖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더욱 많은 것으로 소리치고 있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당신은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십시오.” 40 그런데 예수스께서 서신 후 그가 그분을 향하여 이끌리도록 명령하셨다. 그런데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그분이 그에게 질문하셨다. 41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너는 원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가 말했다. “주님, 제가 쳐다보기 위함입니다.” 42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쳐다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채 있다.” 43 그리고 즉시 그가 쳐다보았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본 후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384)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이다.

385)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386)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387) 히브리어 ‘예리호’의 헬라어 음역이다.

388) 나자렐 출신, 혹은 나자렐 사람.

19 그리고 그분이 예리코에³⁸⁹⁾ 들어가신 후 통과하여 가시고 있었다. 2 그리고 보라! 작카이오스라는³⁹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남자가, 그는 세금징수책임자였으며 부유한 이였다. 3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가 예수스를³⁹¹⁾ 보려고 찾고 있었으나 군중으로부터 할 수 없게 되고 있었다, 그는 키가 작은 이였기 때문이다. 4 그리고 그가 앞쪽 안으로 앞서 달려간 후 그분이 거기서 통과하여 가시고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 5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 오셨을 때에, 예수스께서 쳐다보신 후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작카이오스야, 너는 서두른 후 내려오라, 왜냐하면 오늘 내가 너의 집 안에 머무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6 그리고 그가 서두른 후 내려왔으며 기뻐하고 있으면서 그분을 영접하여 들었다. 7 그리고 모든 이들이 본 후 그가 죄인 남자 옆에 묵으려고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심히 불평하고 있었다. 8 그런데 작카이오스가 선 후 주님을 향하여 말했다. “보십시오! 저의 있는 것들 중의 절반들을, 주님, 제가 가난한 이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만약 누구의 것을 제가 트집 잡아 빼앗았다면 제가 네 배로 갚습니다.” 9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를 향하여 그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10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멸망한 채 있는 것을 찾으려고 그리고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11 그런데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있을 때 그분은 예루살렘에³⁹²⁾ 가까이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나게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분이 비유를 더하신 후 말씀하셨다. 12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셨다. “좋은 가문의 어떤 사람이 그자신에게 왕위를 취하려고 그리고 돌이키려고 먼 지역 안으로 갔다. 13 그런데 그가 그자신의 종들 열 명을 부른 후 그들에게 열 므나들을³⁹³⁾ 주었으며 그들을 향하여 말했다. ‘내가 가고 있는 가운데 너희는 사업하라.’ 14 그런데 그의 성읍백성들이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며 그의 뒤로 사신을 파송했다. 말하고 있기를, ‘이이가 저희 위에 왕이 되는 것을 저희는 원하지 않습니다.’ 15 그리고 그가 왕위를 취한 후 돌아오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가 은을 준 채 있었던 이 종들이 그에게 불려오도록 그가 말했다. 그들이 무엇을 힘써 사업했는지 그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16 그런데 첫 번째 이가 당도했다. 말하고 있기를, ‘주인님, 당신의 므나가 열 므나들을 향하여 일했습니다.’ 17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선한 종이여, 네가 가장 작은 것 안에서 믿을만하게 되었으니, 너는 열 성읍들 위에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 있어라.’ 18 그리고 두 번째 이가 왔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의 므나가, 주인님, 다섯 므나들을 만들었습니다.’ 19 그런데 그가 이이

389) 히브리어 ‘예리호’의 헬라어 음역이다.

390) 히브리어 ‘작카이’(순결한)의 헬라어 음역이다.

391)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92)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이다.

393) 1‘므나’는 100‘드라크메’로 1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므로 1‘므나’는 노동자의 100일 품삯에 해당한다.

에게도 말했다. ‘너도 다섯 성읍들 위에 있게 되어라.’ 20 그리고 탄 이가 왔다. 말하고 있기를,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천조각 안에 놓아두고 있으면서 갖고 있었던 당신의 므나입니다. 21 왜냐하면 제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혹한 사람이므로, 당신이 두지 않았던 것을 당신은 들어올리며 당신이 씨 뿌리지 않았던 것을 당신은 추수합니다.’ 22 그가 그에게 말한다. ‘너의 입 밖으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악한 종아, 내가 가혹한 사람이라고 너는 알고 있었느냐, 내가 두지 않았던 것을 내가 들어올리고 있으며 내가 씨 뿌리지 않았던 것을 내가 추수하고 있는? 23 그러면 무엇 때문에 너는 나의 은을 탁자 위에 두지 않았느냐?³⁹⁴ 그리했으면 나는 온 후 이자와 함께 그것을 수금했다.’ 24 그리고 그가 옆에 선 채 있는 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그로부터 그 므나를 제거하라 그리고 열 므나들을 갖고 있는 이에게 주어라.’ 25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주인님, 그는 열 므나들을 갖고 있습니다.’³⁹⁵ 26 갖고 있는 모든 이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인데, 갖고 있지 않는 이로부터는 그 갖고 있는 것도 제거될 것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27 덧붙여서 내가 그들 위에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이 나의 원수들을 너희는 여기로 이끌어라 그리고 나의 앞에서 그들을 도륙하라.”

28 그리고 그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 히에로솔뤼마³⁹⁶ 안으로 올라가시고 있으면서 앞에서 가시고 있었다. 29 그리고 그분이 올리브나무들로 불리고 있는 산을 향하여 베뜨파게와³⁹⁷ 베따니아³⁹⁸ 안으로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분이 제자들 중의 두 명을 파송하셨던 일이 있게 되었다. 30 말씀하시고 있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 안으로 떠나고 있어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끼나귀가 묶인 채 있는 것을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어느 때든지 그 위에 사람들 중의 아무도 앉지 않았던 것인,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풀 후 이끌어라. 31 그리고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너희에게 묻고 있을 것이면,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 풀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말하라. ‘주님께서 그것의 필요를 가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32 그런데 파송 받은 채 있는 이들이 떠나간 후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발견했다. 33 그런데 그들이 새끼나귀를 풀고 있을 때 그것의 주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말했다. “왜 당신들은 새끼나귀를 풀고 있습니까?” 34 그런데 그들이 말했다. “주님께서 그것의 필요를 가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35 그리고 그들이 예수스를 향하여 그것을 이끌었으며 그들의 겂옷들을 새끼나귀 위에 던져놓은 후 예수스를 태웠다. 36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있을 때 그들이 그들의 겂옷들을 길 안에서 아래에 펼치고 있었다. 37 그런데 그분이 이미 올리브나무들의 산의 내리막 곁으로 가까이 가시고 있을 때 제자들 중의 모든 무리가 권능을 보았던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뻐하고 있으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38 말하고 있기를,

“오시고 있는 이가 칭송받으신 채 있을 때,

394) 실제적인 의미는 ‘빌려주지 않았느냐?’이다.

395) 25절은 일부 사본에만 있다.

396)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397) 히브리어 ‘베뜨파게’의 헬라어 음역으로 ‘무화과의 집’이다.

398) 히브리어 ‘베트아니아’의 헬라어 음역으로 ‘고통 받는 이의 집’이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왕이.
 하늘 안에서 평화가
 그리고 가장 높은 곳 안에서 영광이.”

39 그리고 파리사이오스들³⁹⁹⁾ 중의 어떤 이들이 군중으로부터 그분을 향하여 말했다. “선생님,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주십시오.” 40 그러나 그분이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이들이 조용히 하고 있을 것이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41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성읍을 보신 후 그것에 대하여 우셨다 42 만약 너도 이 날 안에서 400)평화를 향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너의 눈들로부터 감추어졌다. 43 날들이 네 위에 다다를 것이며 너의 원수들이 너에게 토성을 배치할 것이며 너를 둘러쌀 것이며 모든 곳에서 너를 억압할 것이며, 44 너와 네 안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내동댕이칠 것이며, 네 안에서 돌 위에 돌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너의 돌봄의 시점을 알지 못했던 이인 것에 대하여.”

45 그리고 그분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후 팔고 있는 이들을⁴⁰¹⁾ 내쫓으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46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기를, “기록된 채 있다.

‘그리고 나의 집은 기도의 집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굴로 만들었다.’”

47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계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첫 번째인 이들이 멸망시키려고 그분을 찾고 있었다, 48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그들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그분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20 그리고 날들 중의 하나 안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성전 안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복음 전하시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옆에 섰다 2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말하고 있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무슨 권세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당신은 우리에게 말하라, 또는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었던 이는 누구이냐?” 3 그런데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말하라. 4 요안네스의⁴⁰²⁾ 세례가 하늘 밖으로 있었느냐 또는 사람들 밖으로 있었느냐?” 5 그런데 만약 장차 우리가 말할 것이면, “하늘 밖으로”, 그가 말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6 그런데 만약 장차 우리가 말할 것이면, “사람들 밖으로”, 모든 백성이 우리를 돌로 내려칠

399) 아랍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400) ‘너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01) 이어서 ‘그 안에서 사고 있는 이들도’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02) 히브리어 ‘요하난’과 ‘에호하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안네스가 대언자라고⁴⁰³⁾ 신뢰한 채 있으면서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으면서 그자신들을 향하여 의논했다.⁴⁰⁴⁾ 7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 채 있다고 대답했다. 8 그리고 예수스께서⁴⁰⁵⁾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세 안에서 내가 이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9 그런데 그분이 백성을 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어느⁴⁰⁶⁾ 사람이 포도원을 심었으며 그것을 농부들에게 임대했으며 충분한 기간들에 여행 떠났다. 10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들로부터 그들이 그에게 주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어떤 시점에 농부들을 향하여 종을 파송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를 매질한 후 공허한 이로 밖으로 파송했다. 11 그리고 그가 탄 종을 보내는 것을 더했다. 그런데 그들이 저이를 매질한 후 그리고 모욕한 후 공허한 이로 밖으로 파송했다. 12 그리고 그가 셋째를 보내는 것을 더했다. 그런데 그들이 이이도 상처 입힌 후 내쫓았다. 13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말했다. ‘내가 무엇을 행할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내가 보낼 것이다. 틀림없이 이이를 그들이 존중할 것이다.’ 14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를 본 후 서로들을 향하여 의논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이이가 상속자다. 우리가 그를 살해하자, 그 상속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15 그리고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은 후 살해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주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이냐? 16 그가 올 것이며 이 농부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그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후 말했다. “그런 일이 있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17 그런데 그분이 살펴보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기록된 채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집을 세우고 있는 이들이 거부했던 돌을,
이것이 모퉁이의 머리 안으로 되었다.’

18 저 돌 위에 떨어졌던 모든 이는 부서질 것이다. 그런데 그 위로 만약 장차 그것이 떨어질 것이면 그것이 그를 빻을 것이다.”

19 그리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시간 안에서 그분에 대하여 손들을 내밀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이 균중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20 그리고 그들이 관찰한 후 그자신들을 의인들인 것으로 가면연기하고 있는⁴⁰⁷⁾ 정탐꾼들을 파송했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분을 총독의 지배와 권세에 넘기려고 한다. 21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질문했다. 말하고 있기를, “선생님, 당신은 올바르게 말하며 가르치며 얼굴을 취

403)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404) “그들은 말하고 있으면서 그자신들을 향하여 의논했다.”가 원문에는 5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 성상 6절로 돌렸다.

405)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406) “어느”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07) 원문은 ‘υποκρινομαι’(히포크리노마이)로 주로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지칭하며, 관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22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또는 아닙니까?” 23 그런데 그분이 그들의 계략을 알아채신 후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⁴⁰⁸⁾ 24 “너희는 나에게 데나리온을 보여 주어라. 그것이 누구의 형상과 겉글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말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25 그런데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내주며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내드려라.” 26 그리고 그들은 백성의 면전에서 그분의 입말씀을⁴⁰⁹⁾ 붙잡기 위한 능력이 없었으며 그분의 대답에 대하여 놀랍고 이상하게 여긴 후 잠잠했다.

27 그런데 살두카이오스들⁴¹⁰⁾ 중의 어떤 이들이 나아온 후, 부활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⁴¹¹⁾ 이들이, 그분에게 질문했다. 28 말하고 있기를, “선생님, 모우세스는⁴¹²⁾ 저희에게 기록했습니다.

‘만약 장차 어떤 이의 형제가 아내를 갖고 있으면서 죽을 것이면,

그리고 이이가 자녀가 없는 이이면,

그의 형제가 그 여인을 취하며 그의 형제에게 씨를 일으켜 세우도록 하라.’

29 그러므로 일곱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아내를 취한 후 자녀가 없는 이로 죽었습니다. 30 그리고 둘째와⁴¹³⁾ 31 셋째가 그녀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일곱 들도 자녀들을 남겨두지 못했으며 죽었습니다. 32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33 그러므로 그 여인은 부활 안에서 그들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왜냐하면 일곱 이들이 그녀를 아내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34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⁴¹⁴⁾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아들들은 결혼하며 시집간다, 35 그런데 저 시대와 죽은 이들 밖의 부활을 얻기에 아주 합당하게 여겨진 이들은 결혼하지도 않으며 시집가지도 않는다. 36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천사같은 이들이며 부활의 아들들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37 그런데 죽은 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모우세스도 가시덤불에 대한 것에서 전해주었다.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사악의 하나님과 야콥의 하나님으로’

그가 말하는 것처럼. 38 그런데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그분에게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39 그런데 서기관들 중

408) 이어서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있느냐?’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09)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410) 히브리어 ‘차독’(70인역 ‘사독’)의 헬라어 번역으로 추정한다.

411) “반박하고 있는 이들이” 대신에 ‘말하고 있는 이들이’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많다. 어느 것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12) 히브리어 ‘모셰’의 헬라어 음역이다.

413) ‘그리고 둘째가 그 여인을 취했으며 이이도 자녀 없는 이로 죽었습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14) ‘대답하신 후’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의 어떤 이들이 대답한 후 말했다. “선생님, 당신은 잘 말씀하셨습니다.” 40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아무 것도 그분에게 감히 질문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1 그런데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어떻게 그들은 크리스토스가⁴¹⁵⁾ 다윈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42 왜냐하면 다윈 자신이 시편의 기록물 안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오른쪽들 밖으로 앉아 있어라.

43 내가 너의 원수들을 둘 때까지

너의 발들의 발판으로.’

44 그러므로 다윈이 그를 주님으로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이냐?”

45 그런데 백성의 모든 이가 듣고 있을 때 그분이 그분의⁴¹⁶⁾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6 “긴 겹옷들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장터들 안에서 인사와 회당들 안에서 첫째자리들과 저녁잔치들 안에서 상석들을 좋아하고 있으며, 47 과부들의 집들을 먹여치우고 있으면서 그리고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는 이들인 서기관들로부터 너희는 유의하고 있어라⁴¹⁷⁾. 이이들은 더 넘치는 심판을 취할 것이다.”

21 그런데 그분이 쳐다보신 후 부유한 이들이 그들의 예물들을 헌금함 안으로 넣고 있는 것을 보셨다. 2 그런데 어떤 궁핍한 과부가 두 렘톤들을⁴¹⁸⁾ 넣고 있는 것을 그분이 보셨다. 3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고 말한다. 4 왜냐하면 이 모든 이들은 그들에게 넘치고 있는 것 중에서 ⁴¹⁹⁾그 예물들 안으로 넣었는데, 이 여자는 그녀의 부족 중에서 그녀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자산을 넣었기 때문이다.”

5 그리고 어떤 이들이 성전에 관하여 그것이 좋은 돌들과 바친 물품들로 단장된 채 있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다. 6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것들에게 어떤 돌도 허물어지지 않을 돌로 인하여 내버려두지 않게 될 날들 안에 있는 날들이 올 것이다.” 7 그런데 그들이 그분에게 질문했다. 말하고 있기를, “선생님, 그렇다면 언제 이일들이 있을 것이며 이일들이 있게 되려고 할 때에 표적은 무엇입니까?” 8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너희는 보고 있어라.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나의 이름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기를, ‘바로 나다’, 그리고 그 시점은 가까이 온 채 있다. 너희는 그들의 뒤로 가지 마라. 9 그런데 너희가 전쟁들과 혼란들을 들을 때에는, 너희는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이일들이 있게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곧 끝은 아니기 때

415) 히브리어 ‘매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416) “그분의”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17) “서기관들로부터 너희는 유의하고 있어라.”가 원문에는 46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47절로 돌렸다.

418) 두 ‘렘톤’은 일 ‘코드란테스’에 해당하며, 1/4‘앗사리온’에 해당하기도 한다. 현재 가치로 대략 1,000원 정도의 금액이다.

419) ‘하나님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문이다.”

10 그때에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민족이 민족 위에 그리고 왕국이 왕국 위에 일어날 것이며, 11 또한 곳곳마다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며, 또한 두려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12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전에 그들이 너희 위에 손들을 내밀 것이며 박해할 것이다, 회당들과 감옥들 안으로 넘겨주고 있으면서, 나의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위에 너희가 이끌리어 가고 있으면서. 13 그 일이 너희에게 증언 안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⁴²⁰⁾ 14 그러므로 너희는 변론하려고 미리 궁리하지 않고 있을 것을 너희의 마음들 안에 두어라. 15 왜냐하면 너희에게 대항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맞서거나 반론할 수 없는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16 그런데 너희는 부모들과 형제들과 친족들과 친구들로 말미암아서도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중에서 죽일 것이다, 17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미움당하고 있는 이들로 있을 것이다. 18 그러나 하나의 머리카락도 너희의 머리 밖으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의 인내 안에서 너희는 너희의 목숨들을⁴²¹⁾ 소유하라.⁴²²⁾”

20 “그런데 군영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⁴²³⁾ 둘러싸이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는, 그때에 그것의 파멸이 가까이 온 채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21 그때에 유다이아⁴²⁴⁾ 안에 있는 이들은 산들 안으로 피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것의⁴²⁵⁾ 가운데 있는 이들은 밖으로 물러가고 있어라 그리고 주변지역들 안에 있는 이들은 그것⁴²⁶⁾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있어라, 22 이 보복의 날들은 기록된 채 있는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3 저 날들 안에서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냐하면 큰 필연이 땅 위에 있을 것이며 진노가 이 백성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4 그리고 그들이 칼의 입에게 떨어질 것이며 모든 이방들 안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밟히고 있으면서 있을 것이다, 이방인들의 시점들이 채워지기까지. 25 그리고 표적이 해와 달과 별들 안에 있을 것이고, 땅 위에도 이방인들의 억압이⁴²⁷⁾ 바다와 흔들림의 소리들의 혼돈 속에 있을 것이다, 26 세계에 임하고 있는 두려움과 기다림으로부터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있을 때, 왜냐하면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27 그리고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많은 권능과 영광과 함께 구름 안에서 오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28 그런데 이일들이 있게 되고 있기를 시작하고 있을 때 너희는 허리를 펴라 그리고 너희의 머리들을 위로 들어 올려라, 이는 너희의

420) 실제적인 의미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이다.

421) 또는 ‘영혼들을’, 원문은 ‘ψυχῆν’(프쉬케)로 대개 ‘영혼’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목숨’(마 6:25)을 의미하기도 한다.

422) ‘소유할 것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23)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이어 번역이다.

424)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이어 번역이다.

425)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426) 위 각주와 같다.

427) ‘이방인들이 당하는 억압’으로 보는 것이 ‘이방인들이 주는 억압’보다는 문맥상 맞는 것 같다.

대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29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30 그것들이 이미 싹틀 때에는, 그것자신들로부터 보고 있으면서 여름이 이미 가까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31 이와 같이 너희도, 일들이 있게 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32 아멘 나는 너희에게 모든 일들이 있게 될 때까지 이 세대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33 하늘과 땅은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나의 말들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34 “그런데 혹시라도 너희의 마음들이 허랑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들의 염려들 안에서 무거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저 날들이 올무처럼 갑작스럽게 너희 위에 서지 않도록 너희는 너희자신들에게 유의하고 있어야. 35 왜냐하면 올무처럼⁴²⁸⁾ 그것이 모든 땅의 얼굴 위에 앉아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임하여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36 그런데 있게 되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서 피하는 것에 너희가 더 우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간구하고 있으면서 모든 시점 안에서 깨어 있어야.”

37 그런데 그분이 낮들에는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계셨으며, 밤들에는 올리브나무들로 불리고 있는 산 안으로 나가시고 있으면서 머무시고 있었다. 38 그리고 모든 백성은 성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려고 그분을 향하여 일찍 일어나 가고 있었다.

22 그런데 유월절로 말해지고 있는 무교절들의 절기가 가까이 오고 있었다. 2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분을 해치울 것인지를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사타나스가⁴²⁹⁾ 이스카리오테스로 불리고 있는 유다스⁴³⁰⁾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열둘 중의 수(數) 밖으로⁴³¹⁾ 있을 때. 4 그리고 그가 떠나간 후 어떻게 그들에게 그분을 넘겨줄 것인지를 대제사장들과 지휘관들과 함께 말했다. 5 그리고 그들이 기뻐했으며 그에게 은을 주기로 동의했다. 6 그리고 그가 약속했으며, 그들에게 군중이 없을 때 그분을 넘겨주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었다.

7 그런데 무교절들의 날이 왔다, 유월절 양이 도축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 가운데, 8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후 페트로스와 요안네스를⁴³²⁾ 파송하셨다. “우리가 먹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간 후 우리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9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10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했다.

428) “올무처럼”이 원문에는 35절 앞부분에 있는데, 이것을 34절에 속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35절에 속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체로 34절에 속한 것으로 보지만, 35절에 속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게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29) 히브리어 ‘사탄’(대항자, 대적자)의 헬라어 음역이다.

430)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431) 실제적인 의미는 ‘수(數)에 속해’.

432) 히브리어 ‘요한난’과 ‘예호한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보라! 너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물 항아리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너희를 맞이 할 것이다. 너희는 그가 들어가고 있는 그 집 안으로 그를 따라가라, 11 그리고 너희는 그 집의 집주인에게 말하라. ‘선생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손님방은 어디 있느냐?’ 12 그리고 저이가 큰 이층 방이 펼쳐진 채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준비하라.” 13 그런데 그들이 떠나간 후 그 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채 있었던 것과 같이 발견했으며 유월절을 준비했다.

14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분이 앉으셨으며 그분과 함께 사도들도 앉았다. 15 그리고 그 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나는 갈망함으로 갈망했다. 16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성취되기까지 그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17 그리고 그 분이 잔을 영접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것을 취하라 그리고 너희자신들 안으로 분리하라. 18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까지 포도나무의 소산물로부터 나는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⁴³³⁾” 19 그리고 그 분이 빵을 취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 떼셨으며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하시고 있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고 있는 나의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나의 기념 안으로 행하고 있어라.” 20 그리고 저녁식사하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고 있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쏟아지고 있는 나의 피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이다.⁴³⁴⁾

21 덧붙여서 보라! 나를 넘기고 있는 이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22 한편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채 있는 것에 의하여 가지만, 덧붙여서 그가 넘겨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화가 있기 때문이다.” 23 그리고 그러면 그들 중에서 누가 이일을 실행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일까 하여 그자신들을 향하여 그들 자신들이 논쟁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24 그런데 다툼도 그들 안에서 있게 되었다, 그들 중의 누가 더 크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25 그런데 그 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의 주인이 되며 그들의 권세부리고 있는 이들은 은인들로 불린다. 26 그런데 너희는 이와 같지 않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더 큰이는 젊은 이처럼 되어라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 이는 봉사하고 있는 이처럼 되어라. 27 왜냐하면 누가 더 크이이기 때문이냐, 앉아 있는 이냐 또는 봉사하고 있는 이냐? 앉아 있는 이가 아니냐?⁴³⁵⁾ 그런데 나는 너희 가운데 봉사하고 있는 이처럼 있다. 28 그런데 너희는 나와 함께 나의 시험들 안에서 계속 머무른 채 있는 이들이다. 29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왕국을 배정했던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배정한다, 30 너희가 나의 왕국 안에서 나의 식탁 위에서 먹고 있으며 마시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을 심판하고 있으면서 보좌들 위에 앉을 것이다. 31

433) “~것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많다. 어느 것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34) 17절부터 20절까지는 서로 다른 형태로 기록된 여러 다른 사본들이 있는데, 어느 형태의 본문이 원본문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435)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36) 시몬아⁴³⁷⁾ 시몬아, 보라! 사타나스가 밀처럼 키질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32 그런데 너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 관하여 간구했다. 너는 언젠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라.” 33 그런데 그가 그분에게 말했다.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 감옥 안으로도 죽음 안으로도 가려고 준비한 이입니다.” 34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페트로사야, 네가 나를 알은 채 있는 것을 세 번 부인하기까지 오늘 수탉은 소리 내지 않을 것이다.”

35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여행용자루와 신발들 없이 파송했을 때, 너희가 무엇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⁴³⁸⁾ 그런데 그들이 말했다.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36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지금은 돈주머니를 갖고 있는 이는 들어올려라, 마찬가지로 여행용자루도, 그리고 갖고 있지 않는 이는 그의 겹옷을 팔아라 그리고 칼을 사라. 37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 기록된 채 있는 일이 내 안에서 끝나쳐져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율법 없는 이들과 함께 여겨졌다’는 것이. 그리고 왜냐하면 나에 관한 일이 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8 그런데 그들이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들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충분하다.”

39 그리고 그분이 나가신 후 관습에 의하여 올리브나무들의 산 안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40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있게 된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라.” 41 그리고 그분이 거의 돌의 던짐 정도를 그들로부터 떼어지셨으며 무릎들을 두신 후 기도하시고 있었다. 42 말씀하시고 있기를, “아버지, 만약 지금 당신이 의도하시고 있다면 당신은 이 잔을 나로부터 옆으로 가져가주십시오. 덧붙여서 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43 [그런데 천사가 그분을 힘 있게 하고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그분에게 보였다. 44 그리고 그분이 싸움함 안에 있게 되신 후 더 강렬하게 기도하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땀이 마치 땅 위에 내려가고 있는 피의 큰 방울들같이 되었다.]⁴³⁹⁾ 45 그리고 그분이 기도로부터 일어서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가신 후 그들이 슬픔으로부터 잠들게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46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잠자고 있느냐? 너희는 일어난 후 기도하고 있어라, 너희가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47 아직 그분이 발언하시고 있을 때 보라! 군중이, 그리고 열둘 중의 한 명인 유다스가 그들을 앞서 왔으며 그분께 입 맞추려고 예수스께⁴⁴⁰⁾ 가까이 왔다. 48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스야, 네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넘겨주느냐?” 49 그런

436)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37) 히브리어 ‘썸온’(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438)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39) 43절과 44절이 없는 사본들도 있다. 이 구절들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40)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데 그분 주위에 있는 이들이 있을 일을 본 후 말했다. “주님, 만약 저희가 칼 안에서 칠 것이라면 어떨는지요?” 50 그리고 그들 중의 어떤 이 한 명이 대제사장의 종을 쳤으며 그의 오른쪽 귀를 떼어내었다. 51 그런데 예수스께서 대답하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것까지 허용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분이 귀를 만지신 후 그를 낮게 하셨다. 52 그런데 예수스께서 그분에게 당도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지휘관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강도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칼들과 몽둥이들과 함께 나아왔느냐? 53 날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나에게 손들을 내밀지 않았다, 오히려 이때는 너희의 시간이며 어둠의 권세이다.”

54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함께 취한 후 이끌었으며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이끌어 들였다. 그런데 페트로스가 멀리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55 그런데 그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둘러피웠으며 함께 앉았을 때 페트로스도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56 그런데 어떤 여종이 그가 불을 향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본 후에 그리고 그에게 집중한 후 말했다. “이이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57 그런데 그가 부인했다. 말하고 있기를,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인이여.” 58 그리고 조금 후에 또 이가 그를 본 후 말하고 있었다. “당신도 그들 중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페트로스가 말하고 있었다. “사람이여, 나는 아닙니다.” 59 그리고 거의 한 시간 정도에 어떤 다른 이가 장담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참으로 이이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갈릴라이오스이기⁴⁴¹⁾ 때문입니다.” 60 그런데 페트로스가 말했다. “사람이여,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즉시 아직 그가 발언하고 있을 때 수탉이 소리 냈다. 61 그리고 주님이 돌이키신 후 페트로스를 살펴보셨다, 그리고 수탉이 소리 내기 전에 오늘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대로 페트로스가 주님의 입말씀을⁴⁴²⁾ 기억하게 되었다. 62 그리고 그가 바깥에 나간 후 쓰라리게 울었다.

63 그리고 그분을 억압하고 있는 남자들이 매질하고 있으면서 그분을 조롱하고 있었다. 64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둘러덮은 후 질문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너는 대언하라,⁴⁴³⁾ 너를 쳤던 이가 누구이냐?” 65 그들이 또 많은 것들로도 모독하고 있으면서 그분 안으로 말하고 있었다.

66 그리고 낮이 되었을 때, 백성의 장로 회의가 모이게 되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공회 안으로 이끌어갔다. 67 말하고 있기를, “만약 지금 네가 크리스토스⁴⁴⁴⁾라면, 너는 우리에게 말하라.”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장차 내가 말할 것이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68 그런데 만약 장

441)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

442)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443) ‘προφητεω’(프로페튜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바)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다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하다’로 번역했다.

444)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차 내가 물을 것이라도, 너희는 결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⁴⁴⁵⁾ 69 그런데 지금부터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쪽들 밖으로 앉아 있으면서 있을 것이다.” 70 그런데 모든 이들이 말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었다. “바로 나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71 그런데 그들이 말했다. “왜 아직도 우리가 증언의 필요를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그의 입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23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무리가 일어선 후 그분을 필라토스에게 이끌었다. 2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고발하고 있기를 시작했다. 말하고 있기를, “이이가 우리의 민족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카아사르에게 세금을 주고 있는 것을 막고 있으며 그자신을 크리스토스⁴⁴⁶⁾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3 그런데 필라토스가 그분에게 물었다. 말하고 있기를, “네가 유다이오스들의 왕이냐?” 그런데 그분이 그에게 대답한 후 말씀하시고 있었다. “네가 말하고 있다.” 4 그런데 필라토스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을 향하여 말했다. “나는 이 사람 안에서 아무 원인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5 그런데 그들은 그가 갈릴라이아로부터⁴⁴⁷⁾ 시작한 후 여기까지, 온 유다이아에⁴⁴⁸⁾ 반대하여 가르치고 있으면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었다. 6 그런데 필라토스가 들은 후 그 사람이 갈릴라이오스⁴⁴⁹⁾인지 질문했다, 7 그리고 헤로데스의⁴⁵⁰⁾ 권세 밖으로⁴⁵¹⁾ 있다는 것을 알아본 후 그분을 헤로데스를 향하여 올려보냈다, 바로 그가 이 날들 안에 히에로솔뤼마⁴⁵²⁾ 안에서 있을 때.

8 그런데 헤로데스가 예수스를⁴⁵³⁾ 본 후 몹시 기뻐했는데, 왜냐하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있는 것 때문에 충분한 시점들 밖으로 그분을 보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있었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고 있는 무슨 표적을 보기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9 그런데 그가 충분한 말들 안에서 그분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 자신은 아무 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10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강력하게 그분을 고발하고 있으면서 선 채 있었다. 11 그런데 헤로데스도 그의 군대들과 함께 그분을 멸시한 후에 그리고 조롱한 후에 빛나는 의복을 두르게 한 후 그분을 필라토스에게 돌려보냈다. 12 그런데 헤로데스와 필라토스가 그 날 안에 서로들 함께 친구들이 되었다. 왜냐하면

445) ‘너희는 결코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또는 풀어보내지도 않을 것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46)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447)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448)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449)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

450) 이 헤로데스는 예수님 출생 당시의 왕이었던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헤로데스의 아들이다.

451) 실제적인 의미는 ‘권세에 속해’.

452)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453)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그들이 그들을⁴⁵⁴ 향하여 원수됨 안에 있으면서 전에는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3 그런데 필라토스가 대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은 후 14 그가 그들을 향하여 말했다. “이 사람이 마치 백성을 돌이키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이 사람을 데려왔다, 그러나 보라! 나 자신이 너희의 눈앞에서 검사한 후에 너희가 그에 반대하여 고발하고 있는 원인을 나는 이 사람 안에서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15 오히려 헤로데스도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향하여 그를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라! 아무 것도 죽음의 합당한 것이 그에게 실행된 채 있는 것은 없다. 16 그러므로 나는 그를 징계한 후 풀어보낼 것이다.” 17 (없음)⁴⁵⁵ 18 그런데 그들이 일제히 위로 소리쳤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이이를 제거하고 있으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바랍바스를⁴⁵⁶ 풀어 보내십시오.” 19 그 성읍 안에서 있게 되었던 어떤 폭동과 살인 때문에 던져진 후⁴⁵⁷ 감옥 안에 있었던 어느 누구인. 20 그런데 또다시 필라토스가 예수스를 풀어보낼 것을 원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부르짖었다. 21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있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있으십시오.” 22 그런데 세 번째 그가 그들을 향하여 말했다. “이이가 무슨 나쁜 일을 행했기 때문이냐? 나는 죽음의 원인을 그이 안에서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징계한 후 풀어보낼 것이다.” 23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질 것을 그들이 구하고 있으면서 큰 소리들로 압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⁴⁵⁸ 소리들이 더 우세하고 있었다. 24 그리고 필라토스가 그들의 요청대로 있게 되도록 판결했다. 25 그런데 그들이 구하고 있었던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 안으로 던져진 채 있는 이를 그가 풀어보냈다, 그런데 예수스를 그들의 뜻에 넘겨주었다.

26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이끌어갔을 때, 그들이 들로부터 오고 있는 어떤 퀴레나이오스⁴⁵⁹ 시몬을⁴⁶⁰ 취한 후 예수스의 뒤에서 가져가고 있도록 십자가를 그에게 얹었다. 27 그런데 백성과 그분에 대하여 가슴 치고 있었으며 애곡하고 있었던 여인들의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다. 28 그런데 예수스께서 돌이키신 후 그녀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⁴⁶¹ 딸들아,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울지 말고 있어라, 덧붙여서 너희는 너희자신들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 대하여 울고 있어라, 29 보라! 말할 것 가운데 있을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과 태어나게 하지 못했던 배들과 먹이지 못했던 젖가슴들은 복되다.’ 30 그때에 그들이

‘너희는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리고 언덕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덮어라,

454) ‘그자신들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55) 17절이 기록된 고대 사본들도 있다. ‘그런데 절기에 의하여 그들에게 하나를 반드시 풀어보내고 있는 것을 그는 갖고 있었다.’

456) 아람어 ‘바르 아바’(아버지의 아들)의 헬라어 음역이다.

457) ‘던져진 채 있으면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58) ‘그들과 대제사장들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59) ‘퀴레네 출신’

460) 히브리어 ‘솜온’(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461)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이다.

산들에게 말하고 있기를’

시작할 것이다. 31 만약 지금 그들이 싱싱한 목재 안에서도 이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마른 것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게 되겠느냐?” 32 그런데 탄 범죄자들 두 명도 해치워지려고 그분과 함께 이끌려지고 있었다. 33 그리고 그들이 해골로 불리고 있는 곳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분과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한편 오른쪽들 밖으로 한 명을 또 한편 왼쪽들 밖으로 한 명을. 34 [그런데 예수스께서 말씀하시고 있었다. “아버지, 당신은 그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⁴⁶²⁾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겂옷들을 여럿으로 분리하고 있으면서 제비들을 던졌다.”

35 그리고 백성은 바라보고 있으면서 선 채 있었다. 그런데 통치자들도 말하고 있으면서 경멸하고 있었다. “그가 다른 이들을 구원했다, 그는 그자신을 구원하라, 만약 지금 이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크리스트스라면.” 36 그런데 군인들도 나아오고 있으면서 그분을 조롱했다, 신 포도주를 그분에게 가져오고 있으면서 37 그리고 말하고 있으면서, “만약 지금 내가 유다이오스들의 왕이라면, 너는 너자신을 구원하라.” 38 그리고 그분 위에 ⁴⁶³⁾ 겂글도 있었다.

“이이는 유다이오스들의 왕이다.”

39 그런데 매달려졌던 범죄자들 중의 한 명이 그분을 모독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네가 크리스트스이지 않느냐?⁴⁶⁴⁾ 너는 너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40 그런데 탄 이가 대답한 후 그를 꾸짖고 있으면서 말하고 있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내가 바로 그 심판 안에 있기 때문인데? 41 그리고 한편 우리는 공의롭게 당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실행했던 것의 합당한 것을 우리가 취하기 때문에, 또 한편 이분은 아무런 부당한 것을 실행하시지 않았다.” 42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었다. “예수스시여, 당신이 당신의 왕국 안으로 가실 때에 당신은 저를 기억해주십시오.” 43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나와 함께 내가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

44 그리고 이미 거의 여섯 시⁴⁶⁵⁾ 정도이었으며 어둠이 온 땅 위에 아홉 시까지⁴⁶⁶⁾ 있게 되었다 45 해가 사라진 후에,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다. 46 그리고 예수스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후 말씀하셨다. “아버지,

‘당신의 손들 안으로 나의 영을 위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것을 말씀하신 후 숨지셨다. 47 그런데 백부장이 있게 되었던 일을 본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다. 말하고 있기를, “실제로 이 사람은 의로운 이였다.” 48

462) []부분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63) ‘헬레니코이스(헬라인들의)와 로마이코이스(로마인들의)와 헤브라이코이스(히브리인들의) 문자들로 기록된 채 있는’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64)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65) 낮 12시, 당시의 0시는 지금의 오전 6시이다.

466) 오후 3시, 당시의 0시는 지금의 오전 6시이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하여 함께 당도했던 모든 군중들도, 있게 되었던 일들을 바라본 후, 가슴들을 치고 있으면서 돌이키고 있었다. 49 그런데 그분을 아는 모든 이들과 갈릴리아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왔던 여인들이 이 일들을 보고 있으면서 멀리서부터 선 채 있었다.

50 그리고 보라! 공의회 의원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이며 선하고 의로운 남자가 51 - 이이는 그들의 의도와 실행에 찬성하지 않은 채 있으면서 있었다 - 유다이오스들 중의 성읍 아리마떼이아⁴⁶⁷⁾ 출신, 하나님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던 이인, 52 이이가 필라토스에게 나아간 후 예수스의 몸을 구했으며 53 그가 내린 후 고운 삼베로 그분을 싸으며 아직 아무도 두지 않고 있었던 바위를 판 무덤 안에 그분을 두었다. 54 그리고 그날은 준비일의 날이었으며 안식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55 그런데 여인들이 뒤따라간 후에, 갈릴리아 밖으로 그분에게 함께 온 채 있으면서 있었던 여자들인, 그 무덤과 그분이 몸이 놓였던 그대로 지켜보았다, 56 그런데 그녀들이 돌이킨 후 향료들과 향유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한편 계명에 의하여 안식일에 그녀들이 가만히 있었다.

24 그런데 안식일들의 첫 날에 깊은 새벽에 그녀들이 준비했던 향료들을 갖고 가고 있으면서 무덤에 갔다⁴⁶⁸⁾. 2 그런데 무덤으로부터 그 돌이 굴러 내어진 채 있는 것을 그녀들이 발견했다, 3 그런데 그녀들이 들어간 후 주 예수스의⁴⁶⁹⁾ 몸을 발견하지 못했다. 4 그리고 그녀들이 이 일에 관하여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보라! 남자들 두 명이 번쩍이고 있는 의복 안에서 그녀들 옆에 섰다. 5 그런데 그녀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으며 땅 안으로 얼굴들을 기울이고 있을 때 그들이 그녀들을 향하여 말했다. “왜 너희가 살아 계시는 분을 죽은 이들과 함께 찾고 있느냐?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셨다.⁴⁷⁰⁾ 그분이 아직 갈릴리아⁴⁷¹⁾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너희에게 발언하셨던 그대로를 너희는 기억하라. 7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들 안으로 넘겨져야 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져야 하며 삼 일에 일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8 그리고 그녀들이 그분의 입말씀들을⁴⁷²⁾ 기억했다. 9 그리고 그녀들이 무덤으로부터 돌이킨 후 이 모든 일들을 열한 명과 남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었다. 10 그런데 그녀들은 막달레네 마리아와⁴⁷³⁾ 요안나와⁴⁷⁴⁾ 야코보스의⁴⁷⁵⁾ 마리아와 그녀들과 함께

467) 히브리어 ‘라마’(높은 곳)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468) 이어서 ‘그리고 그녀들과 함께 어떤 이들도’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69) 히브리어 ‘에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주 예수스의”가 없는 사본들도 있다.

470)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셨다.”가 없는 사본들도 있다.

471)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472)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473) 히브리어 ‘미르얌’을 헬라어로 음역한 ‘마리암’의 또 다른 음역이다.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얌’(개역을 비롯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있는 남은 여자들이었다. 그녀들이 사도들에게 이일들을 말하고 있었다, 11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이 입말들은 마치 허튼소리같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들을 믿지 않고 있었다. 12 그런데 페트로스가 일어난 후 무덤에 달려갔으며 옆으로 굽힌 후 다만 세마포들만 보고 있다, 그리고 있게 된 채 있는 일을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으면서 그자신을⁴⁷⁶⁾ 향하여 떠나갔다.⁴⁷⁷⁾

13 그리고 보라! 그들 중에서 두 명이 그 날 안에서 예루살렘⁴⁷⁸⁾으로부터 479)육십 스타디온들을⁴⁸⁰⁾ 떨어져 있는 마을 안으로 가고 있으면서 있었다, 이름이 엠마우스라는 곳인, 14 그리고 마주친 채 있는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그들이 서로들을 향하여 대화하고 있었다. 15 그리고 그들이 대화하고 있으며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예수스께서 친히 가까이 오신 후 그들과 함께 가시고 있었다. 16 그런데 그들의 눈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붙잡히고 있었다.⁴⁸¹⁾ 17 그런데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다니고 있으면서 서로들을 향하여 주고받고 있는 이 말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침울한 기색을 한 이들이 섰다.⁴⁸²⁾ 18 그런데 이름으로 클레오파스라는 한 명이 그분을 향하여 대답한 후 말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 날들 안에 그 안에서 있게 되었던 일들을 오직 당신만 알지 못했습니까?”⁴⁸³⁾ 19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일들이냐?” 그런데 그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일과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남자 대언자로⁴⁸⁴⁾ 있게 되었던 이인, 나자레노스⁴⁸⁵⁾ 예수스에 관한 일들을, 20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통치자들이 죽음의 심판 안으로 그분을 넘겨주었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21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대속하시고 있으려고 하고 있는 분이라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일일들이 있게 되었던 때부터 이 모든 일들과 함께 그것이 이 셋째 날을 이끌고 있습니다.⁴⁸⁶⁾ 22 그리고 오히려 우리 중에서 어떤 여인들도 우리를 정신 나가게 했습니다, 무덤 위에 새벽들이 있게 된 후에, 23 그녀들이 그분의 몸을 발견하지 못한 후 그분이 살아 계시다고 말하는 사자(使者)들의 환상을 본 채 있다고

음역한 ‘미리암’으로 번역)을 ‘마리암’으로 기록하고 있다.

474) 히브리어 ‘요한나’의 헬라어 음역으로 ‘여호와와 자비하시다.’라는 뜻이다.

475) 히브리어 ‘야콥’의 헬라어 음역이다.

476) 실제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의 것을, 즉 자기 집을’이다.

477) 12절이 없는 일부 고대 사본들도 있다.

478)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이다.

479) ‘일백’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80) 거리단위로, 1‘스타디온’은 약 192미터이다.

481) 실제적인 의미는 ‘가려지고 있었다.’이다.

482) “너희가 걸어다니고 있으면서 ~ 그리고 침울한 기색을 한 이들이 섰다.” 대신에 ‘너희가 걸어다니고 있으면서 그리고 침울한 기색을 한 이들이면서 서로들을 향하여 주고받고 있는 이 말들은 무엇이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83)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84)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485) ‘나자렐’사람.

486) “그것이 이 셋째 날을 이끌고 있습니다.”의 실제적인 의미는 ‘삼 일째입니다.’이다.

말하고 있으면서 왔습니다. 24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 중의 어떤 이들이 무덤에 떠나갔는데 그 여인들이 말했던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발견했으나, 그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25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오!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며 대언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믿고 있기를 마음에 둔 이들이며! 26 크리스토스가⁴⁸⁷⁾ 이일들로 고난당하고 있어야 했으며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야 했지 않느냐?”⁴⁸⁸⁾ 27 그리고 모우세스⁴⁸⁹⁾로부터와 모든 대언자들로부터 시작하신 후 모든 성경 기록들 안에서 그분자신에 관한 일들을 그들에게 제대로 해석하셨다. 28 그리고 그들이 가고 있었던 마을 안으로 그들이 가까이 갔다, 그리고 그분은 더 멀리 가시고 있으려는 듯이 행하셨다. 29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강요했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오, 이미 날이 저녁을 향하여 있으며 기운 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30 그리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앉히게 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빵을 취하신 후 축복하셨으며 떼신 후 그들에게 건네 주시고 있었다, 31 그런데 그들의 눈들이 열어젖혀졌으며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되었다. 32 그리고 그들이 서로들을 향하여 말했다. “그분이 길 안에서 우리에게 발언하시고 있을 때, 우리에게 성경기록들을 열어젖히시고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⁴⁹⁰⁾ 불타고 있으면서 있었지 않느냐?”⁴⁹¹⁾ 33 그리고 그들이 그 시간에 일어난 후 예루살렘 안으로 돌이켰으며 열 한명과 그들과 함께 있는 이들이 집합된 채 있는 것을 발견했다, 34 주님이 실제로 일어나셨으며 시몬에게⁴⁹²⁾ 보였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35 그들도 길 안에서 있었던 일들과 빵의 떼임 가운데 그들에게 알려졌던 그대로를 소개하고 있었다.

36 그런데 그들이 이일들을 발언하고 있을 때 그분이 그들 가운데 안에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평화가.” 37 그런데 그들이 겁낸 후 두려움에 빠지게 되기도 한 후 영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8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동요된 채 있는 이들로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의견들이 너희의 마음 안에서 올라오고 있느냐? 39 내가 바로 그라는 것을 너희는 나의 손들과 나의 발들을 보고 알아라. 너희는 나를 매만져라 그리고 알아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이 영은 살과 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40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말씀하신 후 그들에게 손들과 발들을 보여주셨다.⁴⁹³⁾ 41 그런데 아직도 그들이 기쁨으로부터 믿지 못하고 있으면서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때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먹을 만한 것을 너희가 여기에 갖고 있느냐?” 42 그런데 그들이 그분에게 구운 물고기의

487)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488)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89) 히브리어 ‘모셰’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490) “우리 안에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91)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92) 히브리어 ‘שמון’(들음)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493) 40절이 없는 일부 고대 사본들도 있다.

부분을⁴⁹⁴) 건네주었다. 43 그리고 그분이 취하신 후 그들의 면전에서 잡수셨다.

44 그런데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발언했던 나의 말들이 이것들이다, 나에게 관하여 모우세스의 율법과 대언자들과 시편들 안에 기록된 채 있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45 그때에 성경기록들을 이해하고 있도록 그분이 그들의 지각들을 열어젖히셨다. 46 그리고 크리스토스가 고난당하는 것과 셋째 날에 죽은 이들 밖으로 일어서는 것이 이와 같이 기록된 채 있으며 47 죄들의 용서 안으로 회심이⁴⁹⁵)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후에, 모든 민족들 안으로 선포된다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⁴⁹⁶) 48 “너희는 이일들의 증인들이다. 49 그리고 보라!⁴⁹⁷) 나 자신이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 위에 파송하고 있다. 높은 곳 밖으로 권능을 너희가 스스로를 위하여 입을 때까지 너희 자신들은 성읍 안에 앉아라.”

50 그런데 그분이 그들을 베따니아를⁴⁹⁸) 향한 곳까지 바깥으로⁴⁹⁹)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손들을 위로 들어올리신 후 그들을 축복하셨다. 51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들로부터 옮겨 서셨으며 하늘 안으로 위로 데려가시게 되고 있었다.⁵⁰⁰) 52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경배한 후⁵⁰¹) 큰 기쁨과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돌이켰으며 53 그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으면서 늘 성전 안에 있었다.⁵⁰²)

494) 이어서 ‘그리고 한 벌집으로부터’가 덧붙여 기록된 후기 사본들도 있다.

495) ‘μετανοια’(메타노이아)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인식을 바꾸는 것’이므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는 의미의 ‘회심(回心)’으로 번역했다.

496)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가 원문에는 46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47절로 돌렸다.

497) “보라!”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98) 히브리어 ‘베트아니아’의 헬라어 음역으로 ‘고통 받는 이의 집’이다.

499) “바깥으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500) “하늘 안으로 위로 데려가시게 되고 있었다.”가 없는 일부 고대 사본들이 있다.

501) “그분에게 경배한 후”가 없는 일부 고대 사본들이 있다.

502) 이어서 ‘아멘’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KATA IQANNHN

요안네스에¹⁾ 의하여²⁾

1 시작 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³⁾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2 이 말씀이 시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3 모든 것들이 그를(말씀) 통하여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말씀) 없이는 하나도 있게 되지 않았다. 있게 된 채 있는 것이. 4 그(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⁴⁾,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안에 나타난다, 그러나 어둠이 그것을 단단히 취하지 않았다. 6 어떤 사람이 있게 되었다, 하나님에게서 파송 받은 채 있으면서, 그에게 이름은 요안네스이다. 7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이가 증언 안으로 왔다,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8 저이는 빛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9 참된 빛이 있었다, 모든 사람을 밝게 하는 것인, 세상 안으로 오고 있으면서. 10 그분이⁵⁾ 세상 안에 계셨다, 그리고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 11 그분이 자기 자신의 것들 안으로 오셨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들이 그분을 옆에 취하지 않았다. 12 그런데 그분을 취했던 이들만큼은, 그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의 이름 안으로 믿고 있는⁶⁾ 이들에게, 13 피들 밖으로도 아니고 육체의 뜻 밖으로도 아니고 남자의 뜻 밖으로도 아니라 하나님 밖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이들인. 14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셨으며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지켜보았다, 아버지에게서 독생하신 분의 것과 같은 영광을,⁷⁾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신.⁸⁾ 15 요안네스가 그분에

- 1) 히브리어 '요한'과 '예호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 2) ① '요안네스에 의한 복음' ② '요안네스에 의한 거룩한 복음'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 3) 'προς'(프로스)의 기본적인 뜻을 따라 '향하여'로 번역했다. 개역개정을 비롯한 다른 번역들과 대부분의 영역은 '함께'로 번역하고 있다. 'προς'(프로스)가 이곳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헬라어 용법과 신학적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뒤이어 나오는 2절의 '향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4) 현재형 '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 5) 원문에서 이 3인칭 주어는 동사에 들어있는 주어인데,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하다. 1절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17절의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문맥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다. 또한 이런 내용은 이후 14절까지 등장하는 3인칭 대명사 '그'에게도 똑같이 해당한다.
- 6)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투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투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7) "아버지에게서"를 '영광'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서 '독생하신 분의 것 즉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과 같은 영광'으로 볼 것인지는 독법에 따라 다르다.
- 8) 헬라어에서 소유격의 용법은 그 소유격으로 수식하는 대상의 단어를 설명하며 묘사하는 것이 기본기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며 말하고 있으면서 소리친 채 있다. “이분이 내가 말했던 분이셨습니다. 내 뒤에 오시고 있는 분이 내 앞에 있게 되신 채 있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입니다. 16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함 밖으로 은혜를 잇는 은혜도 취했기 때문입니다. 17 율법은 모우세스를⁹⁾ 통하여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스¹⁰⁾ 크리스토스를¹¹⁾ 통하여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8 아무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채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¹²⁾ 저분이 소개하셨습니다.”

19 그리고 이것이 요안네스의 증언이다, 유다이오스들이 그를 향하여¹³⁾ 히에로솔뤼마들¹⁴⁾ 밖으로 제사장들과 류이테스들을¹⁵⁾ 파송했을 때에 그들이 그에게 묻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20 그리고 그가 시인했으며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토스가 아니라고 시인했다. 21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스¹⁶⁾입니까?” 그가 말한다. “나는 아닙니다.” “당신이 그 대언자¹⁷⁾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22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내었던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당신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3 그가 말하고 있었다.

“나는 광야 안에서 외치고 있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대언자 예사이아스가¹⁸⁾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24 그리고 파리사이오스들¹⁹⁾ 중에서 파송 받은 채 있는 이들이 있었다. 25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물었으며 그에게 말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 크리스토스도 아니고 엘리야스도 아니고 그 대언자도 아니라면 당신은 왜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26 요안네스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물 안에서 세례를 줍니다, 당신들 가운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분을 그분이 세우신 채 있습니다²⁰⁾, 27 그분은 내 뒤에 오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에도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28 이일들은 율다네

능이다. 따라서 그 실제적인 의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또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이다. 그리고 그 ‘충만하신’의 대상이 누구인지 독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대상을 ‘아버지’로도, ‘독생하신 분’으로도, ‘말씀’으로도 볼 수 있다. 원문에서는 ‘충만한’이 ‘아버지’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런 이유로 ‘아버지’께서 ‘충만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게 보인다.

9) 히브리어 ‘모셰’의 헬라어 음역이다.

10)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1)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12) ‘독생하신 아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3) “그를 향하여”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4)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며, 복수형이 사용되었다.

15) 레위인들.

16) 히브리어 ‘엘리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17)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18) 히브리어 ‘예샤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19)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20) ‘세우십니다’ 또는 ‘세우셨습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스의²¹⁾ 건너편 베타니아²²⁾ 안에서 있게 되었다, 요안네스가 세례를 주고 있으면서 있었던 곳.

29 다음날에 예수스께서 그를 향하여 오시고 있는 것을 그가 보며 말한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들어올리시고 있는²³⁾ 하나님의 희생제물용어린양이십니다. 30 이분이 내가 말했던 것으로 말미암는²⁴⁾ 분이십니다, ‘내 앞에 있게 되신 채 있는 남자가 내 뒤에 오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31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나타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물 안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면서 왔습니다.” 32 그리고 영이 하늘 밖으로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있는 것과 그분 위에 머물렀던 것을 내가 지켜본 채 있다고 요안네스가 말하고 있으면서 증언했다. 33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물 안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라고 나를 보내셨던 저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이 위에 만약 장차 영이 내려오고 있는 것과 그이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내가 볼 것이면, 이이가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이이다.’ 34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²⁵⁾이신 것을 나는 본 채 있으며 증언한 채 있습니다.”

35 다음날에 또다시 요안네스가 그리고 그의 제자들 중에서 두 명이 선 채 있었으며 36 예수스께서 걸어다니시고 있는 것을 그가 살펴본 후 말한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희생제물용어린양이십니다.” 37 그리고 그의 두 제자들이 그가 발언하고 있는 것을 들었으며 예수스를 따라갔다. 38 그런데 예수스께서 돌아서신 후 그리고 그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지켜보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랍비여,²⁶⁾ 선생님께서 번역되고 있으면서 말해지는 것인, 당신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39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오고 있어라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갔으며 그분이 어디에 머무시는지를 보았으며 그분 옆에서 저 날을 머물렀다. 시간이 대략 열 시²⁷⁾쯤이었다. 40 요안네스에게서 들었으며 그를 따라갔던 둘 중에서 한 명은 시몬²⁸⁾ 페트로스의 형제인 안드레아스이었다. 41 이이가 먼저 자기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내며 그에게 말한다. “우리가 멧시아스를²⁹⁾ 발견한 채 있다.” 크리스토스로 번역되고 있는 것인. 42 그가 그를 예수스를 향하여 이끌었다. 예수스께서 그를 살펴보신 후 말씀하셨다. “너는 요안네스의³⁰⁾ 아들 시몬인데, 케파스로³¹⁾ 불릴 것이다”,

21) 히브리어 ‘야르덴’의 헬라어 음역으로 ‘요단강’이다.

22) 히브리어 ‘베타니아’의 헬라어 음역으로 ‘고통 받는 이의 집’이다. ‘베타바라’(히브리어 베타 압하라-지나가는 집-의 헬라어 음역)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3) “들어올리시고 있는”이 형벌을 대신하여 지시는 것을 의미하는지 또는 형벌의 제거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이중적인 의미로 함께 보아야 할 것 같다.

24) ‘내가 말했던 것에 관한’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 ‘택하신 분’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6) 히브리어 ‘랍비’의 헬라어 음역으로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이다.

27) 오후 4시, 이 당시에는 지금의 오전 6시가 0시이다.

28) 히브리어 ‘שמון’의 헬라어 음역이다.

29) 히브리어 ‘משׁיח’와 아람어 ‘메쉬하’의 또 다른 헬라어 음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30) ‘요나스’(히브리어 ‘요나’-비둘기-의 헬라어 음역)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1) 아람어 ‘케바’(반석)의 헬라어 음역으로, ‘페트로스’와 같다.

페트로스로 해석되는 것인.

43 다음날에 그분이 갈릴리아³²⁾ 안으로 가기를 원하셨으며 필립포스를 발견하신다. 그리고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44 그런데 필립포스는 베뜨사이다³³⁾ 출신이었다. 안드레아스와 페트로스의 성을 밖으로 있는. 45 필립포스가 나따나엘을³⁴⁾ 찾아내며 그에게 말한다. “모우세스와 대언자들이 율법 안에 기록했던 분을 우리가 찾아낸 채 있습니다, 나자렐 출신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스를.” 46 그리고 나따나엘이 그에게 말했다. “나자렐 밖으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필립포스가 그에게 말한다. “당신은 오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47 예수스께서 나따나엘이 그분을 향하여 오는 것을 보셨으며 그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리테스로³⁵⁾ 그이 안에 계교가 없다.” 48 나따나엘이 그분에게 말한다. “어디서부터 저를 아십니까?” 예수스께서 대답하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포스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49 나따나엘이 그분에게 대답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50 예수스께서 대답하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고 너에게 말했던 것 때문에, 내가 믿느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너는 볼 것이다.” 51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³⁶⁾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이 열린 채 있는 것과 하나님의 사자(使者)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과 내려오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2 그리고 셋째 날에 결혼잔치가 갈릴리아의³⁷⁾ 카나 안에서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스의³⁸⁾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다. 2 그런데 예수스와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잔치 안으로 초대되었다. 3 그리고 포도주가 부족한 후에³⁹⁾ 예수스의 어머니가 그분을 향하여 말한다. “그들이 포도주를 갖고 있지 않다.” 4 그리고⁴⁰⁾ 예수스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이 나와 당신에게 있습니까,⁴¹⁾ 여인이여? 아직 나의 시간은 다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5 그분의 어머니가 봉사자들에게 말한다. “무엇을 만약 장차 그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면 너희는 행하라.” 6 그런데 거기에 유다이오스들의 정결함에 의하여 돌로 된

32)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33) 아람어 ‘베트차이다’의 헬라어 음역으로 ‘물고기의 집’이다.

34) 히브리어 ‘네탄엘’의 헬라어 음역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다.

35) 이스라엘 사람.

36) ‘αμην αμην’(아멘 아멘)의 반복용법은 요한에 의하여 요한복음에서만(25회) 사용되었으며,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데, ‘가장 확실하게’라는 의미이다.

37)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38)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9) ‘결혼잔치의 포도주가 완전히 끝나쳐졌기 때문에 그들이 포도주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다음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0) “그리고”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1) 실제적인 의미는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이다.

여섯 개의 물항아리들이 놓여 있으면서 있었다, 위에까지 둘 또는 세 메트레테스⁴²⁾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7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물의 물항아리들을 가득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위에까지 가득하게 했다. 8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너희는 떠라 그리고 잔치주관자에게 가져가고 있어라.” 그런데 그들이 가져갔다. 9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된 채 있는 것을 잔치주관자가 맛보았으며 그것이 어디서부터 있는지 그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런데 물을 뜬 채 있는 그 봉사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 잔치주관자가 신랑을 부르며 10 그에게 말한다. “모든 사람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두며 그들이 술 취하게 되었을 때에는 ⁴³⁾더 못한 것을 둔다.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지킨 채 있다.” 11 예수스께서 표적들 중의 이 시작을 갈릴라이아의 카나 안에서 행하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 안으로 믿었다.⁴⁴⁾

12 이일 후에 그분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⁴⁵⁾ 형제들과 그분의 제자들이 카팔나움⁴⁶⁾ 안으로 내려갔으며 거기에서 많지 않은 날들을 머물렀다.

13 그리고 유다이오스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스께서 히에로솔림⁴⁷⁾ 안으로 올라가셨다. 14 그리고 그분이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들을 팔고 있는 이들과 앉아 있는 환전상들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셨다, 15 그리고 그분이 줄들 밖으로 채찍을⁴⁸⁾ 만드신 후 양들도 소들도 모든 것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잔돈을 쏟으셨으며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다. 16 그리고 비둘기들을 팔고 있는 이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제거하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상점의 집으로 만들지 말고 있어라.” 17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채 있으면서 있는 것을 기억했다.

“당신의 집의⁴⁹⁾ 열정이 나를 먹어치울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이 대답했으며 그분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당신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19 예수스께서 대답하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성소를 허물라 세 날들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킬 것이다.” 20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이 말했다. “이 성소는 사십육 년 동안에 세워졌는데, 당신이 세 날들 안에 그것을 일으킬 것입니까?” 21 그런데 저분은 그분의 몸의 성소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었다. 22 그러므로 그분이 죽은 이들 중에서 일어나셨을 때에, 그분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그분의 제자들이 기억했다, 그리고 성경기록과 예수스

42) 부피단위이며, 1메트레테스는 약 40리터이다.

43) ‘그때에’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4)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튜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튜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5) “그분의”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6) ‘위로의 마을’

47)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48) ‘채찍처럼’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9) 헬라어에서 소유격의 용법은 그 소유격으로 수식하는 대상의 단어를 설명하며 묘사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다. 따라서 여기 “집의 열정”의 실제적인 의미는 ‘집을 향한 또는 집에 관한 열정’이다.

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

23 그런데 그분이 유월절 안에 그 절기 안에서 히에로솔뤼마들⁵⁰⁾ 안에 계셨을 때, 많은 이들이 그분이 행하시고 있었던 그분의 표적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었다. 24 그런데 그분이 모든 이들을 아시고 있는 것 때문에 25 그리고 어떤 이가 사람에게 관하여 증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필요를 가지시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스께서는 친히 그분을⁵¹⁾ 그들에게 믿고 맡기시지 않고 있었다.⁵²⁾ 왜냐하면 무엇이 사람 안에 있었는지를 그분이 친히 아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파리사이오스들⁵³⁾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이름은 니코데모스⁵⁴⁾이며, 유다이오스들의 통치자인. 2 이이가 밤에 그분을 향하여 왔으며 그분에게 말했다. “랍비여,⁵⁵⁾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채 있는 선생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고 있는 이런 표적들을 행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차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면.” 3 예수스께서⁵⁶⁾ 대답하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⁵⁷⁾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어떤 이가 위로부터와 처음부터⁵⁸⁾ 태어나게 되지 않을 것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4 니코데모스가 그분을 향하여 말한다. “어떻게 사람이 늙은이로 있으면서 태어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가 그의 어머니의 배 안으로 두 번째 들어가며 태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⁵⁹⁾ 5 예수스께서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물과 영 밖으로 태어나게 되지 않을 것이면, 그는 하나님의⁶⁰⁾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6 육체 밖으로 태어나게 된 채 있는 것은 육체이다, 그리고 영 밖으로 태어나게 된 채 있는 것은 영이다. 7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너는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는 위로부터와 처음부터⁶¹⁾ 태어나게 되어야 한다.’ 8 바람은⁶²⁾

50) ‘히에로솔뤼마’의 복수형이 사용되었다.

51) ‘그자신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52) “예수스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그분을 믿고 맡기시지 않고 있었다.”가 원문에는 24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25절로 돌렸다.

53) 아랍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54) 헬라어 ‘νικος’(니코스-승리)와 ‘δημος’(데모스-백성)의 합성어로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이다.

55) 히브리어 ‘랍비’의 헬라어 음역으로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이다.

56)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57) ‘αμην αμην’(아멘 아멘)의 반복용법은 요한에 의하여 요한복음에서만(25회) 사용되었으며,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데, ‘가장 확실하게’라는 의미이다.

58) 원문의 ‘ανωθεν’(아노θεν)은 ‘위로부터’와 ‘처음부터’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이중적인 의미로 함께 보아야 할 것 같다.

59)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60) ‘하늘들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61) 3절의 각주와 같다.

62) 원문은 ‘πνευμα’(프뉴마)로 ‘영’으로 번역되는데, ‘바람’이라는 의미로 쓰인 곳은 이곳뿐이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나오는 ‘πνευμα’(프뉴마)를 KJV(킹제임스 영역본) 이외에는 많은 역본에서 ‘바람’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의미인 ‘영’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으로 볼 것인지, ‘영’으로 볼 것인지는 독법에 따라 다르다. 헬라어에서 ‘바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로는 ‘ανεμος’

그것이 율하고 있는 곳으로 불며 너는 그것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영 밖으로 태어나게 된 채 있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이다.” 9 니코데모스가 대답했으며 그분에게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될 수 있습니까?” 10 예수스께서 대답하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⁶³⁾ 11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발언하며 우리는 우리가 본 채 있는 것을 증언한다고 아멘 아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증언을 너희가 취하지 않고 있다. 12 내가 땅에 속한 일들을 너희에게 말했는지라도 만약 지금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면, 만약 장차 내가 하늘에 속한 일들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라면 어떻게 너희가 믿을 것이냐? 13 그리고 ⁶⁴⁾사람의 아들, 하늘 밖으로 내려왔던 이가 아니라면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채 있지 않다. 14 그리고 모우세스가⁶⁵⁾ 광야 안에서 뱀을 놓였던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놓여져야 한다, 15 믿고 있는 모든 이가 ⁶⁶⁾그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6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분이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그이 안으로 믿고 있는⁶⁷⁾ 모든 이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7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심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파송하셨기 때문이다. 18 그이 안으로 믿고 있는 이는 심판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믿지 않고 있는 이는 이미 심판당한 채 있다, 그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 안으로 믿지 않은 채 있기 때문이다. 19 그런데 빛이 세상에 온 채 있는 것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했다는 것 이것이 그 심판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들이 악한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20 왜냐하면 못된 일들을 실행하고 있는 모든 이는 빛을 미워하며 빛을 향하여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일들이 책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1 그런데 진리를 행하고 있는 이는 빛을 향하여 온다, 그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해진 채 있으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2 이 일들 후에 예수스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유다이아⁶⁸⁾ 땅 안으로 가셨으며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고 있었으며 세례를 주시고 있었다. 23 그런데 요안네스도⁶⁹⁾ 살레임의 가까운 아이논 안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면서 있었다, 많은 물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

(아네모스)가 있다. 여기서는 ‘πνευμα(프뉴마-영)’와 관련해서 일부러 이 ‘πνευμα(프뉴마-바람)’을 사용하여 언어기교를 보인 것 같다.

63)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64) ‘하늘 안에 있는’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65) 히브리어 ‘모세’의 헬라어 음역이다.

66) ‘그이 안으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원본문이 ‘그이 안에서’냐 또는 ‘그이 안으로’이냐에 따라 해석과 번역이 달라지는데, ‘그의 안으로’를 취하면 ‘그이 안으로 믿고 있는 모든 이로 영원한 생명을~’으로 번역할 수 있다.

67)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투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투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8)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69) 히브리어 ‘요한나’와 ‘예호한나’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당도하고 있었으며 세례 받고 있었다. 24 왜냐하면 요안네스가 아직 감옥 안으로 던져진 채 있으면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5 그러므로 어떤 유다이오스와⁷⁰⁾ 함께 정결함에 관하여 요안네스의 제자들 밖으로 논란이 있게 되었다. 26 그리고 그들이 요안네스를 향하여 갔으며 그에게 말했다. “랍비여, 올다네스⁷¹⁾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있었던 이, 당신이 증언한 채 있는 이, 보십시오! 이이가 세례를 주고 있으며 모든 이들이 그를 향하여 갑니다.” 27 요안네스가 대답했으며 말했다. “사람은 하나도 취하고 있을 수 없다 만약 장차 하늘 밖으로 그에게 주어진 채 있으면서 있지 않을 것이면. 28 나는 크리스토스가⁷²⁾ 아니고, 오히려 저분 앞에서 파송 받은 채 있는 이라고 내가 말했다는 것을 너희 자신들이 나에게 증언한다. 29 신부를 갖고 있는 이는 신랑이다. 그런데 선 채 있으며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 때문에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러므로 나의 이 기쁨은 채워진 채 있다. 30 저분은 자라나시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못하게 되고 있어야 한다.”

31 “위로부터 오시고 있는 분이 모든 이들 위에 계신다. 땅 밖으로 있는 이는 땅 밖으로 있으며 땅 밖으로 있는 일을 발언한다. 하늘 밖으로 오시고 있는 분은 모든 이들 위에 계신다.⁷³⁾ 32 본 채 있으며 들었던 이일을 그분이 증언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증언을 아무도 취하지 않고 있다. 33 그분의 증언을 취했던 이는 하나님께서 참된 분이시라고 도장 찍었다. 3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입말씀들을⁷⁴⁾ 발언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이⁷⁵⁾ 영을 재지 않고 주시기 때문이다.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것들을 그의 손 안에 주신 채 있다. 36 아들 안으로 믿고 있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런데 아들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이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이 위에 머물고 있다.”⁷⁶⁾

4 그러므로 예수스께서⁷⁷⁾ 요안네스보다⁷⁸⁾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있으며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을 파리사이오스들이⁷⁹⁾ 들었다는 것을 예수스께서 아셨을 때 2 - 그렇지만 예수스께서 친히 세례를 주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주고 있었다. - 3 그분이 유다이아를⁸⁰⁾ 내버려두셨으며 또다시⁸¹⁾ 갈릴리아⁸²⁾ 안으로 떠나가셨다. 4

70) ‘유다이오스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71) 히브리어 ‘야르덴’의 헬라어 음역으로 ‘요단강’이다.

72)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랍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73) “모든 이들 위에 계신다.”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74)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75) ‘하나님께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76) 독법에 따라 이 직접 인용을 30절까지로 보기도 한다.

77)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주님’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78) 히브리어 ‘요한난’과 ‘예호한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79) 아랍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80)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그런데 그분이 사마레이아를⁸³⁾ 통하여 통과하시고 있어야 하는 중이었다. 5 그러므로 야콥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곳의 가까운 쉬칼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사마레이아의 성읍 안으로 그분이 가신다. 6 그런데 거기에 야콥의 샘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여행길 밖으로 피곤하신 채 있으면서 이와 같이 샘으로 인하여 앉아 계셨다. 시간은 대략 여섯 시⁸⁴⁾쯤이었다. 7 어떤 여인이 사마레이아 밖으로 물을 길으려고 온다. 예수스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에게 마시라고 주어라.” 8 왜냐하면 그분의 제자들이 음식들을 사기 위하여 성읍 안으로 떠나간 채 있었기 때문이다. 9 그러므로 사마리티스 여인이 그분에게 말한다. “당신은 유다이오스로서 어떻게 사마리티스 여인인 저에게서 마시기를 구하십니까?” 왜냐하면 유다이오스들은 사마리테스들과 교류하지 않기 때문이다.⁸⁵⁾ 10 예수스께서 대답하셨으며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너는 나에게 마시라고 주어라’라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었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며 그는 살아있는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11 그 여인이⁸⁶⁾ 그분에게 말한다. “주님, 당신은 두레박도 갖고 있지 않으시며 그 우물은 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디서부터 살아 있는 물을 갖고 계십니까? 12 우리의 조상 야콥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이는 아니지 않습니까?⁸⁷⁾”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으며 그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 떼들도 그것 밖으로 마셨던 이인. 13 예수스께서 대답하셨으며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이 물 밖으로 마시고 있는 모든 이는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런데 만약 장차 내가 그에게 줄 물 밖으로 마실 것이면, 그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이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솟구치고 있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15 그 여인이 그분을 향하여 말한다. “주님, 당신은 이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 않고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뜨고 있으려고 통과하지도 않고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6 그분이⁸⁸⁾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떠나고 있어라 너의 남편을 불러라 그리고 여기로 오라.” 17 그 여인이 대답했으며 그분에게 말했다. “저는 남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스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저는 남편을 갖고 있지 않다고 네가 잘 말했다. 18 왜냐하면 네가 다섯 남편들을 가졌었으며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이도 너의 남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이 참된 것을⁸⁹⁾ 말한 채 있다.” 19 그 여인이 그분에게 말한다. “주님, 당신이 대언자⁹⁰⁾이시라고 제가 바라봅니다. 20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 안에서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경배하고 있어야 할 곳이 히에로솔뤼마들⁹¹⁾ 안에 있

81) ‘또다시’가 없는 사본들도 있다.

82)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83) 히브리어 ‘쇼므론’의 헬라어 번역이다.

84) 낮 12시, 이 당시에는 지금의 오전 6시가 0시이다.

85) “왜냐하면 유다이오스들은 사마리테스들과 교류하지 않기 때문이다.”가 없는 고대 사본들도 있다.

86) “그 여인이”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87) ‘μη’(때)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88) ‘예수스께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89) “이것을 참되게”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90)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 예수스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믿고 있어라, 여인아, 이 산 안에서도 아니고 히에로솔뤼마들 안에서도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시간이 오기 때문이다. 22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경배한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경배한다, 구원은 유다이오스들 밖으로이기 때문이다. 23 오히려 시간이 오는데 지금이다,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할 때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이런 이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이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고 있어야 한다.” 25 그 여인이 그분에게 말한다. “크리스토스로⁹²⁾ 말해지시고 있는 멧시아스가⁹³⁾ 오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저분이 오실 때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리실 것입니다.” 26 예수스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나다, 너에게 발언하고 있는.”

27 그리고 이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왔으며 그분이 여인과 함께 발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당신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또는 “당신은 무엇을 그녀와 함께 발언하십니까?” 28 그러므로 그 여인이 그녀의 물항아리를 내버려두었으며 성읍 안으로 떠나갔으며 사람들에게 말한다. 29 “내가 행했던 만큼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말했던 사람을 당신들은 와서 보십시오, 아무래도 이이가 크리스토스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⁹⁴⁾ 30 그들이 성읍 밖으로 나왔으며 그분을 향하여 오고 있었다. 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말하고 있으면서 그분에게 청하고 있었다. “랍비여,⁹⁵⁾ 당신은 잡수십시오.” 32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수 있는 어떤 먹을 것을 내가 갖고 있다.” 33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분에게 잡수시라고 가져갔던 것은 아니지 않는가?”⁹⁶⁾ 34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먹을 것은 나를 보내셨던 분의 뜻을 내가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분의 일을 내가 완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5 아직은 녀 달이 있어야 추수가 온다고 너희가 말하지 않느냐?⁹⁷⁾ 보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눈들을 위로 들어올려라 그리고 추수를 향하여 하얀 것들인 지역들을 지켜보아라. 이미⁹⁸⁾ 36 추수하고 있는 이가 대가를 취하며 열매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모으고 있다, 씨 뿌리고 있는 이가 추수하고 있는 이와 동일하게 기뻐하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7 왜냐하면 이것 안에서 씨 뿌리고 있는 이는 다른 이이며 추수하고 있는 이도 다른 이라는 말씀이 참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38 너희가 수고한 채 있지 않는 것을 추수하고 있도록 나는 너희를 파송했다. 다른 이들은 수고한 채 있으며 너희는 그들의 수고 안으로 들어간 채 있다.”

91)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며, 복수형이 사용되었다.

92)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93)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또 다른 헬라어 음역이다.

94) ‘μητι’(메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95) 히브리어 ‘랍비’의 헬라어 음역으로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이다.

96)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97)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98) 이 “이미”는 앞부분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뒷부분인 36절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문장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용법임을 감안하여 36절에 연결하여 번역했다.

39 그런데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가 나에게 말했다고 그 여인이 증언하고 있는 말을 통하여 저 성읍 밖으로 사마리테스들 중의 많은 이들이 그분 안으로 믿었다.⁹⁹⁾ 40 그러므로 그 사마리테스들이 그분을 향하여 왔을 때, 그분이 그들 곁에 머무실 것을 그들이 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두 날들을 거기에서 머무셨다. 41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많은 것으로 믿었다, 42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너의 발언을 통하여 믿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친히 들은 채 있으며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 시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었다.

43 그런데 두 날들 후에 그분이 거기서부터 갈릴라이아 안으로 나가셨다. 44 왜냐하면 대언자가 자기 자신의 고향 안에서 존경을 갖지 못한다고 예수스께서 친히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45 그러므로 그분이 갈릴라이아 안으로 가셨을 때, 그분이 히에로솔뤼마 안에서 절기 안에 행하셨던 만큼들을 본 채 있는 모든 갈릴라이오스들이¹⁰⁰⁾ 그분을 영접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절기 안으로 갔었기 때문이다.

46 그러므로 그분이 또다시 갈릴라이아의 카나 안으로 가셨다,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곳. 그리고 그 아들이 카팔나움¹⁰¹⁾ 안에서 병들어 있었던 왕에게 속한 어떤 이가 있었다. 47 예수스께서 유다이아 밖에서 갈릴라이아 안으로 다다르시고 있다는 것을 이이가 들은 후 그분이 내려오시도록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낫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떠나갔으며 청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8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만약 장차 너희가 표적들과 징조들을 보지 못할 것이면, 너희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49 그 왕에게 속한 이가 그분을 향하여 말한다. “주님, 당신은 저의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주십시오.” 50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 있다.”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 사람이 믿었으며 가고 있었다. 51 그런데 이미 그가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의 아이가¹⁰²⁾ 살아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를 맞이했다. 52 그러므로 그 아이가 호전된 것을 가졌던 시간에 대하여 그가 그 시간을 그들에게서 캐물었다. 그러므로 어제 일곱 시에¹⁰³⁾ 열병이 그를 내버려두었다고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53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시간에 대하여 저 시간 안에서¹⁰⁴⁾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알았다, “너의 아들이 살아 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었다. 54 그런데¹⁰⁵⁾ 또다시 이 두 번째 표적을 예수스께서 유다이아 밖에서 갈릴라이아 안으로 오신 후 행하셨다.

99)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투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투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0)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 복수형.

101) ‘위로의 마을’

102) ‘당신의 아들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03) 오후 1시, 이 당시에는 지금의 오전 6시가 0시이다.

104) “안에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05) “그런데”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5 이일들 후에 유다이오스들의 절기가 있었으며 예수스께서¹⁰⁶⁾ 히에로솔뤼마¹⁰⁷⁾ 안으로 올라가셨다.

2 그런데 히에로솔뤼마들 안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헤브라이스티¹⁰⁸⁾로 베뜨자따¹⁰⁹⁾라고 말해지고 있는 연못이 다섯 회랑들을 갖고 있으면서 있다. 3 이것들 안에 병들어 있는 이들의, 소경들의, 앓은뱅이들의, ¹¹⁰⁾마른 이들의 무리가 누워 있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4 왜냐하면 주님의 사자(使者)가 때때로 연못 안에 내려오고 있었으며 물을 동요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의 동요함 후에 먼저 들어간 이는 아무 때에 질병으로 단단히 갖고 있게 되었더라도 건강한 이가 되고 있었다.]¹¹¹⁾ 5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의 병약함 안에서 삼십팔 년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었다. 6 이이가 누워 있는 것을 예수스께서 보신 후 그리고 그가 이미 많은 기간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신 후,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건강한 이가 되기를 원하느냐?” 7 그 병들어 있는 이가 그분에게 대답했다. “주님, 물이 동요되었을 때에 저를 연못 안으로 던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사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이가 저보다 앞서 내려갑니다.” 8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일어나고 있어라 너의 간이침상을 들어올려라 그리고 걸어다니고 있어라.” 9 그리고 곧 그 사람이 건강한 이가 되었으며 그의 간이침상을 들어올렸으며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저 날 안에 안식일이 있었다. 10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이 치료된 채 있는 이에게 말하고 있었다. “안식일입니다, 당신의 간이침상을 들어올리는 것은 당신에게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11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건강한 이로 만드신 저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간이침상을 들어올려라 그리고 걸어다니고 있어라.’” 12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말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는 들어올려라 그리고 걸어다니고 있어라.’” 13 그런데 그 낮게 되었던 이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스께서 군중이 있는 그곳 안에서 비켜나셨기 때문이다. 14 이일들 후에 예수스께서 성전 안에서 그를 찾아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네가 건강한 이가 된 채 있다,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있어라, 더 심한 무엇이 너에게 있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5 그 사람이 떠나갔으며 그를 건강한 이로 만든 이는 예수스라고 유다이오스들에게 알렸다. 16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유다이오스들이 예수스를 박해하고 있었다, 그분이 안식일 안에서 이일들을 행하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17 그런데 예수스께서¹¹²⁾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아버지

106)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07)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108) ‘히브리어’

109) 아람어 ‘베뜨자이따’(올리브의 집)의 헬라어 음역이며, ‘베떼스다’(아람어 ‘베트히스다’-자비의 집-의 헬라어 음역)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10) ‘중풍병자들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11) [] 부분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특히 4절은 처음에는 본문을 설명하는 난외주였는데, 후대에 본문으로 삽입된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8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살해하려고 유다이오스들이 더욱 그분을 찾고 있었다. 그분이 오직 안식일만 허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아버지로도 말씀하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19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대답하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아멘 아멘¹¹³⁾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무엇을 보지 못할 것이면 아들은 아무 것도 그자신으로부터 행하고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저분이 행하시고 있는 것들을, 이것들을 아들도 마찬가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좋아하시며 그분이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분이 그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너희가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1 왜냐하면 마치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며 살게 만드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아들도 그가 원하고 있는 이들을 살게 만들기 때문이다. 22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주신 채 있기 때문이다, 23 그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과 같이 모든 이들이 아들을 존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고 있는 이는 그를 보내셨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다. 24 아멘 아멘 나는 너희에게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이는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고 있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며 심판 안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죽음 밖에서 생명 안으로 옮겨간 채 있다고 말한다. 25 아멘 아멘 나는 너희에게 시간이 오고 있으며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들었던 이들이 살 때는 지금이라고 말한다. 26 왜냐하면 마치 아버지께서 그자신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아들에게도 그자신 안에 갖고 있도록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27 그리고 심판을 행하고 있도록 그분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28 너희는 이것을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있어라, 무덤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소리를 들을 것인 가운데 시간이 오고 있으며 29 선한 일들을 행했던 이들은 생명의 부활 안으로, 그런데 못된 일들을 실행했던 이들은 심판의 부활 안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30 “나는 나자신으로부터 아무 것도 행하고 있을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리고 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내가 나의 뜻을 찾지 않고 오히려 나를 보내셨던 분의 뜻을 찾기 때문이다. 31 만약 장차 내가 나자신에 관하여 증언할 것이면, 나의 증언은 참된 것이 아니다. 32 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이는 다른 이이다, 그리고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나는¹¹⁴⁾ 안다. 33 너희가 요안네스를¹¹⁵⁾ 향하여 파송한 채 있다, 그리고 그는 진리로 증언한 채 있다. 34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이것들을 말한다. 35

112) “예수스께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13) ‘αμην αμην’(아멘 아멘)의 반복용법은 요한에 의하여 요한복음에서만(25회) 사용되었으며,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데, ‘가장 확실하게’라는 의미이다.

114) ‘너희는’ 또는 ‘우리는’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15) 히브리어 ‘요한’과 ‘에호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저이는 불붙고 있는 그리고 나타내고 있는 등불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의 빛 안에 있는 시간을 향하여 즐겁게 되기를 원했다. 36 그런데 나는 요안네스보다 더 큰 증언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일들이, 내가 행하는 그 일들 자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채 있다고 나에게 관하여 증언하기 때문이다. 37 나를 보내신 저 아버지께서도¹¹⁶⁾ 나에게 관하여 증언하신 채 있다. 너희는 그분의 소리를 어느 때든지 들은 채 있지도 않으며 그분의 형태를 본 채 있지도 않다. 38 그리고 너희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저분이 파송하셨던 이를, 이이를 너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9 너희가 성경기록들을 살핀다,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게 된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것들도 나에게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들이다. 40 그리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나를 향하여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41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42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자신들안에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런 너희를 나는 알은 채 있다. 43 나는 나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온 채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취하지 않는다. 만약 장차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 안에서 올 것이면, 저이를 너희가 취할 것이다. 44 서로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있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¹¹⁷⁾ 있는 영광을 찾지 않고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고 있을 수 있느냐? 45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말고 있어라. 너희를 고발하고 있는 이는 모우세스¹¹⁸⁾이다, 그이 안으로 너희가 소망한 채 있는 이인. 46 왜냐하면 만약 너희가 모우세스를 믿고 있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관하여 저이가 기록했기 때문이다. 47 그런데 만약 지금 너희가 저이의 문서들을 믿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너희가 나의 입말들을¹¹⁹⁾ 믿을 것이냐?”

6 이일들 후에 예수스께서¹²⁰⁾ 갈릴리아의¹²¹⁾ 즉 티베리아스의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가셨다. 2 그런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분이 병들어 있는 이들에 대하여 행하시고 있었던 표적들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예수스께서 산 안으로 올라가셨으며 거기에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고 있었다. 4 그런데 유월절이 가까이 있었다, 유다이오스들의 절기인. 5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눈들을 들어올리신 후에 그리고 많은 군중이 그분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을 지켜보신 후 필립포스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이이들이 먹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빵들을 살 것이

116) ‘아버지 자신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17) ‘이에게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18) 히브리어 ‘모셰’의 헬라어 음역이다.

119)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120)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21)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냐?” 6 그런데 그분이 그를 시험하시고 있으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고 있으려고 하시고 있었는지 그분이 친히 아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7 필립포스가 그분에게 대답했다. “각자가 그 무엇을¹²²⁾ 조금씩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도 이백 데나리온들의¹²³⁾ 빵들도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8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그분에게 말한다, 시몬¹²⁴⁾ 페트로스의 형제인 안드레아스가. 9 “다섯 보리 빵들과 두 생선들을 갖고 있는 아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 안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10 예수스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이 앉도록 행하라.” 그런데 많은 풀이 그곳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숫자로 대략 오천쯤의 남자들이 앉았다. 11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빵들을 취하셨으며 감사하신 후 앉아 있는 이들에게 나눠주셨다 마찬가지로 생선들 밖으로도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만큼을. 12 그런데 그들이 만족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넘쳤던 조각들을 모아라, 무엇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3 그러므로 그들이 모았으며 그들이 먹어 없앤 채 있는 것으로 넘쳤던 다섯 보리 빵들 밖으로 조각들의 열두 바구니들을 그들이 가득하게 했다. 14 그러므로 그분이 표적들¹²⁵⁾ 행하셨던 것을 사람들이 본 후 이분은 참으로 세상 안으로 오시고 있는 그 대언자¹²⁶⁾이시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 15 그러므로 그들이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분을 탈취하고 있고 있으려고 그리고 오고 있으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스께서 아신 후, 그분이 홀로 산 안으로 또다시 물러가셨다¹²⁷⁾.

16 그런데 대략 해 질 녘쯤 되었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 위로 내려왔으며 17 그들이 배 안으로 탄 후 바다 건너편 카팔나움¹²⁸⁾ 안으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이 이미 있게 된 채 있었으며 예수스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아직 오시지 않은 채 있었다. 18 그리하여 큰 바람이 불고 있을 때 바다가 깨워지고 있었다. 19 그러므로 그들이 대략 이십오나 삼십 스타디온들¹²⁹⁾쯤을 노 젓은 채 있으면서 예수스께서 바다 위에 걸어나다니시고 있는 것과 배 가까이 있게 되시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바라본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20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21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을 배 안으로 취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들이 떠나고 있었던 곳 안으로 배가 땅 위에 있게 되었다.

22 다음날에 ¹³⁰⁾하나가 아니라면 다른 작은 배가 거기에 없었다는 것과 예수스께서 배 안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함께 들어가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의 제자들이 홀로 떠나갔

122) “그 무엇을”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23) 로마의 은화로 일 ‘데나리온’은 무게가 3.8g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124) 히브리어 ‘שמון’의 헬라어 음역이다.

125) ‘표적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26)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127) ‘피하신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28) ‘위로의 마을’

129) 거리단위로, 1‘스타디온’은 약 192미터이다.

130) ‘그것 안으로 그분의 제자들이 탔었던’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던 것을 바다 건너편에 선 채 있는 군중이 보았다. 23 다른 작은¹³¹⁾ 배들이 티베리아스 밖으로 주님이 감사하신 후¹³²⁾ 그들이 빵을 먹었던 곳에 가까이 갔다. 24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군중이 보았을 때에, 그들이 작은 배들 안으로 탔으며 예수스를 찾고 있으면서 카팔나움 안으로 갔다. 25 그리고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찾아낸 후 그분에게 말했다. “랍비여,¹³³⁾ 언제 여기에 있게 되신 채 있습니까?” 26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으며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¹³⁴⁾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표적을 보았던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빵들 밖으로 먹었으며 배부르게 되었던 것 때문에 나를 찾고 있다. 27 너희는 멸망하고 있는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 안으로 머물고 있는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어라,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인.¹³⁵⁾ 왜냐하면 이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셨기 때문이다.” 28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을 향하여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일하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을 것입니까?” 29 예수스께서 대답하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인데, 저분이 파송하셨던 이 안으로 너희가 믿고 있도록¹³⁶⁾ 하기 위한 것이다.” 30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표적을 행합니까, 우리가 보도록 그리고 당신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31 우리 조상들은 광야 안에서 만나를¹³⁷⁾ 먹었습니다, 기록된 채 있는 것과 같이.

‘그분이 빵을 하늘 밖으로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셨다.’”

32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모우세스가¹³⁸⁾ 빵을 하늘 밖으로 너희에게 준 채 있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하늘 밖으로 주시고 있다. 33 왜냐하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 밖으로 내려 오고 있으며 생명을 세상에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4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을 향하여 말했다. “주님, 당신은 항상 이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35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이는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안으로 믿고 있는 이는¹³⁹⁾ 어느 때든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6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나를¹⁴⁰⁾ 본 채 있으면서도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37

131) “작은”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32) “주님이 감사하신 후”가 없는 일부 고대 사본들도 있다.

133) 히브리어 ‘랍비’의 헬라어 음역으로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이다.

134) ‘αμην αμην’(아멘 아멘)의 반복용법은 요한에 의하여 요한복음에서만(25회) 사용되었으며,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데, ‘가장 확실하게’라는 의미이다.

135) 미래형인 ‘줄 것인’ 대신에 현재형인 ‘주고 있는 것인’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36)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튜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튜오)+여격(~에게)’보다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7) 히브리어 ‘만’의 헬라어 번역이다. 70인역에서는 출애굽기에서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만’을 사용했고, 다른 곳에서는 ‘만나’로 번역했다.

138) 히브리어 ‘모세’의 헬라어 음역이다.

139)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튜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튜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0) “나를”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이를 나는 결코 바깥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38 나는 나의 뜻을 행하고 있기 위하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내셨던 분의 뜻을 행하고 있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채 있기 때문이다. 39 그런데 나를 보내셨던 분의 뜻은 이것인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을 그것 중에서 내가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히려 마지막 날 안에¹⁴¹⁾ 내가 그것을 일어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0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인데,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이 안으로 믿고 있는¹⁴²⁾ 모든 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 안에¹⁴³⁾ 일어서게 할 것이다.”

41 그러므로 그분이 말했다고 유다이오스들이 그분에 관하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나는 하늘 밖으로 내려왔던 빵이다”, 42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 “이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스가 아닌가, 우리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지 않는가?¹⁴⁴⁾ 지금 어떻게 내가 하늘 밖으로 내려온 채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가?” 43 예수스께서 대답하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들과 함께 수군거리지 말고 있어라. 44 만약 장차 나를 보내셨던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당기시지 않을 것이면 아무도 나를 향하여 올 수 없다, 내가 그를 마지막 날 안에 일어서게 할 것이다. 45 그것이 대언자들 안에 기록된 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¹⁴⁵⁾ 가르치시는 모든 이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들었으며 배웠던 모든 이는 나를 향하여 온다. 46 하나님에게서 있는 이가 아니라면 어떤 이도 아버지를 본 채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이가¹⁴⁶⁾ 하나님을 본 채 있다. 47 아멘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¹⁴⁷⁾믿고 있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48 내가 생명의 빵이다. 49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 안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50 하늘 밖으로 내려오고 있는 빵은 이것인데, 누구라도 그것 밖으로 먹도록 그리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1 내가 하늘 밖으로 내려왔던 살아 있는 빵이다. 만약 장차 어떤 이가 이 빵 밖으로 먹을 것이면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줄 빵도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나의 살이다.”

52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이 말하고 있으면서 서로들을 향하여 다투고 있었다. “어떻게 이이는 우리에게 그의¹⁴⁸⁾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는가?” 53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그

141) “안에”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42)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튜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튜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3) “안에”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44)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45) 헬라어의 소유격 용법 중 주격적 소유격의 용법으로 볼 때 그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이다.

146) 여기 ‘이이가’는 앞의 ‘하나님에게서 있는 이’를 가리킨다.

147) ‘내 안으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48) “그의”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을 것이면 그리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면, 너희는 너희자신들 안에 생명을 갖지 못한다. 54 나의 살을 먹고 있으며 나의 피를 마시고 있는 이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어서게 할 것이다. 55 왜냐하면 나의 살은 참된 먹을 것이고, 나의 피는 참된 마실 것이기 때문이다. 56 나의 살을 먹고 있으며 나의 피를 마시고 있는 이는 내 안에 머물며 나도 그이 안에 머문다.¹⁴⁹⁾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살아 있는 것과 같이, 나를 먹고 있는 저이도 나를 통하여 살아 있다. 58 하늘 밖으로 내려왔던 빵이 이이인데, ¹⁵⁰⁾조상들이 먹었고 죽었던 것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고 있는 이는 영원히 살 것이다.” 59 그분이 이것들을 카팔나움 안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말씀하셨다.

60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들은 후 말했다. “이 말씀은 굳은 것이다. 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61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이것에 관하여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예수스께서 그자신 안에서 보신 채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희를 넘어뜨리고 있느냐? 62 그렇다면 만약 장차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바라보고 있을 수는 있을 것인가? 63 영은 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육체는 아무 것에도 유익하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발원한 채 있는 입말들은¹⁵¹⁾ 영이며 생명이다. 64 오히려 믿지 않고 있는 어떤 이들이 너희 중에 있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이 누구들이며 그분을 넘겨줄 이가 누구인지 예수스께서 시작부터 아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65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만약 장차 아버지 밖으로 그에게 주어진 채 있는 것이 아닐 것이면 아무도 나를 향하여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채 있다.”

66 이것 밖으로¹⁵²⁾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뒤에 있는 것들 안으로 떠나갔으며 더 이상 그분과 함께 걸어나가지 않고 있었다. 67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열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떠나고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¹⁵³⁾ 68 시몬 페트로스가 그분에게 대답했다. “주님, 저희가 누구를 향하여 떠나갈 것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한 생명의 입말씀들을 갖고 계십니다, 69 그리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¹⁵⁴⁾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믿은 채 있으며 알은 채 있습니다.” 70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들을 선택했지 않느냐?¹⁵⁵⁾ 그러나 너희 중에서 한 명은 마귀이다.” 71 그

149) 베자 사본인 D사본에는 이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 아멘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너희가 생명의 빵과 같이 사람의 아들의 몸을 취하지 않을 것이면, 너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갖지 못한다.’가 덧붙여 기록되어 있다.

150) ‘너희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51)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152) 실제적인 의미를 ‘이것 때문에’로 볼지 또는 ‘이때부터’로 볼지는 독법에 따라 다르다.

153)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54)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55)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런데 그분은 이스카리오테스의 시몬의 아들 유다스를¹⁵⁶⁾ 말씀하시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이가 그분을 넘겨주고 있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둘 중에서 한 명으로.

7 그리고 이일들 후에 예수스께서¹⁵⁷⁾ 갈릴라이아¹⁵⁸⁾ 안에서 걸어나다니시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다이아¹⁵⁹⁾ 안에서 걸어나다니시고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있었
기¹⁶⁰⁾ 때문이다, 유다이오스들이 살해하려고 그분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유
다이오스들의 절기인 장막절이 가까이 있었다. 3 그러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을 향하
여 말했다. “당신은 여기에서 옮겨가며 유다이아 안으로 떠나고 있으십시오, 당신이 행하
고 있는 당신의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왜냐하면 아무도
감춘 것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도 드러냄 안에 있을 것을 친히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
약 지금 당신이 이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5 왜
냐하면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 안으로 믿지 않고 있었기¹⁶¹⁾ 때문이다. 6 그러므로 예수스
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시점은 아직 옆에 있지 않다, 그런데 너희의 시점은 항
상 준비된 것이다. 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미워하
고 있다, 그것의 일들은 악한 것들이라고 내가 그것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8
너희는 절기 안으로 올라가라. 나는 이 절기 안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나의 시점이 아직
채워진 채 있지 않기 때문이다.” 9 그런데 ¹⁶²⁾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분 자신은 갈릴
라이아 안에 머무셨다.

10 그런데 그분의 형제들이 절기 안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에 그분도 나타나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감춘 것 안에 있으신 것처럼¹⁶³⁾ 올라가셨다. 11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이
절기 안에서 그분을 찾고 있었으며 말하고 있었다. “저이가 어디에 있는가?” 12 그리고
그분에 관하여 많은 수군거림이 군중들 안에서 있었다. 한편 그는 선한 이라고 그들이 말
하고 있었으며, 또 한편¹⁶⁴⁾ 다른 이들은 말하고 있었다.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을 미
혹하고 있다.” 13 그럼에도 아무도 유다이오스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분에 관하여 드러냄
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었다.

14 그런데 이미 절기가 중간에 있을 때 예수스께서 성전 안으로 올라가셨으며 가르치
시고 있었다. 15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이 말하고 있으면서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

156)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157)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
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58)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159)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160) “걸어나다니시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있었기” 대신에 ‘걸어나다니시고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지
않았기’(자유롭게 다니실 수 없었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61)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튜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튜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2) ‘그들에게’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63) ‘처럼’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64) “또 한편”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었다. “어떻게 이이는 배우지 않은 채 있으면서 문서들을 알고 있는가?” 16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으며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보내셨던 분의 것이다. 17 만약 장차 어떤 이가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면, 그는 그 가르침에 관하여 어느 것이 하나님 밖으로인지 또는 내가 나자신으로부터 발언하는지 알 것이다. 18 그자신으로부터 발언하고 있는 이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찾는다. 그런데 그를 보내셨던 분의 영광을 찾고 있는 이이는 참된 이이며 불의가 그 이 안에 있지 않다. 19 모우세스가¹⁶⁵⁾ 너희에게 율법을 준 채 있지 않느냐?¹⁶⁶⁾ 그러나 너희 중에서 아무도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왜 너희는 나를 살해하려고 찾느냐” 20 군중이 대답했다. “당신은 귀신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찾습니까?” 21 예수스께서 대답했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의 일을 행했으며 너희 모든 이들이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22 모우세스가 너희에게 할례를 준 채 있는 이것 때문에 - 그것은 모우세스 밖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상들 밖으로 있는 것이다 - 안식일 안에서도 너희가 사람을 할례하고 있다. 23 만약 지금 모우세스의 율법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안식일 안에서 할례를 취하고 있다면, 내가 안식일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너희는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24 너희는 외모에 의하여 심판하지 말고 있고, 오히려 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심판하고 있어라.”

25 그러므로 히에로솔뤼미테스들¹⁶⁷⁾ 중에서 어떤 이들이 말하고 있었다. “그들이 살해하려고 찾고 있는 이는 이이가 아닌가?¹⁶⁸⁾ 26 그리고 보라! 그가 드러냄으로 발언하고 있으나 그들이 그에게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혹시 통치자들은 이이가 크리스토스¹⁶⁹⁾라고 참으로 알았을까? 27 오히려 우리는 이이가 어디서부터인지를 안다. 그러나 크리스토스께서 오실 때에는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알지 못한다.” 28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성전 안에서 소리치셨다. “너희는 나도 알며 내가 어디서부터인지도 안다. 그러나 나는 나자신으로부터 온 채 있지 않다, 오히려 나를 보내셨던 분은 참된 분이시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이신. 29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있으며 저분이 나를 파송하셨기 때문이다.” 30 그러므로 그들이 붙들려고 그분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 위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직 그분의 시간이 온 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31 그런데 군중 중에서 많은 이들이 그분 안으로 믿었으며 말하고 있었다. “크리스토스께서 오실 때에도 이분이 행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¹⁷⁰⁾ 32 군중이 그분에 관하여 이것들을 수군거리고 있을 때 파리사이오스들이¹⁷¹⁾ 들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도록 하기 위

165) 히브리어 ‘모쉐’의 헬라어 음역이다.

166)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67) 예루살렘 사람

168)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69)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170) ‘un’(에)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71)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하여 대제사장들과 파리사이오스들이 보조자들을 파송했다. 33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은 작은 기간을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를 보내셨던 분을 향하여 나는 떠난다. 34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¹⁷²⁾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35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이 그자신들을 향하여 말했다. “우리가 그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니 이이가 어디로 가고 있으려고 하고 있는가? 헬렌들의¹⁷³⁾ 흩어진 곳 안으로 그가 가고 있으려고 하며 헬렌들을 가르치고 있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¹⁷⁴⁾ 36 그가 말했던 이 말은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¹⁷⁵⁾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37 그런데 절기의 마지막 큰 날 안에서 예수스께서 서신 채 있었으며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소리치셨다.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목마르고 있을 것이면 그는 나를 향하여 오고 있어라 그리고 마시고 있어라. 38 내 안으로 믿고 있는 이는, 성경구절이 말했던 것과 같이, 그의 배 밖으로 살아 있는 물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39 그런데 그분은 그분 안으로 믿었던¹⁷⁶⁾ 이들이 취하고 있으려고 하고 있었던 영에 관하여 이것을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아직 영이¹⁷⁷⁾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스께서 아직 전혀 영광스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0 그러므로 군중 중에서 그들이¹⁷⁸⁾ 이 말씀들을 들은 후 말하고 있었다. “이분이 참으로 그 대언자¹⁷⁹⁾이십니다.” 41 다른 이들은 말하고 있었다. “이분이 크리스토스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크리스토스께서 갈릴라이아 밖으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¹⁸⁰⁾ 42 성경구절은 다윈의 씨 밖으로 그리고 다윈이 있었던 마을의 베들레헴¹⁸¹⁾으로부터 크리스토스께서 오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¹⁸²⁾ 43 그러므로 그분 때문에 군중 안에서 찢김이 있게 되었다. 44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그분을 붙들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아무도 그분 위에 손들을 내밀지 못했다.

45 그러므로 보조자들이 대제사장들과 파리사이오스들을 향하여 갔다, 그리고 저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너희는 그를 이끌지 않았느냐?” 46 보조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도 결코 이와 같이 발언하지 않았습시다.”¹⁸³⁾ 47 그러므로 파리사이오스들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너희도 미혹당한 채 있는 것은 아니겠지?¹⁸⁴⁾ 48 통치자들 중에서

172) “나를”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73) 헬라인으로 복수형.

174)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75) “나를”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176) 현재형 ‘믿고 있는’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77) ‘성령이’, 또는 ‘성령이 그들 위에’, 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78) ‘많은 이들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79)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180)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81) 히브리어 ‘베트레헴’의 헬라어 음역이며, ‘베트’(집)와 ‘레헴’(빵)을 결합으로 ‘빵집’이라는 뜻이다.

182)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83) 이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84)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또는 파리사이오스들 중에서 누구라도 그이 안으로 믿었던 것은 아니겠지?¹⁸⁵⁾ 49 오히려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군중은 저주받은 이들이다.” 50 니코데모스가¹⁸⁶⁾ 그들을 향하여 말한다. 이전에 그분을 향하여 왔었던, 그들 중에서 한 명으로 있는. 51 “만약 장차 먼저 그에게서 듣지 않을 것이면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할 것이면 우리의 율법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¹⁸⁷⁾” 52 그들이 대답했으며 그에게 말했다. “당신도 갈릴라이아 밖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¹⁸⁸⁾ 당신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갈릴라이아 밖으로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십시오.”

189)[53 그리고 그들이 각각 각자의 집 안으로 갔다,

8 그런데 예수스께서¹⁹⁰⁾ 올리브나무들의 산 안으로 가셨다. 2 그런데 새벽에 또다시 그분이 성전 안으로 당도하셨으며 모든 백성은 그분을 향하여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앉으신 후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었다. 3 그런데 서기관들과 파리사이오스들이¹⁹¹⁾ 간음으로 인하여 단단히 취해진 채 있는 여인을 이끌며 그녀를 가운데 세운 후 4 그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선생님, 이 여인은 간음하고 있을 때 현장에서 취해진 채 있습니다. 5 그런데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모우세스는¹⁹²⁾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고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분을 고발하고 있을 것을 갖고 있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수스께서 아래로 굽히신 후 손가락으로 땅 안으로 ¹⁹³⁾아래에 기록하시고 있었다. 7 그런데 그들이 그분에게 묻고 있는 것을 계속할 때, 그분이 허리를 펴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의 죄짓지 않는 이가 먼저 그녀 위에 돌을 던져라.” 8 그리고 그분이 또다시 아래쪽으로 굽히신 후 땅 안으로 기록하시고 있었다. 9 그런데 들었던 이들이¹⁹⁴⁾ 장로들로부터 시작하여¹⁹⁵⁾ 한 명 한 명씩 나가고 있었으며 그분이¹⁹⁶⁾ 홀로 남겨지셨으며 그 여인도 가운데 있으면서 남겨졌다. 10 그런데 예수스께서 허리를 펴신 후 ¹⁹⁷⁾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그들은¹⁹⁸⁾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유죄 선고하지 않았느냐?”

185)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86) 헬라어 ‘νικος’(니코스-승리)와 ‘δημος’(데모스-백성)의 합성어로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이다.

187)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88)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189) 7:53~8:11절이 원본문에는 없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이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다.

190)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191) 아랍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192) 히브리어 ‘모쉐’의 헬라어 음역이다.

193) ‘그들의 각각의 죄들을’이 덧붙여 기록된 일부 고대 사본들도 있다.

194) “들었던 이들이” 대신에 “들었으며 양심으로 말미암아 책망 받고 있는 이들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95) 이어서 ‘마지막 이들까지’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96) ‘예수스께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97) 이 앞부분에 ‘그 여인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지켜보신 후’가 있는 사본들도 있다.

198) ‘저 너의 고발자들은’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1 그런데 그녀가 말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예수스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유죄 선고하지 않는다. 너는 가고 있어라, 그리고¹⁹⁹⁾ 지금부터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있어라.”]

12 그러므로 또다시 예수스께서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발언하셨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고 있는 이는 결코 어둠 안에서 걸어나다니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13 그러므로 파리사이오스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자신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당신의 증언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14 예수스께서 대답하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내가 나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떠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오는지 또한 어디로 떠나는지 알지 못한다. 15 너희는 육체에 의하여 심판한다. 나는 아무 것에 의하여도 심판하지 않는다. 16 그리고 만약 장차 내가 심판하기라도 할 것이면, 내 심판은 참된 것이다. 나는 홀로 있지 않고, 오히려 나를 보내셨던 아버지와 있기 때문이다. 17 그리고 율법 안에서도 두 사람들의 증언은 참된 것이라고 너희에게 기록된 채 있다. 18 내가 나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이이며 나를 보내셨던 아버지께서도 나에게 관하여 증언하신다.” 19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스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며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만약 너희가 나를 알고 있었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20 그분이 이 입말씀들을²⁰⁰⁾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고 있으면서 헌금함 있는 곳 안에서 발언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붙들지 않았다. 아직 그분의 시간이 온 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1 그러므로 그분이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난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떠나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22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이 말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가 그자신을 살해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²⁰¹⁾ 그가 말하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23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 “너희는 아래들 밖으로 있다, 나는 위들 밖으로 있다. 너희는 이 세상 밖으로 있다, 나는 이 세상 밖으로 있지 않다. 24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만약 장차 나는 나라²⁰²⁾ 것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면, 너희가 너희의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25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스께서

199) “그리고”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00)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201) ‘μητι’(메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02) 원문은 ‘εγω ειμι’(에고 에이미)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표현인 히브리어 본문의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를 헬라어 70인경은 ‘εγω ειμι ο ων’(에고 에이미 호 온 - 나는 있는 이이다. 또는 나는 존재하고 있는 이이다.)으로 번역하는데, ‘εγω ειμι’(에고 에이미)는 이 표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시작을 왜 내가 너희에게 발언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냐?²⁰³⁾ 26 내가 너희에 관하여 발언하고 있으려고 그리고 심판하고 있으려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나, 오히려 나를 보내셨던 분은 참된 분이시다, 나도 그분에게서 들었던 이것들을 세상 안으로 발언한다.” 27 그분이 아버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28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그들에게²⁰⁴⁾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높일 때에는, 그때에는 나는 나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나자신으로부터 아무 것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치셨던 것과 같이 내가 이것들을 발언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29 그리고 나를 보내셨던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나를 홀로 내 버려두시지 않았다,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그분에게 항상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0 그분이 이것들을 발언하시고 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분 안으로 믿었다.²⁰⁵⁾

31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그분을 믿은 채 있는 유다리오스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었다. “만약 장차 너희가 나의 말 안에 머물 것이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일 것이며 32 진리를 알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3 그들이 그분을 향하여 대답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아무에게 어느 때든지 종이 된 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너희가 자유로운 이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34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²⁰⁶⁾ 나는 너희에게 죄를 행하고 있는 모든 이는 죄의 종이라고 말한다. 35 그런데 좋은 영원히 집 안에 머물지 못한다, 아들은 영원히 머문다. 36 그러므로 만약 장차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면, 실제로 너희는 자유로운 이들로 있을 것이다. 37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오히려 너희는 살해하려고 나를 찾는다, 나의 말이 너희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38 내가 ²⁰⁷⁾아버지 옆에서 본 채 있는 것들을 나는 발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²⁰⁸⁾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것들을 행한다.” 39 그들이 대답했으며 그분에게 말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만약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일들을 행하고 있었을 것이다²⁰⁹⁾. 40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진리를 너희에게 발언한 채 있는 사람인 나를 지금 너희는 살해하려고 찾는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 41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의 일들을 행한다.” 그러므로²¹⁰⁾ 그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우리는 음행 밖으로 태어나게 된 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 아버지로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다.” 42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의

203) 이 문장은 원문에서 그 독법이 무척 까다로워서 여러 독법으로 읽힌다.

204) “그들에게”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05)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투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투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6) ‘αμην αμην’(아멘 아멘)의 반복용법은 요한에 의하여 요한복음에서만(25회) 사용되었으며,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데, ‘가장 확실하게’라는 의미이다.

207) ‘나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08) ‘너희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09) 명령형 ‘행하고 있어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10) “그러므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아버지이셨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밖으로 나왔으며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자신으로부터 온 채 있지 않고, 오히려 저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43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의 발언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의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44 너희는 마귀 아버지 밖으로 있으며 너희의 아버지의 갈망들을 행하고 있기를 원한다. 저이는 시작부터 살해자였으며 진리 안에 서있지 않고 있었다²¹¹⁾, 진리가 그이 안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발언하고 있을 때에는, 그는 자신들 밖으로 발언한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그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45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46 너희 중에서 누가 나를 죄에 관하여 책망하겠느냐? 만약 지금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47 하나님 밖으로 있는 이가 하나님의 입말씀들을 듣는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듣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 밖으로 있지 않다.” 48 유다이오스들이 대답했으며 그분에게 말했다. “당신이 사마리테스이거나 귀신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²¹²⁾ 49 예수스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모욕하고 있다. 50 그런데 나는 나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 찾으시고 있으며 심판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 51 아멘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나의 말을 지킬 것이면, 그는 결코 죽음을 영원히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52 그러므로²¹³⁾ 유다이오스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당신이 귀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은 채 있습니다. 아브라암이 죽었으며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말합니다.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나의 말을 지킬 것이면, 그는 결코 영원히 죽음을 맞보지 않을 것이다.’ 53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암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²¹⁴⁾ 죽었던 어느 누구인²¹⁵⁾? 그리고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자신을 누구로 만듭니까?” 54 예수스께서 대답하셨다. “만약 장차 내가 나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면, 나의 영광은 아무 것도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있는 분이시다, 너희가 우리의²¹⁶⁾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분인, 55 그리고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 채 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안다. 그리고 만약 장차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오히려 나는 그분을 알며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56 너희의 조상 아브라암은 나의 날을 보기 위하여 크게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가 보았으며 기뻐하게 되었다.” 57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이 그분을 향하여 말했다. “당신이 아직 오십 년을 갖고 있지 않는데 아브라암을 본 채 있습니까?”²¹⁷⁾ 58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211) “서있지 않고 있었다”{ἔστηκεν(에스테켄)-στηκεν(스테코)의 미완료과거형} 대신에 ‘선 채 있지 않다’{ἔστηκεν(헤스테켄)-ιστημι(히스테미)의 현재완료형}로 기록된 사본들도 많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ε’(에) 위에 붙이는 기식부호의 차이이다.

212)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13) “그러므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14)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15) ‘죽었기 때문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16) ‘너희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데, 아브라함이 있게 되기 전에도 나는 나다.²¹⁸⁾ 59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 위에 던지기 위하여 돌들을 들어올렸다. 그런데 예수스께서 감춰지셨으며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²¹⁹⁾

9 그리고 그분이 지나가시고 있으면서 태어남 밖으로 소경인 사람을 보셨다. 2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으면서 그분에게 물었다. “랍비여,²²⁰⁾ 누가 죄지었습니까, 이이입니까 또는 그의 부모들입니까, 그가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 3 예수스께서 대답하셨다. “이이도 죄짓지 않았으며 그의 부모들도 죄짓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이 그이 안에서 나타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4 낮이 있을 때까지 나를²²¹⁾ 보내셨던 분의 일들을 우리는²²²⁾ 일하고 있어야 한다. 아무도 일하고 있을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다. 5 내가 세상 안에 있는 때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6 그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 땅바닥에 침 뱉으셨으며 침 밖으로 진흙을 만드셨으며 그 진흙을 그의 눈들 위에 바르셨으며 7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실로암의²²³⁾ (파송 받은 채 있는 이로 해석되는 것인) 연못 안으로 씻으려고 떠나고 있어라.” 그러므로 그가 떠나갔으며 씻었으며 보고 있으면서 갔다. 8 그러므로 친지들과 이전에 거지였던 그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말하고 있었다. “이이는 앉아 있으면서 구걸하고 있는 이가 아닙니까?”²²⁴⁾ 9 다른 이들은 이이가 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말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비슷한 이입니다.” 저이는 바로 나라고 말하고 있었다. 10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의 눈들이 열려졌습니까?” 11 저이가 대답했다. “예수스로 말해지고 있는 사람이 진흙을 만들었으며 나의 눈들에 발랐으며 너는 실로암 안으로 떠나고 있으며 씻으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간 후에 그리고 씻은 후 쳐다보았습니다.” 12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저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말한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13 그들이 파리사이오스들을²²⁵⁾ 향하여 언젠가 소경인 그를 이끈다. 14 그런데 예수스께서 진흙을 만드셨으며 그의 눈들을 여셨던 날 안에 안식일이 있었다. 15 그러므로 또다시 파리사이오스들도 어떻게 그가 쳐다보았는지 그에게 묻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분이 진흙을 나의 눈들 위에 얹었으며 내가 씻었으며 봅니다.” 16 그러므

217)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겠습니까?’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18) 원문은 ‘εγω ειμι’(에고 에이미)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표현인 히브리어 본문의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헬라어 70인경은 ‘εγω ειμι ο ων’(에고 에이미 호온 - 나는 있는 이이다. 또는 나는 존재하고 있는 이이다.)으로 번역하는데, ‘εγω ειμι’(에고 에이미)는 이 표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219) 이어서 ‘그리고 그분이 그들 가운데를 통하여 통과하신 후 지나가시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지나가시고 있었다.’가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20) 히브리어 ‘랍비’의 헬라어 음역으로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이다.

221) ‘우리를’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22) ‘나는’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23) 히브리어 ‘실로아흐’(보냄 받은 자)의 헬라어 음역이며, 기존 한국어성경에서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는 ‘셀라’로 이사야 8장 16절에서는 ‘실로아’로 번역되었다.

224)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25)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로 파리사이오스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말하고 있었다. “이이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²²⁶⁾ 다른 이들은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이런 표적들을 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찢김이 그들 안에 있었다. 17 그러므로 그들이 그 소경에게 또다시 말한다. “너는 그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가 너의 눈들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그분이 대언자²²⁷⁾ 시라고 말했다. 18 그러므로 그가 소경이었으며 쳐다보았다는 것을 유다이오스들이 그에 관하여 믿지 않았다, 쳐다보았던 그의 부모들을 불렀을 때까지 19 그리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물었을 때까지. “이이가 너희의 아들이냐, 그가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인?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은 그가 보느냐?” 20 그러므로 그의 부모들이 대답했으며 말했다. “이이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21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그가 보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또는 어떤 이가 그의 눈들을 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²²⁸⁾ 그가 친히 그자신에 관하여 발언할 것입니다.” 22 그의 부모들이 유다이오스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말했다. 왜냐하면 만약 장차 어떤 이가 그를 크리스토스로²²⁹⁾ 시인할 것이면, 그가 회당출교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유다이오스들이 동의한 채 있었기 때문이다. 23 이것 때문에 그가 나이를 갖고 있다고, 당신들이 그에게 질문하라고 그의 부모들이 말했다. 24 그러므로 그들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밖으로 불렀으며 그에게 말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이 사람이 죄인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25 그러므로 저이가 대답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소경으로 있으면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 하나는 내가 압니다.” 26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느냐? 어떻게 그가 너의 눈들을 열었느냐?” 27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했으나 당신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왜 또다시 당신들은 듣고 있기를 원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²³⁰⁾ 28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욕했으며 말했다. “너는 저이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우세스의²³¹⁾ 제자들이다. 29 하나님께서 모우세스에게 발언하신 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런데 이이는 어디서부터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30 그 사람이 대답했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이것 안에서 그것은 놀랍고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디서부터 있는지 당신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눈들을 여셨습니다. 31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만약 장차 어떤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일 것이면 그리고 그분의 뜻을

226) “그런데”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27)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228) 실제적인 의미는 ‘나이 먹었다’이다.

229)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230)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31) 히브리어 ‘모셰’의 헬라어 음역이다.

행할 것이면 그분이 이이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32 어떤 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채 있는 이의 눈들을 열었다는 것은 시대 밖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33 이분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었다면, 그분은 아무 것도 행하시고 있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34 그들이 대답했으며 그에게 말했다. “너는 온전히 죄들 안에서 태어나게 된 채 있다 그런데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35 그들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스께서 들으셨으며 그를 찾아내신 후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의²³²⁾ 아들 안으로 믿느냐?”²³³⁾ 36 저이가 대답했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그분 안으로 믿기 위함입니다.” 37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를 본 채 있기도 하다 그리고 너와 함께 발언하고 있는 이가 저이다.” 38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가 그분에게 절했다. 39 그리고 예수스께서 말씀하셨다.²³⁴⁾ “나는 심판 안으로 이 세상 안으로 왔다,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보도록 하기 위함이며 보고 있는 이들이 소경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40 파리사이오스들 중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이들이 이것들을 들었으며 그분에게 말했다. “우리도 소경들은 아니지 않습니까?”²³⁵⁾ 41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너희는 죄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본다 고 지금 너희가 말하고 있으니, 너희의 죄가 머물고 있다.

10 “아멘 아멘²³⁶⁾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문을 통하여 양들의 마당 안으로 들어가 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저이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2 그런데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있는 이는 양들의 목자이다. 3 이이에게 문지기가 열며 양들은 그의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을 이름에 의하여 부르며 그것들을 이끌어낸다. 4 그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보낼 때에는, 그는 그것들 앞에서 가며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그것들이 그의 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5 그런데 그것들은 남을 결코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로부터 피할 것이다, 남들의 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6 이 은유를 그들에게 예수스께서²³⁷⁾ 말씀하셨다, 그런데 저이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발언하시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들인지 알지 못했다.

7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또다시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나는 너희에게 내가 양들의 문이라고 말한다. 8 나보다 전에²³⁸⁾ 왔던 이들만큼의 모든 이들은 도둑들이며 강도들이

232) ‘하나님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33)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튜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튜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4) 38절 전체와 이 문장까지가 없는 사본들도 있다.

235)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36) ‘αμην αμην’(아멘 아멘)의 반복용법은 요한에 의하여 요한복음에서만(25회) 사용되었으며,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데, ‘가장 확실하게’라는 의미이다.

237)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38) “나보다 전에”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고, 오히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하여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들어갈 것이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며 들어갈 것이며 나올 것이며 꼴을 발견할 것이다. 10 도둑은 도둑질하며 도축하며 멸망시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오지 않는다. 그것들이 생명을 갖도록 그리고 넘치는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왔다. 11 나는 좋은 목자다. 좋은 목자는 그의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둔다²³⁹⁾. 12 그러나 목자로 있지 않는 품꾼은, 양들이 자신들의 것이 아닌 이인, 늑대가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양들을 내버려두며 피한다 - 그리고 늑대가 그것들을 탈취하며 ²⁴⁰⁾흠트린다 - 13 그는 품꾼이며 양들에 관하여 그에게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14 나는 좋은 목자이며 나의 것들을 알며 나의 것들도 나를 안다,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둔다²⁴¹⁾. 16 그리고 오히려 이 마당 밖으로 있지 않는 양들을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저것들도 내가 이끌어야 하며 그것들은 나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 양떼가 될 것이고, 그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17 내가 또다시 그것을²⁴²⁾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목숨을 두는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18 아무도 그것을 나로부터 제거하지 못하고²⁴³⁾, 오히려 내가 그것을 나 자신으로부터 둔다. 나는 그것을 두는 권세를 갖고 있으며, 또다시 그것을 취하는 권세도 갖고 있다. 나는 이 계명을 나의 아버지에게서 취했다.”

19 ²⁴⁴⁾찢김이 또다시 이 말씀들 때문에 유다이오스들 안에서 있게 되었다. 20 그런데 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었다. “그는 귀신을 갖고 있으며 미쳐 있다. 왜 너희가 그의 말을 듣고 있느냐?” 21 다른 이들이 말하고 있었다. “이 입말들은²⁴⁵⁾ 귀신들려 있는 이의 것이 아니다. 귀신이 소경들의 눈들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²⁴⁶⁾

22 그때에²⁴⁷⁾ 히에로솔뤼마들²⁴⁸⁾ 안에서 성전봉헌절들이 되었고, 겨울이었다, 23 그리고 예수스께서 성전 안 솔로몬의²⁴⁹⁾ 회랑 안에서 걸어나다니시고 있었다. 24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이 그분을 둘러쌌으며 그분에게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당신은 우리의 영혼을 들어올립니까? 만약 지금 당신이 크리스토스²⁵⁰⁾라면, 당신은 드러냄으로 우리에게 말씀 해주십시오. 25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언하고

239) ‘준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40) 이 앞에 ‘양들을’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41) ‘준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42) 뒤에 나오는 ‘나의 목숨을’을 받는 대명사이다.

243) 과거형 ‘제거하지 못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44) ‘그러므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45)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246)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47) ‘그런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48)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며, 복수형이 사용되었다.

249) 히브리어 ‘셀로모’(평화스러운)의 헬라어 음역이다.

250)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있다. 26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믿지 않는다, 251) 너희가 나의 양들 밖으로 있기 않기 때문이다. 27 나의 양들이 나의 소리를 듣는다, 나도 그것들을 알며 그것들은 나를 따라온다, 28 내가 그것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그것들은 영원히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이도 그것들을 나의 손 밖으로 탈취하지 못할 것이다. 29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것이다, 252) 그리고 아무도 253) 아버지의 손 밖으로 탈취하고 있을 수 없다. 30 나와 254) 아버지는 하나이다.” 31 또다시 유다이오스들이 그분을 돌로 치기 위하여 돌들을 짊어졌다. 32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많은 좋은 일들을 너희에게 255) 아버지 밖으로 보여주었다. 그것들 중의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느냐?” 33 유다이오스들이 그분에게 대답했다. “좋은 일에 관하여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지 않고 오히려 신성모독에 관하여 돌로 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이면서 당신이 당신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34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율법 안에

‘너희는 신들이다’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된 채 있는 것이 아니냐? 256) 35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었던 이들을 향하여 그분이 저들을 신들로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성경기록은 허물어질 수 없는데, 36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가 말했다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며 세상 안으로 파송하셨던 이를 당신이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너희가 말하느냐? 37 만약 지금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너희는 결코 나를 믿지 말고 있어라. 38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면, 비록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 일들을 믿고 있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도록 그리고 알고 있도록 257) 하기 위함이다. 39 그러므로 258) 그들이 붙들려고 또다시 그분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의 손 밖으로 나가셨다.

40 그리고 율다네스 259) 건너편 요안네스가 260) 처음에 세례를 주고 있으면서 있었던 곳 안으로 그분이 또다시 떠나가셨으며 거기에서 머무시고 있었다. 41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분을 향하여 왔다 그리고 한편 요안네스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또 한편 요안네스가 이분에 관하여 말했던 것들만큼의 모든 것들은 참된 것이었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 42 그리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서 그분 안으로 믿었다 261).

251) 이 앞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2) ‘나에게 주신 채 있는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것(혹은 것들)이다.’로 기록된 사본들이 있다.

253) ‘나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4) ‘나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5) ‘나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6)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57) ‘그리고 믿도록(또는 믿고 있도록)’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58) “그러므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59) 히브리어 ‘야르덴’의 헬라어 음역으로 ‘요단강’이다.

260) 히브리어 ‘요하난’과 ‘에호하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261)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튜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튜오)+여격(~에게)’보다 ‘믿는

11 그런데 어떤 이가 병들어 있으면서 있었다, 마리아와²⁶²⁾ 그녀의 자매 마르따의 마을 밖으로 있는, 베타니아²⁶³⁾ 출신 라자로스가²⁶⁴⁾. 2 그런데 향유로 주님에게 기름 발랐으며 그녀의 머리카락들로 그분의 발들을 닦았던 여자는 마리아²⁶⁵⁾이었는데, 그녀의 남자형제 라자로스가 병들어 있었다.. 3 그러므로 그 누이들이 말하고 있으면서 그분을 향하여 파송했다. “주님, 당신이 좋아하시고 있는 이를 보십시오! 그가 병들어 있습니다.” 4 그런데 예수스께서²⁶⁶⁾ 들으신 후 말씀했다. “이 병약함은 죽음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5 그런데 예수스께서 마르따와 그녀의 자매와 라자로스를 사랑하시고 있었다. 6 그러므로 그가 병들어 있다고 그분이 들으셨을 때, 그때에 한편 그분이 계셨던 곳 안에서 두 날들을 머무셨다, 7 그다음 이일 후에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또다시 유다이아²⁶⁷⁾ 안으로 이끌고 있자.” 8 제자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랍비여,²⁶⁸⁾ 지금 유다이오스들이 돌로 치려고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다시 거기서 떠나십니까?” 9 예수스께서 대답하셨다. “열두 시간들이 낮의 것이지 않느냐?²⁶⁹⁾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낮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을 것이면, 그는 부딪치지 않는다,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다. 10 그런데 만약 장차 어떤 이가 어둠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을 것이면, 그는 부딪친다, 빛이 그이²⁷⁰⁾ 안에 없기 때문이다.” 11 그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일 후에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친구 라자로스가 잠들게 된 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그를 잠 깨우기 위하여 간다.” 12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주님, 만약 지금 그가 잠들게 된 채 있다면 그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13 그런데 예수스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채 있었다, 그런데 저들은 그분이 잠의 잠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다. 14 그러므로 그때에 예수스께서 드러냄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라자로스가 죽었다, 15 그러나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들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그를 향하여 이끌고 있자.” 16 그러므로 디뎬모스로²⁷¹⁾ 말해지고 있는 또마스가 동료제자들에게 말했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62) 원문은 'μαριας'(마리아스)로 소유격 형태인데, 그 주격을 '마리아'나 '마리아'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어 나오는 2절에서 그 주격이 '마리아'으로 나오는 것에 따라 '마리아'으로 했다.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얌'(개역을 비롯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으로 번역)을 '마리아'으로 기록하고 있다.

263) 히브리어 '베트아니아'의 헬라어 음역으로 '고통 받는 이의 집'이다.

264) 요한복음 11~12장의 이 라자로스는 누가복음 16장의 라자로스와는 다른 사람이다.

265) '마리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66) 히브리어 '에호슈아'와 '에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67) 히브리어 '에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268) 히브리어 '랍비'의 헬라어 음역으로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이다.

269)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70) 앞의 '어둠'(여성 명사)을 선행사로 받는 '그것'(여성 지시대명사)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71) '2배, 쌍둥이'를 의미한다.

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기 위하여 이끌고 있자.”

17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가신 후 이미 사 일들을 무덤 안에서 갖고 있는 그를 찾아내셨다. 18 그런데 베따니아는 히에로솔뤼마들²⁷²⁾ 가까이에 대략 십오 스타디온들쯤²⁷³⁾ 떨어져 있었다. 19 그런데 유다리오스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²⁷⁴⁾남자형제에 관하여 그녀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마르따와 마리아를 향하여 온 채 있다. 20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오시고 있다고 들었을 때 마르따가 그분을 맞이했다. 그런데 마리아는²⁷⁵⁾ 집 안에 앉아 있었다. 21 그러므로 마르따가 예수스를 향하여 말했다. “주님, 만약 당신이 여기에 계셨다면 저의 남자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오히려²⁷⁶⁾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그만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을 지금 저는 압니다.” 23 예수스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남자형제가 일어설 것이다.” 24 마르따가 그분에게 말한다. “그가 마지막 날 안에 부활 안에서 일어설 것을 제가 압니다.” 25 예수스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내 안으로 믿고 있는 이는²⁷⁷⁾ 비록 죽을지라도 살 것이다, 26 그리고 살아 있으며 내 안으로 믿고 있는 모든 이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27 그녀가 그분에게 말한다. “예 주님, 당신께서 세상 안으로 오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스²⁷⁸⁾시라는 것을 제가 믿은 채 있습니다.” 28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말한 후 떠나갔으며 몰래 말한 후 그녀의 자매 마리아를 불렀다. “선생님이 옆에 계시며 너를 부르신다.” 29 그런데 저 여자가 들었을 때 빨리 일어났으며 그분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30 그런데 예수스께서는 아직 마을 안으로 가지지 않은 채 있었고, 오히려 아직 마르따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 안에 계셨다. 31 그러므로 집 안에서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를 격려하고 있는 유다리오스들이, 급히 일어섰으며 나갔던 마리아를 본 후에, 그녀가 거기에서 울기 위하여 무덤 안으로 떠난다고 생각한 후²⁷⁹⁾ 그녀를 따라갔다. 32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계셨던 곳으로 왔을 때 마리아가²⁸⁰⁾ 그분을 본 후 그분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분의 발들을 향하여²⁸¹⁾ 엎드렸다. “주님, 만약 당신이 여기에 계셨다면 저의 남자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33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왔던 유다리오스들이 울고 있는 것을 예수스께서 보셨을 때, 영에게 비통해하셨으며 그자신을 동요시키셨으며²⁸²⁾ 34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둔 채 있

272) 히브리어 ‘에루살라임’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에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며, 복수형이 사용되었다.

273) 거리단위로, 1‘스타디온’은 약 192미터이다.

274) ‘그녀들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75) ‘마리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76) “그러나 오히려”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77)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튜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튜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8)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279) ‘말하고 있으면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80) ‘마리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81) ‘안으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82) “영에게 비통해하셨으며 그자신을 동요시키셨으며” 대신에 ‘비통해하시고 있을 때 영에게 동요되셨으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느냐?” 그들이 그분에게 말한다. “주님, 당신은 오시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35 예수스께서 눈물 흘리셨다. 36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이 말하고 있었다. “보라! 그가 그를 어떻게 좋아하고 있었는지.” 37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말했다. “소경의 눈들을 열었던 이이가 이이도 죽지 않도록 행할 수는 없었습니까?”²⁸³⁾ 38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또다시 그자신 안에서 비통해하시고 있으면서 무덤 안으로 가신다. 그런데 그것은 굴이었으며 돌이 그것 위에 놓여 있었다. 39 예수스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돌을 제거하라.” 최후를 맞은 채 있는 이의 누이 마르따가 그분에게 말한다. “주님, 이미 그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 일째이기 때문이다.” 40 예수스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만약 장차 내가 믿을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²⁸⁴⁾ 41 그러므로 그들이 돌을 들어올렸다. 그런데 예수스께서 눈들을 위로 들어올리셨으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당신께서 나의 말을 들으셨기에 나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42 그런데 당신께서 항상 나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둘러선 채 있는 군중 때문에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파송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3 그리고 그분이 이것들 말씀하신 후 큰 소리로 소리 지르셨다. “라자로스야, 너는 바깥으로 이리 오라.” 44 그의 외모가 천조각으로 둘러뭉인 채 있었으며 띠들로 발들과 손들을 묶인 채 있는 죽은 채 있는 이가 나왔다.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를 풀어라 그리고 떠나고 있도록 그를 내버려 두라.”

45 그러므로 마리아를 향하여 왔으며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을 지켜보았던 유다이오스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그분 안으로 믿었다. 46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파리아이오스들을²⁸⁵⁾ 향하여 떠나갔으며 그들에게 예수스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말했다.

47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파리아이오스들이 공회를 모았으며 말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48 만약 장차 우리가 이와 같이 그를 내버려둘 것이면, 모든 이들이 그이 안으로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이오스들이 올 것이며 우리의 자리도 민족도 제거할 것입니다.” 49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떤 한 명 카이아파스가, 저 해(年)의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도록 하며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신들에게²⁸⁶⁾ 유익하다고 당신들은 여기지도 않습니다.” 51 그런데 그는 이것을 그자신으로부터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 해의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예수스께서 민족을 위하여 죽고 있으려고 하고 있었다고, 52 그리고 오직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버려진 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가 하나 안으로 모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가 대언했다.²⁸⁷⁾ 53 그러므로 저 날부터 그들이 그분을 살해하기 위하

283)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84)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285) 아랍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286) ‘우리에게’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87) ‘προφητεω’(프로페튜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바)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여 논의했다.

54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더 이상 드러냄으로 유다이오스들 안에서 걸어나다니시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거기에서 광야의 가까운 지역 안으로 떠나가셨다. 에프라임으로 말해지고 있는 성읍 안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 55 그런데 유다이오스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지역 밖에서 히에로솔뤼마²⁸⁸⁾ 안으로 올라갔다. 56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스를 찾고 있었으며 선 채 있으면서 성전 안에서 서로들 함께 말하고 있었다. “당신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가 절기 안으로는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57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붙들기 위하여, 만약 장차 어떤 이가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알 것이라면 그가 전해주도록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파리사이오스들이 계명들을 준 채 있었다.

12 그러므로 예수스께서²⁸⁹⁾ 유월절의 육 일들 전에 베따니아²⁹⁰⁾ 안으로 가셨다, ²⁹¹⁾ 라자로스가 있었던 곳, 예수스께서 죽은 이들 중에서 일으키셨던 이인. 2 그러므로 그들이 거기에서 그분에게 저녁잔치를 행했다, 그리고 마르따는 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라자로스는 그분과 함께 앉아 있는 이들 중에서 한 명으로 있었다.

3 그러므로 마리아²⁹²⁾ 값비싼 순수한 날도스²⁹³⁾ 향유 1리트라를²⁹⁴⁾ 취한 후 예수스의 발들에 기름 발랐으며 그녀의 머리카락들로 그분의 발들을 닦았다. 그런데 그 집이 향유의 냄새 밖으로 채워졌다. 4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²⁹⁵⁾ 한 명인 이스카리오테스 유다스²⁹⁶⁾ 말한다, 그분을 넘겨주고 있으려고 하고 있는. 5 “무엇 때문에 이 향유가 삼백 데나리온들에²⁹⁷⁾ 처분되지 않았으며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는가?” 6 그런데 가난한 이들에 관한 것이 그에게 상관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는 도둑이었으며 돈상자를 갖고 있으면서 던져지고 있는 것들을 훔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말했다. 7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녀를 내버려두어라, 나의 방부보존의 날 안으로 그녀가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8 왜냐하면 너희는 가난한 이들을

대신하여 말하다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하다’로 번역했다. 그리고 “그가 대언했다.”가 원문에는 51절에 있지만, 한국어 문장구성상 52절로 돌렸다.

288) 히브리어 ‘에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에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289) 히브리어 ‘에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290) 히브리어 ‘베트아니아’의 헬라어 음역으로 ‘고통 받는 이의 집’이다.

291) 이 앞에 ‘죽은 채 있는’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92) 참고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르얌’(개역을 비롯한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으로 번역)을 ‘마리아’로 기록하고 있다. ‘마리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293) 발레리아나(Valeriana, 쥐오줌풀) 속(屬)에 속하는 향기로운 동인도 산물 식물의 줄기에서 채취한 값비싼 향유이다.

294) 로마의 중량 단위로 1리τρα는 약 330그램 정도이다.

295) [] 부분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296)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297) 로마의 은화로 일 ‘데나리온’은 무게가 3.8g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삤이다.

항상 너희와 함께 갖고 있으나, 나를 항상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²⁹⁸⁾

9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 중에서 많은 군중이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며 오직 예수스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죽은 이들 중에서 일으키셨던 라자로스도 보기 위하여 왔다. 10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라자로스도 살해하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논의했다, 11 유다이오스들 중의 많은 이들이 그이 때문에 떠나고 있었으며 예수스 안으로 믿고 있었기²⁹⁹⁾ 때문이다.

12 다음날에 절기 안으로 왔던 많은 군중이, 예수스께서 히에로솔뤼마³⁰⁰⁾ 안으로 오시고 있다는 것을 들은 후 13 그들이 종려나무들의 가지들을 취했으며 마중 안으로 그분에게 나갔으며 소리 지르고 있었다.

“호산나³⁰¹⁾.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고 있는 이가 칭송받으신 채 있을 때.

그리고³⁰²⁾ 이스라엘의 왕이.”

14 그런데 예수스께서 어린나귀를 찾아내신 후 그것 위에 앉으셨다, 기록된 채 있으면서 있는 것과 같이.

15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시온의³⁰³⁾ 딸아.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나귀의 새끼나귀 위에 앉으시고 있으면서.”

16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일들을 알지 못했으나, 오히려 예수스께서 영광스러워지셨을 그대에 이일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기록된 채 있는 일이었으며 그들이 이일들을 그분에게 행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17 그러므로 그분이 라자로스를 무덤 밖으로 부르셨으며 그를 죽은 이들 밖으로 일으키셨을 때에³⁰⁴⁾ 그분과 함께 있었던 군중이 증언하고 있었다. 18 그분이 이 표적을 행하신 채 있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군중이 그분을 맞이하기도 했다³⁰⁵⁾. 19 그러므로 파리사이오스들은³⁰⁶⁾ 그자신들을 향하여 말했다. “너희가 아무 것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바라보고 있어라. 보라! ³⁰⁷⁾세상이 그의 뒤로 떠나갔다.”

20 그런데 절기 안에서 경배하기 위하여 올라오고 있는 이들 중에 어떤 헬렌들이³⁰⁸⁾ 있었다. 21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라이아의³⁰⁹⁾ 베프사이다³¹⁰⁾ 출신인 필립포스에게 나아

298) 8절이 없는 사본들도 있다.

299)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튜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튜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00)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의 헬라어 번역으로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번역이다.

301) 히브리어 ‘호쉬아 나’의 헬라어 음역으로 ‘부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를 의미한다.

302) “그리고”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03) 히브리어 ‘치온’의 헬라어 음역이다.

304) ‘일으키셨던 것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05) ‘맞이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어떤 것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06) 아랍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307) ‘온’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08) 헬라인으로 복수형.

갔으며 말하고 있으면서 그에게 청하고 있었다. “주님, 우리가 가며 예수스를 빛기를 원합니다.” 22 필립포스가 가며 안드레아스에게 말한다, 필립포스와 안드레아스가 예수스께 말한다. 23 그런데 예수스께서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이 온 채 있다. 24 아멘 아멘³¹¹⁾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장차 밀의 낱알이 땅 안으로 떨어진 후 죽지 않을 것이면, 그것은 홀로 머문다. 그런데 만약 장차 그것이 죽을 것이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가져온다. 25 그의 목숨을 좋아하고 있는 이는 그것을 멸망시킨다,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 그의 목숨을 미워하고 있는 이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그것을 간수할 것이다. 26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나에게 봉사할 것이면, 그는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나의 봉사자도 있을 것이다.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봉사할 것이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경할 것이다. 27 지금 나의 영혼이 동요된 채 있다,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아버지, 이 시간 밖으로 저를 구원해주시시오.’ 이겠는가? 오히려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시간 안으로 왔다. 28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³¹²⁾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늘 밖으로 소리가 왔다. “내가 영광스럽게 했으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29 그러므로 선 채 있으며 들었던 군중은 천둥이 있게 된 채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말하고 있었다. “천사가 그에게 발언한 채 있다.” 30 예수스께서 대답하셨으며 말씀하셨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때문에 이 소리가 있게 된 채 있다. 31 지금 심판은 이 세상의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깥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32 내가 만약 장차 땅 밖으로 높여질 것이면, 내가 모든 이들을³¹³⁾ 나자신을 향하여 끌어당길 것이다.” 33 그런데 그분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시고 있으려고 하시고 있었는지를 밝히시고 있으면서 그분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었다. 34 그러므로 군중이 그분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그리스토스께서³¹⁴⁾ 영원히 머무신다고 율법 밖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높여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35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스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작은 기간을 빛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빛을 갖고 있을 때 너희는 걸어다니고 있어라, 어둠이 너희를 단단히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어둠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이는 그가 어디로 떠나는지 알지 못한다. 36 너희가 빛을 갖고 있을 때, 너희는 빛 안으로 믿고 있어라,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들을 예수스께서 발언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가신 후 그들로부터 감춰지셨다. 37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신 채 있는데도 그들은 그분 안으로 믿지 않고 있었다, 38 말했던 대언자³¹⁵⁾ 예사리아스의³¹⁶⁾ 말이 성취되도록 하기

309)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어 번역이다.

310) 아람어 ‘베트차이다’의 헬라어 음역으로 ‘물고기의 집’이다.

311) ‘αμην αμην’(아멘 아멘)의 반복용법은 요한에 의하여 요한복음에서만(25회) 사용되었으며,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데, ‘가장 확실하게’라는 의미이다.

312) ‘아들을’로 기록된 후대의 사본들도 있다.

313) ‘모든 것들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14)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315) ‘προφητης’(프로페테스)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구약 히브리어 ‘נביא’(나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위함이다.

“주님, 누가 저희의 소문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벗겨 드러내졌습니까?”

39 또다시 에사리아스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을 수 없었다.

40 “그분이 그들의 눈들을 눈멀게 하신 채 있으며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³¹⁷),

그들이 눈들로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낮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1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³¹⁸) 에사리아스가 이것들을 말했다, 그리고 그분에 관하여 발언했다. 42 그래도 통치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그분 안으로 믿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은 파리사이오스들 때문에 회당출교자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시인하지 않고 있었다.

43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³¹⁹) 사람들의 영광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44 그런데 예수스께서 소리치셨으며 말씀하셨다. “내 안으로 믿고 있는 이는 내 안으로 믿지 않고 오히려 나를 보내셨던 분 안으로 믿는다, 45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는 나를 보내셨던 분을 바라본다. 46 나는 빛으로 세상 안으로 온 채 있다, 내 안으로 믿고 있는 모든 이가 어둠 안에서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47 그리고 만약 장차 누가 나의 입말들을³²⁰) 들을 것이면 그리고 준수하지 않을 것이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48 나를 저버리고 있으며 나의 입말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이는 그를 심판하고 있는 이를 갖고 있다. 내가 발언했던 저 말이 마지막 날 안에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49 내가 나 자신 밖으로 발언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보내셨던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내가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무엇을 발언할지 계명을 주신 채 있기 때문이다. 50 그리고 그분의 계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발언하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채 있는 것과 같고, 이와 같이 나는 발언한다.”

13 그런데 유월절의 절기 전에 그분이 아버지를 향하여 이 세상 밖으로 옮겨가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예수스께서³²¹) 보신 후에, 세상 안에 있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대언자’로 번역했다.

316) 히브리어 ‘에샤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317) 현재완료형 ‘완고하게 하신 채 있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18) ‘보았을 때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19) ‘영광 이상으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20)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는 자기 자신의 이들을 사랑하신 후 곧 안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 2 그리고 저녁잔치가 있게 되고 있으면서³²²⁾, 이스카리오테스의 시몬의 아들 유다스가³²³⁾ 그분을 넘겨주도록 하기 위하여 마귀가 이미 그 마음 안으로 던진 채 있을 때, 3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손들 안으로 주셨다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신다는 것을 그분이 보신 후에, 4 그분이 저녁잔치 밖으로 일어나시며 겹옷들을 두시며 수건을 취하신 후 그자신에게 걸치셨다. 5 다음에 그분이 물을 대야 안으로 넣으시며 제자들의 발들을 씻기시고 있으며 그분이 자신에게 걸치신 채 있으면서 있었던 수건으로 닦으시고 있기를 시작하셨다. 6 그러므로 그분이 시몬³²⁴⁾ 페트로스를 향하여 가신다. 그가 그분에게 말한다. “주님, 당신께서 저의 발들을 씻기십니까?” 7 예수스께서 대답하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일들 후에 알 것이다.” 8 페트로스가 그분에게 말한다. “당신께서는 저의 발들을 영원히 결코 씻기시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스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만약 장차 내가 너를 씻기지 않을 것이면, 너는 나와 함께 부분을 갖지 못한다.” 9 시몬 페트로스가 그분에게 말한다. “주님, 오직 저의 발들만 아니라 오히려 손들도 머리도입니다.” 10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목욕하게 된 채 있는 이는 발들을 씻는 것이 아니라면 필요를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전부가 깨끗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깨끗한 이들이나, 오히려 모든 이는 아니다.” 11 왜냐하면 그분을 넘겨주고 있는 이를 그분이 아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이가 깨끗한 이들은 아니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12 그러므로 그분이 그들의 발들을 씻으셨으며 그분의 겹옷들을 취하셨으며 또다시 앉으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한 채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부른다. ‘선생님, 그리고 주님,’ 너희가 잘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만약 주님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들을 씻었다면, 너희도 서로들의 발들을 씻겨주고 있는 것을 빚지고 있다. 15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행하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16 아멘 아멘³²⁵⁾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종은 그의 주인보다 크지 않으며 보내어진 이도 그를 보내었던 이보다 크지 않다. 17 만약 지금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있다면, 만약 장차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고 있을 것이면 너희는 복된 이들이다. 18 나는 너희의 모든 이들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나는 안다. 오히려 성경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의³²⁶⁾ 빵을 먹고 있는 이가 그의 발꿈치를 내 위에’

321) 히브리어 ‘에호슈아’와 ‘에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에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22) 과거분사 ‘있게 된 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23) 히브리어 ‘에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324) 히브리어 ‘셀온’(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325) ‘αμην αμην’(아멘 아멘)의 반복용법은 요한에 의하여 요한복음에서만(25회) 사용되었으며,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데, ‘가장 확실하게’라는 의미이다.

326) ‘나와 함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위로 들어올렸다. 19 지금부터 나는 너희에게 있게 되기 전에 말한다, 그것이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나라고³²⁷⁾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20 아멘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보내었던 어떤 이를 취하고 있는 이는 나를 취한다, 그런데 나를 취하고 있는 이는 나를 보내셨던 분을 취한다.”

21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 예수스께서 영에게 동요되셨으며 증언하셨으며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나를 넘겨줄 것이라고 말한다.” 22 누구에 관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이 당황하게 되고 있으면서 서로들 안으로 보고 있었다. 23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예수스의 품 안에 기대앉아 있으면서 있었다, 예수스께서 사랑하시고 있었던 이가. 24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하여 그것이 무엇일까 하여 캐물을 것을 시몬 페트로스가 이이에게 신호한다. 25 그러므로 예수스의 가슴 위에 기대었던 저이가 그분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주님, 누구입니까?” 26 예수스께서 대답하신다. “내가 빵조각을 적실 것이며 그에게 줄 것인 이가 저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빵조각을 적신 후 취하시며³²⁸⁾ 이스카리오테스의 시몬의 아들 유다스에게³²⁹⁾ 주신다. 27 그리고 그 빵조각 후에 그때 사타나스가³³⁰⁾ 저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그에게 예수스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행하고 있는 일을 너는 더 빨리 행하라.” 28 그런데³³¹⁾ 앉아 있는 이들 중에서 아무도 그분이 무엇을 향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알지 못했다. 29 왜냐하면, 유다스가 돈상자를 갖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절기 안으로 필요를 갖고 있는 것들을 너는 사라고,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가 무엇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고 어떤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0 그러므로 빵조각을 취한 후 저이가 곧 나갔다. 그런데 밤이었다.

31 그러므로 그가 나갔을 때, 예수스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이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다. 32 [만약 하나님께서 그이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면],³³²⁾ 하나님께서도 그이³³³⁾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곧 그분이 그를³³⁴⁾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33 자녀들아, 아직은 약간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내가 유다이오스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지금 나는 말한다. 34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들을 사랑하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도

327) 원문은 ‘εγω ειμι’(에고 에이미)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표현인 히브리어 본문의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를 헬라어 70인경은 ‘εγω ειμι ο ων’(에고 에이미 호온 - 나는 있는 이이다. 또는 나는 존재하고 있는 이이다.)으로 번역하는데, ‘εγω ειμι’(에고 에이미)는 이 표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328) “취하시며”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29) ‘시몬의 아들 유다스 이스카리오테스에게’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30) 히브리어 ‘사탄’(대항자, 대적자)의 헬라어 음역이다.

331) “그런데”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32) [] 부분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33) 3인칭 대명사인 ‘그이’가 사람의 아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독법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자신’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34) “그분이 그를” 대신에 “그도 그분을”이라는 독법도 가능하다.

서로들을 사랑하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과 같이. 35 이것 안에서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 것이다, 만약 장차 너희가 서로들 안에서 사랑을 갖고 있을 것이면.”

36 시몬 페트로스가 그분에게 말한다. “주님, 당신은 어디로 떠나십니까?” 예수스께서 그에게³³⁵⁾ 대답하셨다. “내가 떠나는 곳에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마침내 내가 따라올 것이다.” 37 페트로스가 그분에게 말한다. “주님,³³⁶⁾ 무엇 때문에 제가 지금은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저의 목숨을 당신을 위하여 놓을 것입니다.” 38 예수스께서 대답하신다. “네가 너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놓을 것이냐? 아멘 아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때까지 수탉이 결코 소리 내지 않을 것이다.”

14 “너희의 마음은 동요되지 말고 있어라. 너희는 하나님 안으로 믿고 있어라³³⁷⁾ 그리고 내 안으로 믿고 있어라. 2 나의 아버지의 집 안에 많은 거처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리를 너희에게 준비하려고 간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겠느냐?³³⁸⁾ 3 그리고 만약 장차 내가 갈 것이면 그리고 너희에게 자리를 준비할 것이면, 나는 또다시 오며 나 자신을 향하여 너희를 옆에 취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그리고 내가 떠나는 곳 그 길을 너희가 안다.³³⁹⁾ 5 또마스가 그분에게 말한다. “주님, 당신이 어디로 떠나시는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³⁴⁰⁾ 어떻게 저희가 그 길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까?” 6 예수스께서³⁴¹⁾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다. 나를 통해가 아니라면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가지 못한다. 7 만약 지금 너희가 나를 알은 채 있다면,³⁴²⁾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그분을 본 채 있다.” 8 필립포스가 그분에게 말한다. “주님, 아버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9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많은 기간을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한 채 있느냐, 필립포스야? 나를 본 채 있는 이는 아버지를 본 채 있다. 어떻게 너는 말하느냐? ‘아버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10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³⁴³⁾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입말들을³⁴⁴⁾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335) “그에게”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36) “주님,”이 없는 사본들도 있다.

337)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튜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튜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38) “내가 자리를 ~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자리를 너희에게 준비하려고 간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39) ‘내가 떠나는 곳을 너희가 알며 그 길도 너희가 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40) “그런데”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341)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42) ‘만약 너희가 나를 알은 채 있었다면’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43)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44)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

터 발언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있으면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 11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는 믿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³⁴⁵⁾ 일들을 통하여 너희는 ³⁴⁶⁾믿고 있어라. 12 아멘 아멘³⁴⁷⁾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안으로 믿고 있는 이는³⁴⁸⁾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저이도 행할 것이며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가기 때문이다. 13 그리고 어떤 것을 만약 장차 너희가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할 것이면 이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스러워지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14 만약 장차 너희가 어떤 것을 나의 이름 안에서 나에게³⁴⁹⁾ 구할 것이면 내가 행할 것이다.³⁵⁰⁾ 15 만약 장차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면,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³⁵¹⁾. 16 나도 아버지께 청할 것이며 그분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7 진리의 영, 세상이 취할 수 없는 이, 세상은 그를 바라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를 안다, 그가 너희 옆에 머물며³⁵²⁾ 너희 안에 있을 것이기³⁵³⁾ 때문이다. 18 내가 너희를 고아들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온다. 19 아직 약간은 세상도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바라본다, 내가 살아 있으며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20 저 날 안에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21 나의 계명들을 갖고 있으며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저이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이이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있는 이는 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에게 나 자신을 보일 것이다.” 22 이스카리오테스가 아닌, 유다스가³⁵⁴⁾ 그분에게 말한다. “주님, 당신이 저희에게는 당신자신을 보이시고 있으려고 하나 세상에게는 하시지 않으려는 일이 왜 있게 된 채 있습니까?” 23 예수스께서 대답하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면 그는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며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갈 것이며 거처를 그 옆에 만들 것이다. 24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이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보내셨던 아버지의 것이다.”

로 번역했다.

345) ‘그분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46) ‘나를’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47) ‘αμην αμην’(아멘 아멘)의 반복용법은 요한에 의하여 요한복음에서만(25회) 사용되었으며,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데, ‘가장 확실하게’라는 의미이다.

348)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튜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튜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49) “나에게”가 없는 사본들도 있다.

350) 14절이 없는 사본들도 있다.

351) 명령형 ‘지켜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52) 미래형 ‘머물 것이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53) 현재형 ‘있기’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54)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25 “내가 이것들을 너희 옆에 머물고 있으면서 너희에게 발언한 채 있다. 26 그런데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 안에서 보내실 이, 저이가 모든 것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27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내버려둔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의 마음은 동요되지도 말고 있으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있어라. 28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다. ‘내가 떠나며 너희를 향하여 온다.’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것을³⁵⁵⁾ 너희가 기뻐했을 것이다, ³⁵⁶⁾아버지께서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29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있게 되기 전에 말한 채 있다, 그것이 있게 될 때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30 더 이상 나는 너희와 함께 많은 것들을 발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 것도 갖지 못한다, 31 오히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셨던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나는 행한다. 너희는 일어나고 있어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끌고 있자.”

15 “나는 참된 포도나무이며 나의 아버지께서는 농부시다. 2 내 안에서 열매를 가져오지 않고 있는 모든 포도가지들 그것을 그분께서 제거하신다³⁵⁷⁾, 그리고 열매를 가져오고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그것을 청결하게 하신다. 3 내가 너희에게 발언한 채 있는 말 때문에 이미 너희는 깨끗한 이들이다. 4 너희는 내 안에 머물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문다. 만약 장차 포도나무 안에 머물지 않고 있을 것이면 그 포도가지는 그자신으로부터 열매를 가져오고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만약 장차 너희가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있을 것이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할 수 없을 것이다. 5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포도가지들이다.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이 안에 머물고 있는 이이는 많은 열매를 가져온다, 나 없이 너희는 아무 것도 행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6 만약 장차 어떤 이가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있을 것이면, 그는 포도가지처럼 바깥에 던져졌으며 말라졌으며 그들이 그것들을³⁵⁸⁾ 모으며 불 안으로 던지며 그것은 불 붙여진다. 7 만약 장차 너희가 내 안에 머물 것이면 그리고 나의 입말들이³⁵⁹⁾ 너희 안에 머물 것이면, 만약 장차 너희가 원하고 있을 그것을 너희는 구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8 이것 안에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스러워지셨는데, 너희가 많은 열매를 가져오도록 그리고 나에게 제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³⁶⁰⁾ 9 아버지께서 나를 사

355) ‘간다고 내가 말했던 것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56) ‘나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57) ‘제거하시는 것’인지 ‘들어 올리시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358) 단수형 ‘그것을’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59)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360) “너희가 많은 ~ 제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자들이 될 것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랑하셨던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 10 만약 장차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면,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킨 채 있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과 같이. 11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도록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채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채 있다. 12 나의 계명은 이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들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3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데,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누가 그의 목숨을 놓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4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있는 것들을 만약 장차 너희가 행하고 있을 것이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15 더 이상 나는 너희를 종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의 주인이 무엇을 행하는지 좋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말한 채 있다,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했다. 16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가 떠나고 있도록 그리고 열매를 가져오고 있도록 그리고 너희들의 열매가 머물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며 두었다, 그 어떤 것을 너희가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구할 것이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17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데, 너희가 서로들을 사랑하고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8 만약 지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있다면, 너희들보다 나를 먼저 그것이 미워한 채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어야. 19 만약 너희가 세상 밖으로 있었다면, 세상은 자기 자신의 것을 좋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 밖으로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 밖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말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어야. 좋은 그의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 만약 그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너희도 그들이 박해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21 오히려 나의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너희 안으로 행할 것이다, 나를 보내셨던 분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2 만약 내가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발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그들의 죄에 관하여 변명을 갖고 있지 못한다. 23 나를 미워하고 있는 이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한다. 24 만약 다른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내가 그들 안에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본 채 있기도 하며 나도 나의 아버지도 미워한 채 있기도 하다.³⁶¹⁾ 25 오히려

‘그들이 나를 값없이 미워했다’

고 그들의 율법 안에 기록된 채 있는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6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올 때에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영, 저이가 나에게 관하여 증언할 것이다. 27 그런데 너희도 증언하고 있다, 너희는 시작부터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361) 독법에 따라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나도 나의 아버지도 본 채 있기도 하며 미워한 채 있기도 하다.’로 읽을 수도 있다.

16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발언한 채 있다. 2 그들이 너희를 회당출교자들로 만들 것이다. 오히려 너희를 살해했던 모든 이가 하나님께 섬김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이 온다. 3 그리고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들을 행할 것이다. 4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³⁶²⁾ 시간이 올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발언한 채 있다. 그런데 내가 시작부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5 그런데 지금은 나를 보내셨던 분을 향하여 내가 떠난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 ‘당신이 어디로 떠나십니까?’ 6 오히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발언한 채 있기 때문에 슬픔이 너희의 마음을 채운 채 있다. 7 그러나 오히려 나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만약 장차 내가 떠나가지 않을 것이면, 보혜사가 너희를 향하여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장차 내가 갈 것이면, 내가 그를 너희를 향하여 보낼 것이다. 8 그리고 저이가 온 후 죄에 관하여 그리고 의에 관하여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9 한편 죄에 관하여는, 그들이 내 안으로 믿지³⁶³⁾ 않기 때문이다. 10 또 한편 의에 관하여는,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떠나며 더 이상 너희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11 또 한편 심판에 관하여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 받은 채 있기 때문이다. 12 아직 너희에게 말하고 있을만한 많은 것들을 내가 갖고 있으나, 오히려 지금은 너희가 짊어지고 있을 수 없다. 13 그런데 저이가 올 때에는, 진리의 영이, 그가 모든 진리 안에서³⁶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자신으로부터 발언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가 들을 것³⁶⁵⁾만큼들을 그는 발언할 것이며 오고 있는 일들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14 저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가 내 밖으로 취할 것이며 너희에게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가 내 밖으로 취하고 있으며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16 너희는 약간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또다시 약간 나를 볼 것이기도 하다.³⁶⁶⁾” 17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그들이 서로들을 향하여 말했다. “너희는 약간 나를 바라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또다시 약간 나를 볼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떠나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무엇인가?” 18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³⁶⁷⁾ 약간 이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무엇을 발언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 19 그들이 그분에게 묻고

362) “그들의”가 없는 사본들도 있다.

363)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투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투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64) ‘안으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65) ‘듣고 있는 것’ 또는 ‘들을 것이면 그것’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66) 이어서 ‘내가 (나의) 아버지를 향하여 떠나기 때문이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67) “그분이 말씀하시는”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스께서³⁶⁸⁾ 아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약간 나를 바라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또다시 약간 나를 볼 것이기도 하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하여 너희가 서로들과 함께 찾고 있느냐? 20 아멘 아멘³⁶⁹⁾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올 것이며 애곡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슬퍼질 것이나, 오히려 너희의 슬픔이 기쁨 안으로 될 것이다. 21 여인이 낳고 있을 때에는 슬픔을 가진다, 그녀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가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 때에는, 사람이 세상 안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녀는 그 육여쌈을 기억하지 않는다. 22 그러므로 너희도 지금은 한편 슬픔을 가진다,³⁷⁰⁾ 또 한편 또다시 내가 너희를 볼 것이고, 너희의 마음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너희들로부터 제거하지 못한다.³⁷¹⁾ 23 그리고 저 날 안에서 너희는 아무 것도 나에게 청하지 않을 것이다.³⁷²⁾ 아멘 아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어떤 것을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구할 것이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³⁷³⁾ 24 지금까지 너희는 나의 이름 안에서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았다. 너희는 구하고 있어라 너희가 취할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채워진 채 있는 것으로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5 “이것들을 은유들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발언한 채 있다. ³⁷⁴⁾더 이상 은유들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발언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드러냄으로 아버지께 관하여 너희에게 알려줄 때인 시간이 온다. 26 저 날 안에 너희가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 관하여 내가 아버지께 청할 것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27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좋아한 채 있으며 내가 그³⁷⁵⁾ 하나님에게서³⁷⁶⁾ 나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은 채 있기 때문이다. 28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며³⁷⁷⁾ 세상 안으로 온 채 있다. 또다시 나는 세상을 내버려두며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 29 그분의 제자들이 말한다. “보십시오! 지금은 당신이 드러냄 안에서 발언하시며 아무런 은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0 당신이 모든 것들을 아시며 누가 당신에게 묻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이 필요를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지금은 저희가 압니다. 이것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31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대답

368)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69) ‘αμην αμην’(아멘 아멘)의 반복용법은 요한에 의하여 요한복음에서만(25회) 사용되었으며,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데, ‘가장 확실하게’라는 의미이다.

370) 미래형 ‘가질 것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71) 미래형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72) 원문은 ‘ερωταω’(에로타오)로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묻다’와 ‘청하다’의 의미로 달리 쓰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독법에 따라 ‘청하지 않을 것’ 또는 ‘묻지 않을 것’으로 다르게 볼 수 있다.

373) “너희가 어떤 것을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구할 것이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대신에 ‘너희가 어떤 것을 아버지께 구할 것이면 그분이 나의 이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74) ‘그러나 오히려’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75) “그”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376) ‘아버지에게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77)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가 없는 사본들도 있다.

하셨다. “지금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자신의 것들 안으로 흠트려지도록 그리고 나를 홀로 내버려두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이 오고 있으며 온 채 있다. 그러나 나는 홀로 있지 않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33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발언한 채 있다. 너희가 세상 안에서 옥여쌘을 갖는다. 그러나 오히려 너희는 용기를 내고 있어야, 내가 세상을 이긴 채 있다.”

17 예수스께서³⁷⁸⁾ 이것들을 발언하셨으며 하늘 안으로 그분의 눈들을 위로 들어올리신 후 말씀하셨다. “아버지, 그 시간이 온 채 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³⁷⁹⁾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당신께서 모든 육체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당신께서 그에게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이것인데 당신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당신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³⁸⁰⁾ 파송하셨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내가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일을 내가 완전하게 한 후 땅 위에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5 그리고 지금 당신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당신 옆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영광으로 당신자신 옆에서. 6 당신께서 세상 밖으로 나에게 주셨던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있었는데 당신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킨 채 있습니다. 7 지금은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만큼들의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서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은 채 있습니다.³⁸¹⁾ 8 당신께서 나에게 주셨던³⁸²⁾ 입말씀들을³⁸³⁾ 내가 그들에게 준 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친히 취했으며 내가 당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나를 파송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9 나는 그들에 관하여 청합니다, 세상에 관하여 청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이들에 관하여, 그들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0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은 당신의 것들이며 당신의 것들은 나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안에서 영광스러워진 채 있습니다. 11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³⁸⁴⁾ 세상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향하여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당신의 이름 안에서 당신께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2 내가

378)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79) ‘당신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80)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381) ①‘내가 알은 채 있습니다.’ ②‘내가 알았습니다.’ ③‘그들이 알았습니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82) 현재완료형 ‘주신 채 있는’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83) 원문은 ‘ρημα’(레마)인데, 직접 입으로 말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를 살리고, 기록한 말씀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λογος’(로고스-말씀, 말)와 구별하기 위하여 ‘입말씀’ 또는 ‘입말’로 번역했다.

384) ‘이들은’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당신의 이름 안에서 내가 그들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수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들 중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3 그런데 지금 나는 당신을 향하여 가며 채워진 채 있는 나의 기쁨을 그들이 그들자신 안에 갖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 안에서 이것들을 발언합니다. 14 나는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 채 있으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 밖으로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 밖으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5 그들을 세상 밖으로 당신께서 들어올리시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악한 것³⁸⁵⁾ 밖으로 당신께서 지키시도록 하기 위하여 청합니다. 16 내가 세상 밖으로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은 세상 밖으로 있지 않습니다. 17 당신께서 그들을 ³⁸⁶⁾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 당신께서 나를 세상 안으로 파송하셨던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 안으로 파송했습니다. 19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진 채 있으면서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 그런데 오직 이이들에 관하여만 나는 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내 안으로 믿고 있는³⁸⁷⁾ 이들에 관하여도 청합니다. 21 모든 이들이 하나로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³⁸⁸⁾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파송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고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2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준 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3 내가 그들 안에 그리고 당신이 내 안에, 그들이 하나 안으로 완전하게 된 채 있으면서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과 나를 파송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4 아버지,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이³⁸⁹⁾,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그들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나는 원합니다, 세상의 시초 전에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채 있었던 것인, 나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5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나를 파송하셨다는 것을 이들도 알았습니다. 26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했으며 알게 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85) ‘악한 자’로 볼 수도 있다.

386) ‘당신의’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87) 원문은 ‘πιστευω(피스튜오)+εις(에이스)+목적격’으로 ‘πιστευω(피스튜오)+여격(~에게)’보다 ‘믿는 것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88) ‘하나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89) ‘있는 이들이’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18 예수스께서³⁹⁰⁾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의³⁹¹⁾ 계곡 건너편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나가셨다.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이 들어갔었던 곳 안으로. 2 그런데 그분을 넘겨주고 있는 유다스도³⁹²⁾ 그 곳을 알고 있었다. 예수스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모이셨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유다스가 부대와 대제사장들 밖으로와 파리사이오스들³⁹³⁾ 밖으로 보조자들을 취한 후 횃불들과 등들과 무기들과 함께 거기에 온다. 4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그분 위에 오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신 후 나가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 그들이 그분에게 대답했다. “나조라이오스³⁹⁴⁾ 예수스를.”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나다.”³⁹⁵⁾ 그런데 그분을 넘겨주고 있는 유다스도 그들과 함께 선 채 있었다. 6 그러므로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나다”, 그들이 뒤의 것들 안으로 떠나갔으며 땅바닥에 엎드렸다. 7 그러므로 또다시 그분이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그들이 말했다. “나조라이오스 예수스를.” 8 예수스께서 대답하셨다. “바로 나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너희는 이이들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어라.” 9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이들을 내가 그들 중에서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10 그러므로 시몬³⁹⁶⁾ 페트로스가 칼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끌어당겼으며 대제사장의 종을 쳤으며 그의 오른 쪽 귀를 쳐냈다. 그런데 그 종에게 이름은 말코스였다. 11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페트로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칼을 그 두는 곳 안으로 넣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잔을 내가 그것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겠느냐?”

12 그러므로 부대와 천부장과 유다이오스들의 보조자들이 예수스를 함께 취했으며 그분을 묶었으며 13 한나스를³⁹⁷⁾ 향하여 먼저 이끌었다. 왜냐하면 그는 저 해(年)의 대제사장이었던 카이아파스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다. 14 그런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다이오스들에게 권고했던 이가 카이아파스이었다.

15 그런데 시몬 페트로스와 다른 제자가 예수스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저 제자는 대제사장에게 아는 이였으며 대제사장의 마당 안으로 예수스께 함께 들어갔다. 16 그런데 페트로스는 문을 향하여 바깥에 선 채 있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왔으며 문지기에게 말했으며 페트로스를 이끌어 들였다. 17 그러므로 문지기 여

390)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391) 히브리어 키드론의 헬라어 음역으로 ‘어두운’ 또는 ‘흔탁한’을 의미한다. ‘백향목들의’ 또는 ‘백향목의’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92) 히브리어 ‘예후다’의 헬라어 번역이다.

393) 아람어 ‘페리샤야’와 히브리어 ‘페루쉬’의 헬라어 음역이다.

394) 나자렐 출신, 혹은 나자렐 사람.

395) “내가 예수스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396) 히브리어 ‘שמון’(들음)의 헬라어 음역이다.

397) 히브리어 ‘하난’(자비로운)의 헬라어 음역이다.

종이 페트로스에게 말한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들 밖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³⁹⁸⁾ 저이가 말한다. “나는 아닙니다.” 18 그런데 종들과 보조자들이 숯불을 만든 채 있으면서 선 채 있었다, 추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을 따뜻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페트로스도 선 채 있으며 자기를 따뜻하게 하고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19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그분의 제자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관하여 예수스께 물었다. 20 예수스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냄으로 세상에게 발언한 채 있다, 나는 항상 회당 안과 성전 안에서 가르쳤다, 모든 유다이오스들이 함께 오고 있는 곳, 그리고 나는 감춘 것 안에서는 아무 것도 발언하지 않았다. 21 네가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 발언했는지 너는 들은 채 있는 이들에게 물어라. 보라! 내가 말했던 것들을 이들이 알고 있다.” 22 그런데 그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보조자들 중의 한 명이 옆에 선 채 있으면서 말한 후 예수스께 때리는 것을 주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느냐?” 23 예수스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만약 내가 잘못 말했다면, 너는 그 잘못된 것에 관하여 증언하라. 그런데 만약 잘한 것이라면,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24 그러므로 한나스가 묶인 채 있는 그분을 대제사장 카이아파스를 향하여 파송했다.

25 그런데 시몬 페트로스가 선 채 있으며 따뜻하게 하고 있으면서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도 그의 제자들 밖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³⁹⁹⁾ 저이가 부인했으며 말했다. “나는 아닙니다.” 26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서 한 명이 말한다, 페트로스가 귀를 쳐냈던 이의 친족으로 있으면서. “내가 당신을 동산 안에서 그이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⁴⁰⁰⁾ 27 그러므로 또다시 페트로스가 부인했다, 그리고 곧 수탉이 소리 냈다.

28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스를 카이아파스로부터 병영 안으로 이끌고 있다. 그런데 이른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친히 병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유월절을 먹기 위함이다. 29 그러므로 필라토스가 바깥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왔으며 말하고 있었다. “이 사람에게 반대하여⁴⁰¹⁾ 무슨 고발을 너희가 가져왔느냐?” 30 그들이 대답했으며 그에게 말했다. “이이가 나쁜 것을 행하고 있으면서 있지 않았다면⁴⁰²⁾,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31 그러므로 필라토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그를 취하라 그리고 너희의 율법에 의하여 너희가 그를 심판하라.” 유다이오스들이 그에게 말했다. “아무라도 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32 그분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시고 있으려고 하고 있었는지를 밝히시고 있으면서 말씀하셨던 예수스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33 그러므로 또다시 필라토스가 병영 안으로 들어왔으며 예수스를 불렀으며 그분에게 말했다. “네가 유다이오스들의 왕이냐?” 34 예수스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네자신으로부터

398)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399)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00)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01) “반대하여”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02) ‘이이가 악행자가 아니었다면’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터 이것을 말하느냐 또는 다른 이들이 나에게 관하여 너에게 말했느냐?” 35 필라토스가 대답했다. “아무래도 내가 유다이오스는 아니지 않느냐?⁴⁰³⁾ 너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다.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36 예수스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 밖으로 있지 않다. 만약 나의 왕국이 이 세상 밖으로 있었다면, 내가 유다이오스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보조자들이 싸우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로부터 있지 않다.” 37 그러므로 필라토스가 그분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네가 왕이지 않느냐?”⁴⁰⁴⁾ 예수스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이것 안으로 태어나게 된 채 있으며 이것 안으로 세상 안으로 온 채 있는데, 내가 진리로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진리 밖으로 있는 모든 이가 나의 소리를 듣는다.” 38 필라토스가 그분에게 말한다. “무엇이 진리이냐?”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말한 후 또다시 유다이오스들을 향하여 나갔으며 그들에게 말한다. “나는 그이 안에서 아무 이유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39 그런데 유월절 안에서 너희에게 한 명을 내가 풀어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관례가 너희에게 있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이오스들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보낼 것을 너희가 의도하고 있느냐?” 40 그러므로 또다시 그들이 말하고 있으면서 소리 질렀다. “이이가 아니라 오히려 바랍바스를⁴⁰⁵⁾” 그런데 바랍바스는 강도였다.

19 그러므로 그때에 필라토스가 예수스를⁴⁰⁶⁾ 취했으며 채찍질했다. 2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들 밖으로 월계관을 엮은 후 그분의 머리에 얹었으며 자주색 겹옷을 그분에게 둘렀으며 3 그들이 그분을 향하여 가고 있었으며 말하고 있었다. “유다이오스들의 왕은 기뻐하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때리는 것들을 주고 있었다. 4 그리고 또다시 필라토스가 바깥으로 나갔으며 그들에게 말한다. “보라! 내가 그를 바깥으로 너희에게 이끌고 있다, 나는 그이 안에서 아무런 이유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5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바깥으로 나가셨다, 가시로 된 월계관과 자주색 겹옷을 지니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한다. “보라! 그 사람이다.” 6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보조자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에 말하고 있으면서 소리 질렀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주십시오.” 필라토스가 그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를 취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라. 왜냐하면 나는 그이 안에서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 유다이오스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는데 그 율법에 의하여 그는 죽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8 그러므로 필라토스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더욱 두려워했다, 9 그리고 병영 안으로 또다시 들어

403) ‘μητι’(메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04) ‘ου’(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05) 아랍어 ‘바르 아바’(아버지의 아들)의 헬라어 음역이다.

406)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갔으며 예수스께 말한다. “너는 어디서부터 있느냐?” 그런데 예수스께서 대답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10 그러므로 필라토스가 그분에게 말한다. “너는 나에게 발언하지 않느냐? 너를 풀어보내기 위한 권세를 내가 갖고 있으며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기 위한 권세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⁴⁰⁷⁾ 11 예수스께서 그에게⁴⁰⁸⁾ 대답 하셨다. “만약 위로부터 너에게 주어진 채 있으면서 있지 않았다면 너는 나에게 반대하여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를 너에게 넘겨주었던 이는 더 큰 죄를 갖는다.” 12 이일 밖으로 필라토스가 그분을 풀어보내려고 찾고 있었다. 그런데 유다이오스들이 말하고 있으면서 소리 질렀다. “만약 장차 당신이 이이를 풀어보낼 것이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자신을 왕으로 만들고 있는 모든 이는 카이사르에게 반박합니다.” 13 그러므로 필라토스가 이 말들을 들은 후 예수스를 바깥으로 이끌었으며 리포스트로톤⁴⁰⁹⁾으로, 헤브라이스티⁴¹⁰⁾로 갑바따, 말해지고 있는 곳 안으로 있는 재판석 위에 앉았다, 14 그런데 유월절의 준비일이었다, 시간이 대략 여섯 시⁴¹¹⁾쯤이었다. 그리고 그가 유다이오스들에게 말한다. “보라! 너희의 왕이다.” 15 그러므로 저들이 소리 질렀다. “당신은 제거해주십시오 제거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주십시오.” 필라토스가 그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 것이냐?” 대체사장들이 대답했다. “카이사르가 아니라면 우리는 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6 그러므로 그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그분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스를 옆에 취했다⁴¹²⁾, 17 그리고 그분이 그자신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있으면서 해골의 곳으로 말해지고 있는 곳 안으로 나가셨다, 그것은 헤브라이스티로 골고따로⁴¹³⁾ 말해진다, 18 그곳에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른 이들 두 명도 여기에서 여기로, 그런데 예수스를 가운데 두었다. 19 그런데 필라토스가 패도 기록했으며 십자가 위에 두었다. 그런데 그것은 기록된 채 있는 것이었다.

“나조라이오스⁴¹⁴⁾ 예수스 유다이오스들의 왕.”

20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 중의 많은 이들이 이 패를 읽었다, 성읍의 자리가 예수스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리셨던 곳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헤브라이스티, 로마이스티⁴¹⁵⁾, 헬레니스티⁴¹⁶⁾로 기록된 채 있으면서 있었다. 21 그러므로 유다이오

407) ‘ou’(우)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긍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08) “그에게”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09) ‘돌로 포장된’라는 의미이다.

410) ‘히브리어’

411) 낮 12시, 이 당시에는 지금의 오전 6시가 0시이다. ‘세 시’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12) ‘그리고 이끌어갔다’ 또는 ‘이끌어갔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13) 아람어 ‘골골타’의 헬라어 음역으로 ‘해골’이다. 흔히 ‘갈보리’로 쓰인다.

414) 나자렐 출신, 혹은 나자렐 사람.

415) ‘고대 로마어, 즉 라틴어’

416) ‘헬라어’

스들의 대제사장들이 필라토스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기록하지 말고 있고, ‘유다이오스들의 왕’, 오히려 저이가 말했다고 기록해주십시오. ‘내가 유다이오스들의 왕이다.’” 22 필라토스가 대답했다. “나는 기록한 채 있는 것을, 기록한 채 있다.”

23 그러므로 군인들이, 그들이 예수스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을 때에, 그분의 겹옷들을 취했으며 네 부분들로 만들었다, 각자 군인에게 한 부분씩, 그리고 옷도. 그런데 그 옷은 이음새가 없는 것이었다, 위로부터 전체를 통하여 짠 것이다. 24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들을 향하여 말했다. “우리가 이것을 찢지 말고, 오히려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 그것에 관하여 제비뽑아 얻자.” 말하고 있는⁴¹⁷⁾ 성경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나의 겹옷들을 그자신들에게 여럿으로 분리했으며
나의 겹옷 위에 제비를 던졌다.”

그러므로 한편 그 군인들이 이일들을 행했다. 25 그런데 예수스의 십자가 옆에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어머니의 자매, 클로파의 여자 마리아와⁴¹⁸⁾ 막달레네 마리아가⁴¹⁹⁾ 선 채 있었다. 26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어머니와 그분이 사랑하시고 있었던 제자가 옆에 선 채 있는 것을 보신 후,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여인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27 다음에 그분이 제자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 그리고 저 시간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자신의 것들 안으로 취했다.

28 이일 후에 이미 모든 일들이 끝나쳐진 채 있는 것을 예수스께서 아시고 있으면서, 성경기록이 완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목마르다.” 29 신 포도주의 가득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신 포도주의 가득한 해면을 우슬초에 둘러 놓은 후 그분의 입에 가져갔다. 30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신 포도주를 취하셨을 때에 말씀하셨다. “그것이 끝나쳐진 채 있다”, 그리고 그분이 머리를 기울이신 후 영을 넘겨주셨다.

31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이, 준비일이었으므로, 몸들이 안식일 안에서 십자가 위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저 안식일의 날은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들이 꺾이도록 그리고 그들이 제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필라토스에게 청했다. 32 그러므로 군인들이 갔으며 한편 첫 번째 이의 다리들을 꺾었으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던 다른 이의 다리들도 꺾었다. 33 그런데 그들이 예수스 위에 온 후, 이미 그분이 죽으신 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분의 다리들을 꺾지 않았다. 34 오히려 군인들 중의 한 명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셨다, 그리고 곧 피와 물이 나왔다. 35 그리고 본 채 있는 이가 증언한 채 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참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이도 안다, 너희도 믿[고 있]도록⁴²⁰⁾ 하기 위함이다. 36 왜냐하

417) “말하고 있는”이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18) 히브리어 ‘미르암’(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을 헬라어로 음역한 ‘마리암’의 또 다른 음역이다. ‘마리암’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19) ‘마리암’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20) 진행형 ‘믿고 있도록’과 단순서술형 ‘믿도록’ 중에서 어떤 것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이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는 20장 31절의 각주를 참고하라.

면 성경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일들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뼈가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37 그리고 또다시 판 성경기록은 말한다.

“그들이 찢었던 이 안으로 그들이 볼 것이다.”

38 그런데 이일들 후에 아리마떼이아⁴²¹⁾ 출신의 요셉이 필라토스에게 청했다, 예수스의 제자이면서 그런데 유다이오스들의 두려움 때문에 감춰진 채 있으면서, 그가 예수스의 몸을 들어올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필라토스가 허락했다. 그러므로 그가 왔으며 그분의 몸을 들어올렸다. 39 그런데 니코데모스도⁴²²⁾ 왔다, 먼저 번 밤에 그분을⁴²³⁾ 향하여 왔던, 몰약과 알로에의 섞은 것을⁴²⁴⁾ 대략 일백 리트라⁴²⁵⁾쯤 가져오고 있으면서. 40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스의 몸을 취했으며 그것을 향료들과 함께 세마포들로 묶었다, 유다이오스들에게 방부보존하고 있으려고 관습이 있어 온 것과 같이. 41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던 곳 안에 동산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직 아무도 놓인 채 있지 않았던 새로운 무덤이 그 동산 안에 있었다. 42 그러므로 유다이오스들의 준비일 때문에 거기에, 그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스를 두었다.

20 그런데 안식일들의 첫날에 막달레네 마리아가⁴²⁶⁾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있을 때 무덤 안으로 가며 돌이 무덤 밖으로 제거된 채 있는 것을 본다. 2 그러므로 그녀가 달려간다 그리고 시몬⁴²⁷⁾ 페트로스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스께서⁴²⁸⁾ 좋아하시고 있었던 다른 제자를 향하여 가며 그들에게 말한다. “그들이 주님을 무덤 밖으로 제거했으나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3 그러므로 페트로스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갔으며 무덤 안으로 가고 있었다. 4 그런데 그 두 명이 동일하게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른 제자가 페트로스보다 더 빨리 앞서 달려갔으며 먼저 무덤 안으로 갔다. 5 그리고 그가 옆으로 굽힌 후 세마포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본다, 그럼에도 그가 들어가지 않았다. 6 그러므로 시몬 페트로스도 그를 따라오고 있으면서 오며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세마포들이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본다, 7 그리고 천조각도, 그분의 머리 위에 있었던 것인, 세마포들과 함께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싸여진 채 있는 곳 이외에 한 곳 안으로 놓여 있는 것을. 8 그러므로 그때에 먼저 무덤 안으로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갔으며 보았으며 믿었다. 9 왜냐하면 그분이 죽은 이들 밖으로 일어서셔야 한다고 하는 성

421) 히브리어 ‘라마’(높은 곳)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422) 헬라어 ‘νικος’(니코스-승리)와 ‘δημος’(데모스-백성)의 합성어로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이다.

423) ‘예수스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24) ‘꾸러미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25) 로마의 중량 단위로 1리트라는 약 330그램 정도이다.

426) 히브리어 ‘미리암’(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음역한 ‘미리암’)을 헬라어로 음역한 ‘마리아’의 또 다른 음역이다. ‘마리아’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27) 히브리어 ‘שמון’(שמון)의 헬라어 음역이다.

428)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경기록을 그들이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10 그러므로 제자들이 또다시 그들을⁴²⁹⁾ 향하여 떠나갔다.

11 그런데 마리아는⁴³⁰⁾ 무덤을 향하여 바깥에 울고 있으면서 선 채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있었을 때, 무덤 안으로 옆으로 굽혔으며 12 두 사자(使者)들이 흰 것들 안에 앉아 있는 것을 그녀가 바라본다, 하나는 머리를 향하며 하나는 발들을 향하여, 예수스의 몸이 놓여 있었던 곳에서. 13 그리고 저들이 그녀에게 말한다. “여인아, 왜 네가 울고 있느냐?” 그들이 나의 주님을 제거했으나,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녀가 그들에게 말한다. 14 그녀가 이것들을 말한 후 뒤의 것들 안으로 돌이켰으며 예수스께서 서신 채 있는 것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스이신 것을 그녀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 15 예수스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여인아, 왜 네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가 동산지기라고 저 여자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분에게 말한다. “주님, 만약 당신이 그분을 운반했다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저에게 말해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들어올릴 것입니다. 16 예수스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마리암아.”⁴³¹⁾ 저 여자가 돌이킨 후 헤브라이스티⁴³²⁾로 그분에게 말한다. “랍부니”⁴³³⁾(선생님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인). 17 예수스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만지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를 향하여 올라간 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나의 형제들을 향하여 가고 있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나의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를 그리고 나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 18 내가 주님을 본 채 있다고, 그리고 그분이 그녀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막달레네 마리암이⁴³⁴⁾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으면서 가고 있다.

19 그러므로 안식일들의 저 첫날에 해 질 녘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⁴³⁵⁾있었던 곳의 문들이 유다이오스들의 두려움 때문에 잠긴 채 있을 때, 예수스께서 오셨으며 가운데 안으로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평화가.” 20 그리고 그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 그들에게 손들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을 본 후 기뻐했다. 21 그러므로 예수스께서⁴³⁶⁾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신 채 있는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말씀하신 후 숨을 불어넣으셨으며⁴³⁷⁾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성령을 취

429) ‘그자신들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30) ‘마리암’으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31) ‘마리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32) ‘히브리어’

433) ‘랍부니’는 아람어 ‘라부니’의 헬라어 음역으로, 히브리어 ‘랍비’와 동일하게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을 의미한다.

434) ‘마리아’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35) ‘모인 채 있으면서’가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36) “예수스께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37) 이 ‘숨을 불어넣다’로 사용된 동사는 신약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등장하는데, 이 동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다고 할 때 사용된 동사와 동일한 것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연상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라. 23 너희가 어떤 이들의 죄들을 내버려둔다면 그것들은 그들에게 내버려두게 된 채 있다⁴³⁸), 너희가 어떤 이들의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들은 붙잡힌 채 있다.”

24 그런데 열둘 중의 한 명인 또마스는, 디뒤모스로⁴³⁹ 말해지고 있는, 예수스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주님을 본 채 있다.”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약 장차 그분의 손들 안에 있는 못들의 자국을 내가 보지 못할 것이면 그리고 나의 손가락을 그 못들의 자국 안으로 넣지 못할 것이면 그리고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안으로 넣지 못할 것이면,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26 그리고 팔 일들 후에 또다시 그분의 제자들이 안쪽에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또마스도 있었다. 문들이 잠긴 채 있을 때 예수스께서 오시며 가운데 안으로 서셨으며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다.” 27 다음에 그분이 또마스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너의 손가락을 여기에 가져오고 있어라 그리고 나의 손들을 보아라 그리고 너의 손을 가져오고 있어라 그리고 나의 옆구리 안으로 넣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이가 되지 말고 있고 오히려 믿는 이가 되고 있어라.” 28 또마스가 대답했으며 그분에게 말했다.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29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본 채 있기 때문에 믿은 채 있느냐? ⁴⁴⁰보지 못하나 믿는 이들은 복되다.

30 한편 그러므로 다른 많은 표적들도 예수스께서 그분의⁴⁴¹ 제자들 눈앞에서 행하셨다, 이 기록물 안에 기록된 채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을. 31 그런데 예수스께서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스⁴⁴²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있]도록⁴⁴³ 하기 위하여, 그리고 믿고 있으면서 너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갖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들이 기록된 채 있다.

21 이일들 후에 또다시 예수스께서⁴⁴⁴ 그자신을 제자들에게 티베리아스의 바다에서 나타내셨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타내셨다. 2 시몬⁴⁴⁵ 페트로스와 디뒤모스로⁴⁴⁶ 말해지고 있는 또마스와 갈릴라이아의⁴⁴⁷ 카나 출신인 나따나엘⁴⁴⁸과 제베다이오스

438) 현재형 ‘내버려두게 된다’ 또는 미래형 ‘내버려두게 될 것이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39) ‘2배, 쌍둥이’를 의미한다.

440) ‘나를’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41) “그분의”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42) 히브리어 ‘마쉬아흐’와 아람어 ‘메쉬하’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443)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진행형인 “믿고 있도록”과 단순서술형인 ‘믿도록’ 중에서 어떤 것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이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권고의 대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믿고 있도록’이라면 이미 믿는 이들을 향하여 계속 믿고 있을 것을 권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믿도록’이라면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제 믿을 것을 권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444) 히브리어 ‘예호슈아’와 ‘예슈아’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기존 한국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로 나온다.

445) 히브리어 ‘שמון’(들음)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446) ‘2배, 쌍둥이’를 의미한다.

447) 히브리어 ‘갈릴’의 헬라이어 번역이다.

의⁴⁴⁹) 이들⁴⁵⁰)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다른 두 명이 동일하게 있었다. 3 시몬 페트로스가 그들에게 말한다. “나는 물고기 잡고 있으려고 떠난다.” 그들이 그에게 말한다. “우리도 너와 함께 간다.” 그들이 나갔으며 배 안으로 탔다, 그러나 저 밤 안에서 아무 것도 붙들지 못했다. 4 그런데 이미 이른 아침이 된 후 예수스께서 해변 안으로⁴⁵¹) 서셨다. 그럼에도 그분이 예수스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5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아이들아, 어떤 먹을 만한 것을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⁴⁵²) 그들이 그분에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6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배의 오른쪽 부분들 안으로 그물을 던져라,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던졌다, 그리고 그들은 물고기들의 무리로부터 더 이상 그것을 끌어당길만한 능력이 없었다. 7 그러므로 예수스께서 사랑하시고 있었던 저 제자가 페트로스에게 말한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몬 페트로스가 들은 후 덧옷을 걸쳤다, 왜냐하면 그가 벌거벗은 이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다 안으로 그자신을 던졌다. 8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왔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았고 오히려 대략 이백 페퀴스⁴⁵³)쯤 있었기 때문이다, 물고기들의 그물을 끌어오고 있으면서. 9 그러므로 그들이 땅 안으로 나왔을 때 숯불이 놓여 있는 것과 생선과 빵이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본다. 10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지금 붙들었던 생선들로부터 가져와라.” 11 그러므로 시몬 페트로스가 올라왔으며 일백오십삼의 큰 물고기들의 가득한 그물을 땅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2 예수스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오라 식사하라.” 그런데 제자들 중의 아무도 그분을 감히 조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 13 예수스께서 오시며 빵을 취하시며 그들에게 주신다, 생선도 마찬가지로. 14 예수스께서 죽은 이들 밖으로 일어나신 후 이것으로 이미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었다.

15 그러므로 그들이 식사했을 때에 예수스께서 시몬 페트로스에게 말씀하신다. “요안네스의⁴⁵⁴) 시몬아, 너는 이이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가 그분에게 말한다.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어린양들을 기르고 있어라.” 16 그분이 그에게 또다시 두 번째 말씀하신다. “요안네스의⁴⁵⁵)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가 그분에게 말한

448) 히브리어 ‘네탄엘’의 헬라어 음역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다.

449) 히브리어 ‘제바드야’의 헬라어 음역이다.

450) ‘아들들’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51) ‘해변에’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52) ‘μη’(메)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부정적인 내용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다.

453)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히브리어 ‘암마’의 헬라어 번역이며, 기존 한국어 성경에서 ‘규빗’으로 번역되었다.

454) 히브리어 ‘요한난’과 ‘예호한난’의 헬라어 번역으로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다. ‘요나스’(히브리어 ‘요나’-비둘기-의 헬라어 음역)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455) 위 각주와 같다.

다.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양들을 돌보고 있어라.” 17 그분이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신다. “요안네스의⁴⁵⁶⁾ 시몬아, 너는 나를 좋아하고 있느냐?” 그분이 그에게 세 번째 “너는 나를 좋아하고 있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페트로스가 슬퍼졌다. 그리고 그가 그분에게 말한다.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예수스께서⁴⁵⁷⁾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양들을 기르고 있어라. 18 아멘 아멘⁴⁵⁸⁾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더 젊은이로 있었을 때에, 네가 네자신을 띠 띠우고 있었으며 네가 원하고 있었던 곳으로 너는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네가 늙을 때에는, 네가 너의 손들을 내밀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가 너를 띠 띠울 것이며 네가 원하지 않고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19 그런데 어떤 죽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그분이 밝히시고 있으면서 이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말씀하신 후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20 페트로스가 돌이킨 후 예수스께서 사랑하시고 있었던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본다, 저녁잔치 안에서 그분의 가슴 위에 기대었으며 말했던 이인. “주님, 당신을 넘겨주고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21 그러므로 페트로스가 이이를 본 후 예수스께 말한다. “주님, 그런데 이이는 어떠한습니까?” 22 예수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만약 장차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고 있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너를 향하여 무슨 일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고 있어라.” 23 그러므로 저 제자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이 형제들 안으로 나갔다. 그런데 예수스께서는 그가 죽지 않는다고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만약 장차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고 있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너를 향하여 무슨 일이냐?”⁴⁵⁹⁾라고 말씀하셨다.

24 이이가 이일들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며 이일들을 기록했던 그 제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안다.

25 그런데 예수스께서 행하셨던 다른 많은 일들도 있는데, 그 어떤 일들이라도 만약 장차 그것이 하나씩 기록되고 있을 것이라도, 기록되고 있는 그 기록물들을 세상 자체가 받아들일 것이라고⁴⁶⁰⁾ 나는 예측하지도 않는다.⁴⁶¹⁾

456) 위 각주와 같다.

457) “예수스께서”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58) ‘αμην αμην’(아멘 아멘)의 반복용법은 요한에 의하여 요한복음에서만(25회) 사용되었으며,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데, ‘가장 확실하게’라는 의미이다.

459) “너를 향하여 무슨 상관이나?”가 없는 사본들도 많다. 이 부분이 원본문에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460) ‘받어들인다’는 표현이 세상의 ‘수용 용량’에 관한 것인지, 또는 ‘수용 능력’에 관한 것인지는 독법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에 대한 다른 용례를 살펴보고,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고려하면 세상의 ‘수용 능력’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461) 이어서 ‘아멘’이 덧붙여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